

2022 위탁연구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자치구 지원체제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 연구진

책임연구원 : 이현(우리교육연구소)

하봉운(경기대학교)

연구원 : 강호수(경북대학교)

임광국(우리교육연구소)

보조연구원 : 김남식(우리교육연구소)

김선은(우리교육연구소)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연구비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견해를 밝힙니다.

**I 서론**

- |               |    |
|---------------|----|
| 1. 연구의 필요성    | 22 |
| 2. 연구목적       | 34 |
| 3.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35 |

**II 선행연구와 관련 정책분석**

- |  |    |
|--|----|
| 1. 방과후학교 선행연구 검토                       | 40 |
| 2. 늘봄학교 정책의 추진 배경과 의의                  | 49 |
| 3. 방과후학교 관련 선행연구 분석과 ‘늘봄학교’ 정책 분석의 시사점 | 53 |

**III 초등방과후학교 운영 현황과 시사점**

- |                      |    |
|----------------------|----|
| 1.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수와 운영률 | 58 |
| 2. 방과후학교 참여율         | 59 |
| 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64 |
| 4. 운영 유형 : 위탁 및 직영   | 75 |
| 5. 수강료               | 77 |
| 6. 강사 현황             | 78 |
| 7. 방과후학교 운영 공간(2022) | 78 |
| 8. 방과후학교 만족도         | 79 |
| 9.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지원 현황  | 85 |
| 10. 국공립과 사립 초등학교 비교  | 87 |
| 11. 방과후학교와 사교육 부담    | 89 |

## IV 초등방과후학교 운영 실태 분석

- |            |     |
|------------|-----|
| 1. 설문조사 개요 | 96  |
| 2. 분석결과    | 100 |

## V 인터뷰와 FGI

- |                                 |     |
|---------------------------------|-----|
| 1. 개요                           | 194 |
| 2. 서울시 초등학생 방과후학교 · 사교육 · 돌봄 실태 | 196 |
| 3. 서울시 초등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실태         | 202 |
| 4. 방과후학교 공적운영 사업단(가칭) 관련        | 218 |
| 5. 소결                           | 223 |

## VI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제공방식과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사례

- |                               |     |
|-------------------------------|-----|
| 1. 지자체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 및 운영방식    | 228 |
| 2. 지자체에 의한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사례 | 239 |

## VII 결론 및 제언 : 서울시교육청-지자체 공동 ‘방과후학교 재단’ 설립을 통한 질 높은 방과후학교 실현

- |                                    |     |
|------------------------------------|-----|
| 1. ‘학교 외부’의 ‘공적’인 방과후학교 사업단의 필요성   | 250 |
| 2. 교육청-지자체 컨소시엄을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주체 설립 | 253 |
| 3. 서울시교육청-지자체 공동 설립 ‘방과후학교 재단’     | 256 |
| 4. 방과후학교 재단과 관련된 몇 가지 과제           | 262 |

## 표 목차

- 〈표 I-1〉 초등학교 설립유형별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 변화 비교 / 28
- 〈표 I-2〉 초등학교 설립유형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평균 갯수 변화 비교 / 29
- 〈표 I-3〉 초등학교 설립유형별 방과후학교 특기 프로그램 평균 갯수 변화 비교 / 29
- 〈표 I-4〉 초등학교 설립유형별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 평균 갯수 변화 비교 / 29
- 〈표 I-5〉 방과후학교 운영 공간 현황 / 33
- 
- 〈표 II-1〉 김수동(2007)에서 제시한 방과후학교의 문제점 / 44
- 〈표 II-2〉 방과후학교 선행연구 분석 요약 / 48
- 
- 〈표 III-1〉 전국 연도별 초등방과후학교 운영 학교 수와 운영률 / 58
- 〈표 III-2〉 서울 연도별 초등방과후학교 운영 학교 수와 운영률 / 59
- 〈표 III-3〉 전국 연도별 초등방과후학교 참여율 / 59
- 〈표 III-4〉 서울 연도별 초등방과후학교 참여율 / 60
- 〈표 III-5〉 서울시 학년별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수와 참여율(2022) / 61
- 〈표 III-6〉 서울시 지원청별 방과후학교 참여율(2022) / 62
- 〈표 III-7〉 서울시 지원청별 방과후학교 참여비율 분포(학교 수) / 63
- 〈표 III-8〉 전국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프로그램 수 및 평균 교과 프로그램 수 / 66
- 〈표 III-9〉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프로그램 수 및 평균 교과 프로그램 수 / 67
- 〈표 III-10〉 전국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프로그램 수 및 평균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 / 69
- 〈표 III-11〉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프로그램 수 및 평균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 / 70
- 〈표 III-12〉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 강좌수 및 참여학생수(2022) / 73
- 〈표 III-13〉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좌수 및 참여학생수(2022) / 74
- 〈표 III-14〉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위탁과 직영 프로그램 강좌수(2019) / 76
- 〈표 III-15〉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위탁과 직영 프로그램 강좌수(2022) / 76
- 〈표 III-16〉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위탁과 직영 운영 학교수(2022) / 76
- 〈표 III-17〉 전국 및 서울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비용 / 77
- 〈표 III-18〉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 및 수강료 현황 / 77
- 〈표 III-19〉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강좌 특성별 운영 인력 현황(2022) / 78
- 〈표 III-20〉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교실 운영 공간 현황 / 79
- 〈표 III-21〉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및 연간 운영 만족도 설문지(학생) / 80
- 〈표 III-22〉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및 연간 운영 만족도 설문지(학부모) / 81
- 〈표 III-23〉 만족도 평가 학생 참여율 / 82
- 〈표 III-24〉 만족도 평가 학부모 참여율 / 83
- 〈표 III-25〉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변(2011-2019) / 83
- 〈표 III-26〉 서울시 방과후학교 학년별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 결과(2022년) / 84
- 〈표 III-27〉 서울시 방과후학교 교육지원청별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 결과 / 84

- 〈표 Ⅲ-28〉 방과후학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2023년 기준) / 85
- 〈표 Ⅲ-29〉 전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부액, 지원학생수, 지원비율 1인당 지원금 추이(2011-2019) / 86
- 〈표 Ⅲ-30〉 서울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예산, 지원 학생수와 비율 1인당 지원금액(2019-2022) / 86
- 〈표 Ⅲ-31〉 국공립과 사립 초등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추이 / 87
- 〈표 Ⅲ-32〉 국공립과 사립 초등방과후학교 평균 프로그램 수 변화 추이 / 88
- 〈표 Ⅲ-33〉 국공립과 사립 초등방과후학교 평균 특기 프로그램 수 변화 추이 / 88
- 〈표 Ⅲ-34〉 국공립과 사립 초등방과후학교 평균 교과 프로그램 수 변화 추이 / 89
  
- 〈표 Ⅳ-1〉 설문문항 구성표 / 96
- 〈표 Ⅳ-2〉 설문 응답자 수(N=7,909) / 100
- 〈표 Ⅳ-3〉 응답자 배경 변인(일반교사, 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 교감/교장) (N=2,537) / 101
- 〈표 Ⅳ-4〉 응답자 배경 변인(방과후학교 강사) (N=2,077) / 101
- 〈표 Ⅳ-5〉 응답자 배경 변인(보호자) (N=3,295)구분 / 102
- 〈표 Ⅳ-6〉 응답자 기관 특성(N=5,832) / 103
- 〈표 Ⅳ-7〉 방과후학교 일주일 당 참여 일수 / 105
- 〈표 Ⅳ-8〉 배경변인에 따른 방과후학교 일주일 당 참여 일수 비교 / 105
- 〈표 Ⅳ-9〉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 상황과 참여 과목 수 / 106
- 〈표 Ⅳ-10〉 배경 변인에 따른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 과목 수 비교 / 106
- 〈표 Ⅳ-11〉 방과후학교 참여 과목 / 107
- 〈표 Ⅳ-12〉 방과후학교 종료시간 / 108
- 〈표 Ⅳ-13〉 배경변인에 따른 방과후학교 종료시간 비교 / 108
- 〈표 Ⅳ-14〉 방과후학교 희망 종료시간 / 109
- 〈표 Ⅳ-15〉 배경변인에 따른 방과후학교 희망 종료시간 비교 / 109
- 〈표 Ⅳ-1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출 비용 / 110
- 〈표 Ⅳ-17〉 배경변인에 따른 방과후학교 지출 비용 / 111
- 〈표 Ⅳ-18〉 질적 개선을 전제로 한 방과후학교 강좌당 비용 부담 의향 / 112
- 〈표 Ⅳ-19〉 배경 변인에 따른 방과후학교 강좌당 비용 부담 의향 / 113
- 〈표 Ⅳ-20〉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중복 응답) / 114
- 〈표 Ⅳ-21〉 배경변인 별 방과후학교 미참여비율 / 114
- 〈표 Ⅳ-22〉 교과 관련 강좌 개설 동의 여부 / 115
- 〈표 Ⅳ-23〉 배경변인에 따른 교과 관련 강좌 개설 동의 정도 / 115
- 〈표 Ⅳ-24〉 주말 개설 방과후학교 참여 의향 / 116
- 〈표 Ⅳ-25〉 주말 개설 방과후학교 참여 의향 집단별 비교 / 117
- 〈표 Ⅳ-26〉 사교육 참여 여부 / 118
- 〈표 Ⅳ-27〉 배경변인 별 사교육 참여 여부<sup>2)</sup> / 118
- 〈표 Ⅳ-28〉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 목적 (중복응답) / 119
- 〈표 Ⅳ-29〉 배경변인 별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 목적 (중복응답) / 121

〈표 IV-30〉 일반교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과목의 종류(중복응답) / 122
〈표 IV-31〉 배경변인별 일반교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과목 종류(중복응답) / 122
〈표 IV-32〉 일반교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과목 수 / 123
〈표 IV-33〉 배경변인 별 일반교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과목 수 / 123
〈표 IV-34〉 일반교과 일주일 당 사교육 참여 일 수 / 124
〈표 IV-35〉 배경변인별 일반교과 일주일 당 사교육 참여 일 수 / 125
〈표 IV-36〉 일반교과 한 달 사교육 비용 / 126
〈표 IV-37〉 배경변인 별 일반교과 한 달 사교육 비용 / 126
〈표 IV-38〉 일반교과 사교육 종료 시각 / 127
〈표 IV-39〉 배경변인 별 일반교과 사교육 종료 시각 / 128
〈표 IV-40〉 자녀 돌봄 부담 정도 / 129
〈표 IV-41〉 배경변인 별 자녀 돌봄 부담 정도 / 129
〈표 IV-42〉 평일 중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간(중복응답) / 130
〈표 IV-43〉 배경변인 별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간(중복응답) / 131
〈표 IV-44〉 하교 이후 자녀 돌봄 방법(중복응답) / 132
〈표 IV-45〉 학년 배경변인에 따른 하교 이후 자녀 돌봄 방법(중복응답) / 134
〈표 IV-46〉 초등돌봄교실 이용 여부(연구 설문조사) / 134
〈표 IV-47〉 배경변인 별 초등돌봄교실 이용 여부(연구 설문조사) / 135
〈표 IV-48〉 초등돌봄교실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중복응답) / 136
〈표 IV-49〉 배경변인에 따른 하교 이후 자녀 돌봄 방법(중복응답) / 136
〈표 IV-50〉 초등돌봄교실 이용시간 / 137
〈표 IV-51〉 배경변인 별 초등돌봄교실 이용시간 / 138
〈표 IV-52〉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 139
〈표 IV-53〉 배경변인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 140
〈표 IV-54〉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141
〈표 IV-55〉 배경변인 별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142
〈표 IV-56〉 새로운 초등돌봄교실이 이용 의향 / 143
〈표 IV-57〉 학년에 따른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향 / 144
〈표 IV-58〉 경제활동참여자에 따른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향 / 144
〈표 IV-59〉 월평균소득에 따른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향 / 145
〈표 IV-60〉 학생과의 관계에 따른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향 / 145
〈표 IV-61〉 설립유형에 따른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향 / 145
〈표 IV-62〉 새로운 돌봄교실 참여할 때 비용부담 의향 / 146
〈표 IV-63〉 배경변인 별 새로운 돌봄교실 참여할 때 비용부담 의향 / 146
〈표 IV-64〉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비용부담 가능 금액 / 147
〈표 IV-65〉 배경변인 별 새로운 초등 돌봄교실 비용 부담 가능 금액 / 148
〈표 IV-6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취지별 동의 정도(5점 척도) / 149



- 〈표 IV-67〉 응답집단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취지 동의 정도(5점 척도) / 150
- 〈표 IV-68〉 학교 설립 유형에 따른 방과후학교 취지별 동의 정도(5점 척도) / 150
- 〈표 IV-69〉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선정시 고려사항(5점 척도) / 151
- 〈표 IV-70〉 학교설립 유형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선정시 고려사항(5점 척도) / 151
- 〈표 IV-71〉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여부 / 152
- 〈표 IV-72〉 배경변인별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여부(5점 척도) / 152
- 〈표 IV-73〉 방과후학교 강좌의 질적 우수 정도 / 153
- 〈표 IV-74〉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방과후학교 강좌의 질적 우수 정도 인식(5점 척도) / 153
- 〈표 IV-75〉 방과후학교 강좌의 질적 우수 정도(5점 척도) / 153
- 〈표 IV-76〉 응답자에 따른 방과후학교 운영 평가 차이(5점 척도) / 154
- 〈표 IV-77〉 강사의 수업역량 우수 여부 / 155
- 〈표 IV-78〉 응답자에 따른 강사의 수업역량 우수 여부 인식 차이(5점 척도) / 155
- 〈표 IV-79〉 질 높은 강사 채용 조건(5점 척도) / 156
- 〈표 IV-80〉 배경변인별 질 높은 강사 채용 조건(5점 척도) / 156
- 〈표 IV-81〉 방과후학교 운영 방식(계약 방식) / 157
- 〈표 IV-82〉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계약 방식 차이 / 157
- 〈표 IV-83〉 방과후학교 직영 운영 이유 / 158
- 〈표 IV-84〉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직영이유 인식 차이 / 158
- 〈표 IV-85〉 최저가격이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는 것에 대한 인식 / 159
- 〈표 IV-86〉 응답자에 따른 최저가격이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는 것에 대한 인식 차이(5점 척도) / 159
- 〈표 IV-87〉 수강료 수준 인식 / 160
- 〈표 IV-88〉 응답자에 따른 수강료 수준 인식 차이(5점 척도) / 160
- 〈표 IV-89〉 수강료 인상 필요성 의견에 대한 인식 / 161
- 〈표 IV-90〉 응답자에 따른 수강료 인상에 대한 인식 차이(5점 척도) / 161
- 〈표 IV-91〉 방과후학교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는 학년별 학생 비율 / 162
- 〈표 IV-92〉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만족도 평가시 학생 참여에 대한 인식 차이 / 162
- 〈표 IV-93〉 방과후학교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는 학년별 학부모 비율 / 163
- 〈표 IV-94〉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만족도 평가시 학부모 참여에 대한 인식 차이 / 164
- 〈표 IV-95〉 학생, 학부모 만족도 평가 참여율이 낮은 이유 / 164
- 〈표 IV-96〉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만족도 평가시 학부모 참여에 대한 인식 차이 / 165
- 〈표 IV-97〉 만족도 조사결과의 "실제 방과후학교 평가" 반영 여부 / 165
- 〈표 IV-98〉 설립유형별에 따른 만족도 조사결과의 "실제 방과후학교 평가" 반영 여부에 대한 인식 차이(5점 척도) / 165
- 〈표 IV-99〉 강사 만족도가 낮은 경우 피드백 직접 반영 여부 / 166
- 〈표 IV-100〉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는 방법 / 166
- 〈표 IV-101〉 방과후학교 이해관계자의 중요도 / 167
- 〈표 IV-102〉 응답자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중요도 인식 차이(5점 척도) / 168
- 〈표 IV-103〉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시 이해 관계자의 중요도 인식 차이(5점 척도) / 168

〈표 IV-104〉방과후학교 업무 부담에 대한 인식 / 169
〈표 IV-105〉학교설립유형에 따른 업무부담 인식 차이(5점 척도) / 169
〈표 IV-106〉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대한 교감/교장과 부장교사의 자기평가 / 170
〈표 IV-107〉학교설립유형에 따른 방과후학교의 운영 관련 자기 관심과 노력의 정도 인식 차이(5점 척도) / 170
〈표 IV-108〉방과후학교 부장교사들의 업무 수당에 대한 인식 / 171
〈표 IV-109〉학교 설립 유형에 따른 방과후학교 부장교사들의 업무 수당에 대한 인식 비교 / 171
〈표 IV-110〉교감/교장의 방과후학교 예산 지원에 대한 인식 / 171
〈표 IV-111〉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교감/교장의 방과후학교 예산 지원에 대한 인식 / 172
〈표 IV-112〉방과후학교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5점 척도) / 172
〈표 IV-113〉응답자 특성에 따른 방과후학교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5점 척도) / 173
〈표 IV-114〉학교설립유형에 따른 방과후학교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5점 척도) / 173
〈표 IV-115〉응답자별 현재 방과후학교 교육 공간 충분성 인식(5점 척도) / 174
〈표 IV-116〉방과후학교에 일반교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 175
〈표 IV-117〉연구실과 휴게실 제공 조건에서 일반교실 활용에 대한 의견 / 175
〈표 IV-118〉연구실과 휴게실 제공 및 교육청의 시설과 안전책임 조건에서 일반교실 활용에 대한 의견 / 176
〈표 IV-119〉학교설립유형에 따른 교육 공간 인식 차이 / 177
〈표 IV-120〉지역 연계 방과후학교 운영의 실효성 / 178
〈표 IV-121〉응답자에 따른 지역 연계 방과후학교 운영의 실효성 인식 차이(5점 척도) / 178
〈표 IV-122〉공적인 방과후 사업단을 통해 운영할 때 기대되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전체)(5점 척도) / 179
〈표 IV-123〉공적인 방과후사업단을 통해 운영할 때 기대되는 항목에 대한 교사집단의 동의 정도(5점 척도) / 180
〈표 IV-124〉공적인 방과후사업단을 통해 운영할 때 기대되는 항목에 대한 교사집단내 동의 정도의 차이(5점 척도) / 180
〈표 IV-125〉공적인 방과후사업단을 통해 운영할 때 기대되는 항목에 대한 방과후학교 강사의 동의 정도(5점 척도) / 180
〈표 IV-126〉공적인 방과후사업단을 통해 운영할 때 기대되는 항목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 정도(5점 척도) / 181
〈표 IV-127〉시설과 안전을 전제로 한 방과후사업단 운영에 대한 의견 / 182
〈표 IV-128〉응답자 집단별 시설과 안전을 전제로 한 방과후사업단 운영에 대한 의견 / 182
〈표 IV-129〉방과후학교 강사 성별 비교 / 183
〈표 IV-130〉서울시 초등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력 / 183
〈표 IV-131〉서울시 초등방과후학교 강사의 국적과 정규수업 참여 여부 / 184
〈표 IV-132〉서울시 초등 방과후학교 강사의 타 직업 유무 / 184
〈표 IV-133〉수업하는 강좌 종류 / 184
〈표 IV-134〉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된 방식 / 185
〈표 IV-135〉선호하는 강사 채용 방식 / 185
〈표 IV-136〉선호하는 강사 채용 방식 이유(중복응답) / 186
〈표 IV-137〉1일 수업 강좌 수 / 186
〈표 IV-138〉수업당 강의시간 / 187
〈표 IV-139〉강좌별 주당 수업 횟수 / 187
〈표 IV-140〉1주일에 출강하는 날짜 / 188

- 〈표 IV-141〉 1일 희망 수업시간 / 188
- 〈표 IV-142〉 1주일에 희망 출강하는 날짜 / 189
- 〈표 IV-143〉 현재 주말 수업 여부 / 189
- 〈표 IV-144〉 주말 방과후학교 참여 의향 / 190
- 〈표 IV-145〉 방과후학교 강사의 수업관련 실태와 희망 비교 / 190
- 〈표 IV-146〉 분기별 강좌당 학생 1인당 수강 실태와 요구 / 191
- 〈표 IV-147〉 1강좌당 월평균 수입 실태와 희망 / 191
- 〈표 IV-148〉 월평균 수입총액 실태와 요구 / 191
- 
- 〈표 V-1〉 인터뷰와 FGI 참여자 정보와 진행방식 개요 / 194
- 〈표 V-2〉 인터뷰와 FGI 내용 주제 및 소주제 개요 / 195
- 
- 〈표 VI-1〉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 / 230
- 〈표 VI-2〉 전국 지방직영기업 현황(2023년 5월 1일 기준) / 231
- 〈표 VI-3〉 전국 지방공사 현황(2023년 5월 1일 기준) / 234
- 〈표 VI-4〉 전국 지방공단 현황(2023년 5월 1일 기준) / 234
- 〈표 VI-5〉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2023년 3월 31일 기준) / 237
- 〈표 VI-6〉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현황(2023년 3월 기준) / 237
- 〈표 VI-7〉 도봉형 방과후학교 예산편성 내역 / 240
- 〈표 VI-8〉 도봉형 초등방과후 지원센터(모두 잇)의 사업 내역 / 241
- 〈표 VI-9〉 중구형 초등돌봄센터 운영 현황 / 243

## 그림 목차

- [그림 I-1]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유형별 학교당 평균 개수 / 23
- [그림 I-2] 초등 설립유형별 방과후학교 특기 적성 프로그램 비교 / 23
- [그림 I-3] 전국 방과후학교참여율 변화(2007-2022년) / 24
- [그림 I-4] 초등 방과후학교무상 참여율 추이(2007-2022) / 25
  
- [그림 III-1] 서울시 학년별 방과후학교 참여율(2022) / 61
- [그림 III-2] 서울시 지원청별 방과후학교 참여율(%) (2022) / 62
- [그림 III-3] 전국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프로그램 수 / 64
- [그림 III-4]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프로그램 수 / 65
- [그림 III-5] 전국과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프로그램 수(2019) / 65
- [그림 III-6] 전국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교과 프로그램 수 / 66
- [그림 III-7]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교과 프로그램 수 / 67
- [그림 III-8] 전국과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교과 프로그램 수(2019) / 68
- [그림 III-9] 전국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 / 69
- [그림 III-10]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 / 70
- [그림 III-11] 전국과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2019) / 71
- [그림 III-12] 전국 초등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유형 비율 변화 추이 / 71
- [그림 III-13]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유형 비율 변화 추이 / 72
- [그림 III-14] 전국과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유형 비율(2019) / 73
- [그림 III-15] 전국 초등방과후학교 위탁과 직영 프로그램 비율 추이 / 75
- [그림 III-16] 초등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1인당 실질 사교육비 변화(2007-2019) / 90
- [그림 III-17]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사교육 참여율의 변화 추이(2007-2019) / 91
- [그림 III-18]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변화 추이(2007-2019) / 92
  
- [그림 V-1] 방과후학교 공적사업단(가칭) 업무 및 역할 모형화 / 225
  
- [그림 VII-1] 방과후학교재단 조직 구성의 예 / 261



## 연구요약문

### I. 서론

본 연구는 초등방과후학교 정책의 취지와 목표를 살리기 위해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지자체 협력의 구현가능한 정책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초등방과후학교는 크게 ▲ 특기적성 교육을 통한 학생의 적성과 소질 개발, ▲ 교육격차 완화, ▲ 사교육비 경감, ▲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두고 운영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초등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감소추세에 있으며, 서울의 경우에도 활성화되기보다 정책 추진이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 참여율과 만족도를 제고하여 취지의 실질적인 실현, ▲ 수준 높은 강사 영입과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단독으로 책임지는 현재 운영상황 재구조화, ▲ 실효성 있는 돌봄 효과 실현 등을 목표로 하는 초등방과후학교의 정책모델을 제시한다.

### II. 선행연구 분석과 정책 분석

초등방과후학교가 2000년대 중반부터 시행된만큼 방과후학교에 대한 선행연구는 꾸준히 수행되었으며, 정책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의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확인한 선행연구들은 방과후학교 정책의 확장 동력이 정부 기조 변화 뿐 아니라 근거 법령 미비로 상실되었다고 보거나, 프로그램의 질적 고도화에 실패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에서는 초등방과후학교의 학교-지자체 역할분담, 돌봄역할 강화, 통합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각종 지원정책의 체계화와 일원화, 전담 전문조직 신설, 코로나19 이후 공교육 정상화의 일환으로 방과후학교 정상화 및 내실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늘봄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결합한 모델로 추진하고자 함을 확인하였으나, 여전히 정책의 고도화나 실질적인 방과후학교와 돌봄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책 자체의 문제이기보다 이러한 정규교육 이후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조직과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파악하였다.

### Ⅲ.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현황 분석

서울시의 초등방과후학교의 문제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제공한 자료와 기존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 초등방과후학교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항목은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실시 운영률, 방과후학교 개설 강좌 수 변화, 교과·특기적성 프로그램 비율 비교, 운영 유형 현황, 수강료, 강사현황, 운영공간 현황,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현황과 평가방식, 저소득층 지원 현황을 주로 하였으며, 설립유형에 따라 국공립과 시립 초등학교의 현황을 비교하였다. 또, 인접한 영역인 방과후학교와 사교육 부담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방과후학교의 취지가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 Ⅳ. 초등방과후학교 운영 실태 분석

현황 파악 이후, 현재 초등 방과후학교에 대한 관련 이해자들의 인식과 본 연구가 제시한 공적사업단(가)에 대한 의견을 수합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공통질문과 응답자 집단별 개별질문을 포함하여 총 96개 항목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반교사, 방과후학교 담당 부장교사, 교감/교장, 방과후학교 강사, 보호자 등 7,909명이 참여하였다.

먼저, 서울시 초등학생의 사교육 실태를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의 93.7%가 사교육을(일반교과 69%, 예체능 사교육 80.4%) 받고 있었으며, 평균 2.4개 과목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교육을 보내는 이유로는 학교수업 보충, 선행학습, 돌봄해결 등 순이었다. 돌봄과 관련해서는 자녀 돌봄의 부담이 크다는 보호자가 45.1% 정도로 나타났으며, 오전 돌봄은 19.6%, 오후 6시 이후 돌봄은 22.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돌봄교실 개선 사항으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 프로그램 개발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봄교실이 양적, 질적으로 개선된다는 가정하여 돌봄교실에 참여할 의향이 59.4%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익자 부담 가능 금액은 약 9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실태의 경우, 응답자 학생은 방과후학교를 일주일에 평균 2.5일, 평균 3시 38분 종료, 1분기당 평균 15.8만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학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방과후학교보다 학원에 가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22.6%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를 개선하기 위한 조건을 교사와 강사 집단을 중심으로 확인했을 때는 충분한 시설과 공간, 적정 수준의 강사료, 강사에 대한 존중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방과후학교 프로

그램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최저가격이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찬성하지 않음이 51.9%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수강료와 관련해서는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수강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보호자에서 62%로 나타나, 질적 수준 보장이 중요한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방과후학교 담당 부장의 업무 인식은 거의 대부분의 담당 부장교사가 업무가 부담이 되고, 업무 수당이 낮은 편이라고 대답하여, 이 업무고충의 부분이 해소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방과후학교 교육공간의 경우, 일반교실을 활용하는데 연구실 및 휴게실 지원, 교육청의 안전책임 등의 조건에도 교사집단의 동의비율은 낮아 공간활용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이었다.

본 연구가 제시한 공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사업단(가)에 대한 기대와 의견은 대체적으로 찬성의 의견으로 나타나나, 강사 집단에서의 우려와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단 추진의 찬성에 대해서는 전체 63.3%의 찬성 비율이 나왔으며, 교사집단의 경우 82.7%의 찬성률이 나타났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강사 집단에서는 42.7%만 찬성하였으며 학부모 찬성 비율도 61.4%로 나타나, 향후 추진시에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활용하여 정책의 수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V. 인터뷰와 FGI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더 심층적인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련 이해집단을 대상으로 FGI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총 17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설문조사 대상 외에 코디네이터와 업체대표를 섭외하여 방과후학교 실태와 공적사업단에 대한 인식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방과후학교 참여와 사교육, 주지교과 교육, 돌봄과 관련해서는 설문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참여결정과 만족도는 자체 프로그램의 질도 중요하지만 사교육 참여에 대한 의지, 주지교과 교육의 절박성, 돌봄 필요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방과후학교 업무와 관련해서는 해당 업무가 교사들의 기피업무이며 동시에 노동 강도와 양보다 턱없이 모자르는 수당 등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교사들의 사기가 매우 낮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덜 확인되었던 방과후학교 업무과정에서는 코디네이터 활용의 중요성과 현재 문제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행정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코디-학교-업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코디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자체가 안되는 현황을 확인하였다.

방과후학교 운영공간 확보의 경우에도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교사집단의 우려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함을 교장을 중심으로 역설하고 있었다. 교육 공간 확보와 지역연계의 일환으로 외부시설 활용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나, 이동 간 안전 확보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공적 사업단(가) 관련해서는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집단 입장 차를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 집단에서는 업무 분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새로운 일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함께 공존하였다. 업체대표는 사업단이 업체의 운영 자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고, 방과후학교 업무는 단순한 행정 업무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행정과 영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움을 강조하였다. 강사 집단의 경우 공적 사업단이 강사의 처우나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강사 집단의 전향적인 태도가 드러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공적 사업단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전에 노무, 계약,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 정비되지 않고 수행되었을 때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교육지원청별 뿐 아니라 더 세부적인 지역별 센터가 설립되어야 실효성 있는 업무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교육지원청이나 사업단 자체에서도 인력확충이 중요한 성공요인이 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사업단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뚜렷하진 않았지만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관리가 우선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였다.

## Ⅶ.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제공방식과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 및 운영 방식은 민간 위탁을 제외하면 지자체 직영 운영 방식, 지방공기업 방식,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을 통한 방식이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도 위 방식을 활용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지자체 직영 운영 방식으로는 도봉형 초등 방과후학교 지원센터가 있다. 이는 학교는 정규교육과정과 학생생활 지도에 전념하도록 하며 도봉구와 지역사회가 방과후학교를 책임

지는 방식으로 공교육 지원 방식을 창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 업체 위탁에서의 부작용을 줄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자체 운영의 행정적 비용과 전문성·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다.

지방공기업형 운영 사례로는 방과후학교는 아니나 서울시 중구형 초등돌봄센터가 있다. 중구형 사례는 크게 학교내에서 진행되는 학교돌봄터와 학교 밖의 초등돌봄센터로 나뉜다. 학교돌봄터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 교육청,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면서 비용하는 모델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돌봄의 양적·질적 확대를 이루었으나, 마찬가지로 높은 비용 부담의 문제와 함께 학교안 돌봄 공간 운영에서는 여전히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사례로는 서울 노원구의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노원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노원 구립 아이휴센터가 있다. 이 센터를 통해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 Ⅶ. 결론 및 제언 : 서울시교육청 - 지자체 공동 ‘방과후학교 재단’ 설립을 통한 질 높은 방과후학교 실현

연구 분석 결과, 질높은 방과후학교 실현을 위한 과제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 다양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수준 높은 방과후학교 강사의 영입과 관리, ▲ 출결확인, 하교지도 등 체계적인 학생 관리, ▲ 오후 7시나 주말 및 방학 중 운영되는 확장된 방과후학교 운영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가 책임을 지는 방과후학교 운영체계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질 높은 방과후학교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 외부’의 ‘공적’인 방과후학교를 전담하는 방과후학교 사업단이 필요하다.

방과후학교 사업단이 ‘학교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단위학교와 분리된 방과후학교 운영 및 학교 정규 수업시간을 넘어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시간의 연장이 가능하고,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단 자체가 ‘공적 기관’일 때 방과후학교 자체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강화할 수 있으며,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공적 사업단이란 교육청-지자체가 공동출자하는 컨소시엄 방식의 사업단이다. 이 모델은 학교 정규과정과 방과후학교 운영의 완전한 분리와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며, 공적인 인사체계를 활용하여 채용구조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동출자를 통해 방과후학교 운영예산 부담을 서로 경감하며, 향후 돌봄과의 통합적 운영에도 장기적인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적 사업단의 구체적인 법적 지위는 재단법인이다. 이는 지자체 직영방식이 갖는 운영지출의 부담과 지방공기업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영역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육청-지자체 공동출연, 보조금 교부, 공공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교육청과 지자체 부담 완화와 사업 지속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 수요를 감당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문적인 운영 주체가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인 정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방과후학교 재단의 조직은 크게 경영지원팀, 강사관리팀, 프로그램 연구개발, 학교관리팀으로 이루어지며, 단위학교마다 센터를 두어 현재 코디 역할을 하는 인력을 공식화 및 체계화하고자 한다. 이 재단의 목표는 수익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방과후학교의 실현에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청-지자체 공동으로 설립된 방과후학교 재단의 경영 목표는 ▲ 높은 참여율, 더 많은 참여 과목, 높은 만족도 실현, ▲ 교육격차의 완화, ▲ 사교육 부담 완화, ▲ 돌봄 부담 완화 등이 되어야 한다.

단, 방과후학교 재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존재한다. 먼저, 방과후학교 강사의 우려와 거부감을 해소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수수료 최소화, 방과후학교 수강료의 현실화, 방과후학교 강좌 수의 양적 확대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일반교실 활용에 대한 공립 초등교사들의 거부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방과후학교의 양적 확대에서는 불가피하게 활용공간의 부족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교사집단의 편익을 보호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끝으로 법률적인 보완 과제가 존재한다. 현행법 내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방식이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영역을 방과후학교로 명확히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 공동출자의 경우 지정 및 고시의 주체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안전법과 관련하여 정규교육과정 이후 학교장의 안전 책임 문제의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공적 사업단 위탁협약을 통해 이양할 필요가 있다.

---

# I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가 방과후학교의 정책목표

방과후학교 정책의 목표는 시기별로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지만, 크게 보면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다양한 특기 적성교육을 통한 학생의 적성과 소질 개발, 둘째, 교육격차 완화, 셋째, 사교육비 경감, 넷째, 돌봄서비스 제공 등이 그것이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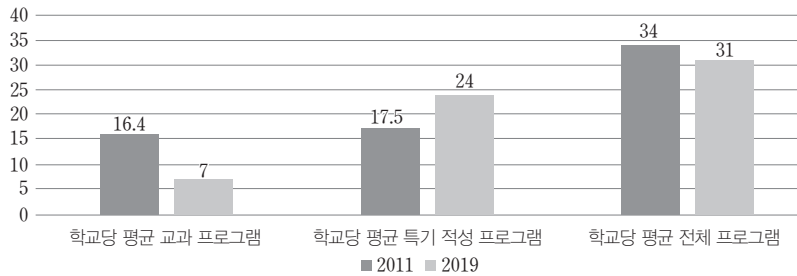
#### 1) 특기적성 교육을 통한 학생의 적성과 소질 개발

다양한 특기 적성교육을 통한 학생의 적성과 소질 개발의 경우, 그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는 존재하지 않지만, 방과후학교가 얼마나 다양한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방과후학교의 참여율과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통해 그 성과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기 적성 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설되고, 참여율이 높고 만족도도 높다면 특기 적성교육을 통한 학생이 적성과 소질 개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초등 방과후학교의 전체 프로그램 수는 2011년 학교당 평균 34개에서 2014년 42개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바뀌어 2019년에는 31개로 2011년보다 오히려 적어졌다. 한편, 특기 적성 관련 프로그램 수만 보면 2011년에는 17.5개에서 2019년에는 24개로 증가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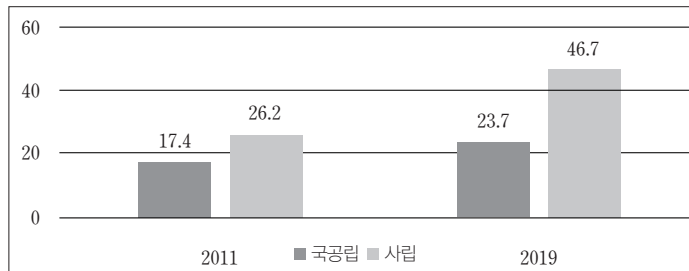
1)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2022

2) 이희현 외(2021),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p.40,



[그림 I -1]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유형별 학교당 평균 갯수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축소되었지만, 특기 적성 프로그램만 보면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커진 셈이다. 한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큰데, 국공립의 경우 특기 적성 프로그램은 2019년 23.7개인데 비해 사립은 46.7개로 약 2배나 차이가 난다.<sup>3)</sup> 전국의 초등학교 중에서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98.8%임을 고려하면, 방과후학교를 통한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특기 적성 프로그램은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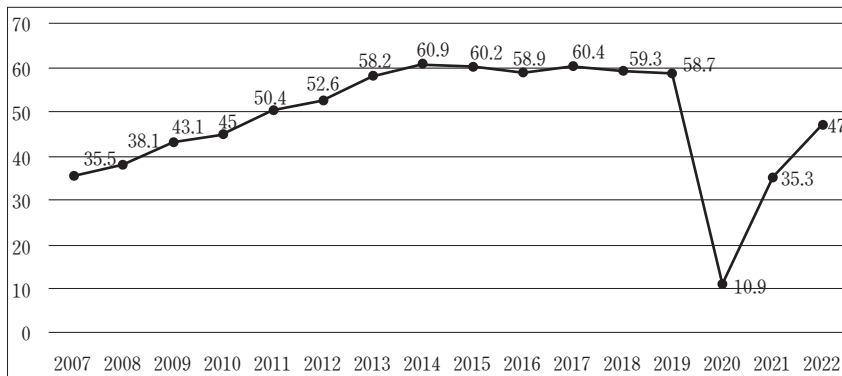


[그림 I -2] 초등 설립유형별 방과후학교 특기 적성 프로그램 비교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07년 이후 2014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60.9%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가 지속되어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는 58.7%를 기록했다.<sup>4)</sup>

3) 이희현 외, 앞의 보고서 p.65

4) 「초중고사교육비조사」, 2007~2021 통계청, 서울의 경우 보충



[그림 I - 3] 전국 방과후학교참여율 변화 (2007-2022년)

한편 방과후학교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초등의 경우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서 4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sup>5)</sup>

일반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으면 수요가 더 많이 생겨나게 되고, 따라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참여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고된 자료에만 근거해 보면, 방과후학교의 만족도는 높지만 참여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 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방과후학교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비율은 참가자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sup>6)</sup> 따라서 지금까지 보고된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실제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 2) 교육격차 완화

교육격차 완화는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교과 학업성취와 관련된 학력격차의 완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사교육을 통한 특기 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학생들에게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해당 교육에 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기회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5) 이희현 외, 방과후학교 참여율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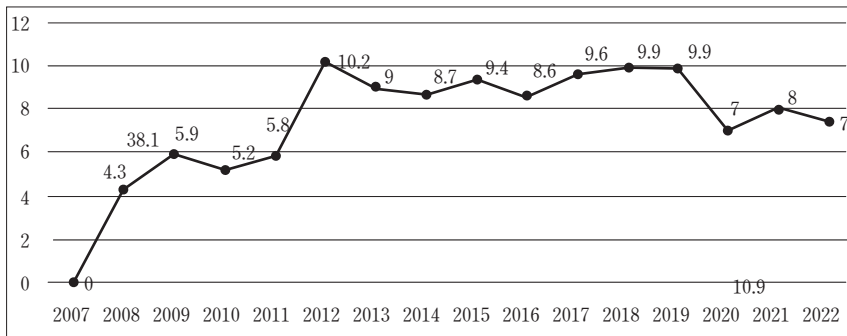
6) 서울시 교육청 자료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관련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특히 국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 관련 프로그램의 비중은 더 낮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학력격차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sup>7)</sup> 하지만 특기 적성교육의 경우 무상 또는 저부담 비용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격차 완화에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기 적성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격차 완화를 생각할 때 중요한 지표는 무상 참여 학생의 수와 비율,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규모, ‘질 높은 특기 적성교육’의 실현 등이 될 것이다.<sup>8)</sup>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무상으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은 2008년 4.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2년에 10.2%까지 높아졌고,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는 9.9%였다.<sup>9)</sup>



[그림 I - 4] 초등 방과후학교무상 참여율 추이(2007~2022) (단위 : %)

하지만 2021년 상대적 빈곤 비율이 15.1%<sup>10)</sup>라는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특기 적성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의 의의는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7) 사립은 교과관련 프로그램도 풍부하게 개설되고 있는데 이는 뒤에서 다룬다.

8) 무상이나 저비용으로 특기 적성교육을 제공하더라도 그 교육의 질이 낮다면 사실상 방과후학교를 통한 교육격차 완화 효과는 높지 않을 것이다.

9) 하지만 2020년에는 7.0%, 2021년에는 8.0%, 2022년에는 7.4%로 감소했다. 2007~2022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통계청, 교육부

10)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 수는 2011년~ 2019년 평균 27만 3천명 수준이고 1인당 지원금은 43만원이다.<sup>11)</sup>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당 월 평균 비용을 3만 5천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현재의 지원금 수준으로는 매월 1개 정도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수준인 셈이다.

특기 적성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방과후학교에 대한 참여율과 만족도가 간접적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참여율은 저소득층 학생뿐 아니라 전체 학생의 참여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저소득층 학생의 참여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참여율이 낮다면 이것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낮다면 방과후학교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특기 적성 교육프로그램에 접근할 기회는 주지만, 그 내용은 값싸고 질적으로는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과후학교를 통한 교육격차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게 될 것이다.

### 3) 사교육 부담 완화

사교육 부담 완화는 방과후학교 정책의 초기부터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온 정책목표 중의 하나다. 사교육 부담 완화 효과는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 비용의 변화, 사교육 참여율의 변화, 사교육 참여시간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초등학생 1인당 실질 사교육비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sup>12)</sup> 2012년도 예외적으로 전체 사교육비가 감소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높아지는 2007년부터 2014년도까지 사교육 참여 초등학생의 실질 사교육비는 감소했으며,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낮아지는 2016년 이후부터 실질 사교육비가 다시 증가한다.<sup>13)</sup>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두 지표 사이의 상관관계는 0.91에 달한다. 물론 방과후학교가 사교육 참여율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11) 이희현 외, 방과후학교 참여율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p.27

12)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

13)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연도별 자료에서 추출. 물가상승률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각 연도

요인은 아니며, 사교육 참여율에는 일정한 하방 경직성이 작용한다.<sup>14)</sup> 그러나 적어도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참여율이 높아지면 사교육 참여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시간과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더욱 밀접한 관계에 있다. 두 지표 사이의 상관계수는 0.97에 이른다. 이는 당연한 결과인데,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요컨대,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부담 완화에 대단히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방과후학교가 사교육 부담완화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도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 4)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방과후학교는 그 자체로 ‘공적 돌봄 시간 확대’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정규수업 이후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참여시간은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돌봄 관리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학교가 방과후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구조에서는 돌봄효과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방과후학교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들인데, 교사들은 늦어도 오후 5시에는 퇴근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의 운영시간은 오후 5시를 넘기지 않는다. 결국, 현재의 운영구조에서 초등 방과후학교를 통해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는 오후 5시 이내로 제한되며, 이후 시간은 여전히 ‘돌봄 공백 시간’으로 남게 되는 한계가 있다.

#### 5)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새로운 방과후학교 운영 방식의 필요성

방과후학교 정책이 추구하는 4가지 주요 목표는 교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14) 현재와 같이 대학입시를 둘러싼 경쟁의 강도가 높은 우리나라 여건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에 참여한다고 해도 자녀의 사교육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미가 있다. 또한, 앞서 검토했듯이 방과후학교는 실제로 그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참여율의 지속적 감소 경향은 방과후학교가 좋은 정책목표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표를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방과후학교의 정책 목표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과후학교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국공립과 사립 초등 방과후학교의 차이가 주는 시사점

### 1) 국공립과 사립 초등 방과후학교의 참여율

방과후학교의 정책목표 달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참여율과 만족도다. 그 중에도 참여율이 중요한데, 높은 만족도는 결국 높은 참여율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공립 초등과 사립 초등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

2019년 국공립 초등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56.8%에 불과하지만, 사립은 81.5%로 그 차이가 24.7%p다.<sup>15)</sup> 특히 2011년도에는 국공립과 사립의 참여율이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이후 국공립은 매년 참여율이 하락해왔고, 사립은 그 반대로 참여율이 높아져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 -1〉 초등학교 설립유형별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 변화 비교

(단위 : %, %, %p, 배)

	2011	2019	변동폭	사립/국공립
국공립	62.0	56.8	-5.2	1.4
사립	64.0	81.5	17.5	

### 2) 프로그램의 다양성의 차이

사립 초등이 국공립에 비해서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기준에 보고된 양적 지표를 통해 볼 때 프로그램의 차이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15) 이희현 외, 앞의 보고서 p.65

사립학교는 국공립에 비해서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국공립의 평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수는 30.4개인데 비해서 사립은 77.5개로 사립이 국공립에 비해 40개 이상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I -2〉 초등학교 설립유형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평균 개수 변화 비교

(단위 : 개, 배)

	2011년	2019년	변동폭	사립/국공립
국공립	33.9	30.4	-3.5	2.6
사립	43.2	77.5	34.3	

특기 관련 프로그램도 국공립에 비해서 사립이 훨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국공립 초등의 특기 관련 프로그램 개수는 23.7개인 데 비해 사립은 46.7개로 거의 두배 가까이 사립이 더 많다.

〈표 I -3〉 초등학교 설립유형별 방과후학교 특기 프로그램 평균 개수 변화 비교

(단위 : 개, 배)

구분	2011	2019	변동폭	사립/국공립
국공립	17.4	23.7	6.3	2.0
사립	26.2	46.7	20.5	

### 3) 교과 관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차이

국공립과 사립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교과 관련 프로그램의 숫자다. 2019년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교과 관련 프로그램은 학교당 평균 6.7개에 불과하지만, 사립은 30.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립은 국공립에 비해서 교과 관련 프로그램의 수가 4.6배나 많은 셈이다.

〈표 I -4〉 초등학교 설립유형별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 평균 개수 변화 비교

구분	2011년	2019년	변동폭	사립/국공립
국공립	16.4	6.7	-9.7	4.6
사립	17.0	30.8	13.8	

### 4) 사립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방식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

국공립 초등과 사립초등에서 나타나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의 차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의 차

이, 교과와의 차이들은 사립초등이 국공립에 비해서 방과후학교의 정책목표에 훨씬 잘 부합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선 많은 수의 특기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개발과 관련해서 보다 풍부한 기회를 줄 것이다.

또한, 교육격차의 완화라는 측면에서도 사립초등의 방과후학교가 훨씬 의미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사립 초등의 높은 참여율은 높은 만족도에 의해 뒷받침되고,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다양할 뿐 아니라 질적인 수준도 낮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양질의 프로그램이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제공된다면, 가정배경의 차이와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적성과 소질 개발에 필요한 교육기회를 모든 학생들이 제공받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학력과 관련된 교육격차의 완화 측면에서도 사립 초등의 방과후학교는 일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은 교과 관련 프로그램의 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사실상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학력 격차와 관련된 교육격차의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사립의 경우 학교당 평균 30개가 넘게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것은 학생들의 학업능력의 증진과 보충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사립 초등의 높은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함께 학교에서 학업 증진과 보충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학업능력의 격차를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한 방과후학교의 기능을 고려하면, 사립 방과후학교의 높은 참여율은 역설적이다.

앞서 보았듯이 방과후학교의 높은 참여율은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사교육 참여시간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효과적이다. 따라서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함으로써 사교육에 투여하는 시간은 훨씬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된다.

16)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일반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다.

17) 물론 사교육 시간이 줄더라도, 가정배경이 좋은 학생들은 '고액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이 '사교육 기관'에 전전하는 시간을 줄이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사립초등학교는 더 많은 '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가정배경 수준은 평균적으로 국공립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의 학생들이 잘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덕에 학원에 다니는 시간은 훨씬 더 줄일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사교육 부담도 상대적으로 더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sup>17)</sup>

물론 사립 초등의 방과후학교가 잘 운영되는 것이 단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상대적으로 많은 교과프로그램 수와 같은 양적 지표 때문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는 교장 등 학교관리자의 의지, 학교가 전체적으로 방과후학교에 부여하는 의미 정도, 방과후학교 담당자의 적극적인 역할, 수준 높은 방과후학교 강사의 영입과 질 높은 프로그램의 운영, 높은 수준의 수강료, 만족도 평가에 대한 효과적인 피드백 장치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사립과 국공립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차이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조사와 분석은 빼놓을 수 없는 연구 과제다.

## 다 방과후학교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해결 방안 모색

그동안 방과후학교 운영과정에서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방과후학교 운영공간의 한계,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고용과 처우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1)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한계

초등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들은 정규교육과정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를 모두 수행하면서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을 책임져야 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강사 구인 또는 업체 선정, 계약서 작성, 방과후학교 시간표 작성과 교실 배정, 만족도 조사, 강사 급여 산출 및 관리, 자유수강권 대상자 관리 등 모든 업무가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의 몫이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의 부담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을 담당교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한계들도 있다.

첫째, 학교 담당교사의 과중한 행정업무로 인해 방과후학교의 안정적인고 효율적인 운영이 제약된다.<sup>18)</sup>

둘째, 방과후학교 운영시간이 제약된다. 앞서 지적한 대로 학교운영시간과 교사퇴근시간으로 인해 방과후학교의 운영시간은 오후 5시 이내로 제한받게 된다.

셋째,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쉽지 않다.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는 그 기본적인 정체성이 ‘교사’에 있으며, 방과후학교만 책임지는 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이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예를 들면, 수준별 프로그램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체계성, 연계성, 지속성 확보나 새로운 수요에 부응한 프로그램 개설 및 다변화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들이지만<sup>19)</sup>, 일종의 겸직 상태인 방과후학교 담당교사가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기는 어렵다.

결국, 현재와 같이 방과후학교 운영이 담당교사에게 맡겨진 여건에서는 한편으로는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실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

## 2) 방과후학교 운영 공간의 문제

부족한 방과후학교 운영 공간은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제약조건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전체 교실 수 26,539개 중에서 방과후학교에 이용되는 교실 수는 8,036개로 전체의 교실의 30%만 활용되고 있다. 방과후학교에 이용되는 교실은 대부분 교과교실과 특별교실 그리고 기타 교실인데 이미 이러한 교실의 86%가 방과후학교에 이용되고 있다.<sup>20)</sup> 한편, 일반 교실은 19,172개로 전체 교실 수의 72.2%를 차지하지만 방과후

18) 이희현 외 (2021:158)

19) 이희현 외 (2021:157)

20) 서울시 교육청,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 (2022년)



학교에 이용되는 교실은 1,703개(8.9%)에 불과하다.

이러한 여건은 이후 방과후학교의 질적 개선과 참여율의 확대를 추구하려고 할 때 일반교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 교실이나 특별교실, 기타 교실은 이미 추가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운영 공간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밖의 시설활용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 밖에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시설로 학교 밖 공간을 활용하는 곳은 36곳에 불과하며 이는 방과후 교실 공간 전체의 0.4%에 지나지 않는다.

〈표 I -5〉 방과후학교 운영 공간 현황

	일반교실	교과 및 특별교실	기타교실(수준별 교실, 방과후전용, 돌봄교실 겸용)	학교밖 공간	계
교실 수	19,172	5,517	1,850		26,539
비중	72.2%	20.8%	7.0%		100.0%
방과후학교 이용교실수	1,703	4,628	1,705	36	8,072
이용 비율	8.9%	83.9%	92.2%		30.4%

### 3) 전문적이고 유능한 방과후학교 강사의 영입

방과후학교가 질적으로 수준 높게 운영된다면 참여율과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적이고 유능한 강사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과후 학교 강사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사교육 대비 차별성과 경쟁력이 미흡한 것이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이 감소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 방과후학교에서 수준 높은 강사에 의해 질 높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가능하다.

실제로 ‘방과후학교 강사의 전문성의 편차와 낮은 신뢰도’, ‘방과후학교 강사의 근로여건에 따른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제약은 방과후학교 참여율 감소에 영향을 준다.’<sup>21)</sup>

21) 이희현 외 (2021:158)

문제는 현재와 같은 방과후학교 운영 방식(특히 국공립의 경우)으로는 전문적이고 유능한 강사를 영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최저가 입찰을 포함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의 수강료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에 수준 높은 강사들이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적이고 유능한 강사들이 방과후학교의 강사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급여 수준의 향상을 포함해서 안정적인 고용조건의 확보, 정규교사는 아니지만,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자의 한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 4)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의 발전적 해결 방안 모색의 필요성

궁극적으로 방과후학교의 성과는 학생들의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통해서 실현된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방과후학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한 단위학교와 담당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
- 사교육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높은 수준의 방과후학교 운영
- 풍부하고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개발
- 수준 높은 방과후학교 강사의 유입을 위한 고용조건과 근무여건 개선
- 돌봄서비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운영시간 확대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방과후학교가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하며, 이를 통해 방과후학교의 정책 목표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시사점은 본 연구의 결론인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방안에 반

영될 것이다.

둘째,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집단들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과 요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질적으로 수준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 보완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각 집단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향후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서울시교육청과 지자체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는 (가칭) 방과후학교 운영사업단을 통한 질적으로 수준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앞의 두 가지 연구목적 달성을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어온 문제를 해결하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는 (가칭) 방과후학교 운영사업단을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업단의 법적 지위, 조직구성, 운영 방식, 예산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할 것이다.

### 3.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가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서울시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분석

- ①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현황과 특징 분석
- ②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방과후학교 관련 사업현황 분석

#### 2) 서울 초등 방과후학교의 주요 관련 집단의 인식 및 요구 분석

- ① 초등학교 관리자(교장, 교감)의 인식과 요구 분석

- ② 방과후학교 부장교사의 인식과 요구 분석
- ③ 초등학교 일반교사들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과 요구 분석
- ④ 방과후학교 강사의 인식과 요구 분석
- ⑤ 학부모(보호자)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과 요구분석

### 3) (가칭) 방과후 사업단 설치 방안

- ① 사업단의 법적 지위와 설립방안
- ② 사업단 설치와 운영을 위한 교육청과 자치구의 역할
- ③ 사업단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 방안
- ④ 사업단의 조직구조와 인력 구성 및 운영 방식
- ⑤ 해당 자치구와 서울시교육청 컨소시엄을 통한 방과후학교 사업단의 모델 정립

## 나 연구 방법

### 1) 문헌 분석

- ① 목적 :
  -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정책, 예산 및 지원센터 운영현황 분석과 시사점 도출
  - 공적 사업단 관련 법적 제도적 방안 수립을 위한 검토
- ② 분석 자료:
  -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조사자료
  - 서울시교육청과 지자체의 방과후학교 관련 예결산 자료
  - 방과후학교 관련 정책 문건
  -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자료
  - 방과후학교 관련 선행연구물
  - 교육청 지자체 컨소시엄 구성 관련 연구물과 제반 법규

## 2) 설문조사

### ① 목적 :

초등방과후학교의 주요 이해당사자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과 요구 조사를 통한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시사점 도출

### ② 분석자료

-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대상 설문조사 자료
-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대상 설문조사 자료
- 초등학교 일반교사 대상 설문조사 자료
- 학부모(보호자) 대상 설문조사 자료
-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설문조사 자료

## 3) 포커스 그룹 인터뷰(심층면담)

### ① 목적 : 양적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방과후학교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인식과 요구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② 분석자료

-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
-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
- 방과후학교 일반교사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
-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
- 학부모(보호자)/학생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
-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
-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

---

## II

### 선행연구와 관련 정책분석

---

1. 방과후학교 선행연구 검토
2. 늘봄학교 정책의 추진 배경과 의의
3. 방과후학교 관련 선행연구 분석과 ‘늘봄학교’  
정책 분석의 시사점

## 선행연구와 관련 정책분석

2004년 12월 교육부의 「방과후 운영 기본계획」 발표 이래로 약 20여년 간 시행되어온 방과후학교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한 축으로서의 위상을 지닌 제도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에 본 장에서는 방과후학교 정책의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수행된 주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최근 정부 시책으로 추진되는 전일제 초등학교 정책인 ‘늘봄학교’의 추진 배경과 의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1. 방과후학교 선행연구 검토

방과후학교에 관한 선행연구는 방과후학교의 제도화와 관련한 연구, 방과후학교의 운영실태에 대한 연구, 그리고 방과후학교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 가 방과후학교의 제도화와 관련된 연구

전반적으로 방과후학교의 제도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방과후학교가 현장에 정착된 실질적인 교육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도 구체적인 근거법령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방과후학교가 다른 교육정책의 기조에 따라 그 지위와 역할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우며, 이는 방과후학교의 질적 제고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배상훈(2014)은 방과후학교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방과후학교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방과후학교 정책은 매년 학교 교육계획에 방



과후학교가 포함되고, 정부의 재정 배분 기준에 방과후학교 정책이 고려된다는 점, 방과후학교의 규모와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이 방과후학교가 제도화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정영모(2022)는 2013년을 정점으로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대하여 2014년 이후 추진된 공교육정상화법,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강화, 방과후학교 근거법 마련 실패, 100대 우수 방과후학교 폐지, 좋은 학교 박람회 폐지, 교육부 훈령개정을 통한 방과후학교 활동의 생활기록부 미기재 조치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의 확장기에 해당하는 2006~2013에 추진되었던 방과후학교 활성화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기조의 정책들이 추진된 결과 방과후학교의 확장 동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 나 방과후학교의 운영실태 및 성과에 대한 연구

방과후학교의 운영실태와 성과에 관련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방과후학교의 사교육비 감소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김현철(2007)는 [방과후학교 및 EBS 수능방송의 정책 효과 분석]에서 방과후학교의 참여 여부와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사교육비 지출 변화 간의 관계를 거주지역과 소득계층별로 분석하였다. 거주지역별 방과후학교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전 지역에서, 고등학교는 서울 및 읍면 지역에서 방과후학교 참여 후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소득계층별 분석에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저소득 계층에서, 중학교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방과후학교 참여 이후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석우와 한홍련(2008)의 [중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평가 연구]는 CIPP 모형을 적용하여 중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평가하였으며, 연구 결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 만족도, 방과후학교 참여를 통한 학업 성취도의 향상 여부와 더불어 사교육비 경감, 특기·적성·인성계발 측면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이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홍원(2007, 2008)의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는 방과후학교 지원사업과 세부사업(자유수강권, 대학원 멘토링, 초등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실태 및 만족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높고, 사교육비 감소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 보고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매년 감소하면서 방과후학교의 규모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모색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신기왕(2018)은 [방과후학교 운영 모형연구]에서 현행 방과후학교의 운영모델이 2006년에 정부가 제시한 10개의 운영모델에 기초해 있으며, 그 중 학교장 운영과 위탁운영으로 단순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 같은 운영모형의 단순화에 의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고도화가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정현용(2020)은 대전광역시 소재 초·중·고의 2015년~2019년 사이의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방과후학교 역시 축소되고 있는 경향을 파악하였다. 다만 전반적인 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영리위탁 및 외부강사 활용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프로그램 만족도 역시 향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교과가 아닌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향후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부합하는 특기·적성교육이 초등학교 뿐 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도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 다 방과후학교의 개선방안과 관련된 연구

방과후학교의 개선방안과 관련된 연구는 방과후학교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0년대 중반 이래로 꾸준히 수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대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방과후학교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의 초점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2000년대 중반에는 방과후학교의 전국적 확산과 정착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김기홍(2006)은 [지역네트워크킹과 방과후학교 활성화]에서 방과후학교의 교육활동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을 갖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체계화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차원에서는 방과후학교 지원체제 구축, 네트워크 매뉴얼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정지원을 제안하였고, 지자체 및 지역의 비영리단체 차원에서는 인프라 구축, 인력창고 구축, 재정지원, 광역지역 단위의 협의체 결성을 제시하였으며, 학교 차원에서는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프로그램 특성화 및 전문화, 교원의 인식 제고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배상훈(2006)은 [방과후학교의 정책적 의의, 성과 및 향후 과제]에서 정규교육과정과 다른 또 하나의 교육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정책적 의의와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식 문제를 제기하며 방과후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도록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강사 정보공개 및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홍원(2006)은 [방과후학교 성과분석]에서 지속적인 방과후학교의 성과향상을 위해 1)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의 제공, 2) 지도강사의 전문성 제고, 3) 학교 교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 4)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강화, 5) 지속적인 법적·제도적 뒷받침 등을 주장하였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 프로그램 다양화, 수요자 의견 반영, 방과후학교 지도강사 확보
- 지도강사의 전문성 : 유능한 지도강사 확보 및 인적 풀 구성, 외부 강사에 대한 연수강화,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
- 학교 교원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 유도 : 학교교원 연수 확대, 방과후학교 관련 교원업무분담 경감, 담당교원 보상 제공
-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강화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에 관한 정보풀 구성,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과의 협약체결 및 지원 획득, 지역사회 기관, 조직, 단체들이 연계한 방과후학교 지원체제 구축
- 지속적인 법적·제도적 뒷받침 : 방과후학교 지원법 제정, 방과후학교 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

김수동(2007)은 [방과후학교의 장애 요인 및 극복과정·전략과 정책연구과제 탐색]에서 방

과후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기피 및 부정적 견해가 공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이유로 방과후학교가 법률적·제도적 지원 없이 실행된 점(1996~2007)과 지역사회와의 체계적 연계 없이 학교 중심으로 실행되어 온 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5가지 방과후학교의 장애 요인을 운영방식, 프로그램 운영, 강사확보 및 관리, 물적 조건, 교육수요자 측면의 문제로 보았다(〈표 Ⅱ-1〉 참조).

〈표 Ⅱ-1〉 김수동(2007)에서 제시한 방과후학교의 문제점

장애요인	세부적인 문제점
운영방식	· 교원업무과다, 학교안전사고의 법적책임 및 교사에 대한 보상체제 미흡 · 방과후학교 구성원의 정체성 확립과 수업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
프로그램 운영	·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율적 운영의 미흡 · 다른 교육활동과의 연계 미흡 · 지역사회와의 연계 미흡 · 교육양극화 해소기능의 미약
강사확보 및 관리	· 우수 강사 확보체제 미흡 · 지역사회의 지원체제 부족 · 교육수요자를 위한 관련법률 및 제도적 지원 미흡
물적조건	· 방과후학교 운영공간 부족 · 시설·설비·교구의 부족
교육 수요자	·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 부족 · 교육수요자에 대한 홍보 미흡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과제로서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 모델에 대한 연구, 방과후학교의 성과를 분석하고,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 연구,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의 적정수준에 대한 연구, 방과후학교의 제도적 정착 방안 연구, 방과후학교 강사 및 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의 네트워크 방안에 대한 연구, 방과후학교와 평생교육과의 연계에 대한 연구,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초, 중, 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 연구, 방과후학교의 기초기본능력 신장 방안 연구, 방과후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가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 등을 제안하였다.

우길주 외(2008)는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모델 및 자료집 개발]에서 단위학교에서 영리·비영리단체에 방과후학교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구안한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모델의 개발은 첫째, 위탁운영 유형을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 일부위탁과 전체위탁으로 구분하였으며, 둘째, 지역적 여건이나 단위학교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2010년대 이후에는 방과후학교의 성과를 분석하여 이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탐구하는 것으로 연구주제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확인했듯, 방과후학교의 주요 교육효과와 사

교육 경감 효과, 운영의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방과후학교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김홍원(2012)은 [방과후학교의 사교육비 경감효과와 과제]에서 방과후학교의 성공조건으로, 1) 학교장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열정, 신념,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리더십, 2) 지자체장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 3)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질 높은 수준별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4) 수요자가 원하는 온종일 돌봄서비스의 실천, 5)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방과후 학교 홍보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임현정 외(2013)는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Ⅱ) - 방과후학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 분석]에서 학교현장에서 방과후학교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현황을 탐색하여 방과후학교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7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는데, 1) 단위학교의 효과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조직 구축, 2) 우수강사 확보 및 전문성 제고 체제 구축, 3) 사교육과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편성, 4) 수요자의 이해 및 신뢰도 제고 노력, 5) 정규수업과의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 6)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활용, 7) 방과후학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단위학교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수행 등이다. 또한, 정부 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 부족 및 지역사회와의 인적·물적 자원 협조체제 구축의 미비를 들어 합리적인 연계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수동 외(2017)는 방과후학교가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한계점을 노출하는 제도적 위기를 겪는 것으로 보고,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책임과 자율을 강조하고, 방과후학교 관련 근거법령을 정비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김선영, 백지원(2020)은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현행 방과후학교는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열악한 민간위탁의 질적 제고와 더불어 우수한 강사진의 확보와 수익자 부담 모델의 개선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최근에는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환경을 고려한 개선방안과 시스템적으로 질적인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개선방안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돌봄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방과후학교 참여율 확대와 연결지어 제시하고 있었다.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법적인 정비가 사회변화에 맞춰 진행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정부의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김인정(2021)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의 1~2차년도 자료를 통해 초등 방과후학교의 참여와 아동의 신체 및 정서 발달, 그리고 사교육 참여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초등 방과후 학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 교육과정의 연계 및 학생정보 공유, 방과후학교 강사 양성 의무교육과정을 도입,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분담 등을 주요한 정책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한성민(2021)은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이 30~40대에서 갑자기 감소하는 이유로 부실한 초등학교 돌봄서비스를 지적하고, 초등돌봄에서 방과후학교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의 통합운영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상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이희현 외(2021)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에서는 방과후학교 참여율 추이 및 감소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자료(2011~2019), 한국교육중단연구 2013 패널데이터 및 서울교육중단연구 2010 패널데이터(방과후학교 관련 문항)와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데이터(방과후학교 관련 문항) 등을 활용하였고, 참여율 감소 원인 분석의 타당성 확보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방과후학교 참여율 감소의 원인으로는 첫째, 정책환경의 변화 측면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에 의한 초등 1~2학년 영어프로그램 개설 및 참여율 감소, 유사 방과후활동 지원사업의 확대에 의한 참여율 감소, (중등)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인한 참여율 감소 등을 들었고, 둘째, 정책 및 관련 제도의 변화 측면에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활동내용 기재 축소 및 금지 등으로 인해 방과후학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감소된 측면, 방과후학교 관련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삭제 및 영향력 약화로 인한 관계당국의 관심도 저하, 양정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저하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특성의 차원에서 신수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설의 한계, 공간적 한계 및 강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 미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체계성, 연계성, 지속성 확보 미흡, 강사 전문성의 편차로 인한 낮은 신뢰도 등을 들었으며, 넷째로 사교육 대비 경쟁력 미흡,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의 행정업무 부담으로 인한 학교 구성원들의 관심 저하 등을 꼽았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각종 방과후활동 지원정책의 일원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과후학교 관련 교육청 예산의 지속적으로 계획적인 지원과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고, 제도적 측면에서는 교육활동으로서의 방과후학교정책의 운영목적 및 추진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 초·중·고등학교와 방과후학교의 통합운영, 방과후학교가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활동으로 제도화될 필요성, 담당교사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전담조직,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활성화, 중앙·교육청·지원청 간의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및 운영방식(오전, 방학 중, 교외 공간 활용, 프로젝트형 프로그램 등)의 다양화, 온오프라인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 및 학교규모를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수준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기존 교육과정과의 연계, 신·수요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방식의 개선,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한 강사로 현실화 등을 제시하였다.

김성식(2022)은 코로나19 이후 방과후학교 참여가 급감하면서 방과후학교의 사교육 경감 효과가 약화되었고, 코로나19 사태가 회복되는 시점에서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초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방과후학교의 정상화 및 내실화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방과후학교 관련 주요 선행연구들을 방과후학교의 제도화, 방과후학교의 운영실태 및 성과, 방과후학교의 개선방안 등으로 범주화하고,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Ⅱ-2>와 같다.

〈표 II-2〉 방과후학교 선행연구 분석 요약

구분	연구	요약
방과후학교의 제도화	배상훈(2014)	방과후학교는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되고, 정부의 재정 배분 기준에 고려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제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정영모(2022)	방과후학교는 이미 제도화된 정책이나 정부 기조의 변화와 근거법령 미비로 확장 동력이 상실된 상황으로 봄
방과후학교의 운영실태 및 성과	김현철(2007)	방과후학교의 사교육비 절감효과에 대하여 거주지역 및 소득계층별 분석을 진행한 결과 사교육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
	김석우, 한홍련 (2008)	방과후학교는 성취도인식, 사교육비경감, 특기적성인성 계발 등에 대해 학생 학부모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김홍원(2007, 2008)	학교급이 낮을수록 방과후학교 만족도가 높고, 사교육비경감에 긍정적
	신기왕(2018)	방과후학교 운영모형의 단순화로 인해 프로그램의 질적 고도화가 저하되고 있음
	정현용(2020)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방과후학교가 축소되고 있지만, 외부강사 활용비율이 높아지면서 만족도도 향상되고 있음.
	김기홍(2006)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체계화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방과후학교 개선방안	배상훈(2006)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강사 정보공개 및 적극적 홍보 필요.
	김홍원(2006)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의 제공, 지도강사의 전문성 제고, 학교교원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 유도,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강화, 지속적인 법적, 제도적 뒷받침.
	김수동(2007)	운영방식, 프로그램운영, 강사확보 및 관리, 물적조건, 교육수요자의 측면에서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우길주 외 (2008)	지역적 여건이나 단위학교의 특성에 따른 유연한 운영모델이 필요함.
	김홍원(2012)	방과후학교의 성공요건에 학교장의 열정, 신면,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리더십과 더불어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원, 수요자 중심의 수준별 프로그램, 온종일돌봄서비스, 지속적인 홍보 등을 제시
	임현정 외 (2013)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연계와 지역사회와의 인적·물적 자원 협조체제 구축
	김수동 외 (2017)	현장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근거법령을 정비해야함.
	김선영, 백지원 (2020)	열악한 민간위탁의 질적제고와 더불어 우수 강사진 확보와 수익자 부담 모델 개선 등
	김인경(2021)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간의 연계 및 학생정보공유, 방과후학교강사 양성 의무 교육과정 도입, 초등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분담 등을 제시
	한성민(2021)	방과후학교에서 돌봄의 역할 강화,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의 통합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이희현 외 (2021)	방과후학교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정책의 일원화, 양적확대 기조에서 질적제고 기조로의 정책적 전환, 프로그램 및 운영방식의 다양화, 전담 전문 조직의 신설, 그 밖의 방과후학교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실현되어야 함.
	김성식(2022)	코로나19 이후 초등학교 교육 정상화 안에서도 방과후학교 정상화 및 내실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2. 늘봄학교 정책의 추진 배경과 의의

늘봄학교는 독일의 전일제학교(Ganztagsschule)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초등돌봄에 교육  
을 접목하는 ‘교육·돌봄’ 융합체계를 의미한다.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는 늘봄학교 정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의욕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시  
범사업 초기부터 인력운용은 물론 돌봄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줄속으로 추진되고 있  
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sup>1)</sup>.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수요자들이 인식하는 방  
과후학교의 역할이 교육적 프로그램이 결합된 돌봄이 있다는 점과 현재 시행되는 늘봄학교  
가 방과후학교와 돌봄의 특징을 결합하는 모델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늘봄학교 정책  
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검토하고,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가 늘봄학교 추진 배경

늘봄학교 정책의 원형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초등학교 “온종  
일 돌봄체계 모델”에서부터 시작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7. 19). 이후, 저출산·고  
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8월 ‘(가칭)더 놀이학교’ 관련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초등학교 오후  
돌봄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가칭)  
더 놀이학교의 정책방향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시간을 초등학교 5~6학년 하교시간과  
일원화하여 15시에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저학년의 학교 운영 시간을  
1~2시간 가량 연장하는 것이었다. 연장된 시간에는 교과학습이 아닌 놀이 및 활동 중심의  
내용을 기본으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이 방  
안은 연장시간에 대한 담임교사의 업무과중 및 안전사고 책임 소재와 관련한 학교현장의 반  
발과 더불어 학부모들의 퇴근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15시 일괄 하교가 실제 학부모들의 돌  
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한계 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65-141)

1) 한겨레. (2023. 5. 17.) ‘늘봄학교’ 100곳 늘린다는데... “인력 · 공간 없이 속도전” 우려.

이후 온종일초등학교 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재단법인 우리교육연구소는 2019년, 「온종일 초등학교 체제 정립 및 운영 방안 연구」보고서<sup>2)</sup>를 통해 공공 영역에서 초등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정책모델을 제안한 바 있으며,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위와 여의도연구원에서는 2020년 7월 저출생 대응 방안으로서 ‘전일제 교육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전일제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초등돌봄확대는 주요정당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대선 이후 현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구체화 되었는데, 정부는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국정과제 84번으로 삼고 그 주요 내용으로 초등 전일제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22). 초등 전일제 교육의 주요 골자는 방과후 교육 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초등 전일제 학교’를 운영하고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이희현 외, 2022). 이러한 초등 전일제 교육이 구체화된 정책이 현재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중인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이다.

## 나 늘봄학교 정책의 주요 개념과 추진 방향

이희현 외(2022)에서는 초등 전일제 학교의 기본 방향을 “아동의 행복하고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의 삶과 연계하여 방과후에 유의미한 경험과 배움이 가능한 교육 및 돌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른 운영모델의 기본 원칙으로 ①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참여와 선택을 보장, ② 지역별 혹은 아동의 생활권역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③ 초등 전일제 학교 운영에 관한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이 정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함 등을 제시하였다(이희현 외, 2022: 25-26). 요약하면, 초등 전일제 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 및 단위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한 운영모델을 구축하며, 방과후 활동에 대한 학교 및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2) 박주형, 오병호, 김민규(2019). 온종일 초등학교 체제 정립 및 운영 방안 연구. 재단법인 우리교육연구소 정책 연구보고서.

이를 기반으로 이희현 외(2022)에서는 초등 전일제 학교 운영 모델을 A유형, B유형, C유형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이희현 외, 2022: 27-29).

A유형은 기존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과 동일하게 단위학교가 운영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여 프로그램 유형을 다변화하고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모델이다. B유형은 정규교육시간과 방과후 활동의 운영 주체를 이원화 하는 방안으로 방과후 활동을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 등으로 이관하는 모델이다. C유형은 정규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독일의 의무형 전일제학교와 유사한 형태이다. 연구진은 C유형을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모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A유형과 B유형을 고도화하여 지역 및 단위학교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차선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교육부는 2023년 1월 늘봄학교의 개념(안)과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 1. 9).

• 교육부 늘봄학교 개념(안)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

\* 방과후 프로그램(교과연계, 특기적성 등 교육) + 돌봄(휴식, 놀이, 간식 등) 통합제공

• 늘봄학교 추진 방향

- ①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사회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 ② 지역단위 총괄·관리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지원)청-지자체 협력을 강화하고, 단위 학교와 교원의 업무 경감
- ③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델 발굴,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성공모델의 단계적 확산 도모

교육부에서 밝히고 있는 늘봄학교의 개념은 결국 기존 초등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추진 방향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늘봄학교의 지역단위 총괄·관리 운영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이희현 외(2022)의 B유형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늘봄학교의 관리주체를 단위학

교에서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늘봄학교의 운영모델 역시 표준화된 운영모델이 아닌 지역·학교단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운영모델을 적용하겠다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 다 늘봄학교 정책의 의의와 한계

늘봄학교 정책은 교육과 더불어 아동의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서 국가로 이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늘봄학교의 도입 필요성과 관련하여 정재훈(2023)은 사교육 수요를 대체하고,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등을 통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파편적·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등돌봄체계를 재편할 수 있으며, 초저출산 현상의 대응방안으로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체계’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성희(2023)는 COVID-19로 인해 학교가 지금까지 돌봄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자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늘봄학교 정책 추진의 개연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곧 사회가 요구하는 학교의 역할 중 ‘돌봄’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늘봄학교 정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자 하는 정부당국의 의지로 인해 줄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늘봄학교 정책의 한계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

정재훈(2023)은 늘봄학교가 기존 초등돌봄체계를 어떻게 재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늘봄학교 운영 주체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마지막으로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김성희(2023)는 지역 및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초등돌봄의 여건과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운영모델의 도출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단위학교 담당교원의 업무과중과 학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배인숙(2023)은 경남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의 사례를 바탕으로 단위학교에 각종 행정업

무가 기증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초등 돌봄의 확대가 단지 양적 측면의 확대 만이 아니라 보다 양질의 돌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아동들을 특정한 공간에서 10시간 이상 머물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이희현 외(2022) 역시 정책추진 이전에 이미 초등 전일제 학교 추진 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제언을 제기한 바 있다. 그간 제안된 초등학교 하교시간 연장, 더 놀이학교, 온종일 돌봄 특별법 등이 교원과 돌봄인력, 학부모 등의 서로 다른 입장에 따른 심각한 갈등에 의해 좌절된 경험에 비추어 아동의 필요와 요구를 중심에 두되, 이해당사자들의 입장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과 숙의과정을 통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제기하였다.

### 3. 방과후학교 관련 선행연구 분석과 ‘늘봄학교’ 정책 분석의 시사점

20여년의 기간 동안 학교현장에 뿌리내린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격차 극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현재에 이르러 돌봄의 수요까지 일정 부분 수용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오랜 기간 시행되는 과정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단위학교 현장에서는 운영형태와 인력 운용, 운영 시간과 대상, 공간의 확보와 안전관리 등이 서로 맞물려 다양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구성원 간의 갈등요소 역시 증가해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방과후학교 운영의 난점이 드러남에 따라 방과후학교 관련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하고,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자원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운영모델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교의 역할 중 돌봄의 역할이 강조되는 흐름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면서 학교현장에 방과후학교 및 돌봄이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되고 있다.

이는 결국 방과후학교 및 돌봄의 운영주체가 단위학교 및 현직 교원에서 학교 밖의 ‘공공성’을 지닌 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학교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그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관련 정책이 늘어날수록 학교와 담당교원의 업무량과 부담만 늘어나 현장에서 기피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이다.

한편, 현재 시행 중인 늘봄학교 정책 역시 한계는 명확해 보인다. 교육부에서 2023년 1월 9일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보면, 늘봄학교의 운영주체를 단위학교에서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로 이관하는 모형을 제시했는데, 이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개편하여 늘봄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업무지원 모델은 크게 전담형(센터에서 단위학교의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하는 형태), 지원형(센터에서 단위학교의 늘봄학교 업무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 인력배치형(단위학교에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형태) 등을 예시하고 있으나 전담형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형과 인력배치형은 늘봄학교의 운영주체를 단위학교로 규정짓는 형태이므로 학교와 담당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도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와 관련하여 인력부족과 가이드라인의 부재, 과도한 업무로 인해 담당교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시행 1개월 만에 시범학교 80개교 중 55개교가 에듀케어 프로그램 수행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sup>3)</sup>.

결국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초등 전일제 학교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학교로부터 완전히 이관하여 단위학교와 교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운영모델이 필요하고, 여기에 충분한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모델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늘봄학교가 추구하는 느슨한 형태의 이관이 아닌, 방과후학교 및 돌봄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공공성을 확보한 공적 기관의 설립을 전제로 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3) 노컷뉴스, (2023. 4. 23.), 늘봄학교 시범사업 한달... 결국 교사들만 '죽을맛'



---





## 초등방과후학교 운영 현황과 시사점

---

1.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수와 운영률
2. 방과후학교 참여율
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4. 운영 유형: 위탁 및 직영
5. 수강료
6. 강사 현황
7. 방과후학교 운영 공간(2022)
8. 방과후학교 만족도
9.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지원 현황
10. 국공립과 사립 초등학교 비교
11. 방과후학교와 사교육 부담

## 초등방과후학교 운영 현황과 시사점

### 1.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수와 운영률

#### 가 전국 연도별 초등방과후학교 운영 학교 수와 운영률

전국 연도별 초등방과후학교 운영 학교 수와 운영률은 다음 <표Ⅲ-1>과 같다. 방과후학교 운영 양상의 차이는 크게 코로나 발발 이전과 이후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전국 방과후학교 운영률은 코로나 발발 이전인 2013~2019년에는 거의 100%에 육박했으나, 코로나 발발 이후인 2020년에 63.7%로 크게 하락했다. 다만 2021년에 전국 방과후학교 운영률은 다시금 90.4%로 오르면서, 코로나 발발 이후 1년 만에 예년에 준하는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 점에 비추어볼 때, 향후 전국 방과후학교 운영률은 코로나 엔데믹 전환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Ⅲ-1> 전국 연도별 초등방과후학교 운영 학교 수와 운영률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운영학교 수(교)	5,906	6,148	6,179	6,204	6,229	6,228	6,247	3,999	5,701
비율(%)	100	99.9	99.9	99.8	99.8	99.8	99.8	63.7	90.4
전년 대비 증감률(%p)	-	-0.1	0	-0.1	0	0	0	-36.1	+26.7

※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재구성(2013~2021)

#### 나 서울 연도별 초등방과후학교 운영 학교 수와 운영률

서울의 경우 2020년 방과후학교 운영 비율은 8.3%로 극적으로 감소했다. 2021년의 경우에도 84.2%로 전국에 비해 낮은 회복율을 보였다. 그러나 2022년 95.7%로 나아졌으며, 2023년 99.8%로 거의 모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수준으로 회복했다.

〈표 Ⅲ-2〉 서울 연도별 초등방과후학교 운영 학교 수와 운영률

구분	2020	2021	2022	2023
운영학교 수(교)	50/602	508/603	579/605	603/604
비율(%)	8.3%	84.2%	95.7%	99.8%
전년 대비 증감률 (%p)	-	75.9	11.5	4.1

※ 출처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내부자료.

## 2. 방과후학교 참여율

### 가 전체 현황

#### 1) 전국 연도별 초등방과후학교 참여율

전국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13년 73.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57.1%까지 줄어들었다.<sup>1)</sup>

앞서 본 것처럼 2019년까지는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위학교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73.3%에서 57.1%로 감소한 것이며, 이는 결국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참여율이 20.3%로 낮아졌고, 2021년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36.6%이다.

〈표 Ⅲ-3〉 전국 연도별 초등방과후학교 참여율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참여율(%)	73.3	73.1	71.2	65.9	64.7	59.3	57.1	20.3	36.6
전년 대비 증감률 (%p)	-	-0.2	-1.9	-5.3	-1.2	-5.4	-2.2	-36.8	+16.3

※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초등학교 재구성(2013~2021)

1) 2020년과 2021년의 참여율이 급감한 것은 팬데믹의 영향 때문이다.

## 2) 서울 연도별 초등방과후학교 참여율

서울의 경우 방과후학교 참여율의 감소 추세는 전국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9년 62.2%로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sup>2)</sup>

팬데믹의 영향으로 서울의 초등방과후학교 참여율도 급감했지만 2021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2년에는 50% 수준에 도달했다.

성공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의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가 참여율이라고 할 때 향후 서울형 질 높은 방과후학교는 적어도 2013년 수준인 73%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표 Ⅲ-4〉 서울 연도별 초등방과후학교 참여율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참여율(%)	62.7	62.2	6.5	34.2	50.0
전년 대비 증감률 (%p)	-	0.5	-55.7	+27.7	+15.8

※ 출처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 재구성

## 나 서울시 초등방과후학교 현황

### 1) 서울시 방과후학교 학년별 참여율(2022)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데, 1학년의 경우 74.9%에 이르렀던 참여율은 6학년이 되면 25.7%까지 감소한다.(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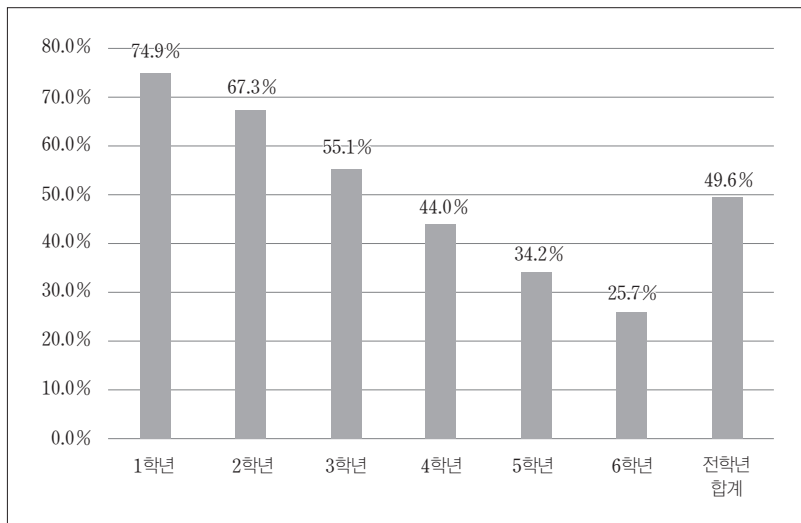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과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초등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학년이 될수록 사교육을 통한 교과교육에 치중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공받은 방과후학교 참여율 자료는 2018년부터 5개년 자료뿐이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2018년에 비해 2019년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도 감소한 것이 확실함으로 서울의 경우도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Ⅲ-5〉 서울시 학년별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수와 참여율(2022)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전체 학생수	63,880	62,215	62,591	69,359	67,248	68,272	393,565
참여 학생수	47,875	41,901	34,469	30,493	22,984	17,560	195,282
참여율	74.9%	67.3%	55.1%	44.0%	34.2%	25.7%	49.6%

※ 출처 : 전체 학생 수 - 교육통계서비스,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수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



[그림 Ⅲ-1] 서울시 학년별 방과후학교 참여율(2022)

※ 출처 : 전체 학생 수 - 교육통계서비스,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수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

※ 비교 : 전체 학생 수는 교육통계서비스와 서울시교육청 자료 사이에 약 3000명의 차이가 있음. 이는 조사 시점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임. 참여율 계산에서 전체 학생 수는 교육통계서비스의 자료 이용함.

## 2) 서울시 지원청별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수와 비율(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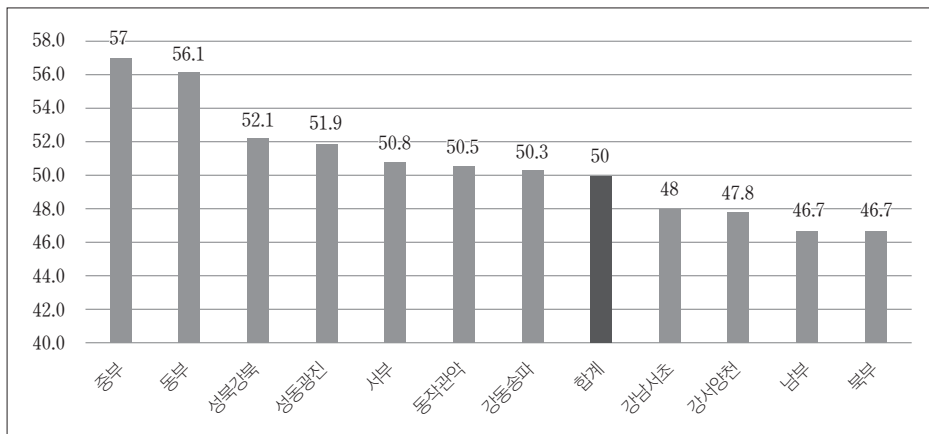
서울시 교육지원청 중에서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부지원청이고(57.0%) 북부와 남부 지원청이 참여율이 가장 낮다.(46.7%)

서울시 전체 평균 참여율보다 높은 지원청은 7개이고(중부, 동부, 성북강북, 성동광진, 서부, 동작관악, 강동송파), 나머지 4개 지원청은 서울 전체 평균보다 참여율이 낮다. (강남서초, 강서양천, 남부, 북부)

〈표 Ⅲ-6〉 서울시 지원청별 방과후학교 참여율(2022)

	전체 학생 수	참여학생 수	참여율
중부	15,944	9,083	57.0%
동부	26,263	14,732	56.1%
성북강북	28,164	14,681	52.1%
성동광진	23,494	12,200	51.9%
서부	45,708	23,221	50.8%
동작관악	27,425	13,851	50.5%
강동송파	53,329	26,800	50.3%
강남서초	47,545	22,820	48.0%
강서양천	47,293	22,614	47.8%
북부	37,313	17,436	46.7%
남부	38,223	17,844	46.7%
합계	390,701	195,282	50.0%

※ 출처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현황자료  
전체 학생 수는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 기준



[그림 Ⅲ-2] 서울시 지원청별 방과후학교 참여율(%) (2022)

※ 출처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현황자료

### 3) 서울시 지원청별 방과후학교 참여비율 분포(학교 수)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05개 중에서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80% 이상인 학교 수는 32개(5.3%)다. 서울시 전체 방과후학교 평균 참여율이 50% 수준인 상황에서 80%이상의 참여율을 보인다는 것은 이들 학교의 방과후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특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는 반대로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지극히 저조한 학교들이 적지 않다. 참여율이 50% 미만인 학교 수는 291개에 이르며, 이 중에 30% 미만인 학교도 21개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별로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두드러지게 낮은 이유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Ⅲ-7〉 서울시 지원청별 방과후학교 참여비율 분포(학교 수)

지원청	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60% 미만	60%~70% 미만	70%~80% 미만	80% 이상	학교 수 합계
강남 서초	3	8	14	18	8	2	2	55
강동 송파	3	12	20	25	5	1	2	68
강서 양천	1	10	24	18	8	3	1	65
남부	5	17	13	24	4	2	2	67
동부	0	2	15	13	6	5	4	45
동작 관악	0	6	14	12	10	0	1	43
북부	1	13	30	14	3	2	2	65
서부	2	10	22	21	10	0	6	71
성동 광진	0	9	10	12	6	3	3	43
성북 강북	4	2	12	15	6	1	3	43
중부	2	1	6	12	8	5	6	40
서울시 전체 합계	21	90	180	184	74	24	32	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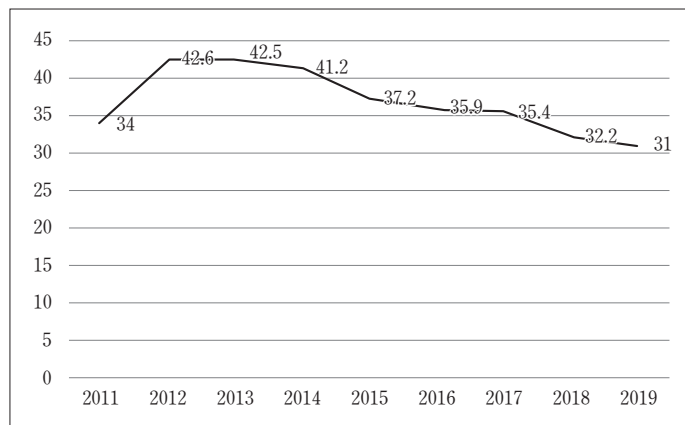
※ 출처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현황자료

### 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가 방과후학교 총 개설 강좌

##### 1) 전국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프로그램 수

2011년 학교당 평균 34개였던 전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는 2012~2014년까지 3년간 40개 이상을 유지되었으나,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9년에는 31개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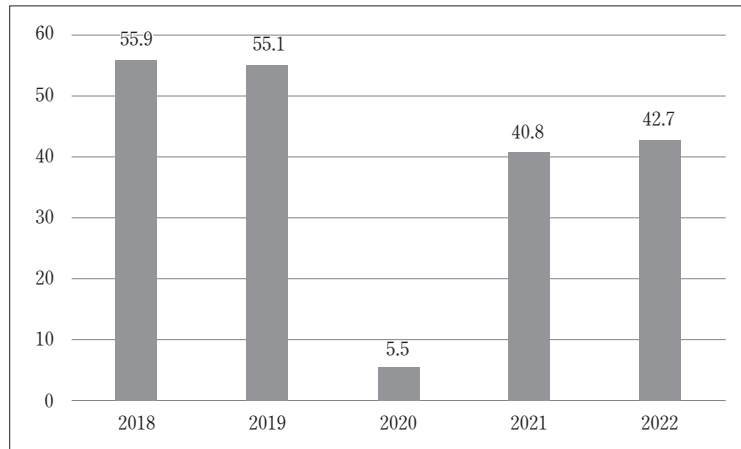
[그림 Ⅲ-3] 전국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프로그램 수

※ 출처 : 이희현 외(2021).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2)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프로그램 수

2018~2019년에 55개 내외 수준이던 서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10분의 1 수준으로 위축되었으나, 2021년 이후 다시금 40개 이상으로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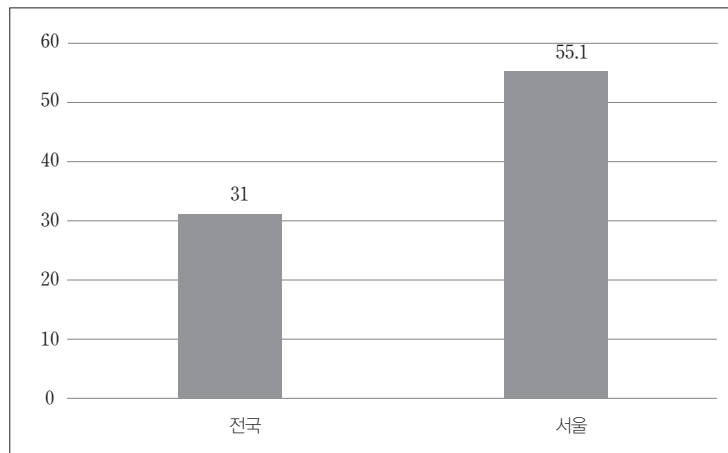


[그림 Ⅲ-4]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프로그램 수

※ 출처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

### 3) 전국과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프로그램 수 비교(2019)

2019년 기준으로 학교당 평균 프로그램 수는 전국 31개, 서울 55.1개로 전국 대비 서울이 학교당 평균 24.1개가 더 많다.(전국대비 177%) 이 점에 비추어볼 때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폭넓고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5] 전국과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프로그램 수(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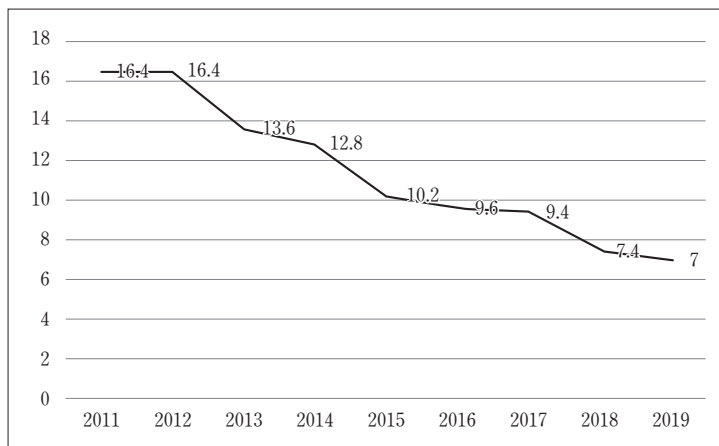
※ 출처 : 전국 - 이희현 외(2021).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

## 나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

### 1) 전국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교과 프로그램 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가 40개 내외에서 30개 내외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교과 프로그램 수도 16.4개(2011년)에서 7개로 감소했다.(2019년)

한편, <표 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전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전국 교과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기준 48.4%에서 2019년 기준 22.5%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교과 프로그램 수가 특기 적성 프로그램보다 더 많이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Ⅲ-6] 전국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교과 프로그램 수

※ 출처 : 이희현 외(2021).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표 Ⅲ-8> 전국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프로그램 수 및 평균 교과 프로그램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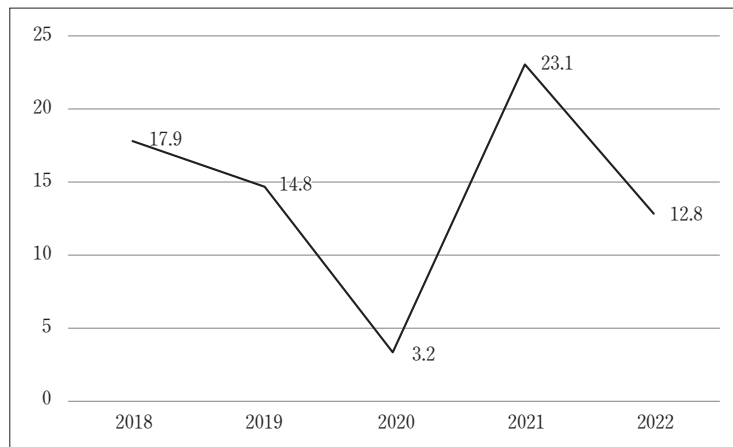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프로그램 수	34	42.6	42.5	41.2	37.2	35.9	35.4	32.2	31
평균 교과 프로그램 수	16.4	16.4	13.6	12.8	10.2	9.6	9.4	7.4	7
전체 대비 교과 비율(%)	48.4	38.5	32	31.1	27.3	26.6	26.7	23.1	22.5

※ 출처 : 이희현 외(2021).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재구성. 한국교육개발원

## 2)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교과 프로그램 수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 수도 2018년 17.9개, 2019년 14.8개로 전국 추세와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추세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팬데믹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2021년에는 오히려 23.1개로 이전보다 더 많아졌고 2022년에는 12.8개로 다시 감소했다.<sup>3)</sup>

한편, 교과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의 경우 22.5%로 낮아진 반면, 서울은 26.8%로 전국 평균에 비해 서울이 높은 편이다. (2019년 기준).



[그림 Ⅲ-7]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교과 프로그램 수

※ 출처 :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

〈표 Ⅲ-9〉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프로그램 수 및 평균 교과 프로그램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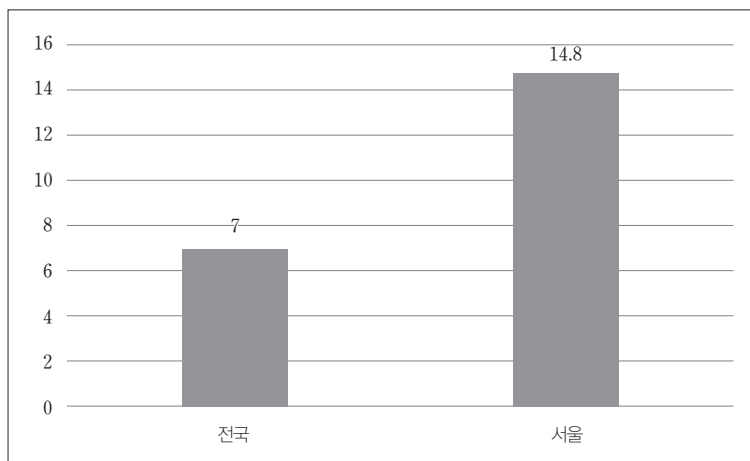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프로그램 수	55.9	55.1	5.5	40.8	42.7
평균 교과 프로그램 수	17.9	14.8	3.2	23.1	12.8
전체 대비 교과 비율(%)	32.1	26.8	57.2	56.6	30.0

※ 출처 :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 재구성

3) 2021년 서울 초등방과후학교의 교과 프로그램 23.1개까지 많아진 것은 이례적인 사태로 판단된다. 이 수치에 따르면 2021년 서울의 교과프로그램의 비중은 56.6%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원 데이터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

### 3) 전국과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교과 프로그램 수 비교(2019)

2019년 기준으로 학교당 평균 교과 프로그램 수는 전국 7개, 서울 14.8개로 서울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많다.



[그림 Ⅲ-8] 전국과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교과 프로그램 수(2019)

※ 출처 : 전국 - 이희현 외(2021).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

## 다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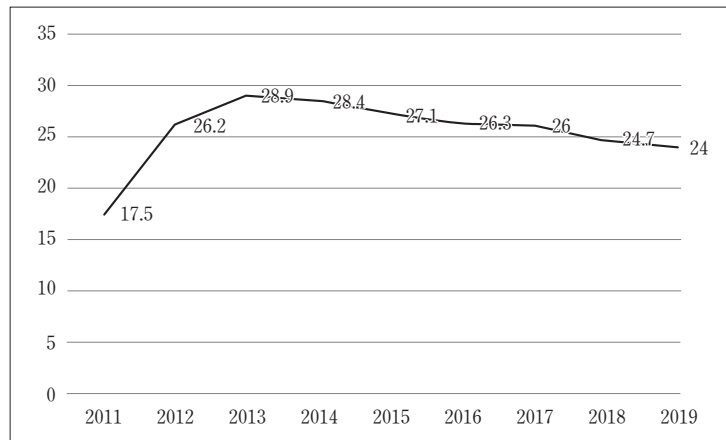
### 1) 전국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

전국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는 2011년 17.5개에서 2014년 28.4개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9년에는 24개로 줄어들었다.

한편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에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2011년 51.6% → 2019년 77.5%), 이는 교과 프로그램이 더 많은 비율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표 Ⅲ-10〉 전국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프로그램 수 및 평균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프로그램 수	34	42.6	42.5	41.2	37.2	35.9	35.4	32.2	31
평균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	17.5	26.2	28.9	28.4	27.1	26.3	26	24.7	24
전체 대비 교과 비율(%)	51.6	61.5	68	68.9	72.7	73.4	73.3	76.9	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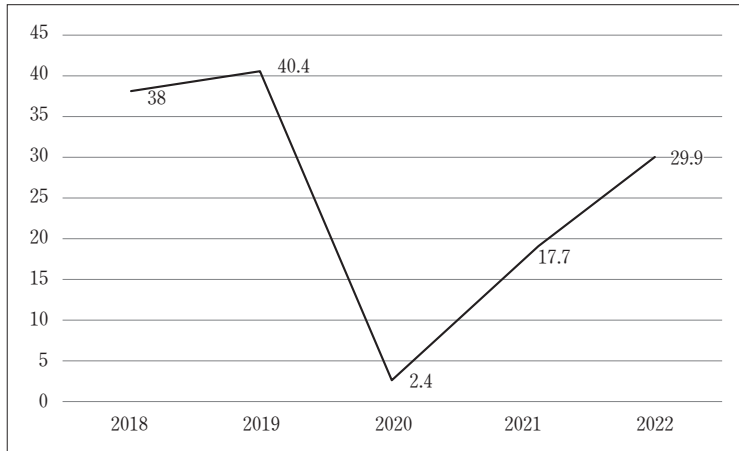


[그림 Ⅲ-9] 전국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

※ 출처 : 이희현 외(2021).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재구성. 한국교육개발원

## 2)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2019년 40.4개이며, 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2%였다. 2020년 팬데믹 영향으로 프로그램 수가 급감했다가 2022년에는 29.9개로 2019년 대비 74% 수준까지 회복하는 추세에 있다.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에 70%다.



[그림 Ⅲ-10]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

※ 출처 :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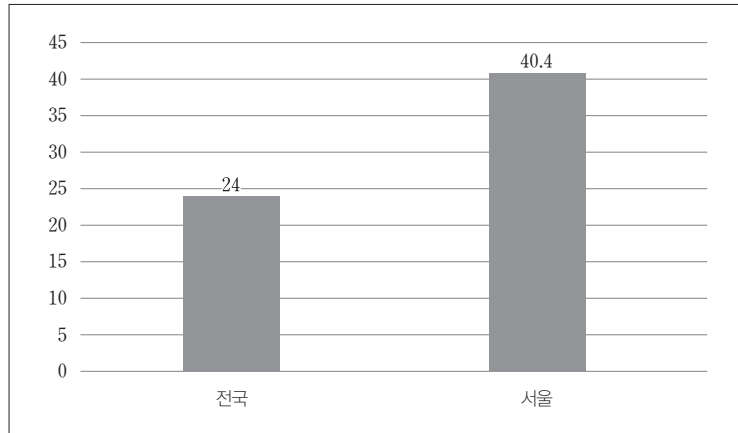
〈표 Ⅲ-11〉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프로그램 수 및 평균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프로그램 수	55.9	55.1	5.5	40.8	42.7
평균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	38.0	40.4	2.4	17.7	29.9
전체 대비 교과 비율(%)	67.9	73.2	42.8	43.4	70.0

※ 출처 :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 재구성

### 3) 전국과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 비교(2019)

2019년 기준으로 학교당 평균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는 전국 24개, 서울 40.4개로 전국 대비 서울이 16.4개 (전국대비 168.3%)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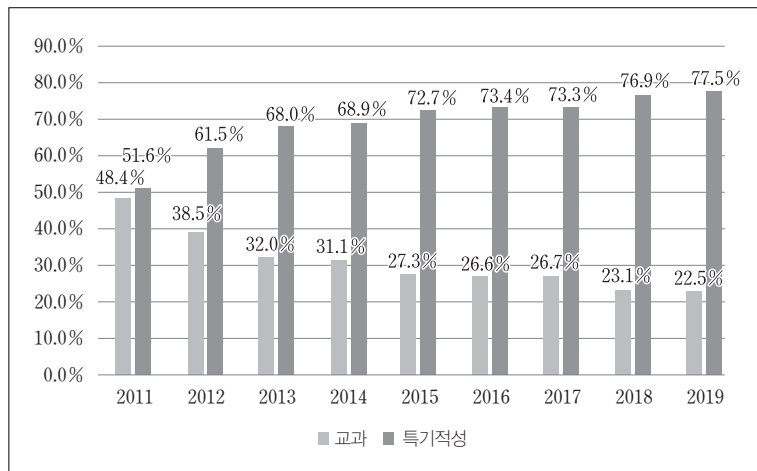
[그림 Ⅲ-11] 전국과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학교당 평균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2019)

※ 출처 : 전국 - 이희현 외(2021).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

## 라 방과후학교 교과와 특기적성 프로그램 비율

### 1) 전국 초등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유형 비율

전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교과 프로그램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에는 48.4% : 51.6%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교과 프로그램의 비중은 훨씬 줄어들어서 2019년에는 22.5% : 77.5%로 격차가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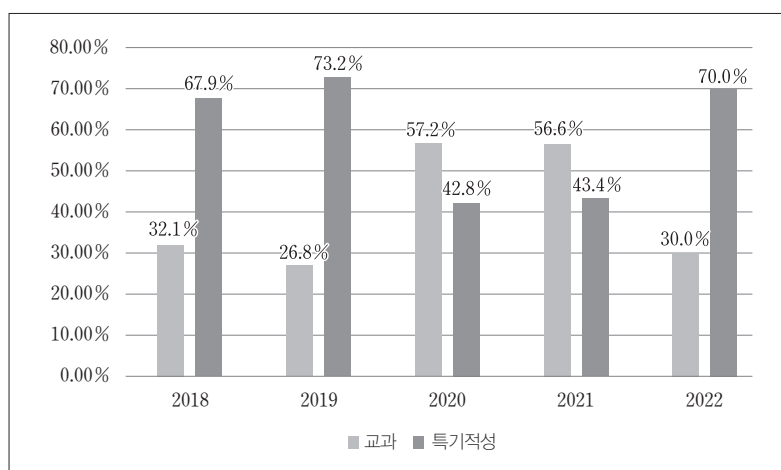
[그림 Ⅲ-12] 전국 초등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유형 비율 변화 추이

※ 출처 : 이희현 외(2021).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2)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유형 비율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유형별 비율도 전국 추세와 유사하다. 2019년 기준 교과와 특기 적성 프로그램의 비중은 26.8% : 73.2%다.

한편 팬데믹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는 교과 프로그램 비중이 특기적성 프로그램 비중보다 10%p 이상 커지는 등 역전하는 양상을 보였으나,<sup>4)</sup> 2022년에 다시금 특기적성 프로그램 비중이 70%로 높아지면서 예년과 같은 양상을 회복하였다.



[그림 Ⅲ-13]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유형 비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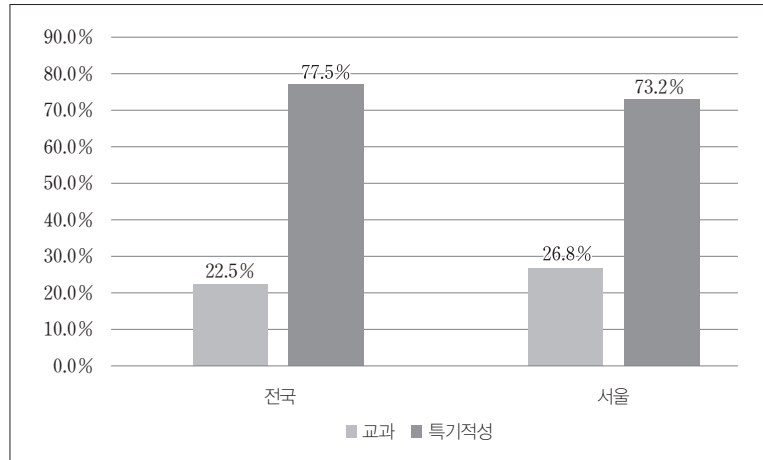
※ 출처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

## 3) 전국과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유형 비율 비교(2019)

2019년 기준으로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비율은 전국 77.5%, 서울 73.2%로, 전국이 4.3% 더 높으며, 교과 프로그램의 비율은 전국 22.5%, 서울 26.8%로, 전국 대비 서울이 4.3% 더 높다.

4) 앞의 각주에서 지적했듯이 2020년과 2021년 서울 교과 프로그램 수는 원데이터의 확인이 필요하다.





[그림 Ⅲ-14] 전국과 서울 초·중·고등학교 프로그램 유형 비율(2019)

※ 출처 : 전국 - 이희현 외(2021).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 서울시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

## 마 서울 초·중·고등학교 교과 프로그램 세부 강좌(2022)

### 1) 교과 프로그램 세부 강좌

서울의 교과 프로그램 강좌수는 총 7,798개로, 영어 2,811개(36.1%), 과학 2,448개(31.4%), 수학 1,387개(17.8%), 제2외국어 363개(4.7%), 사회 321개(4.1%), 기타 267개(3.4%), 국어 201개(2.6%) 순으로 많았다(강좌비율(1) 기준). 교과 프로그램 강좌 가운데 영어, 과학, 수학 강좌가 차지하는 비중이 85.3%를 차지한다.

학교당 평균 교과 프로그램 강좌 수는 영어(4.6개), 과학(4.0개), 수학(2.3개)과목의 경우 평균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개설하고 있지만, 제2외국어(0.6개), 사회(0.5개), 국어(0.3개) 등의 과목은 개설되지 않은 학교도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Ⅲ-12〉 서울 초·중·고등학교 교과 프로그램 강좌수 및 참여학생수(2022)

구분	강좌수	강좌 비율(1)	강좌 비율(2)	참여 학생수	참여학생 비율(1)	참여학생 비율(2)	학교당 평균 강좌 수
국어	201	2.6%	0.8%	11,538	11.9%	5.1%	0.3
사회	321	4.1%	1.2%	2,846	3.0%	1.3%	0.5
수학	1,387	17.8%	5.3%	27,354	28.3%	12.0%	2.3
과학	2,448	31.4%	9.4%	21,548	22.3%	9.5%	4.0

구분	강좌수	강좌 비율 <sup>(1)</sup>	강좌 비율 <sup>(2)</sup>	참여 학생수	참여학생 비율 <sup>(1)</sup>	참여학생 비율 <sup>(2)</sup>	학교당 평균 강좌 수
영어	2,811	36.1%	10.8%	26,504	27.4%	11.6%	4.6
제2외국어	363	4.7%	1.4%	2,812	2.9%	1.2%	0.6
기타	267	3.4%	1.0%	4,000	4.1%	1.8%	0.4
소계	7,798	100.0%	30.0%	96,602	100.0%	42.4%	12.9

※ 출처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

※ 강좌비율<sup>(1)</sup>과 참여학생비율<sup>(1)</sup>은 교과프로그램 내의 비율이고 강좌비율<sup>(2)</sup>과 참여학생 비율<sup>(2)</sup>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2) 특기적성 프로그램 세부 강좌

서울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좌 수는 총 18,184개로, 체육 4,865개(26.8%), 기타 4,181개(23.0%), 컴퓨터 3,157개(17.4%), 미술 2,771개(15.2%), 음악 2,623개(14.4%), 독서 논술 587개(3.2%) 순으로 많았다(강좌비율<sup>(1)</sup> 기준).

특히 서울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좌 가운데 체육 강좌가 차지하는 비중이 26.8%로, 특기적성 프로그램 4개 중 1개가 체육 강좌로 편성·운영됨을 알 수 있다. 다만 기타, 컴퓨터, 미술, 음악 강좌 또한 강좌 비율이 15~20%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강좌 간 편성·운영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당 평균 강좌수는 체육(8.0개), 기타(6.9개), 컴퓨터(5.2개), 미술(4.6개), 음악(4.3개), 독서 논술(1.0개)로 6개로 분류된 특기적성 프로그램 전체가 평균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개설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표 Ⅲ-13〉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좌수 및 참여학생수(2022)

구분	강좌수	강좌 비율 <sup>(1)</sup>	강좌 비율 <sup>(2)</sup>	참여 학생수	참여학생 비율 <sup>(1)</sup>	참여학생 비율 <sup>(2)</sup>	학교당 평균 강좌 수
체육	4,865	26.8%	18.7%	34,434	26.3%	15.1%	8.0
기타	4,181	23.0%	16.1%	28,354	21.6%	12.5%	6.9
컴퓨터	3,157	17.4%	12.2%	27,559	21.0%	12.1%	5.2
미술	2,771	15.2%	10.7%	21,204	16.2%	9.3%	4.6
음악	2,623	14.4%	10.1%	14,790	11.3%	6.5%	4.3
독서논술	587	3.2%	2.3%	4,662	3.6%	2.0%	1.0
소계	18,184	100%	70.0%	131,003	100.0%	57.6%	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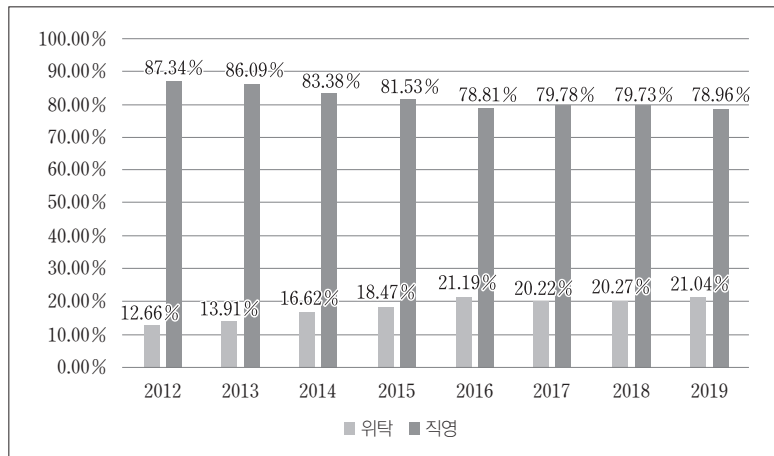
※ 출처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

## 4. 운영 유형 : 위탁 및 직영

### 가 위탁 및 직영 강좌 현황

#### 1) 전국

전국적으로 방과후학교 강좌의 위탁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전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유형은 위탁 비율은 12.7%(2012년)에서 21%(2019년)로 증가했고, 반대로 직영 비율은 87.3%(2012년)에서 79%(2019년)로 9.59% 감소하였다.



[그림 Ⅲ-15] 전국 초등방과후학교 위탁과 직영 프로그램 비율 추이

※ 출처 : 이희현 외(2021),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2) 서울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서울의 경우 위탁강좌 비율이 훨씬 높는데, 2019년 기준 전국의 위탁 강좌 평균이 21.04%인데 비해서 서울은 52.4%였다. 여기에 더해 서울은 위탁강좌의 비율이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 서울의 위탁강좌 비율은 64.4%로 높아졌다.

2022년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총 강좌수는 25,982개, 이 가운데 위탁 강좌수는 16,741개 (64.4%), 직영 강좌수는 9,241개(35.6%)다.<sup>5)</sup>

5) 참고로 서울지역 초등방과후학교 부장교사 38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영 23.2%, 위탁 61.1%, 직영과 위탁 혼합 15.7%로 나타났다.

〈표 Ⅲ-14〉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위탁과 직영 프로그램 강좌수(2019)

(기관) 위탁 강좌수		직영 강좌수 (자체채용포함)	전체 강좌수
17,532		15,938	33,470
52.4%		47.6%	100.0%

※ 출처 : 이희현 외(2021),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재구성, 한국교육개발원

〈표 Ⅲ-15〉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위탁과 직영 프로그램 강좌수(2022)

(기관) 위탁 강좌수			직영 강좌수 (자체채용포함)	전체 강좌수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소계		
13,784	2,957	16,741	9,241	25,982
82.3%	17.7%	64.4%	35.6%	100.0%

※ 출처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

## 나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위탁 및 직영 학교 현황

2022년 기준 서울 초등학교 609개 가운데 위탁 운영 학교는 482개(79.1%), 직영 운영 학교는 127개(20.9%)다. 서울 초등학교 10곳 중 약 8곳에 해당하는 학교가 위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위탁 운영 학교 가운데 영리기관을 중심으로 위탁을 실시하는 학교는 409개교(84.9%),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위탁을 실시하는 학교는 73개교(15.1%)로 나타났다.

〈표 Ⅲ-16〉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위탁과 직영 운영 학교수(2022)

(기관) 위탁 운영 학교수			직영 운영학교수 (자체채용포함)	전체 학교수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소계		
409	73	482	127	609
84.9%	15.1%	79.1%	20.9%	100.0%

※ 비고 : 민참컴퓨터 및 중복 제외, 영리/비영리기관 수는 중복

※ 출처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

## 5. 수강료

전국 평균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1인당 월 평균 비용은 2011년 3.2만원에서 2019년 3.7만원 완만하게 상승했다(8년간 15.6% 상승). 2022년 기준으로는 3.8만원이다.

서울은 2011년 3.5만원에서 2019년 4.2만원으로 8년간 20% 상승했다. 2022년 기준 서울의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1인당 월 평균 비용은 4.9만원이다.

〈표 Ⅲ-17〉 전국 및 서울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비용

(단위 : 만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3.2	2.9	3.4	3.8	3.7	3.6	3.6	3.5	3.7	-	3.1	3.8
서울	3.5	3.0	4.2	4.2	4.0	3.9	4.3	4.0	4.2	-	3.8	4.9

※ 출처 : 통계청 초중등교육비 조사 2011-2022 방과후학교 참여비용 재구성

위의 통계청 조사자료와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의 현황자료 사이에는 방과후학교 비용의 액수에 차이가 있다.

초등교육과 자료를 기초로 할 때 2022년 참여학생수는 195,282명이며(중복제외), 1인당 참여강좌수는 1.8개다. 강좌당 수강료는 3.1만원이고, 1인당 참여과목 수가 1.8개임을 고려하면 1인당 월 평균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5.7만원이다.

〈표 Ⅲ-18〉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 및 수강료 현황

학생참여현황			수강료		
참여 학생수 (중복)	참여 학생수 (단수)	1인당 참여 강좌수	월 수강료 총액	강좌당 수강료	1인당 월평균 수강료
352,335	195,282	1.8	111억 원	3.1만원	5.7만원

※ 출처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 재구성

## 6. 강사 현황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강사는 14,383명이며, 이 중에 내국인 외부 강사 13,573명(94.4%)으로 절대 다수다. 현직교원은 365명(2.5%), 원어민 445명(3.1%)이다.

교과 강좌만 보면, 내국인 외부 강사는 84.6%이며 현직교원은 4.7%, 원어민이 10.8%를 차지한다. 교과 강좌에서 원어민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외국어(특히 영어) 강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외국인 강사 445명 중에서 431명이 교과 강좌 강사다.

특기 적성 강좌의 경우 내국인 외부 강사 비율이 98.2%, 현직교원은 1.7%, 원어민은 0.1%다.

〈표 Ⅲ-19〉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강좌 특성별 운영 인력 현황(2022)

		현직교원	외부강사(내국인)	원어민	합계
교과	강사 수	187	3,381	431	3,999
	비율	4.7%	84.6%	10.8%	100.0%
특기적성	강사 수	178	10,192	14	10,384
	비율	1.7%	98.2%	0.1%	100.0%
전체	강사 수	365	13,573	445	14,383
	비율	2.5%	94.4%	3.1%	100.0%

※ 출처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

## 7. 방과후학교 운영 공간(2022)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교실 수는 26,539개이며 이중에 방과후학교에 이용되는 교실은 8,072개로 전체 교실의 30.4%가 방과후학교에 이용되고 있다.

기타교실(수준별, 방과후전용, 돌봄교실 겸용)은 1,850개 중에서 1,705개(92.2%)가 방과후교실에 이용되고 있고, 교과 및 특별교실은 5,517개 중에서 4,628개(83.9%), 일반교실은 19,172개 중에서 1,703개(8.9%)가 방과후학교에 이용되고 있다.

한편 학교 밖 공간을 방과후학교 교실로 이용하는 것은 36개로 전체 방과후학교 교실의 0.4%에 불과하다.

〈표 Ⅲ-20〉 서울 초등방과후학교 교실 운영 공간 현황

구분	합계	일반교실	교과 및 특별교실	기타교실 (수준별, 방과후전용, 돌봄교실 겸용)	학교밖 공간
전체 교실 수	26,539	19,172	5,517	1,850	—
방과후학교 이용 교실 수	8,072	1,703	4,628	1,705	36
방과후학교 이용 비율	30.4%	8.9%	83.9%	92.2%	—
방과후학교 이용 교실 내 비중	100.0%	21.1%	57.3%	21.1%	0.4%

※ 기타교실은 수준별 교실, 방과후전용교실, 돌봄교실 겸용 등을 말함

※ 출처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

## 8. 방과후학교 만족도

### 가 만족도 항목

#### 1) 학생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다양한 항목을 바탕으로 측정되고 있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길라잡이, 서울 시내 A 초등학교, 이희현 외(2021)의 연구보고서, 서울시교육청 만족도 조사 등 4개의 예시를 활용하였다.

학생용 만족도 조사 항목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 길라잡이(2022)는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8항목<sup>6)</sup>, 연간운영 만족도 6항목<sup>7)</sup>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서 제시한 위 문항들을 단위학교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만족도 항목을 조정해서 조사한다. A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분기별), 연간 운영만족도 조사(연2회)를 실시

6) 운영시간 준수, 교재 및 재료 도움정도, 운영 준비 정도, 내용과 분량, 내용에 대한 강사설명, 학생 참여를 위한 지도, 특기개발과 실력향상에 도움 정도, 지속 참여 의향

7) 운영 전반 만족도, 운영시간 만족도, 강사진 만족도, 프로그램 구성 만족도, 수강인원, 수준별 반편성 만족도, 사교육 경감 도움

하며, 학부모는 연간 운영만족도 조사만 실시한다. A 초등학교의 만족도 조사 항목 8개이며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결과 70% 미만인 경우 강사 교체 명시하고 있다.<sup>8)</sup>

이희현 외(2021)의 연구보고서가 제시하는 방과후학교 만족도 항목은 학생만족도 9항목이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제공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항목은 3개(특기개발 및 실력향상에 도움 정도, 지속 참여 의향, 운영 전반 만족도)이다.

위의 4가지 만족도 조사 항목 예시 중에서 운영 전반만족도는 4개의 예시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특기개발 및 실력향상에 도움 정도, 지속 참여의향, 강사진에 대한 만족도는 3개의 예시에 포함되어 있다.

〈표 Ⅲ-21〉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및 연간 운영 만족도 설문지(학생)

구분	서울 교육청 길라잡이	A 초등학교	이희현 외	서울교육청 만족도조사
운영시간 준수	○			
교재와 재료의 도움정도	○			
프로그램 운영 준비 정도	○			
프로그램 선택가능성			○	
프로그램의 다양성			○	
프로그램의 내용과 분량	○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강사의 설명	○		○	
학생의 참여를 위한 지도	○			
특기 개발 및 실력향상에 도움 정도	○	○		○
지속 참여 의향	○		○	○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 만족도	○	○	○	○
운영시간 만족도	○	○		
강사진에 대한 만족도	○	○	○	
프로그램 구성 만족도	○		○	
수강인원 및 수준별 반편성 만족도	○	○		
사교육 경감 효과	○	○		
시설 및 환경		○	○	

8) 특기 개발 및 실력향상 도움 정도, 운영 전반만족도, 운영시간 만족도, 강사진에 대한 만족도, 수강인원 및 수준별 반편성 만족도, 사교육 경감 효과, 시설 및 환경, 수강료



구분	서울 교육청 길라잡이	A 초등학교	이희현 외	서울교육청 만족도조사
활동평가			○	
수강료		○		
합계	14	8	9	3

※ 출처 :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 길라잡이(2022),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  
이희현 외(2021).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A 초등학교,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 2) 학부모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 길라잡이(2022)는 연간 운영만족도 8항목<sup>9)</sup>을 제시하고 있으며, A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길라잡이와 마찬가지로 연간 운영만족도 조사(연 2회)에 8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희현 외(2021)의 연구보고서에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항목을 7개로 제시하고 있으며, 강사 만족도 항목은 없다.<sup>10)</sup>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제공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항목은 학생과 마찬가지로 3개다(운영 전반 만족도, 특기계발과 실력향상 도움 정도, 지속참여 의지).

위의 4가지 만족도 조사 항목 예시 중에서 운영 전반만족도, 특기계발과 실력향상 도움 정도 항목은 4개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프로그램 운영시간 만족도, 운영 환경은 3개 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학부모 만족도 항목은 학생용과 유사하지만, 운영 환경에 대한 조사 항목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22〉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및 연간 운영 만족도 설문지(학부모)

구분	서울 교육청 길라잡이	A학교	이희현 외	서울교육청 만족도조사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 만족도	○	○	○	○
프로그램 운영시간 만족도	○	○	○	

9) 운영 전반만족도, 운영시간 만족도, 강사진 만족도, 수강료 만족도, 수강인원, 수준별 반편성 만족도, 프로그램 운영 환경, 특기계발과 실력향상 도움 정도, 사교육비 경감 도움

10) 운영 전반 만족도, 운영시간 만족도, 선택가능성, 다양성, 운영 환경, 특기계발과 실력향상 도움 정도, 지속 참여 의지

구분	서울 교육청 길라잡이	A학교	이희현 외	서울교육청 만족도조사
프로그램 선택가능성			○	
프로그램의 다양성			○	
강사진에 대한 만족도	○	○		
수강료 만족도	○	○		
수강인원, 수준별 반편성 만족도	○	○		
프로그램 운영 환경	○	○	○	
특기 계발과 실력향상에 도움 정도	○	○	○	○
사교육비 경감 도움	○	○		
지속 참여의지			○	0
합계	8	8	7	3

※ 출처 :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 길라잡이(2022),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  
이희현 외(2021),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A 초등학교,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 나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 비율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학생 비율은 평균 25.4%, 학부모는 22.4%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별로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비율 차이는 큰 편이다. 예를 들면, 서부는 학생 평균 50.8%, 학부모 평균 45.7%로 가장 높았으며, 강북성북은 학생 15.3%, 학부모 14.2%로 참여율이 가장 낮았다.

단, 이 만족도 평가는 학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수행하는 만족도 평가이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율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어느 만족도 평가인지에 따라서 참여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표 Ⅲ-23〉 만족도 평가 학생 참여율

	4학년	6학년	평균
강남서초	18.1%	18.9%	18.5%
강동송파	19.9%	26.3%	23.1%
강북성북	13.6%	17.1%	15.3%
강서양천	26.4%	36.7%	31.5%
관악동작	21.0%	26.9%	23.9%
남부	32.8%	39.3%	36.1%

	4학년	6학년	평균
동부	22.4%	25.6%	24.0%
북부	20.1%	24.4%	22.3%
서부	47.2%	54.4%	50.8%
성동광진	21.3%	24.6%	23.0%
중부	32.3%	39.7%	36.0%
전체	23.0%	27.8%	25.4%

〈표 Ⅲ-24〉 만족도 평가 학부모 참여율

	2학년	4학년	6학년	평균
강남서초	16.5%	15.8%	16.9%	16.4%
강동송파	19.3%	18.9%	25.2%	21.1%
강북성북	13.1%	13.4%	16.0%	14.2%
강서양천	21.3%	24.7%	32.4%	26.1%
관악동작	17.8%	19.2%	22.7%	19.9%
남부	28.3%	30.7%	34.2%	31.1%
동부	18.0%	21.1%	21.7%	20.3%
북부	19.0%	17.9%	22.1%	19.7%
서부	42.7%	45.6%	48.8%	45.7%
성동광진	20.9%	18.2%	21.2%	20.1%
중부	29.4%	32.4%	36.3%	32.7%
전체	20.9%	21.4%	24.8%	22.4%

※ 출처 :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자료 가공 (2022. 10. 31. 기준)

## 다 만족도 평가 결과

### 1) 전국

2011-2019년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평균 86.5점과 83.3점이다. 5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학생은 4.3, 학부모는 4.2점이다.

〈표 Ⅲ-25〉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변화 (2011-2019)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5점 환산
학생	82.0	83.8	86.1	87.5	88.8	89.7	87.4	87.2	86.4	86.5	4.3
학부모	79.2	80.8	83.1	84.4	85.7	86.8	83.7	83.3	83.0	83.3	4.2

※ 출처 : 이희현 외(2021).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2) 서울

서울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는 5점 척도 기준으로 학생 학부모 모두 평균 4.5점 수준으로 우수한 만족도 결과를 보였다.

〈표 Ⅲ-26〉 서울시 방과후학교 학년별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 결과 (2022년)

	2학년			4학년			6학년		
	전반적 만족	도움 정도	참여 의향	전반적 만족	도움 정도	참여 의향	전반적 만족	도움 정도	참여 의향
학생	-	-	-	4.63	4.56	4.54	4.56	4.53	4.45
학부모	4.48	4.52	4.58	4.49	4.53	4.55	4.48	4.52	4.51
전체 평균	4.48	4.52	4.58	4.56	4.54	4.54	4.52	4.53	4.48

※ 출처 :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자료 가공 (2022. 10. 31. 기준)

또한 교육지원청별로도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평균 4.5점 내외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Ⅲ-27〉 서울시 방과후학교 교육지원청별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 결과

	학생	학부모	전체
	평균(점)	평균(점)	평균(점)
강남서초	4.56	4.54	4.55
강동송파	4.54	4.53	4.53
강서양천	4.53	4.46	4.50
남부	4.58	4.55	4.57
동부	4.55	4.49	4.52
동작관악	4.55	4.55	4.55
북부	4.51	4.50	4.51
서부	4.58	4.54	4.56
성동광진	4.54	4.53	4.53
성북강북	4.57	4.54	4.56
중부	4.46	4.43	4.43
총합계	4.55	4.52	4.53

※ 출처 :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자료 가공 (2022. 10. 31. 기준)

다만, 이러한 서울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 평가 결과를 해석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방과후학교의 만족도 조사는 방과후학교를 참여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를 중간에 그만두었거나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만족도가 높은 학생과 학부모가 조사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서울시교육청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학생의 25%, 학부모의 22%만 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만족도 결과에 일정한 편향이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학부모 평가는 5점 만점에 3.79로 나타났다.

## 9.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지원 현황

### 가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

저소득층이 방과후학교에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수강권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1. 법정 저소득층, 중위소득 80% 이하,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 인정자, 특별 기여자 또는 그 자녀다. 지원금액은 연간 60만원이며, 연간 지원액을 모두 소진한 학생에 대하여 연간 최대 2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2023년 기준)

〈표 Ⅲ-28〉 방과후학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23년 기준)

지원대상	지원금액	추가 지원
1. 법정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2.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학생 3.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 인정자, 특별 기여자 또는 그 자녀	연간 60만원	연간 최대 20만원

※ 추가지원의 경우, 연간 지원액(60만원)을 모두 소진한 학생에 대하여 추가 지원

※ 출처 :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팀

### 나 무상 방과후학교 참여율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무상참여 지원을 위한 교부금은 2011-2019년 기간 동안 연 평균 2,731억원이 집행되었다. 지원받은 학생수는 연 평균 64만 5천명이고, 1인당 평균 지원금은 43만원이다. 전체 학생수 대비 평균 10.6%가 무상참여 지원을 받았다.

〈표 Ⅲ-29〉 전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부액, 지원학생수, 지원비율 1인당 지원금 추이(2011-2019)

(단위 : 백만원, 천명)

연도	교부액	지원학생수	1인당 지원금	전체 학생수	지원비율
2011	176,581	482	0.37	6,987	6.9%
2012	289,188	602	0.48	6,721	9.0%
2013	340,745	567	0.6	6,481	8.8%
2014	371,960	774	0.48	6,286	12.3%
2015	116,891	735	0.16	6,089	12.1%
2016	347,548	724	0.48	5,883	12.3%
2017	319,353	689	0.46	5,725	12.0%
2018	337,765	626	0.54	5,584	11.2%
2019	158,187	604	0.26	5,453	11.1%
평균	273,135	645	0.43		

※ 출처 : 이희현 외(2021).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에서 재가공

※ 학생수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 다 서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부액, 지원 학생수, 1인당 지원액

2019년 서울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수는 46,396명으로 전체 학생의 5.4%가 지원을 받았다.(초,중,고 포함) 집행 예산은 190억원이며, 1인당 지원금은 41만 1천원 규모였다.

2022년에는 집행 예산이 150억원으로 2019년 대비 79% 수준으로 줄었으며, 지원 학생수도 줄어서 지원 대상 비율은 5.4%에서 3.1%로 낮아졌다. 하지만 지원 예산 총액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학생 수는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1인당 지원금액은 41만 1천원에서 60만 3천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표 Ⅲ-30〉 서울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예산, 지원 학생수와 비율 1인당 지원금액(2019-2022)

(단위 : 개교, 명, 천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전체 학교 수	1,313	1,314	1,316	1,320
지원 학교 수	1,291	517	1,125	1,186
지원학교비율	98.3%	39.3%	85.5%	89.8%
전체 학생 수	866,395	840,933	825,503	806,340
지원 학생 수	46,396	8,264	21,914	24,955
지원 학생 비율	5.4%	1.0%	2.7%	3.1%

연도	2019	2020	2021	2022
예산집행액	19,090,479	4,254,813	11,398,330	15,049,515
1인당 지원금	411	515	520	603

※ 출처 :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팀 자료

## 10. 국공립과 사립 초등학교 비교

이번 장은 국공립과 사립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현황을 비교하였다. 국공립 학교와 사립 학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장과 학교의 자율적 운영방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사립 초등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좀더 활성화하여 운영되는 흐름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여, 질 높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방과후학교 현황을 비교하였다.

### 가 참여율

2011-2013년 국공립과 사립은 비슷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사립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국공립을 10% 이상 앞서기 시작한다. 2019년 국공립의 참여율은 56.8%이지만 사립은 81.5%로 국공립에 비해 24.7%가 높았다.

〈표 Ⅲ-31〉 국공립과 사립 초등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추이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공립	62.0	71.2	73.2	72.8	71.1	65.7	64.0	58.9	56.8
사립	64.0	66.5	73.9	83.0	80.5	83.2	87.6	80.3	81.5

※ 출처 : 이희현 외(2021).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 나 프로그램의 다양성

#### 1) 전체 프로그램의 다양성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2011-2019년 10년 동안 국공립과 사

립의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성에서 급격하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2019년에 이르러서는 두 유형 사이의 평균 프로그램 수 차이가 46.9개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사립 방과후학교의 평균 프로그램 수가 10년간 30개 넘게 증가한 영향과 함께 국공립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평균 숫자가 오히려 10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것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표Ⅲ-32〉 국공립과 사립 초등방과후학교 평균 프로그램 수 변화 추이

(단위 : 개)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공립	33.9	44	42.6	40.9	36.9	35.4	34.8	31.6	30.4
사립	43.2	47.2	53	63.6	62.5	71.4	77.5	74.5	77.5

※ 출처 : 이희현 외(2021),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참여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2011년 국공립은 학교당 평균 33.9개, 사립은 43.2개로 9.3개 차이가 났고, 2012년에는 그 차이가 3.2개 수준으로 줄었는데, 2013년 이후 국공립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수가 줄기 시작하고 반대로 사립은 프로그램 수가 많아지면서 격차는 점점 더 커졌다. 2019년 국공립은 학교당 30.4개, 사립은 77.5개로 사립이 국공립보다 2.5배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특기 프로그램의 다양성

특기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사립의 경우 2011년보다 2019년의 특기 프로그램 수가 평균 20개 정도 늘어난 것에 반대, 국공립 프로그램은 평균 6개 정도 늘어난 것에 그쳤다.

특기 프로그램의 경우 국공립은 2011년 학교당 평균 17.4개에서 2013년 28.9개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완만하고 감소해서 2019년에는 23.7개를 운영한다. 반면에 사립은 2011년 26.2개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수가 증가해서 2018년에는 48.5개를 운영했다.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46.7개의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는 국공립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표Ⅲ-33〉 국공립과 사립 초등방과후학교 평균 특기 프로그램 수 변화 추이

(단위 : 개)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공립	17.4	27.3	28.9	28.3	26.9	26.1	25.7	24.4	23.7
사립	26.2	30.9	38.6	38.1	38.9	42.3	45.5	48.5	46.7

※ 출처 : 이희현 외(2021),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 3) 교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국공립과 사립 초등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교과프로그램의 다양성 수준이다. 2011년 교과 프로그램은 국공립 16.4개, 사립 17개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 국공립은 교과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2019년에는 6.7개에 불과하게 되었고, 반대로 사립은 30.8개로 증가해서 그 차이가 4.6배에 이른다.

〈표 Ⅲ-34〉 국공립과 사립 초등방과후학교 평균 교과 프로그램 수 변화 추이

(단위 : 개)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공립	16.4	16.8	13.6	12.6	10.0	9.3	9.2	7.2	6.7
사립	17.0	16.5	14.5	25.4	23.6	29.1	32.1	26.0	30.8

※ 출처 : 이희현 외(2021).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 11. 방과후학교와 사교육 부담

방과후학교의 역사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방과후학교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사교육 부담 완화를 상정하고 있다. 이에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초·중등사교육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방과후학교 참여율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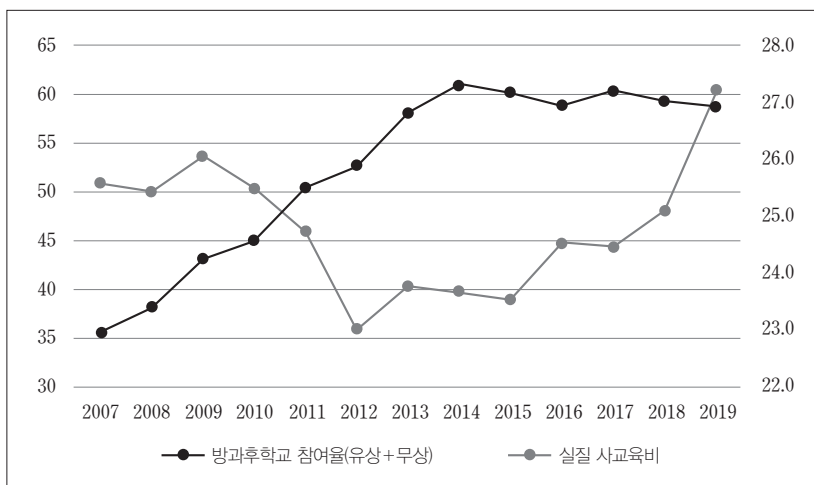
분석항목은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월당), 사교육 참여율,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이며,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기준으로 각 지표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는 학벌과 학력 중심의 사회적 계층 구조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대입 경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초·중학생의 경우 직접적인 대입 경쟁으로 인해 사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초·중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발판이 된다는 의식이 초·중학교 사교육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의 참여가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특히 초·중학교의 방과후학교는 교과프로그램이 중심이 아니라 특기 적성 프로그램이 중심이기 때문에 방과후학교가 교과 성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은 사교육비 감소에 일정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림 Ⅲ-16]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초등학교 1인당 실질 사교육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2012년도 예외적으로 전체 사교육비가 감소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높아지는 2007년부터 2014년도까지 사교육 참여 초등학교생의 실질 사교육비는 감소했으며,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낮아지는 2016년 이후부터 실질 사교육비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sup>11)</sup>



[그림 Ⅲ-16] 초등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1인당 실질 사교육비 변화(2007-2019)

※ 출처 : 통계청, 초·중등사교육비 조사 2007-2022에서 재구성  
실질 사교육비는 명목상 사교육비에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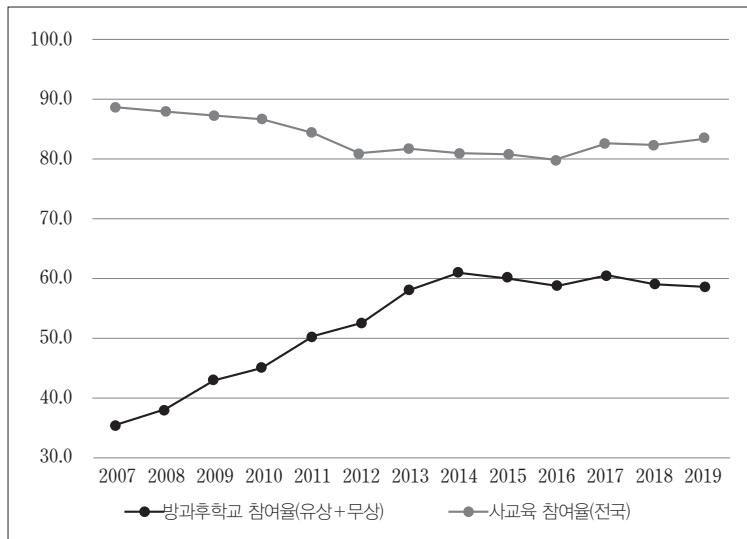
## 가 사교육 참여율과 방과후학교 참여율

초등학교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사교육비 자체보다는 사교육 참여율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11)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연도별 자료에서 추출, 물가상승률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각 연도

[그림 Ⅲ-17]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사교육 참여율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상승하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사교육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감소하는 2016년부터 사교육 참여율이 다시 증가한다. 실제로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방과후학교 참여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0.91$ 에 달한다.

물론 연구의 필요성에서도 지적했듯이 방과후학교가 사교육 참여율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도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방과후학교와 무관하게 사교육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참여율이 높아지면 사교육 참여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17]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사교육 참여율의 변화 추이(2007-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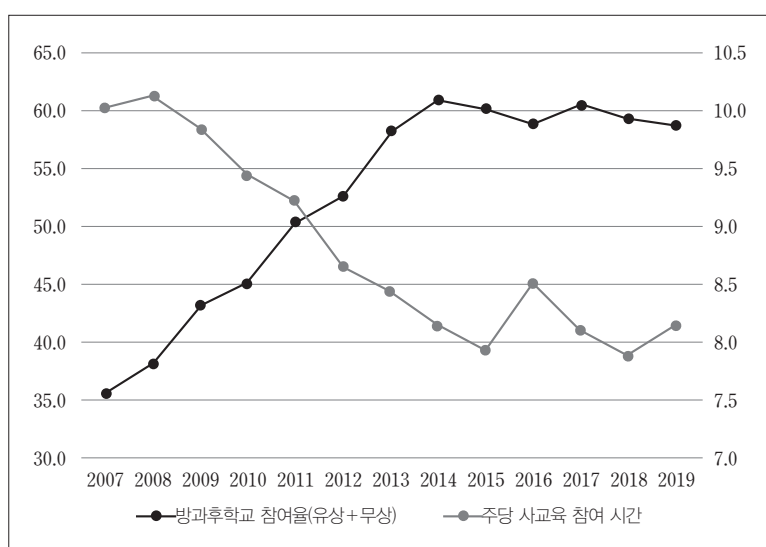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초·중등사교육비 조사 2007-2022에서 재구성

## 나 사교육 시간과 방과후학교 참여율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사교육 참여 시간의 관계는 좀 더 극적이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높아지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사교육 참여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반대로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낮아지는 2016년에는 사교육 참여시간이 증가하고, 2017년 방과후학교 참여

율이 증가하자 사교육 참여율은 다시 감소한다. 13년간 예외적인 흐름을 보여준 것은 2015년, 2018년 뿐이다. 실제로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사교육 참여시간의 상관관계수는  $-0.97$ 에 이른다.

연구의 필요성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데,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요컨대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어서 참여율이 더 높아지면 적어도 초등학생들이 사교육기관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은 줄어든다.



[그림 Ⅲ-18]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변화 추이(2007-2019)

※ 출처 : 통계청, 초중등사교육비 조사 2007-2022에서 재구성



---

# IV

## 초등방과후학교 운영 실태 분석

---

1. 설문조사 개요
2. 분석결과

## 초등방과후학교 운영 실태 분석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지원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의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교사, 방과후학교 담당부장 교사, 교장과 교감, 방과후학교 강사, 보호자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 1. 설문조사 개요

#### 가 설문 대상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객관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서울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교원(일반교사, 담당부장 교사, 교장/교감), 학생의 보호자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 대상자들에게 교육청 공문을 통해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8일간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였다.

#### 나 설문 문항 구성

설문 문항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IV - 1〉 설문문항 구성표

구분	요인	측정 방법	문항 수	응답 대상
I. 초등학생 방과후학교, 사교육, 돌봄 실태	방과후학교 종료시간	선택형	1	5
	방과후학교_적정 종료시간	선택형	1	5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 상황	선택형	1	5
	방과후학교 참여 과목	선택형	1	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출 총 비용	선택형	1	5
	일주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날짜	선택형	1	5



구분	요인		측정 방법	문항 수	응답 대상
Ⅱ.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실태		교과 관련 강좌 추가 개설 희망 여부	5점척도	1	5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선택형	1	5
		1개 강좌당 비용 부담 의향	선택형	1	5
		주말 개설 방과후학교 참여 의향	선택형	1	5
	사교육 참여	사교육 참여여부	선택형	1	5
		일반교과_사교육에 참여하는 과목	선택형	1	5
		일반교과_사교육에 자녀가 참여하는 전체 과목 수	선택형	1	5
		일반교과_한 달 총 사교육 비용	선택형	1	5
		일반교과_사교육 참여횟수_일주일	선택형	1	5
		일반교과_사교육 종료시간	선택형	1	5
		일반교과_사교육 참여 이유	선택형	1	5
		예체능_사교육 참여 전체 과목 수	선택형	1	5
		예체능_한 달 총 사교육 비용	선택형	1	5
		예체능_사교육 일주일당 참여 횟수	선택형	1	5
		예체능_사교육 종료시간	선택형	1	5
		자녀 돌봄 부담 정도	선택형	1	5
	돌봄교실 참여	평일 중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간	선택형	1	5
		하교 이후 자녀 돌봄 방법	선택형	1	5
		초등돌봄교실 이용 여부	선택형	1	5
		초등돌봄교실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	선택형	1	5
		초등돌봄교실 이용 시간	선택형	1	5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선택형	1	5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선택형	1	5
		모든 학생에게 개방된다면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향 여부	선택형	1	5
		8시돌봄 비용 부담 의향 금액	선택형	1	5
		비용 부담 의향 금액	선택형	1	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취지		5점척도	8	1,2,3,4
	방과후학교 운영 평가	종합 평가	5점척도	1	1,2,3,4,5
		방과후학교 강좌의 질적 우수 정도	5점척도	1	5
	마을 방과후학교 운영의 실효성		5점척도	1	1,2,3,4,5
	프로그램 선정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여부	5점척도	1	2,3,5
		고려사항	5점척도	15	2
		이해관계자의 중요도	5점척도	5	2,3
	강사의 수업역량		5점척도	1	2,3,4,5
	질높은 강사 채용 조건		5점척도	5	2,3,4
	방과후학교 참여 증진 방안		5점척도	6	2,3
	교육공간	충분 정도	5점척도	1	2,3,4
		일반교실 활용	5점척도	1	1,2,3,4
		연구실 및 휴게실 제공 조건으로 일반교실 활용	5점척도	1	1,2,3

구분	요인		측정 방법	문항 수	응답 대상
Ⅲ. 방과후학교 강사 실태와 요구 분석		교육청 책임 조건으로 일반교실 활용	5점척도	1	1,2,3
	계약 방식	현재 계약 방식	선택형	1	2,4
		계약 방식_최저입찰제	5점척도	1	2,3
		직영 운영 이유	선택형	1	2
	방과후학교 업무	자기평가	5점척도	1	2,3
		업무 부담	5점척도	1	2
	예산 및 수당	예산 지원에 대한 인식	5점척도	1	3
		방과후학교 업무 수당	5점척도	1	2
		수강료 수준	5점척도	1	2,3,5
		수강료 인상	5점척도	1	2,3,5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시 학생 참여비율	선택형	6	2
		만족도 평가시 보호자 참여비율	선택형	6	2
		학생, 학부모 만족도 평가 참여율이 낮은 이유	선택형	1	2
		만족도 조사의 실제 평가 반영 정도	5점척도	1	2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낮을 때 평가 여부	선택형	2	2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낮을 때 평가 결과를 강사 나 프로그램에 직접 반영하는지 여부	선택형	2	2
	추가 의견		개방형	1	1,2,3,4
	방과후사업단에 대한 기대		5점척도	6	1,2,3,4,5
	방과후사업단 운영		5점척도	1	1,2,3,4,5
	추가 의견		개방형	1	1,2,3,4,5
	계약 방식	선호하는 방과후학교 계약 방식	선택형	1	4
		선호하는 방과후학교 계약 방식_이유	선택형	1	4
	방과후학교 수업	수업하는 강좌 종류	선택형	1	4
		주당 수업 횟수	선택형	1	4
		수업당 강의시간	선택형	1	4
		하루 강좌 수업 수	선택형	1	4
		하루 희망 수업 시간 수	선택형	1	4
		일주일에 출강하는 날짜	선택형	1	4
		일주일에 희망출강 날짜	선택형	1	4
		현재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선택형	1	4
		주말 방과후학교 참여 희망 여부	선택형	1	4
	수강료 및 수입	강좌의 “분기별 학생 1인당 수강료”	선택형	1	4
		강좌의 희망하는 “분기별 학생 1인당 수강료”	선택형	1	4
		1강좌당 월평균 수입(실수령액)	선택형	1	4
		1강좌당 월평균 희망 수입(실수령액)	선택형	1	4
		월평균 수입총액(실수령액)	선택형	1	4
		월평균 희망 수입총액(실수령액)	선택형	1	4

구분	요인	측정 방법	문항 수	응답 대상
Ⅳ. 개인 배경 변인	성별	선택형	1	1,2,3,4
	교직경력	선택형	1	1,2
	직위	선택형	1	3
	담임교사 여부	선택형	1	1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경력	선택형	1	2
	국적 및 정규수업참여 여부	선택형	1	4
	방과후학교 강사 경력	선택형	1	4
	방과후학교 강사 이외에 다른 직업 유무	선택형	1	4
	자녀의 학년	선택형	1	5
	가정 경제활동 참여자	선택형	1	5
	월 평균 총 소득금액	선택형	1	5
	학생과의 관계	선택형	1	5
Ⅴ. 근무지 배경 변인	학교 소재지	선택형	1	1,2,3,4,5
	학교 설립 유형	선택형	1	1,2,3,5

\* 응답대상 : 1=일반교사, 2=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 3=교감/교장, 4=방과후학교 강사, 5=보호자

## 다 분석 방법

설문 결과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설문 응답자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응답자 개인 특성과 관련하여 일반교사, 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 교감/교장,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성별을 분석하였고, 일반교사와 방과후학교 담당 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교직경력을 분석하였으며, 일반교사만을 대상으로 담임교사 여부를 분석하였다. 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만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경력을 분석하였고, 방과후학교 강사만을 대상으로 국적 및 정규수업참여 여부, 방과후학교 강사 경력, 방과후학교 강사 이외에 다른 직업 유무를 분석하였으며, 보호자만을 대상으로 자녀의 학년, 가정 경제활동 참여자, 월 평균 총 소득금액, 학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기관 특성과 관련하여 학교 소재지와 학교 설립유형을 분석하였다.

둘째, 서울시 초등학교생의 방과후학교, 사교육, 돌봄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 사교육 참여 및 돌봄교실 참여에 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셋째,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취지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방과후학

교 운영 평가, 지역 연계 방과후학교 운영의 실효성, 프로그램 선정, 강사의 수업역량, 질 높은 강사 채용 조건, 방과후학교 참여 증진 방안, 교육공간, 계약 방식, 방과후학교 업무, 예산 및 수당, 만족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교 외부의 공적인 사업단을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도 분석하였다. 넷째, 방과후학교 강사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강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방과후학교 계약 방식, 수업, 수강료 및 수업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네 가지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집단별 기초통계분석(평균, 표준편차)을 시행하였고, 동일한 문항에 두 집단이 응답한 경우 t-test를 시행하였다. 동일한 문항에 세 집단 이상이 응답한 경우 f test를 시행하였고, Scheffe test를 활용하여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 2. 분석 결과

### 가 응답자 특성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일반교사, 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 교감/교장, 방과후학교강사, 보호자 수는 총 7,909명이다. 설문 대상별 인원은 보호자 3,295명(41.7%), 방과후학교 강사 2,077명(26.3%), 일반교사 1,590명(20.1%), 교감/교장 559명(7.1%), 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 388명(4.9%) 순으로 설문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 - 2〉 설문 응답자 수 (N=7,909)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응답자 구성	일반교사	1,590	20.1%
	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	388	4.9%
	교감/교장	559	7.1%
	방과후학교 강사	2,077	26.3%
	보호자	3,295	41.7%

먼저, 교원(일반교사, 담당부장 교사, 교장/교감)의 경우, 2,537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설문 응답자의 32.1%를 차지하였다. 교원의 성별은 여성이 2,061명(81.2%), 남성이 476명(18.8%)이었으며, 일반교사 1,590명(62.7%), 교감/교장 559명(22.0%), 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 388명(15.3%) 순으로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응답자 배경 변인 (일반교사, 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 교감/교장) (N=2,537)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1. 성별	남성	476	18.8
	여성	2,061	81.2
2. 직위	일반교사	1,590	62.7
	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	388	15.3
	교감/교장	559	22.0

다음으로,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총 2,077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설문 응답자의 26.3%를 차지하였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성별은 여성이 1,728명(83.2%), 남성이 349명(16.8%)으로 나타났고, 강사경력은 10년 이상 897명(43.2%), 5년 이상 10년 미만 521명(25.1%), 2년 미만 367명(17.7%), 2년 이상 5년 미만 292명(14.1%) 순으로 나타났고, 국적 및 정규수업참여 여부는 한국인이면서 학교 정규수업 교사로 참여 안 하는 인원이 1,378명(66.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인이면서 학교 정규수업 교사로 참여중인 인원이 687명(33.1%)이었으며, 외국인이면서 학교의 정규수업 교사로 참여 안 하는 인원이 11명(0.5%), 외국인이면서 학교의 정규수업 교사로 참여 중인 인원이 1명(0.0%)으로 나타났다. 타직업 유무와 관련해서는 방과후학교 강사 이외의 다른 직업이 없는 인원이 1,259명(60.6%)으로 방과후학교 강사 이외의 다른 직업이 있는 인원 818명(39.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응답자 배경 변인 (방과후학교 강사) (N=2,077)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1. 성별	남성	349	16.8
	여성	1,728	83.2
2. 방과후학교 강사경력	2년 미만	367	17.7
	2년 이상 5년 미만	292	14.1
	5년 이상 10년 미만	521	25.1
	10년 이상	897	43.2
3. 국적 및 정규수업참여 여부	한국인-학교 정규수업 교사로 참여중	687	33.1
	한국인-학교 정규수업 교사로 참여 안 함	1,378	66.3
	외국인-학교의 정규수업 교사로 참여중	1	0.0
	외국인-학교의 정규수업 교사로 참여 안 함	11	0.5
4. 타직업 유무	있음	818	39.4
	없음	1,259	60.6

마지막으로, 보호자는 3,295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설문 응답자의 41.7%를 차지하였다. 학생의 학년은 1학년 853명(25.9%), 2학년 563명(17.1%), 4학년 531명(16.1%), 3학년 493

명(15.0%), 5학년 461명(14.0%), 6학년 394명(12.0%) 순으로 응답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경제활동 참여자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 참여하는 경우가 1,782명(54.1%), 아버지만 참여하는 경우 1,239명(37.6%), 어머니만 참여하는 경우가 246명(7.5%),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족구성원이 없는 경우가 16명(0.5%), 부모가 아닌 다른 구성원이 참여하는 경우 12명(0.4%) 순서로 응답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총 소득금액은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482명(14.6%),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469명(14.2%), 6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 375명(11.4%),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347명(10.5%), 7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 338명(10.3%), 8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226명(6.9%), 9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223명(6.8%), 1,000만 원 이상~1,100만 원 미만 197명(6.0%), 1,400만 원 이상 197명(6.0%),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186명(5.6%), 200만 원 미만 93명(2.8%), 1,100만 원 이상~1,200만 원 미만 85명(2.6%), 1,200만 원 이상~1,300만 원 미만 56명(1.7%), 1,300만 원 이상~1,400만 원 미만 21명(0.6%) 순으로 응답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의 관계는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 모두 있는 경우가 2,932명(8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한쪽 아버지만 있는 경우 46명(1.4%), 한쪽 어머니만 있는 경우 297명(9.0%),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보호자인 경우가 14명(0.4%), 기타 5명(0.2%), 친척이 보호자 역할을하는 경우가 1명(0.0%) 순서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 - 5〉 응답자 배경 변인 (보호자) (N=3,295)구분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1. 자녀의 학년	1학년	853	25.9
	2학년	563	17.1
	3학년	493	15.0
	4학년	531	16.1
	5학년	461	14.0
	6학년	394	12.0
2. 가정 경제활동 참여자	아버지	1,239	37.6
	어머니	246	7.5
	아버지, 어머니 모두 참여	1,782	54.1
	부모가 아닌 다른 구성원	12	0.4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족구성원 없음	16	0.5
3. 월 평균 총 소득금액	200만 원 미만	93	2.8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186	5.6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347	10.5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469	14.2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482	14.6
	6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	375	11.4
	7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	338	10.3
	8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226	6.9
	9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223	6.8
	1,000만 원 이상~1,100만 원 미만	197	6.0
	1,100만 원 이상~1,200만 원 미만	85	2.6
	1,200만 원 이상~1,300만 원 미만	56	1.7
	1,3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21	0.6
	1,400만 원 이상	197	6.0
4. 학생과의 관계	양쪽 모두 있는 부모	2,932	89.0
	한쪽 아버지	46	1.4
	한쪽 어머니	297	9.0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14	0.4
	친척	1	0.0
	기타	5	0.2

응답자 기관 특성의 경우, 학교 소재지는 은평구 512명(8.8%), 송파구 464명(8.0%), 성북구 403명(6.9%), 강남구 353명(6.1%), 양천구 348명(6.0%), 구로구 341명(5.8%), 강서구 325명(5.6%), 동작구 297명(5.1%), 마포구 274명(4.7%), 관악구 229명(3.9%), 동대문구 224명(3.8%), 중랑구 224명(3.8%), 노원구 217명(3.7%), 성동구 179명(3.1%), 강동구 172명(2.9%), 도봉구 170명(2.9%), 강북구 166명(2.8%), 영등포구 158명(2.7%), 중구 158명(2.7%), 금천구 148명(2.5%), 서대문구 144명(2.5%), 서초구 132명(2.3%), 광진구 94명(1.6%), 종로구 53명(0.9%), 용산구 47명(0.8%) 순서로 응답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설립유형은 국공립 초등학교에 속한 응답자가 5,679명(97.4%)이 사립 초등학교에 속한 응답자 153명(2.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 - 6〉 응답자 기관 특성 (N=5,832)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1. 학교 소재지	강남구	353	6.1
	강동구	172	2.9
	강북구	166	2.8
	강서구	325	5.6
	관악구	229	3.9
	광진구	94	1.6
	구로구	341	5.8
	금천구	148	2.5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노원구	217	3.7
	도봉구	170	2.9
	동대문구	224	3.8
	동작구	297	5.1
	마포구	274	4.7
	서대문구	144	2.5
	서초구	132	2.3
	성동구	179	3.1
	성북구	403	6.9
	송파구	464	8.0
	양천구	348	6.0
	영등포구	158	2.7
	용산구	47	0.8
	은평구	512	8.8
	종로구	53	0.9
	중구	158	2.7
	중랑구	224	3.8
2. 학교 설립유형	국공립	5,679	97.4
	사립	153	2.6

## 나 서울시 초등학생 방과후학교 · 사교육 · 돌봄 실태

### 1) 서울시 초등학생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

#### 가) 방과후학교 일주일 당 참여 일수

- 방과후학교 참여 일수는 1주일 기준 평균 2.5일 임
- 1일(792명, 28.9%)과 2일(772명, 28.2%)이 빈도수가 가장 많음
- 3일(525명, 19.2%), 4일(365명, 13.3%), 5일 이상(286명, 10.4%) 순임
- 학년이 높아질수록 일주일당 참여일수는 감소함  
1학년, 2학년(2.81일)>3학년, 4학년(2.30일)>5학년, 6학년(2.04일) 순임
- 맞벌이 집단이 외벌이 집단보다 방과후학교 일주일 당 방과후학교 참여 일수가 많음  
(맞벌이 2.59일, 외벌이 2.36일)
- 월 평균 소득이나 학생과의 관계(양부모, 한부모)에 따른 방과후학교 일주일 당 참여 일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V - 7〉 방과후학교 일주일 당 참여 일수

응답	빈도(명)	비율(%)
1일	792	28.9
2일	772	28.2
3일	525	19.2
4일	365	13.3
5일 이상	286	10.4
계	2,740	100
평균		2.5일

〈표 IV - 8〉 배경변인에 따른 방과후학교 일주일 당 참여 일수 비교

배경변인	구분	참여일 평균(일)	참여일 표준편차(일)	통계적 검정 (t/F)
학년별	1, 2학년	2.81	1.347	88.58***
	3, 4학년	2.30	1.251	
	5, 6학년	2.04	1.133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2.36	1.253	20.37***
	맞벌이	2.59	1.353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2.44	1.295	1.46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62	1.293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41	1.291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2.51	1.307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2.54	1.322	
	1000만원 이상	2.47	1.363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2.48	1.301	0.08
	한부모	2.50	1.395	

\*\*\*p<.001

## 나)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 과목 수<sup>1)</sup>

- 방과후학교 참여자들은 평균 2.08과목에 참여하고 있음<sup>1)</sup>

1개 과목(29.6%), 2개 과목(27.3%), 3개 과목(16.3%), 4개 이상 과목(9.9%)

1) 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2%가 방과후학교에 1개 이상의 과목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서울시 교육청에 보고된 2022년 방과후학교 참여자 비율 49.98%보다 높은 것으로, 본 설문조사가 '방과후학교 관련 설문조사'라는 점 때문에 설문에 응한 학부모 중에서 자녀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됨. 따라서 참여자 비율 규모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그러나 자녀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방과후학교와 관련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서는 충분한 의미가 있음

- 학년이 높아질수록 방과후학교 참여 과목수는 줄어듦  
1학년, 2학년(2.38개), 3학년, 4학년(1.9개), 5학년, 6학년(1.7개) 순임
- 맞벌이 집단이 외벌이 집단보다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 과목 수가 더 많음  
맞벌이 2.15개, 외벌이 2.0개
- 월평균 소득이나 학생과의 관계(양부모, 한부모)에 따른 방과후학교 참여 과목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V - 9〉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 상황과 참여 과목 수

응답	빈도(명)	비율(%)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555	16.8
1개 과목에 참여하고 있다	976	29.6
2개 과목에 참여하고 있다	899	27.3
3개 과목에 참여하고 있다	538	16.3
4개 이상 과목에 참여하고 있다	327	9.9
계	3,295	100.0
평균		2.08개

〈표 IV - 10〉 배경 변인에 따른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 과목 수 비교

배경변인	구분	참여 과목 수 평균(개)	참여 과목 수 표준편차(개)	통계적 검정 (t/F)
학년별	1, 2학년	2.38	1.048	121.77***
	3, 4학년	1.90	0.929	
	5, 6학년	1.70	0.851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2.00	0.966	15.87***
	맞벌이	2.15	1.045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1.95	0.921	2.5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13	0.930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01	0.982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2.10	1.028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2.18	1.064	
	1000만원 이상	2.13	1.086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2.08	1.010	0.20
	한부모	2.06	1.042	
설립유형	국공립	2.08	1.013	0.19
	사립	2.03	0.993	

\* $p < .05$  \*\*\* $p < .001$

## 다) 방과후학교 참여 과목 (중복응답)

- 30% 이상이 참여하는 과목은 과학(33.7%), 스포츠(33.4%), 취미 재능(30.8%)임
- 그 다음 순위는 미술(17.1%), 음악(16.8%)임
- 영어(15.1%), 수학(11.9%), 인문사회(11.9%) 등 교과 관련 방과후학교의 참여비율은 11~15% 수준임

〈표 IV - 11〉 방과후학교 참여 과목

과목	빈도(명)	비율(중복)	비율(100%)
과학	924	33.7%	17.9
스포츠	914	33.4%	17.7
취미 재능	844	30.8%	16.4
미술	469	17.1%	9.1
음악	460	16.8%	8.9
기타	444	16.2%	8.6
영어	413	15.1%	8
인문 사회	327	11.9%	6.3
수학	326	11.9%	6.3
외국어(영어 이외)	29	1.1%	0.6

## 라) 방과후학교 종료시간

- 방과후학교 평균 종료시간은 오후 3시 36분임
- 응답자의 93.9%가 오후 5시 이전에 방과후학교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남  
(오후 3시 이전 28%, 오후 4시 이전 37.5%, 오후 5시 이전 28.4%)
- 학년이 높을수록 방과후학교 종료시간이 늦음  
5, 6학년(4시 7분) > 3, 4학년(3시 56분) > 1, 2학년 (3시 13분)
-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방과후학교 종료 시간이 빠른 편임 (800만원 이상 구간은 평균 3시 33분, 800만원 미만 구간은 평균 3시 42분)
- 경제활동 참여자(외벌이와 맞벌이)나 학생과의 관계(양부모, 한부모), 설립유형(국공립, 사립)에 따른 방과후학교 종료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V - 12〉 방과후학교 종료시간

응답	빈도(명)	비율(%)
오후 3시 이전	766	28.0
오후 4시 이전	1,027	37.5
오후 5시 이전	777	28.4
오후 6시 이전	151	5.5
오후 7시 이전	15	0.5
오후 7시 이후	4	0.1
계	2,740	100
평균		오후 3시 36분

〈표 IV - 13〉 배경변인에 따른 방과후학교 종료시간 비교

배경변인	구분	종료시간 평균	종료시간 표준편차	통계적 검정 (t/F)
학년별	1, 2학년	3.21 (3시 13분)	0.772 (46분)	334.02***
	3, 4학년	3.93 (3시 56분)	0.881 (53분)	
	5, 6학년	4.12 (4시 7분)	0.834 (50분)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3.66 (3시 40분)	0.876 (53분)	1.20
	맞벌이	3.62 (3시 37분)	0.949 (57분)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3.66 (3시 40분)	0.908 (55분)	2.5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72 (3시 43분)	0.909 (55분)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66 (3시 40분)	0.921 (55분)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8 (3시 41분)	0.919 (55분)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3.53 (3시 32분)	0.887 (53분)	
	1000만원 이상	3.56 (3시 34분)	0.923 (55분)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3.64 (3시 38분)	0.920 (55분)	0.09
	한부모	3.62 (3시 37분)	0.849 (51분)	
설립유형	국공립	3.64 (3시 38분)	0.919 (55분)	0.58
	사립	3.55 (3시 33분)	0.748 (45분)	

\*p<.05 \*\*\*p<.001

## 마) 방과후학교 희망 종료시간

- 방과후학교 희망 종료시간은 평균 오후 3시 43분임
- 희망 종료시간은 현재 평균 종료시간 3시 38분에 비해 5분 정도 더 늦춰진 수준에 불과함. 이는 현재 상황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음을 시사함
- 다만, 오후 5시 이후까지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10.5%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비율 6.1%보다는 다소 높아짐
-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희망 종료시간이 늦춰짐  
1, 2학년 (3시 25분) > 3, 4학년 (3시 55분) > 5, 6학년 (4시 4분)
- 외벌이 보다 맞벌이인 경우 희망 종료시간이 더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외벌이 부모 (3시 38분) > 맞벌이 부모 (3시 47분)
- 월평균 소득이나 학생과의 관계(양부모, 한부모), 설립유형(국공립, 사립)에 따른 방과후학교 희망 종료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IV - 14〉 방과후학교 희망 종료시간

응답	빈도(명)	비율(%)
오후 3시 이전	734	26.8
오후 4시	1,052	38.4
오후 5시	667	24.3
오후 6시	229	8.4
오후 7시	38	1.4
오후 8시	12	0.4
오후 9시	8	0.3
계	2,740	100
평균		오후 3시 43분

〈표 IV - 15〉 배경변인에 따른 방과후학교 희망 종료시간 비교

배경변인	구분	희망 종료시간 평균	희망 종료시간 표준편차	통계적 검정 (t/F)
학년별	1, 2학년	3.42 (3시 25분)	0.956 (58분)	108.41***
	3, 4학년	3.91 (3시 55분)	1.041 (1시간 2분)	
	5, 6학년	4.06 (4시 4분)	1.008 (1시간 1분)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3.64 (3시 38분)	0.989 (59분)	12.91***

배경변인	구분	희망 종료시간 평균	희망 종료시간 표준편차	통계적 검정 (t/F)
	맞벌이	3.78 (3시 47분)	1.062 (1시간 4분)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3.70 (3시 42분)	1.073 (1시간 4분)	0.46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75 (3시 45분)	0.991 (59분)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68 (3시 41분)	0.991 (59분)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72 (3시 43분)	1.024 (1시간 2분)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3.72 (3시 43분)	1.018 (1시간 1분)	
	1000만원 이상	3.76 (3시 46분)	1.132 (1시간 8분)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3.72 (3시간 43분)	1.032 (1시간 2분)	1.53
	한부모	3.64 (3시간 38분)	1.018 (1시간 1분)	
설립유형	국공립	3.72 (3시 43분)	1.034 (1시간 2분)	0.03
	사립	3.74 (3시 44분)	1.014 (1시간 1분)	

\*\*\*p<.001

## 바) 방과후학교 지출 비용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2,74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지출 비용을 분석함

- 방과후학교 지출 비용은 1분기당 평균 15.8만원임
- 빈도수 기준으로 보면 20만 원 이상(1,047명, 38.2%)이 가장 많음
- 무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7.6%로 조사됨(208명)

〈표 IV - 1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출 비용

응답	빈도(명)	비율(%)
무상으로 참여하고 있음	208	7.6
6만 원 미만	89	3.2
6~8만 원 미만	201	7.3
8~10만 원 미만	298	10.9

응답	빈도(명)	비율(%)
10~12만 원 미만	248	9.1
12~14만 원 미만	145	5.3
14~16만 원 미만	125	4.6
16~18만 원 미만	122	4.5
18~20만 원 미만	257	9.4
20만 원 이상	1,047	38.2
계	2,740	100.0
평균		15.8만원

## (2) 배경변인 별 결과 분석

- 학년이 높아질수록 방과후학교 지출 비용이 적어짐  
1, 2학년(16.8만원), 3, 4학년(15.4만원), 5, 6학년(14.2만원) 순임
- 맞벌이 집단이 외벌이 집단보다 방과후학교 지출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맞벌이 15.5만원, 외벌이 16.0만원)
- 월평균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p > .05$ )
- 이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 이용권에 따라 수강료 지원이 되는 정책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학생과의 관계(양부모, 한부모)와 설립유형(국공립, 사립)은 방과후학교 지출 비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IV - 17〉 배경변인에 따른 방과후학교 지출 비용

배경변인	구분	지출비용 평균 (만원)	지출비용 표준편차(만원)	통계적 검정 (t/F)
학년별	1, 2학년	16.8	5.287	46.81***
	3, 4학년	15.4	5.562	
	5, 6학년	14.2	5.620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15.5	5.536	4.30*
	맞벌이	16.0	5.536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15.4	5.752	1.1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6.3	5.454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5.8	5.562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15.7	5.462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6.0	5.513	
	1000만원 이상	15.4	5.607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15.8	5.54	0.14
	한부모	15.7	5.56	

배경변인	구분	지출비용 평균 (만원)	지출비용 표준편차(만원)	통계적 검정 (t/F)
설립유형	국공립	15.8	5.550	0.49
	사립	16.3	5.301	

\*p<.05 \*\*\*p<.001

### 사) 질적 개선을 전제로 한 방과후학교 강좌당 비용 부담 의향

방과후학교가 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방과후학교 강좌당 비용 부담 의향 설문 분석했으며, 전체 응답자 중에서 현재 방과후학교 미참여자와 무상참여자는 평균 산출에서 제외함

#### (1) 전체 분석 결과

- 방과후학교 질적 개선을 전제로 할 때 비용 부담 평균 금액은 7.9만원임
- 현재 방과후학교 수강 평균 과목수가 2.08개임을 고려하면 16.4만원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됨
- 현재 방과후학교 지출 비용이 2.08 과목 기준 15.8만원 인 것과 비교하면 약 0.6만원 정도 증액된 금액임

〈표 IV - 18〉 질적 개선을 전제로 한 방과후학교 강좌당 비용 부담 의향

응답	응답자 (무상참여자와방과후 미참여자 제외)	
	빈도(명)	비율(%)
3만 5천 원 미만	272	10.8
3만 5천 원~5만 원 미만	386	15.3
5만 원~7만 원 미만	381	15.1
7만 원~9만 원 미만	422	16.7
9만 원~11만 원 미만	504	20.0
11만 원 이상도 가능	559	22.2
계	2,524	100
평균	7.9만원	
	16.4만원 (평균 2.08개 강좌 기준)	

#### (2) 배경변인 별 결과 분석

- 학년에 따른 비용부담 의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p>.05).
- 맞벌이 집단이 외벌이 집단보다 더 높은 비용 부담 의향이 있음



(외벌이 7.63만, 맞벌이 8.08만)

-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비용 부담의향 금액의 크기가 커짐  
(300만원 미만 6.41만원, 1000만원 이상 9.03만원)
- 양부모 집단이 한부모 집단 보다 비용 부담 의향 금액이 큼  
(양부모 7.94만원, 한부모 7.23만원)
- 설립유형에 따른 비용 부담 의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V - 19〉 배경 변인에 따른 방과후학교 강좌당 비용 부담 의향

구분	학년	비용의향 평균	비용의향 표준편차	통계적 검정 (t/F)
학년별	1, 2학년	7.88	3.192	0.66
	3, 4학년	7.94	3.060	
	5, 6학년	7.74	3.076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7.63	3.110	13.06***
	맞벌이	8.08	3.126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6.41	3.084	30.2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6.79	2.874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62	3.024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7.89	3.040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8.45	3.056	
	1000만원 이상	9.03	3.134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7.94	3.130	11.07***
	한부모	7.23	3.019	
설립유형	국공립	7.87	3.128	0.29
	사립	8.07	3.095	

\*p<.05, \*\*p<.01, \*\*\*p<.001

## 아)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비율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 ‘기타 다른 사정이 있어서’(30.1%)를 제외하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방과후학교 시간에 학원에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22.6%)가 가장 높음
- 그 다음 응답 빈도는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가 없어서(20.6%)>자녀가 원하지 않아서(17.8%)>‘방과후학교 강사와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서’(6.3%)>‘비용이 부담되어서’(2.7%) 순서임

〈표 IV - 20〉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중복 응답)

응답	빈도(명)	비율(중복)	비율(100%)
기타 다른 사정이 있어서	226	40.70%	30.10%
방과후학교 시간에 학원에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170	30.60%	22.60%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가 없어서	155	27.90%	20.60%
학생이 원하지 않아서	134	24.10%	17.80%
방과후학교 강사와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서	47	8.50%	6.30%
비용이 부담되어서	20	3.60%	2.70%
합계	752	135.4%	100%

(2) 배경변인 별 결과 분석

- 학년이 올라갈수록 방과후학교 미참여 비율이 높아짐  
1, 2학년 (평균 9.7%) > 3, 4학년 (평균 17.7%) > 5, 6학년 (평균 27.8%)
- 맞벌이와 외벌이의 경우 방과후학교 미참여 비율의 차이가 없음.
-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방과후학교 미참여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양부모 집단과 한부모 집단 사이에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않는 비율은 한부모의 경우 조금 더 높음(양부모 16.8%, 한부모 17.2%)
- 사립이 국공립에 비해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음  
(국공립 16.8%, 사립 17.2%)

〈표 IV - 21〉 배경변인 별 방과후학교 미참여비율

구분	학년	미참여비율
학년별	1학년	9.8%
	2학년	9.4%
	3학년	15.6%
	4학년	19.8%
	5학년	23.4%
	6학년	32.5%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16.7%
	맞벌이	16.8%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12.9%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5.7%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6.6%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16.4%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9.8%
	1000만원 이상	18.9%

구분	학년	미참여비율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16.8%
	한부모	17.2%
설립유형	국공립	16.8%
	사립	17.2%

#### 자) 국, 수, 영 등 교과 관련 강좌 개설 동의 여부

- 교과 관련 강좌 개설 동의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1점임
-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에 교과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줌
- 빈도수 기준으로는 동의한다(34.6%), 매우 동의한다(28.4%), 보통이다(19.7%), 동의하지 않는다(14.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2.9%) 순서임
- 학년에 따른 교과 관련 강좌 개설 동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 외벌이 집단이 맞벌이 집단보다 교과 관련 강좌 개설에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음
- 저소득층일수록 방과후학교에 교과 관련 강좌 개설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음
- 한부모 집단이 양부모 집단보다 교과 관련 강좌 개설 동의 정도가 더 높음
- 설립유형에 따른 교과 관련 강좌 개설 동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IV - 22〉 교과 관련 강좌 개설 동의 여부

응답	빈도(명)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80	2.9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394	14.4
잘 모르겠다.	541	19.7
동의하는 편이다.	948	34.6
매우 동의한다.	777	28.4
계	2740	100.0
평균		3.71
표준편차		1.112

〈표 IV - 23〉 배경변인에 따른 교과 관련 강좌 개설 동의 정도

배경변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통계적 검정(t/F)
학년별	1, 2학년	3.74	1.114	1.13
	3, 4학년	3.70	1.104	
	5, 6학년	3.66	1.118	

배경변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통계적 검정 (t/F)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3.76	1.055	2.17*
	맞벌이	3.67	1.157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4.02	0.951	8.6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90	1.079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71	1.101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6	1.130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3.68	1.118	
	1000만원 이상	3.52	1.155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3.69	1.118	-2.47*
	한부모	3.86	1.063	
설립유형	국공립	3.71	1.110	0.04
	사립	3.74	1.175	

\*p<.05, \*\*\*p<.001

#### 차) 주말 개설 방과후학교 참여 의향

- 주말에 방과후학교를 개설하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0.2%로 약 절반 정도의 학부모는 주말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37.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2%임
- 고학년일수록 주말 방과후학교 참여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맞벌이 집단이 외벌이 집단보다 주말 개설 방과후학교 참여 의향 정도가 더 높음
-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주말 개설 방과후학교 참여의향이 높아짐  
(300만원 미만 45.5%, 1000만원 이상 55.4%)
- 학생과의 관계(양부모, 한부모)에 따른 주말 개설 방과후학교 참여 의향은 차이가 없음
- 설립유형(국공립, 사립)에 따른 주말 개설 방과후학교 참여 의향은 국공립이 사립보다 높음(국공립 50.3%, 사립 48.3%)

〈표 IV-24〉 주말 개설 방과후학교 참여 의향

응답	빈도(명)	비율(%)
있다.	1,654	50.2
없다.	1,239	37.6
잘 모르겠다.	402	12.2
계	3,295	100.0

〈표 IV - 25〉 주말 개설 방과후학교 참여 의향 집단별 비교

응답	빈도(명)	비율(%)
학년별	저학년	46.5%
	중학년	49.5%
	고학년	57.1%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47.3%
	맞벌이	52.7%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45.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5.8%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48.4%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50.8%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53.0%
	1000만원 이상	55.4%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50.3%
	한부모	50.1%
설립유형	국공립	50.3%
	사립	48.3%

## 2) 서울시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 실태

### 가) 사교육 참여율

- 설문조사 대상의 93.7%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교과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69%, 예체능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80.4%임
- 학년별 사교육 참여율
  - 전체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1,2학년 94.4%, 3, 4학년 94.2% > 5, 6학년 90.4%)
  - 일반교과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고학년일수록 높음  
(5, 6학년 78.7% > 3, 4학년 72.4% > 1, 2학년 60.7%)
  - 반면에 예체능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저학년일수록 높음  
(1, 2학년 86.1% > 3, 4학년 82.3% > 5, 6학년 68.8%)
- 맞벌이 집단이 외벌이 집단보다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음  
(맞벌이 94.7%, 외벌이 92.1%)
- 월 평균 소득별 사교육
  -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은 97.3%에 이르지만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하는 사교육 참여율이 76.3%로 크게 차이가 남
-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사교육 참여실태는 일반교과 사교육에서 더욱 크게 차이 남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사교육 참여율 46.6%,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 84.3%)
- 한부모에 비해서 양부모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더 높음  
(한부모 90.4%, 양부모 93.7%)
- 국공립과 사립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의 차이가 없음

〈표 IV - 26〉 사교육 참여 여부

응답	빈도(명)	비율(%)
일반교과 사교육만 받는다.	424	12.9
예체능 사교육만 받는다.	800	24.3
일반교과와 예체능 사교육을 모두 받는다.	1,850	56.1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	221	6.7
계	3,295	100.0

〈표 IV - 27〉 배경변인 별 사교육 참여 여부<sup>2)</sup>

배경변인	구분	사교육 받지않음	사교육 받음	일반교과 사교육	예체능 사교육
학년별	1, 2학년	5.6	94.4	60.7	86.1
	3, 4학년	5.8	94.2	72.4	82.3
	5, 6학년	9.6	90.4	78.7	68.8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7.9	92.1	66.7	78.2
	맞벌이	5.3	94.7	71.3	82.8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23.7	76.3	46.6	54.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8.4	91.6	56.2	73.2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8	93.2	66	78.9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4.8	95.2	71.8	83.3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2.7	97.3	75.7	88.4
	1,000만원 이상	2.7	97.3	84.3	90.2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6.3	93.7	69.8	81.3
	한부모	9.6	90.4	62.4	74.1
설립유형	국공립	6.70%	93.30%	69.00%	80.30%
	사립	6.90%	93.10%	67.80%	83.90%

2) 일반교과 사교육 비율은 일반교과 사교육만 받음과 일반교과와 예체능 모두 받음의 합. 예체능 사교육 비율은 예체능 사교육만 받음과 일반교과와 예체능 모두 받음의 합임

## 나)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 이유 (중복응답)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 일반교과와 관련된 사교육에 참여하는 이유(중복응답)는 학교 수업 보충 이유가 가장 많고(51.1%), 선행학습 이유가 (41.5%)로 그 다음으로 많음(중복응답)
- 돌봄 해결 이유가 중복응답 기준 27.7% 세 번째로 높음. 이는 초등학생 학부모 4명 중 1명 이상이 사교육 참여를 돌봄 해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대학진학(11.6%)과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진학 이유는(4.3%)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불안 이유는 11.3%, 친구 사귀기 이유는 3.7%(100% 기준 2.3%) 임

〈표 IV - 28〉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 목적 (중복응답)

사교육 참여 이유	비율 (중복)	비율 (100%기준)
학교 수업 보충을 위해서	51.1%	31.8%
선행학습을 위해서	41.5%	25.8%
학원에 가 있는 동안에는 자녀 돌봄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27.7%	17.2%
대학진학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11.6%	7.2%
대부분 친구가 학원에 가는데 우리 자녀만 안 다니면 불안해서	11.3%	7.0%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4.3%	2.7%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학원에 가야 하니까	3.7%	2.3%
기타	9.70%	6.0%

### (2) 배경변인 별 결과 분석

#### (가) 학년별 분석

- 학업보충 이유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짐  
(1, 2학년 36.3%, 3, 4학년 57.1%, 5, 6학년 63.3%)
- 선행학습 이유는 1, 2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이며 3~6학년은 통계적 차이가 없음  
(1, 2학년 48.8%, 3, 4학년 36.2%, 5, 6학년 37.9%)
- 돌봄해결 이유는 1, 2학년이 가장 많고 학년이 높을수록 비율이 낮아짐  
(1, 2학년 35.6%, 3, 4학년 26.7%, 5, 6학년 18.7%)

#### (나) 경제활동 참여자별 분석

- 학교 수업 보충과 선행학습 이유는 외별이가 높음  
(학교수업 보충 56.9% : 46.5%, 선행학습 45.4% : 38.5%)

- 돌봄 이유는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3배 이상 높은 비율임  
(외벌이 12.7%, 맞벌이 39.5%)

#### (다) 소득구간별 분석

- 저소득층 (400만원 미만 집단)은 선행학습보다 학교 수업 보충 목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에 고소득층(800만원 이상)은 학교수업보충 보다 선행학습 목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sup>3)</sup>
-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사교육 목적에 응답한 비율은 저소득층 (400만원 미만) 집단보다 고소득층 집단(800만원 이상)이 더 높음
- 진학목적(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및 대학진학 준비)의 사교육은 고소득층 집단(800만원 이상)이 저소득층 집단(400만원 미만) 보다 높음
- 상급학교 진학 대비 이유는 고소득층(1000만원 이상)이 저소득(300만원 미만) 약 3배 가까이 높음<sup>4)</sup>

#### (라) 학생과의 관계별 분석

- 선행학습 목적에 응답한 비율은 양부모 집단이 한부모 집단보다 약간 높고, 학교 수업보충 목적은 반대로 한부모 집단이 조금 더 높지만,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다른 목적에서도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미미한 수준임

#### (마) 설립유형별 분석

- 국공립과 사립을 비교하면 불안과 친구사귀를 제외하면 사교육 목적의 모든 항목에서 사립이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음. 중복응답임을 고려할 때 사립의 경우 사교육을 받는 목적에 더 복합적인 이유로 응답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3) 중간 구간에 해당하는 400만~600만원 구간은 선행학습 목적이 가장 높고, 600만원~800만원 구간은 상대적으로 선행학습 목적이 낮은 편임

4) 수준으로 높음 에 비해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대비의 경우 300만원 미만 3.1%, 1000만원 이상 9.2% (2.97배), 대학 진학 대비의 경우 300만원 미만 6.2%, 1000만원 이상 17.7(2.85배)임



〈표-29〉 배경변인 별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 목적 (중복응답)

(단위 : %)

구분	학년	선행 학습	학교 수업 보충	불안	친구 사귄	돌봄 문제 해결	특목고 자사고 진학대비	대학 진학대비	기타
학년별	1, 2학년	48.8	36.3	14.9	4.3	35.6	3.5	7.3	11.5
	3, 4학년	36.2	57.1	8.5	3.0	26.7	3.6	11.5	9.7
	5, 6학년	37.9	63.3	9.7	3.7	18.7	6.1	17.1	7.3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45.4	56.9	10.8	3.9	12.7	4.2	11.9	9.7
	맞벌이	38.5	46.5	11.6	3.5	39.5	4.4	11.3	9.4
월 평균 소득	300만원미만	33.8	66.9	9.2	3.8	26.2	3.1	6.2	1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9.5	65.6	8.7	3.6	16.9	0.5	7.2	8.7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45.2	55.6	11.6	4.6	20.9	1.8	9.1	8.1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9	49.2	11.1	2.7	27.5	4.3	10.5	9.6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3.8	40.9	11.8	3.2	33.8	5	13.8	11.5
	1,000만원 이상	42.6	43.9	12.2	3.8	37.5	9.2	17.7	10.9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41.8	50.6	11.4	3.8	28	4.2	11.9	9.5
	한부모	39.3	54.7	10.7	2.8	26.6	5.6	8.4	10.7
설립유형	국공립	41.4	50.8	11.3	3.7	27.6	4.2	1.6	9.8
	사립	45.8	61.0	8.5	1.7	32.2	6.8	8.5	5.1

#### 다) 일반교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과목의 종류 (중복응답)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 일반교과와 관련하여 사교육에 참여하는 과목(중복응답)은 영어(86%), 수학(67.5%), 국어(독서, 논술포함)(47.8%), 과학(12.5%), 사회(6.6%) 순으로 빈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 배경변인 별 결과 분석

-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의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짐  
특히 사회와 과학의 경우 1, 2학년에 비해 3, 4학년 이후 참여비율이 급격히 높아짐
- 경제활동 참여자에 따른 일반교과 사교육 과목별 참여율은 차이가 없음
-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국어 사교육 비율이 높음  
(400만원 이하 평균 52%, 800만원 이상 평균 44.9%)

- 반면에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영어 사교육 비율이 높음  
(400만원 미만 평균 76.4%, 800만원 이상 89.3%)
- 수학은 소득에 따른 차이가 일관적이지 않고, 사회와 과학은 응답자 수가 적어서 분석에서 제외함
- 한부모 집단이 양부모에 비해서 모든 과목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높음
- 설립유형에 따른 일반교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과목에는 기술통계상 차이가 없음

〈표 IV - 30〉 일반교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과목의 종류(중복응답)

과목	응답자 수	비율(중복)	비율(100%기준)
영어	1955	86.0%	39.0%
수학	1534	67.5%	30.6%
국어 (독서, 논술포함)	1087	47.8%	21.7%
과학	285	12.5%	5.7%
사회	151	6.6%	3.0%

〈표 IV - 31〉 배경변인별 일반교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과목 종류 (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학년	국어(독서, 논술포함)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계
학년별	1, 2학년	417(48.5)	694(80.7)	530(61.6)	10(1.2)	62(7.2)	860(100.0)
	3, 4학년	352(47.5)	658(88.8)	468(63.2)	69(9.3)	127(17.1)	741(100.0)
	5, 6학년	318(47.3)	603(89.6)	536(79.6)	72(10.7)	96(14.3)	673(100.0)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486(49.1)	848(85.7)	680(68.7)	66(6.7)	126(12.7)	990(100.0)
	맞벌이	593(46.7)	1,099(86.5)	847(66.6)	84(6.6)	158(12.4)	1,271(100.0)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64(49.2)	94(72.3)	90(69.2)	13(10.0)	14(10.8)	130(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03(52.8)	157(80.5)	137(70.3)	17(8.7)	21(10.8)	195(100.0)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05(48.6)	536(85.4)	423(67.4)	49(7.8)	82(13.1)	628(100.0)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249(48.6)	443(86.5)	325(63.5)	31(6.1)	59(11.5)	512(100.0)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44(42.4)	298(87.6)	225(66.2)	15(4.4)	35(10.3)	340(100.0)
	1,000만원 이상	222(47.3)	427(91.0)	334(71.2)	26(5.5)	74(15.8)	469(100.0)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964(47.0)	1,775(86.6)	1,377(67.2)	134(6.5)	255(12.4)	2,049(100.0)
	한부모	117(54.7)	172(80.4)	149(69.6)	16(7.5)	28(13.1)	214(100.0)
설립유형	국공립	1061(33.1)	1904(59.4)	1494(46.6)	147(4.6)	279(8.7)	3208(100.0)
	사립	26(29.9)	51(58.6)	40(46.0)	4(4.6)	6(6.9)	87(100.0)

## 라) 일반교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과목 수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 일반교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과목 수는 평균 2.4개임
- 4개 이상의 과목에 참여하는 학생수는 15.9%임

### (2) 배경변인 별 결과 분석

- 학년이 높아질수록 일반교과 사교육에 자녀가 참여하는 전체 과목 수가 많아짐
- 월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과 가장 높은 집단 사이에 일반교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과목 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300만원 미만 구간 2.27과목, 1000만원 이상 구간 2.54과목)
- 3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경제활동 참여자(외벌이, 맞벌이), 학생과의 관계(양부모, 한부모)나 설립유형(국공립, 사립)에 따른 일반교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과목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V - 32〉 일반교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과목 수

응답	빈도(명)	비율(%)
1개	618	27.2
2개	710	31.2
3개	586	25.8
4개	181	8.0
5개 이상	179	7.9
계	2,274	100.0
평균	2.4개	

〈표 IV - 33〉 배경변인 별 일반교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과목 수

구분	학년	과목 수(평균)	과목 수(표준편차)	통계적 검정(t/F)
학년별	1, 2학년	2.22	1.091	15.41***
	3, 4학년	2.42	1.286	
	5, 6학년	2.55	1.169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2.43	1.206	1.46
	맞벌이	2.35	1.173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2.27	1.225	2.47*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42	1.238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2.37	1.205	
	6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2.3	1.118	

구분	학년	과목 수(평균)	과목 수(표준편차)	통계적 검정 (t/F)
	8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2.32	1.173	
	1000만원 이상	2.54	1.21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2.37	1.186	-1.58
	한부모	2.5	1.209	
설립유형	국공립	2.38	1.189	0.69
	사립	2.25	1.168	

\*p<.05, \*\*\*p<.001

## 마) 일반교과 일주일 당 사교육 참여 일 수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 일반교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일수는 일주일 평균 3.92일임
- 가장 빈도가 높은 응답은 5일(41.7%)이며, 2순위는 3일(21.9%)임
- 6일 이상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5.1%로 나타남

### (2) 배경변인 별 결과 분석

- 학년이 높아질수록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 일수가 증가함  
(1, 2학년 3.67일, 3, 4학년 3.95일, 5, 6학년 4.19일)
- 300만원 미만(3.64일)과 1000만원 이상(4.12일) 간에 일주일 당 사교육 참여일수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sup>5)</sup>
- 경제활동 참여자(외벌이, 맞벌이), 학생과의 관계(양부모, 한부모), 설립유형(국공립, 사립)에 따른 방과후학교 일주일 당 사교육 참여 일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V - 34〉 일반교과 일주일 당 사교육 참여 일 수

응답	빈도(명)	비율(%)
1일	155	6.8
2일	203	8.9
3일	498	21.9
4일	353	15.5
5일	949	41.7
6일 이상	116	5.1
계	2,274	100.0
평균	3.92일	

5) 나머지 월평균 소득 구간 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음

〈표 IV - 35〉 배경변인별 일반교과 일주일 당 사교육 참여 일 수

구분	학년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일수(평균)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일수 (표준편차)	통계적 검정 (t/F)
학년별	1, 2학년	3.67	1.417	29.80***
	3, 4학년	3.95	1.307	
	5, 6학년	4.19	1.225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3.91	1.346	-0.35
	맞벌이	3.93	1.335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3.64	1.52	3.6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85	1.356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89	1.335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85	1.311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3.93	1.324	
	1000만원 이상	4.12	1.327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3.93	1.336	0.74
	한부모	3.86	1.412	
설립유형	국공립	3.92	1.345	0.03
	사립	3.95	1.292	

\*p<.01, \*\*\*p<.001

## 바) 일반교과 한 달 사교육 비용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 일반교과와 관련된 한 달 사교육 비용은 평균 51.6만원임<sup>6)</sup>
- 가장 빈도가 높은 응답은 '2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689명, 30.3%)임
- 두 번째로 높은 빈도는 '40만 원 이상~60만 원 미만' (516명, 22.7%)임
- 80만 원 이상을 일반교과 사교육에 지출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8.8%임

### (2) 배경변인 별 결과 분석

- 학년이 높을수록 일반교과 사교육비가 증가함  
(1, 2학년 45.9만원, 3, 4학년 51.5만원, 5, 6학년 59.1만원)

6) 평균값 산출은 구간별 중간값을 가중 평균했음

- 최저소득집단과 최고소득 집단간에 한달 사교육비는 2.38배에 달함  
(300만원 미만 30.3만원, 1000만원 이상 72만원)
- 경제활동 참여자(외벌이, 맞벌이), 학생과의 관계(양부모, 한부모), 설립유형(국공립, 사립)에 따른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V - 36〉 일반교과 한 달 사교육 비용

응답	빈도(명)	비율(%)
20만 원 미만	358	15.7
20만 원 이상~40만 원 미만	689	30.3
40만 원 이상~60만 원 미만	516	22.7
60만 원 이상~80만 원 미만	281	12.4
8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213	9.4
100만 원 이상~120만 원 미만	112	4.9
120만 원 이상~140만 원 미만	44	1.9
140만 원 이상~160만 원 미만	21	0.9
160만 원 이상~180만 원 미만	14	0.6
180만 원 이상	26	1.1
계	2,274	100.0
평균	51.6만원	

〈표 IV - 37〉 배경변인 별 일반교과 한 달 사교육 비용

구분	학년	일반교과 사교육비 (평균)	일반교과 사교육비 (표준편차)	통계적 검정 (t/F)
학년별	1, 2학년	45.9	33,611	26.17***
	3, 4학년	51.5	36,479	
	5, 6학년	59.1	36.21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50.5	35,559	2.33
	맞벌이	52.8	35,873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30.3	22,272	57.6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4	26,504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44.4	27.38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48	30,811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57.1	38,184	
	1000만원 이상	72	44,417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51.9	35,756	0.38
	한부모	50.3	35,917	

구분	학년	일반교과 사교육비 (평균)	일반교과 사교육비 (표준편차)	통계적 검정 (t/F)
설립유형	국공립	51.6	35.799	0.00
	사립	51.9	33.278	

\*\*\*p<.001

## 사) 일반교과 사교육 종료 시각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 일반교과와 관련된 사교육 종료 시각은 평균 오후 6시 25분임<sup>7)</sup>
- 오후 6시 이전에 종료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52.2%)
- 응답자의 75.2%가 오후 7시에 사교육을 종료하며 오후 7시 이후까지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24.8%임
- 9시 이후까지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4.9%임

### (2) 배경변인 별 결과 분석

-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교육 종료 시각은 더 늦어짐  
(1, 2학년 6시 3분, 3, 4학년 6시 23분, 5, 6학년 6시 53분)
-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종료시각은 더 늦춰짐  
(300만원 미만 6시 10분, 1000만원 이상 6시 35분)
- 경제활동 참여자(외벌이, 맞벌이), 학생과의 관계(양부모, 한부모), 설립유형(국공립, 사립)에 따른 일반교과 사교육 종료 시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V-38〉 일반교과 사교육 종료 시각

응답	빈도(명)	비율(%)
오후 6시 이전	1,187	52.2
오후 6~7시	523	23.0
오후 7~8시	284	12.5
오후 8~9시	168	7.4
오후 9~10시	94	4.1
오후 10시 이후	18	0.8
계	2,274	100.0
평균	오후 6시 25분	

7) 오후 6시 이전은 5시 30분으로, 오후 10시 이후는 10시 30분으로 중간값을 주고, 나머지 구간도 중간값으로 가중 평균 계산함

〈표 V-39〉 배경변인 별 일반교과 사교육 종료 시각

구분	학년	일반교과 사교육 종료시간 (평균)	일반교과 사교육 종료시간 (표준편차)	통계적 검정 (t/F)
학년별	1, 2학년	45.9	33.611	100.00***
	3, 4학년	51.5	36.479	
	5, 6학년	59.1	36.21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50.5	35.559	0.77
	맞벌이	52.8	35.873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30.3	22.272	4.6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4	26.504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44.4	27.38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48	30.811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57.1	38.184	
	1000만원 이상	72	44.417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51.9	35.756	0.03
	한부모	50.3	35.917	
설립유형	국공립	51.6	35.799	0.36
	사립	51.9	33.278	

\*\*\*p<.001

### 3) 서울시 초등학교 돌봄 실태

#### 가) 자녀 돌봄 부담 정도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 자녀 돌봄의 부담이 크다는 학부모는 45.1% 임  
(매우 크다 16.8%, 큰 편이다 28.3%)
- 부담이 크지 않거나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20.9%임  
(크지 않다 12.2%, 거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8.7%)
- 보통이라는 응답은 33.9%임
- 학부모가 자녀 돌봄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5점 척도로 계산했을 때 평균 3.32점임

##### (2) 배경변인 별 결과 분석

- 1, 2학년이 돌봄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며, 5, 6학년으로 가면서 부담 정도는 감소함



(1, 2학년 3.51, 3, 4학년 3.27, 5, 6학년 3.06)

- 맞벌이 집단이 외벌이 집단보다 자녀 돌봄 부담 정도가 더 높음  
(외벌이 3.06, 맞벌이 3.54)
- 300만원 미만과 고소득층(800만원 이상)의 돌봄 부담 정도가 가장 높고, 중간층은 돌봄 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최고소득층인 1000만원 이상(3.47)과 최저소득층인 300만원 미만(3.44)이 돌봄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중간 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돌봄 부담 정도가 낮음

〈표 IV-40〉 자녀 돌봄 부담 정도

응답	빈도(명)	비율(%)
거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288	8.7
크지 않은 편이다.	403	12.2
보통이다.	1,116	33.9
큰 편이다.	934	28.3
매우 크다.	554	16.8
계	3,295	100.0
평균		3.32
표준편차		1.151

〈표 IV-41〉 배경변인 별 자녀 돌봄 부담 정도

구분	학년	돌봄부담 정도 (평균)	돌봄부담정도 (표준편차)	통계적 검정 (t/F)
학년별	1, 2학년	3.51	1.103	42.97***
	3, 4학년	3.27	1.152	
	5, 6학년	3.06	1.171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3.06	1.145	-11.90***
	맞벌이	3.54	1.111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3.44	1.136	5.7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22	1.078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21	1.106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29	1.182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3.43	1.114	
	1000만원 이상	3.47	1.238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3.3	1.143	-3.47***
	한부모	3.52	1.179	

\*\*\*p<.001

## 나) 평일 중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간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 오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9.6%임(중복응답)
- 오후 돌봄이 필요한 평균 시각은 오후 5시 54분임
- 오후 돌봄 필요 시각은 오후 5시까지가 가장 많음(53.9%, 중복응답)
- 오후 7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임
- 돌봄의 필요를 90% 이상 수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 돌봄체제 필요함

〈표 IV-42〉 평일 중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간(중복응답)

응답	빈도(명)	비율(%)
아침 등교 시간까지	646	15.9
하교 이후 오후 5시까지	1,775	43.7
오후 6시까지	731	18.0
오후 7시까지	561	13.8
오후 8시까지	200	4.9
오후 8시 이후에도 필요함	149	3.7
계	4,062	100.0
오후 돌봄 필요시간 평균	오후 5시 54분	

### (2) 배경변인 별 결과 분석

#### (가) 학년에 따른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간

- 오전 돌봄은 1, 2학년 비율이 가장 높지만(21.3%), 3, 4학년도 17.9%, 5, 6학년의 경우에도 18.8%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오후 돌봄 평균 시간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늦춰짐  
(1, 2학년 5시 51분, 3, 4학년 5시 53분, 5, 6학년 6시 2분)
- 오후 6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 6학년이 가장 높지만(29%), 나머지 학년도 2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나) 경제활동 참여자에 따른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간

- 오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외벌이가 맞벌이보다 더 많음  
(외벌이 20.9%, 맞벌이 18.6%)
- 오후 돌봄 평균 시간은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더 늦음

(외벌이 5시 51분, 맞벌이 5시 56분)

- 오후 6시 이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맞벌이가 더 많음  
(외벌이 20.5%, 맞벌이 29.2%)

(다) 월평균 소득에 따른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간

- 오전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많음  
(300만원 미만 17.9%, 1000만원 이상 21.9%)
- 오후 돌봄 필요 시각은 1000만원 이상이 가장 늦음(6시 2분)
-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구간이 가장 빠름(평균 5시 43분)

(라) 학생과의 관계에 따른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간

- 오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양부모와 한부모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음
- 오후 돌봄 필요 시각은 한부모가 양부모 보다 늦음  
(양부모 5시 52분, 한부모 6시 4분)
- 오후 6시 이후에 돌봄이 필요하다는 비율도 한부모가 양부모보다 더 높음  
(양부모 24.6%, 한부모 30.9%)

〈표 IV - 43〉 배경변인 별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간(중복응답)

배경변인	구분	아침 등교 시간까지 (중복포함)	오후돌봄 필요 평균 시각	오후 6시 이후 돌봄 필요비율
학년별	1, 2학년	302(21.3)	5.83(5시 51분)	340(24.0)
	3, 4학년	183(17.9)	5.86(5시 53분)	242(23.6)
	5, 6학년	161(18.8)	6.04(6시 2분)	248(29.0)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310(20.9)	5.82(5시 51분)	305(20.5)
	맞벌이	332(18.6)	5.94(5시 56분)	520(29.2)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50(17.9)	5.98(5시 59분)	78(28.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0(14.4)	5.66(5시 40분)	61(17.6)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84(19.3)	5.78(5시 46분)	195(20.5)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153(21.5)	5.95(5시 57분)	200(28.1)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87(19.4)	5.96(5시 58분)	130(29.0)
	1,000만원 이상	122(21.9)	6.04(6시 2분)	166(29.9)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578(19.7)	5.87(5시 52분)	721(24.6)
	한부모	64(18.7)	6.07(6시 4분)	106(30.9)

## 다) 하교 이후 자녀 돌봄 방법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 하교 이후 자녀 돌봄 방법은 부모가 직접 돌봄(42.4%) 응답이 가장 많음
-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통한 돌봄 비율은 32.8%로 나타남. 이는 학부모 3명 중 1명은 사교육을 돌봄 목적으로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조부모님이나 친인척이 돌봄(15.4%)이 세 번째로 빈도수가 높음
- 베이비시터를 고용을 통한 돌봄이라는 응답은 2.2%임
- 별도로 돌봄 지원을 못하고 있음(3.7%), 공공 돌봄기관을 이용함(3.5%) 등 7.2%는 열악한 돌봄 환경에 있음
- 부모가 직접 돌봄(42.4%)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57.6%는 체계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sup>8)</sup>

〈표 IV-44〉 하교 이후 자녀 돌봄 방법(중복응답)

하교 이후 자녀 돌봄 방법	빈도(명)	비율(중복)	비율(100%)
부모가 직접 돌봄	1869	56.7%	42.4%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통해서 돌봄도 관리함	1448	43.9%	32.8%
조부모님이나 친인척이 돌봄	680	20.6%	15.4%
별도로 돌봄 지원을 못하고 있음	163	4.9%	3.7%
공공 돌봄기관을 이용함 (지역 아동센터 등)	153	4.6%	3.5%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서 돌봄	99	3.0%	2.2%
계	4412	133.7%	100.0%

### (2) 배경변인 별 결과 분석

#### (가) 학년에 따른 자녀 돌봄 방법

- 모든 학년에서 돌봄 방법 1순위는 부모가 직접 돌봄이고 2순위는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통해서 돌봄임
- 저학년은 고학년과 비교해서 조부모 및 친인척 돌봄, 베이비 시터를 고용해서 돌봄, 공공 돌봄기관 이용 돌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1, 2학년 28.7%, 3, 4학년 24.6%, 5, 6학년 14.2%)
- 별도로 돌봄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비율은 고학년이 훨씬 높음(8.1%)

8) 57.6%가 최소한인 이유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돌봄 지원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임

(나) 경제활동 참여자에 따른 자녀 돌봄 방법

- 외벌이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80.7%),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통해서 돌봄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31.0%)
- 맞벌이의 경우 돌봄 방법에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55.1%) 조부모님이나 친척 돌봄은 30.9%로 외벌이의 3.5배 수준임. 반면에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는 36.8%로 외벌이의 절반의 비율도 안됨
- 또한 베이비 시터와 공공돌봄은 돌봄 방법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외벌이보다 맞벌이가 더 이용하고 있음 (외벌이 3.6%, 맞벌이 10.9%)

(다) 월평균 소득에 따른 자녀 돌봄 방법

- 부모 직접 돌봄의 비율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음  
(600만 미만 3개 구간 평균 65.4%, 600만원 이상 3개 구간 평균 48.2%)  
최저소득층(300만원 미만)이 공공돌봄기관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음(8.6%)  
별도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비율도 최저소득층이 가장 높음(10.8%)
- 고소득층은 저소득층과 비교해서 조부모, 친척과 베이비시터이용 비율이 높음  
(조부모, 친척과 베이비시터 이용 비율 합 600만 미만 3개 구간 평균 13.8%, 600만원 이상 3개 구간 평균 32.9%)  
특히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부모 직접 돌봄 비율보다 사교육을 통한 돌봄 비율이 더 높음( 800만~1000만 부모직접 44.1%, 사교육 50.1%, 1000만원 이상 부모직접 47.1%, 사교육 52.9%)

(라) 학생과의 관계에 따른 자녀 돌봄 방법

- 부모가 직접 돌봄 비율은 양부모가 높고(양부모 58.4%, 한부모 44%), 반대로 조부모나 친척 돌봄 비율은 한부모가 높음(양부모 19.8%, 한부모 25.9%)
- 사교육 기관을 이용한 돌봄은 양부모와 한부모가 비슷한 비율임(양부모 44.3%, 한부모 42.9%)
- 공공돌봄기관 이용과 별도로 돌봄지원 못하는 비율은 양부모보다 한부모가 더 높은 비율임(공공돌봄 4% : 9.3%, 돌봄지원 못함 4.6% : 7.95%)

〈표 IV - 45〉 학년에 따른 하교 이후 자녀 돌봄 방법 (중복응답)

배경변인	구분	직접 돌봄	조부모, 친인척	베이비시터	공공 돌봄기관	사교육	돌봄 자원 못함
학년별	1, 2학년	805(56.9)	344(24.3)	62(4.4)	83(5.9)	619(43.7)	35(2.5)
	3, 4학년	569(55.6)	225(22.0)	27(2.6)	39(3.8)	464(45.3)	59(5.8)
	5, 6학년	495(57.9)	111(13.0)	10(1.2)	31(3.6)	365(42.7)	69(8.1)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1,199(80.7)	128(8.6)	15(1.0)	39(2.6)	460(31.0)	57(3.8)
	맞벌이	656(36.8)	550(30.9)	84(4.7)	110(6.2)	981(55.1)	103(5.8)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173(62.0)	34(12.2)	4(1.4)	24(8.6)	84(30.1)	30(10.8)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41(69.5)	39(11.2)	2(0.6)	14(4.0)	129(37.2)	23(6.6)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15(64.7)	145(15.2)	7(0.7)	41(4.3)	388(40.8)	40(4.2)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80(53.3)	57(22.0)	13(1.8)	42(5.9)	28(46.0)	31(4.3)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98(44.1)	42(31.6)	18(4.0)	18(4.0)	25(50.1)	15(3.3)
	1,000만원 이상	262(47.1)	63(29.3)	55(9.9)	14(2.5)	94(52.9)	24(4.3)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1,712(58.4)	581(19.8)	90(3.1)	118(4.0)	1,300(44.3)	136(4.6)
	한부모	151(44.0)	89(25.9)	9(2.6)	32(9.3)	147(42.9)	27(7.9)

## 라) 현재 초등돌봄교실 이용 여부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 현재 초등돌봄교실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837명(25.4%)으로 나타남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는 2,458명(74.6%)임
- 이는 교육청이 제공한 2022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에서 참여학생 비율이 11.5%로 나타난 것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수치임.
- 본 연구가 수행한 설문조사에 방과후학교와 돌봄에 더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이 참여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초등학교실 이용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로는 해석될 수 없으며, 다만 각 배경변인 별 추세를 이해하는 자료로는 활용 가능함

〈표 IV - 46〉 초등돌봄교실 이용 여부 (연구 설문조사)

응답	빈도(명)	비율(%)
예	837	25.4
아니오	2,458	74.6
계	3,295	100.0

## (2) 배경변인 별 결과 분석

- 학년이 높아질수록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비율은 줄어듦  
(1, 2학년 42%, 3, 4학년 19%, 5, 6학년 6%)
- 맞벌이 집단이 외벌이 집단보다 초등돌봄교실 이용 비율이 더 높음  
(외벌이 10%, 맞벌이 38%)
-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800만 원~1000만 원 미만 구간이 그 이하 월평균 소득구간보다 초등돌봄교실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800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 34%, 그 미만 4개 구간 평균 23.3%)
- 한부모 집단이 양부모 집단보다 초등돌봄교실 이용 비율이 높음  
(양부모 25%, 한부모 32%)

〈표 IV - 47〉 배경변인 별 초등돌봄교실 이용 여부 (연구 설문조사)

배경변인	학년	평균	표준편차	통계적 검정 (t/F)
학년별	1, 2학년	42.0%	0.494	228.36***
	3, 4학년	19.0%	0.39	
	5, 6학년	6.0%	0.237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10.0%	0.306	- 19.68***
	맞벌이	38.0%	0.485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25.0%	0.432	7.4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0.0%	0.404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1.0%	0.405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27.0%	0.446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34.0%	0.474	
	1000만원 이상	28.0%	0.447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25.0%	0.431	- 2.92**
	한부모	32.0%	0.469	

\*p<.01, \*\*\*p<.001

## 마) 초등돌봄교실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 (중복응답)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 초등돌봄교실 개선 사항 1순위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61.3%, 재미있는 프로그램 개발 55.6%)

- 돌봄전담사의 질적 수준 관리 30.8%
- 식사 또는 간식 제공 30.5%
-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 여건은 26%
- 돌봄만을 위한 전용 시설 확대 25.1%
- 돌봄 상황에 대해 학부모와 즉각적인 소통 구조 20.4%
- 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 13.9%로 나타남

〈표 IV - 48〉 초등돌봄교실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중복응답)

초등돌봄교실 개선 요구 사항	빈도(명)	비율(중복)	비율(100%)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513	61.3%	23.3%
재미있는 프로그램 개발	465	55.6%	21.1%
돌봄전담사의 질적 수준 관리	258	30.8%	11.7%
식사 또는 간식 제공	255	30.5%	11.6%
보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 여건	218	26.0%	9.9%
돌봄만을 위한 전용 시설 확대	210	25.1%	9.5%
돌봄 상황에 대해 학부모와 즉각적인 소통 구조	171	20.4%	7.8%
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	116	13.9%	5.3%

## (2) 배경변인 별 결과 분석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요구인 프로그램 관련 분석을 제외할 경우

- 저학년에서는 친구 함께 참여, 돌봄, 전용시설, 즉각적 소통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고학년에서는 식사와 간식 제공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음
- 저소득층이 모든 항목에 대한 요구 수준이 고소득층보다 높음
- 외벌이가 간식 식사 제공과 돌봄 운영 시간 연장에 대해 맞벌이보다 요구 비율 높음
- 한부모가 식사 간식, 친구참여, 돌봄연장에 대해 양부모보다 요구 비율이 높음

〈표 IV - 49〉 배경변인에 따른 하교 이후 자녀 돌봄 방법 (중복응답)

(단위 : %)

	구분	다양한 프로그램	재미있는 프로그램	돌봄 전담사 수준	식사 간식	친구 함께 참여	돌봄 전용 시설	학부모와 즉각적인 소통	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
학년별	1, 2학년	61.8	58.7	31.1	29.7	26.6	26.4	22	13.4
	3, 4학년	62.3	49.2	29.3	30.4	25.7	22.5	17.8	16.2
	5, 6학년	51	43.1	33.3	39.2	21.6	19.6	11.8	9.8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63.2	50.3	30.3	35.5	29.7	19.4	27.1	20.6
	맞벌이	61.1	56.4	31.1	29.3	25.3	20.7	24.6	12.3



	구분	다양한 프로그램	재미있는 프로그램	돌봄 전담사 수준	식사 간식	친구 함께 참여	돌봄 전용 시설	학부모와 즉각적인 소통	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66.7	59.4	37.7	40.6	33.3	27.5	36.2	18.8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62	43.7	29.6	28.2	26.8	26.8	18.3	8.5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2.8	53.6	31.1	34.7	24.5	16.3	21.9	11.2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60.5	62.6	33.3	23.6	26.7	24.6	25.6	15.4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59.5	57.5	27.5	28.8	22.9	19	30.7	15
	1,000만원 이상	59.5	51	28.1	32	26.8	15.7	20.9	14.4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60.8	55.8	30.5	30.2	25.8	20.4	24.8	13.3
	한부모	64.9	54.1	32.4	32.4	27	20.7	26.1	18

## 바) 초등돌봄교실 이용 시간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8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함

- 현재 아침 등교 시간 돌봄 이용 비율은 2.0%지만 아침 등교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19.6%(중복응답)임. 이는 아침 돌봄의 수요에 비해서 지원되는 돌봄 시스템은 대단히 부족한 상황임을 시사함
- 현재 오후 돌봄의 경우 6시 이후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하지만 6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22.4%임. 오전 돌봄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 이후의 돌봄 수요에 대한 현재의 지원은 대단히 부족한 상황임을 시사함
- 오후 초등돌봄교실 평균 이용시간은 오후 4시 1분임. 반면에 오후 돌봄 필요시간은 평균 5시 54분임을 고려할 때 오후 돌봄 시간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표 IV - 50〉 초등돌봄교실 이용시간

응답	빈도(명)	비율(%)
아침 등교 시간까지	17	2.0
하교 이후 오후 2시까지	45	5.4
오후 3시까지	213	25.4
오후 4시까지	334	39.9
오후 5시까지	173	20.7
오후 6시까지	33	3.9
오후 7시까지	20	2.4

응답	빈도(명)	비율(%)
오후 8시까지	1	0.1
오후 8시 이후	1	0.1
계	837	100.0
평균	오후 4시 1분	

## (2) 배경변인 별 결과 분석

- 저소득층일수록 초등돌봄교실 이용시간 시간이 더 많음  
(300만원 미만 4시 26분, 1000시간 이상 3시 58분)
- 한부모 집단이 양부모 집단보다 초등돌봄교실 이용 시간이 더 많음  
(양부모 4시 12분, 한부모 3시 58분)
- 자녀가 사립학교에 다니는 경우 국공립에 비해서 초등돌봄교실 이용시간이 더 많음  
(국공립 4시, 사립 4시 53분)
- 학년, 경제활동 참여자(외벌이, 맞벌이)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V - 51〉 배경변인 별 초등돌봄교실 이용시간

구분	학년	이용시간(평균)	이용시간(표준편차)	통계적 검정 (t/F)
학년별	1, 2학년	4.03 (4시 2분)	1.067	0.48
	3, 4학년	3.95 (3시 57분)	1.075	
	5, 6학년	3.94 (3시 56분)	0.913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4.07 (4시 4분)	1.144	0.85
	맞벌이	3.98 (3시 59분)	1.038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4.43 (4시 26분)	1.238	3.6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9 (4시 5분)	0.913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4 (4시)	0.954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4.03 (4시 2분)	1.109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3.79 (3시 47분)	1.06	
	1000만원 이상	3.97 (3시 58분)	1.055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3.97 (3시 58분)	1.041	4.37*
	한부모	4.2 (4시 12분)	1.153	
설립유형	국공립	4 (4시)	1.055	4.25*
	사립	4.53	1.179	

\*p<.05, \*\*p<.01

## 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현재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 2,458명에게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를 설문조사함

- 절반에 해당하는 49.8%는 가정에서 직접 돌보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1,225명)
- 이용대상자에 해당이 안되거나 입금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응답이 46.2%임
  - 초등돌봄교실 이용 대상자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 42.9%이며(1,055명)
  - 이용 대상자이지만 입금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음 3.3%임(80명)
-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긍정적이지 않은 인식은 45.4%임
  - 초등돌봄교실보다 사교육 기관에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451명, 13.0%)
  - 초등돌봄교실의 프로그램이 부실하다고 생각(299명, 8.6%)
  - 식사·간식이 제공되지 않아서(158명, 4.5%)
  - 학교에서 배정한 돌봄전담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111명, 3.2%)
  -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주로 돌봄교실을 이용하기 때문에(99명, 2.8%)

〈표 IV-52〉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응답	빈도(명)	비율(%)
초등돌봄교실 이용 대상자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1,055	42.9
초등돌봄교실 이용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입금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80	3.3
가정에서 직접 돌보기 때문에	1,225	49.8
학교운영 초등돌봄교실보다 사교육 기관에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451	18.3
학교운영 초등돌봄교실의 프로그램이 부실하다고 생각해서	299	12.2
학교에서 배정한 돌봄전담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111	4.5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주로 돌봄교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99	4.0
식사·간식이 제공되지 않아서	158	6.4
계	2,458	100.0

### (2) 배경변인 별 결과 분석

- 학년에 따른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전체의 분포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며 특기할 만한 차이가 없음
- 맞벌이 집단 중에도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자가 아님’의 비율이 40.1%에 달함
- 또한 맞벌이 집단은 외벌이에 비해서 사교육 기관 이용의 비율(외벌이 11.2%, 맞벌이

27.6%),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부실에 대한 응답(외별이 8.6%, 맞벌이 16.9%), 식사 간식 미제공 이유(외별이 4.1%, 맞벌이 9.2%)에 응답비율이 높음

- 가장 저소득층인 300만원 이하 집단의 경우에 이용대상자가 아니어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48.7%에 이름.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현재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시사함
- 300만~400만원 집단과 400~600만원 집단의 경우에 이용대상자가 아니어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각각 56.9%, 52.1%로 전체 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한부모의 경우 이용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6.4%임. 이는 한부모의 경우에도 현재 초등돌봄교실 여건에서 이용대상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시사함
- 설립유형의 경우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사립보다는 국공립에서 이용대상 해당이 안되는 응답자가 43.1%로 사립 37.1%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표 IV-53〉 배경변인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이용대상 해당 안 됨	입금대상 아님	가정에서 돌봄	사교육 기관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돌봄교실 프로그램 부실	돌봄 전담사 신뢰하지 않음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	식사·간식 제공되지 않음
학 년 별	1, 2학년	338 (41.6)	46 (5.7)	158 (19.4)	119 (14.6)	42 (5.2)	36 (4.4)	74 (9.1)	13.4
	3, 4학년	352 (42.7)	27 (3.3)	402 (48.8)	100 (12.1)	34 (4.1)	31 (3.8)	46 (5.6)	16.2
	5, 6학년	365 (46.0)	7 (0.9)	410 (51.6)	130 (16.4)	80 (10.1)	35 (4.4)	32 (4.0)	38 (4.8)
경 제 활 동 참 여 자	외별이	672 (51.0)	16 (1.2)	788 (59.8)	148 (11.2)	113 (8.6)	47 (3.6)	49 (3.7)	54 (4.1)
	맞벌이	375 (34.4)	62 (5.7)	428 (39.2)	301 (27.6)	184 (16.9)	64 (5.9)	49 (4.5)	100 (9.2)
월 별 관 소 액	300만원 미만	92 (45.3)	7 (3.4)	94 (46.3)	23 (11.3)	18 (8.9)	8 (3.9)	14 (6.9)	15 (7.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53 (55.8)	3 (1.1)	137 (50.0)	29 (10.6)	29 (10.6)	9 (3.3)	11 (4.0)	15 (5.5)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70 (49.3)	21 (2.8)	382 (50.9)	117 (15.6)	76 (10.1)	30 (4.0)	30 (4.0)	47 (6.3)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200 (39.2)	9 (1.8)	265 (52.0)	117 (22.9)	65 (12.7)	23 (4.5)	13 (2.5)	27 (5.3)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9 (37.1)	17 (5.8)	147 (50.0)	67 (22.8)	43 (14.6)	18 (6.1)	10 (3.4)	25 (8.5)
	1,000만원 이상	131 (32.8)	23 (5.8)	200 (50.0)	98 (24.5)	68 (17.0)	23 (5.8)	21 (5.3)	29 (7.3)

	구분	이용대상 해당 안 됨	입금대상 아님	가정에서 돌봄	사교육 기관이 효율적이라 고 판단	돌봄교실 프로그램 부실	돌봄 전담사 신뢰하지 않음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	식사·간식 제공되지 않음
자 녀 와 의 관 계	양부모	974(44.5)	73(3.3)	1,112(50.8)	404(18.5)	267(12.2)	100(4.6)	90(4.1)	135(6.2)
	한부모	76(33.3)	7(3.1)	104(45.6)	44(19.3)	32(14.0)	11(4.8)	9(3.9)	22(9.6)
설 립 유 형	국공립	1029(43.1)	79(3.3)	1192(49.9)	437(18.3)	292(12.2)	106(4.4)	95(4.0)	153(6.4)
	사립	26(37.1)	1(1.4)	33(47.1)	14(20.0)	7(10.0)	5(7.1)	4(5.7)	5(7.1)

## 자)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초등돌봄교실 이용응답자 837명에게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응답자 803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함

-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임 (409명, 50.9%)
-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함께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임(156명, 19.4%)
- 자체적으로 돌봄이 가능해서라는 응답은 128명(15.9%)임
- 조부모, 친인척, 베이비시터 등 별도의 돌봄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54명, 6.7%이며, 그 외 기타(45명, 5.6%), 다른 돌봄기관을 이용해서(11명, 1.4%)임

〈표 IV - 54〉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응답	빈도(명)	비율(%)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409	50.9
오후 5시 이후 자체적으로 돌봄이 가능해서	128	15.9
오후 5시 이후 별도의 돌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조부모, 친인척, 베이비 시터 등)	54	6.7
다른 돌봄기관을 이용해서	11	1.4
오후 5시 이후에 함께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156	19.4
기타	45	5.6
계	803	100.0

## (2) 배경변인 별 결과 분석

- 학년, 경제활동 참여자, 월평균소득, 학생과의 관계, 설립유형 등 배경변인에 따른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IV - 55〉 배경변인 별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구분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자체 돌봄 가능	조부모, 친인척, 베이비 시터 등 돌봄 지원	다른 돌봄기관 이용	함께 돌봄교실을 이용 친구 별로없음	기타	Peason 카이제곱
학년별	1, 2학년	295(51.8)	89(15.6)	39(6.8)	5(0.9)	107(18.8)	35(6.1)	9.635
	3, 4학년	86(47.0)	31(16.9)	13(7.1)	4(2.2)	39(21.3)	10(5.5)	
	5, 6학년	28(56.0)	8(16.0)	2(4.0)	2(4.0)	10(20.0)	0(0.0)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79(53.7)	22(15.0)	6(4.1)	4(2.7)	26(17.7)	10(6.8)	5.466
	맞벌이	328(50.4)	105(16.1)	48(7.4)	7(1.1)	129(19.8)	34(5.2)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31(47.0)	11(16.7)	2(3.0)	2(3.0)	14(21.2)	6(9.1)	21.669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3(47.8)	11(15.9)	4(5.8)	1(1.4)	18(26.1)	2(2.9)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02(55.1)	36(19.5)	7(3.8)	2(1.1)	27(14.6)	11(5.9)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94(50.8)	32(17.3)	15(8.1)	2(1.1)	35(18.9)	7(3.8)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76(51.4)	19(12.8)	12(8.1)	2(1.4)	28(18.9)	11(7.4)	
	1,000만원 이상	73(48.7)	19(12.7)	14(9.3)	2(1.3)	34(22.7)	8(5.3)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352(50.7)	109(15.7)	48(6.9)	10(1.4)	137(19.7)	38(5.5)	1.375
	한부모	57(53.8)	17(16.0)	5(4.7)	1(0.9)	19(17.9)	7(6.6)	
설립유형	국공립	399(50.6%)	125(15.9%)	54(6.9%)	11(1.4%)	154(19.5%)	45(5.7%)	3.287
	사립	10(66.7%)	3(20.0%)	0(0.0%)	0(0.0%)	2(13.3%)	0(0.0%)	

## 4) 질적으로 우수한 ‘새로운 초등돌봄 교실’에 대한 의견

-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새로운 초등돌봄교실’이란 현재 초등돌봄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을 시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응답자에게 제시한 가상의 정책을 말함.
- 제안내용은 크게 ‘모든 학생을 위한 저녁 8까지 돌봄 시스템 마련’, ‘교육적 기능이 있고, 재미있는 돌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과후학교와 돌봄과의 결합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안 내용 -

〈모든 학생을 위한 저녁 8시까지 돌봄 시스템 마련〉

- 학교 수업시간 종료 후 돌봄 참여 아동이 있는 모든 교실에 돌봄전담사 배치
- 매일 오후 8시까지 돌봄전담사가 담당 자녀의 돌봄 책임
- 돌봄전담사 책임하에 귀가 지도
- 매일 오후에 간식 제공

〈교육적 기능이 있고, 재미있는 돌봄〉

- 학생들은 돌봄교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원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강좌에 참여하고 돌봄전담사가 이를 관리함
- 돌봄교실에서는 함께 숙제하고, 놀고 쉬는 시간 운영
- 방학 중에도 방과후학교와 연계된 돌봄교실 운영
- 귀가 시간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
- 돌봄 상황에 대해 학부모와 지속적인 소통

- 본 절은 보호자에게 이렇게 돌봄 프로그램이 높은 수준에서 수행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와 어느 정도 금액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우수한 돌봄과 방과후학교의 연계적 시행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함.

가)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향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 새로운 초등돌봄교실이 모든 학생에게 개방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59.5%임(1,962명)
- 현재 초등돌봄교실 이용 응답자가 25.4%임을 고려할 때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향이 59.5%나 된다는 것은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이용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25.2%이며(830명),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5.3%임(503명)

〈표 IV - 56〉 새로운 초등돌봄교실이 이용 의향

응답	빈도(명)	비율(%)
있다.	1,962	59.5
없다.	830	25.2
잘 모르겠다.	503	15.3
계	3,295	100.0

## (2) 배경변인 별 결과 분석

### (가) 학년에 따른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향

-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돌봄교실에 참여할 의향의 비율은 줄어들음
- 1, 2학년의 경우 약 70%가 이용 의사 있음 (1학년 71.5%, 2학년 68%)
- 3, 4학년은 약 57%가 이용 의사 있음 (3학년 58.6%, 4학년 56.1%)
- 5, 6학년은 약 44%가 이용 의사 있음 (5학년 46.9%, 6학년 42.1%)

〈표 IV - 57〉 학년에 따른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향

응답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있다.	71.5%	68.0%	58.6%	56.1%	46.9%	42.1%	59.5%
없다.	15.8%	19.0%	27.8%	25.4%	36.7%	37.3%	25.2%
잘 모르겠다.	12.7%	13.0%	13.6%	18.5%	16.5%	20.6%	1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나) 경제활동 참여자에 따른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향

-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참여 의향은 외벌이 보다 맞벌이의 경우 약간 더 높음  
(맞벌이 62.2%, 외벌이 56.2%)
-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벌이의 경우에도 참여 의향은 56.2%에 달함

〈표 IV - 58〉 경제활동참여자에 따른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향

응답	맞벌이	외벌이
있다	62.2%	56.2%
없다	22.9%	28.1%
잘 모르겠다	14.9%	15.7%
전체	100%	100%

### (다) 월평균 소득에 따른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향

- 월평균 소득에 따른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향은 저소득층이 가장 높지만 소득 수준과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음
- 300만원 미만과 300~400만원 구간의 참여의향은 약 65%임  
(50%미만 구간 68.5%, 50~100% 구간 62.4%)
- 참여 의향이 가장 낮은 구간은 1000만원 이상이지만 이 구간에서도 절반 이상이 참여 의향을 보임 (56.1%)



〈표 IV - 59〉 월평균소득에 따른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향

응답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있다	68.5%	64.8%	58.4%	58.1%	59.0%	56.1%
없다	16.1%	19.3%	27.5%	25.8%	28.3%	26.1%
잘 모르겠다	15.4%	15.9%	14.1%	16.1%	12.7%	17.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라) 학생과의 관계에 따른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향

- 학생과의 관계에 따른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향은 한부모의 경우가 양부모의 경우에 비해서 높음 (한부모 65.5%, 양부모 58.5%)

〈표 IV - 60〉 학생과의 관계에 따른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향

응답	양 부모	한부모
있다	58.8%	65.5%
없다	26.0%	16.0%
잘 모르겠다	15.2%	18.6%
전체	100.0%	100.0%

(마) 설립유형에 따른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향

- 설립유형에 따른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향은 국공립(25.2%)와 사립(25.3%)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국공립 25.2%, 사립 25.3%)

〈표 IV - 61〉 설립유형에 따른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향

응답	국공립	사립
있다	25.2%	25.3%
없다	59.5%	59.8%
잘 모르겠다	15.3%	14.9%
전체	100.0%	100.0%

## 나)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참여할 때 비용부담 의향

### (1) 전체 경향 분석

- 새로운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할 때 비용부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2.4%임
- 이는 참여의향이 있다는 응답 59.5%보다 낮은 비율인데 그 이유는 소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즉, 소득이 낮은 경우 새로운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할 의향은 높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중위소득 이하의 경우 참여 의향은 68.5%(50%미만), 62.4%(50~100%미만), 56.2%(중위소득 100%)지만 비용부담 의향 비율은 39.1%, 51.4%, 49.8%로 낮아짐
- 이 점은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통해 초등돌봄 수요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키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돌봄 비용 지원 방안과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표 IV - 62〉 새로운 돌봄교실 참여할 때 비용부담 의향

응답	빈도(명)	비율(%)
예	1,727	52.4
아니오	1,568	47.6
계	3,295	100.0

## (2) 배경 변인별 분석

- 학년이 낮을수록 비용 부담 의향 비율이 높음  
(1, 2학년 57%, 3, 4학년 52%, 5, 6학년 46%)
- 맞벌이 집단이 외벌이 집단보다 8시 돌봄 비용 부담 의향이 더 높음  
(외벌이 48%, 맞벌이 56%)
-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비용부담 의향 비율이 높아짐<sup>9)</sup>  
(300만원 미만 39%, 1000만원 이상 58%)
- 학생과의 관계(양부모, 한부모), 설립유형(국공립, 사립)에 따른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참여할 때의 비용 부담 의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음

〈표 IV - 63〉 배경변인 별 새로운 돌봄교실 참여할 때 비용부담 의향

배경변인	구분	비용부담 의향 (평균)	비용부담 의향 (표준편차)	통계적 검정 (t/F)
학년별	1, 2학년	0.57	0.495	13.59***
	3, 4학년	0.52	0.5	
	5, 6학년	0.46	0.499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0.48	0.5	-4.65***
	맞벌이	0.56	0.496	

9) 예외적으로 300만원~400만원 구간은 400만~800만 구간보다 비용부담 의향이 더 높음

배경변인	구분	비용부담 의향 (평균)	비용부담 의향 (표준편차)	통계적 검정 (t/F)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0.39	0.489	7.0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0.54	0.499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0.49	0.5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0.53	0.499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0.57	0.495	
	1000만원 이상	0.58	0.494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0.53	0.499	1.17
	한부모	0.5	0.501	
설립유형	국공립	0.52	0.5	0.09
	사립	0.54	0.501	

\*\*\*p<.001

## 다)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비용부담 가능 금액

### (1) 전체 경향 분석

- 새로운 초등돌봄 교실에 참여할 때 비용부담 가능금액 평균은 9.02만원임
- 가장 많은 응답은 8만 원 미만(51.6%)이며, 전체적으로 12만원 이하에 응답한 비율이 88.9%임
- 다만 방과후학교에도 무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응답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현재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부담과 관련한 응답이 소극적일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IV - 64〉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비용부담 가능 금액

응답	빈도(명)	비율(%)
8만 원 미만	891	51.6
8만 원~10만 원 미만	481	27.9
10만 원~12만 원 미만	163	9.4
12만 원~14만 원 미만	34	2.0
14~16만 원 미만	47	2.7
16만 원~18만 원 미만	17	1.0
18만 원 이상도 가능	94	5.4
계	1,727	100.0
평균	9.02만원	

## (2) 배경 변인별 분석

- 배경변인별로 세부적으로 확인했을 때, 비용부담의향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배경변인은 학년, 월평균소득이었으며, 나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학년에서는 3, 4학년, 1, 2학년, 5, 6학년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 구간에서는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9.67만원이며, 800만원 미만의 모든 구간에서는 평균 9만원 이상의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상대적으로 800만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다른 집보다는 적게 확인됨.
- 이와 같은 결과는 실제 현재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가 많은 집단이거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부담가능 금액의 평균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됨. 앞서 300만원 미만 집단에서 비용부담 의향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나 부담가능 금액은 전체 평균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

〈표 IV-65〉 배경변인 별 새로운 초등 돌봄교실 비용 부담 가능 금액

배경변인	구분	비용부담 의향 (평균)	비용부담 의향 (표준편차)	통계적 검정 (t/F)
학년별	1, 2학년	8.82	3.019	3.22*
	3, 4학년	9.18	3.228	
	5, 6학년	9.23	3.214	
경제활동 참여자	외벌이	9.18	3.230	3.17
	맞벌이	8.91	3.058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9.07	2.866	3.3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9.67	3.655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9.19	3.175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9.01	2.977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8.72	3.064	
	1000만원 이상	8.64	2.999	
학생과의 관계	양부모	8.98	3.097	1.86
	한부모	9.33	3.389	
설립유형	국공립	9.02	3.140	0.05
	사립	9.13	2.871	

\*p<.05

## 다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실태

###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취지와 평가

#### 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취지에 대한 동의 정도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5개 취지에 대한 응답 중에서 가장 많이 동의한 항목은 ‘학생의 다양한 재능과 특기 적성 함양에 도움’(4.41)<sup>10)</sup>임
-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4.28), ‘학교의 돌봄 시간 확대에 도움.’(4.27) 등 두가지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도 높은 편임
-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도움’에 대한 동의 비율은 5가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취지 중에서 가장 낮음(3.58). 특히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들은 이에 대한 동의 수준이 2.87로, 동의한다는 응답보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음
- ‘교육격차의 완화에 도움’ 항목에 대한 동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함 (4.07). 방과후학교 강사와 교감/교장 집단을 제외하면 ‘교육격차 완화에 도움’ 항목에 대한 응답은 평균 3.83임 (일반교사 3.73, 방과후학교 부장 3.68, 학부모 3.99)

〈표 IV - 6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취지별 동의 정도(5점 척도)

응답	평균	표준편차
학생의 다양한 재능과 특기 적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	4.41	0.81
교육격차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	4.07	1.01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	4.28	0.95
학교의 돌봄 시간 확대에 도움이 된다.	4.27	0.99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도움이 된다.	3.58	1.29

##### (2) 배경 변인 별 결과 분석

##### (가) 응답 집단별 분석

- 방과후학교 취지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방과후학교 강사의 동의 정도가 가장 높으며 (평균 4.08) 반면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실제로 책임지는 방과후학교 부장교사들은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동의 수준을 나타냄(평균 3.68)

10) 5점=매우 동의, 4점=동의, 3점=잘 모름, 2점=동의 하지 않음, 1점=매우 동의하지 않음

- 나머지 응답 집단의 동의 수준에 대한 긍정적 응답 순위는 교감/교장(평균 4.08)> 학부모(평균 3.99)> 일반교사 (3.80) 순서임

〈표 IV - 67〉 응답집단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취지 동의 정도(5점 척도)

응답	일반 교사	담당 부장 교사	교감 교장	강사	학부모
학생의 다양한 재능과 특기 적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	4.10	4.10	4.45	4.70	4.37
교육격차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	3.74	3.63	4.14	4.38	3.76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	3.96	3.96	4.21	4.61	3.96
학교의 돌봄 시간 확대에 도움이 된다	3.97	3.86	4.2	4.61	4.21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도움이 된다	3.22	2.87	3.41	4.04	3.67
평균	3.80	3.68	4.08	4.47	3.99

#### (나) 설립유형별 분석

- 사립은 국공립에 비해 5개 취지에 대한 동의 수준이 모두 높음
- 특히 사립과 국공립의 동의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은 ‘다양한 재능과 특기 적성 함양’과 ‘돌봄시간 확대’임

〈표 IV - 68〉 학교 설립 유형에 따른 방과후학교 취지별 동의 정도(5점 척도)

응답	국공립	사립	차이 (사립 - 국공립)
학생의 다양한 재능과 특기 적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	4.17	4.41	0.24
교육격차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	3.81	3.97	0.16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	4.01	4.14	0.13
학교의 돌봄 시간 확대에 도움이 된다	3.99	4.23	0.24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도움이 된다	3.2	3.42	0.22
평균	3.84	4.03	0.20

### 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선정 시 고려사항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방과후학교 담당 부장 38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선정과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선정시 고려사항의 최우선 순위는 보호자 수요조사(4.80)와 학생 수요조사(4.70)임

## (2) 배경 변인별 결과 분석

- 그 다음 고려 사항은 강사 수급(4.51), 학교 운영위 제안(4.27), 교장/교감의 제안(4.07), 교사의 제안(3.87) 순서임
-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선정시 고려사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V - 69〉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선정시 고려사항(5점 척도)

응답	평균	표준편차
1) 보호자 수요조사	4.80	0.417
2) 학생 수요조사	4.70	0.529
3) 강사 수급	4.51	0.620
4) 학교 운영위 제안	4.27	0.791
5) 교장/교감의 제안	4.07	0.865
6) 교사의 제안	3.87	0.975

〈표 IV - 70〉 학교설립 유형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선정시 고려사항(5점 척도)

응답	국공립	사립
보호자 수요조사	4.81	4.67
학생 수요조사	4.70	4.67
강사 수급	4.51	4.44
학교 운영위 제안	4.30	3.89
교장/교감의 제안	4.08	4.00
교사의 제안	3.87	4.00

## 다) 프로그램의 다양성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여부에 대해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n=388), 교감/교장(n=559), 보호자(N=3295)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함

-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수준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3.94점임
- 대체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
  - 그렇다(46.0%), 매우 그렇다(28.6%), 보통이다(17.9%), 그렇지 않다(6.2%), 전혀 그렇지 않다(1.4%) 순서임

〈표 IV - 71〉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여부

응답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8	1.4
그렇지 않다	262	6.2
보통이다	759	17.9
그렇다	1,951	46.0
매우 그렇다	1,212	28.6
계	4,242	100.0
평균		3.94
표준편차		0.912

## (2) 배경 변인 별 결과 분석

-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와 교감/교장이 보호자보다 높음(방과후학교 부장교사 4.32, 교감/교장 4.21, 학부모 3.85)
- 학교설립유형(국공립, 사립)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V - 72〉 배경변인별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여부(5점 척도)

배경변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통계적 검정(t/F)
응답 집단 별	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	4.32	0.751	76.65***
	교감/교장	4.21	0.776	
	보호자	3.85	0.93	
설립유형	국공립	3.94	0.909	-0.36
	사립	3.97	1.013	

\*\*\*p<.001

## 라) 방과후학교 강좌의 질적 우수 정도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방과후학교 강좌의 질적 우수 정도를 보호자에게 질문하고 분석함(N=3,295)

- 학부모가 인식하는 방과후학교 강좌의 질적 우수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5임
- 우수한 편이다(48.1%), 보통이다(26.5%), 매우 우수하다(21.0%), 우수하지 못한 편이다(3.6%), 전혀 우수하지 못하다(0.8%) 순서임



〈표 IV - 73〉 방과후학교 강좌의 질적 우수 정도(5점 척도)

응답	빈도(명)	비율(%)
전혀 우수하지 못하다	28	0.8
우수하지 못한 편이다	118	3.6
보통이다	872	26.5
우수한 편이다	1,585	48.1
매우 우수하다	692	21.0
계	3,295	100.0
평균		3.85
표준편차		0.819

## (2) 배경 변인 별 결과 분석

- 학교설립유형(국공립, 사립)에 따른 방과후학교 강좌의 질적 우수 정도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V - 74〉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방과후학교 강좌의 질적 우수 정도 인식(5점 척도)

구분	학교유형	평균	표준편차	통계적 검정
학교 특성	국공립	3.85	0.819	-0.03
	사립	3.85	0.829	

## 마) 방과후학교 운영 평가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일반교사, 방과후학교 담당부장, 교감/교장, 방과후학교 강사, 학부모 등 5개 집단 모두에게 설문조사

-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3.98점임
- 우수한 편이다(46.3%), 매우 우수하다(28.3%), 보통이다 (21.2%), 우수하지 못한 편이다(3.1%), 전혀 우수하지 못하다(1.0%) 순서임

〈표 IV - 75〉 방과후학교 강좌의 질적 우수 정도(5점 척도)

응답	빈도(명)	비율(%)
전혀 우수하지 못하다	76	1.0
우수하지 못한 편이다	247	3.1
보통이다	1,680	21.2
우수한 편이다	3,665	46.3

응답	빈도(명)	비율(%)
매우 우수하다	2,241	28.3
계	7,909	100.0
평균		3.98
표준편차		0.841

## (2) 배경 변인 별 결과 분석

- 해당학교에 근무하는 일반교사, 교감/교장, 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가 방과후학교 강사보다 높고,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부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방과후학교 담당 부장교사(4.31), 교감/교장(4.24), 일반교사(4.22), 방과후학교 강사(3.97), 학부모(3.79) 순서로 나타남
- 학교설립유형(국공립, 사립)에 따른 방과후학교 운영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V - 76〉 응답자에 따른 방과후학교 운영 평가 차이(5점 척도)

구분	응답자	평균	표준편차	통계적 검정(t/F)
응답자	일반교사	4.22	0.867	110.07***
	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	4.31	0.646	
	교감/교장	4.24	0.651	
	방과후학교 강사	3.97	0.833	
	학부모	3.79	0.829	
학교 특성	국공립	3.98	0.844	-0.66
	사립	4.03	0.843	

\*\*\*p<.001

## 2) 방과후학교 강사의 역량

### 가) 강사의 수업역량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강사의 수업역량에 대해 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 교감/교장, 방과후학교 강사, 학부모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함

- 강사의 수업역량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4.06점으로 대체로 높은 수준임
- 그렇다(51.7%), 매우 그렇다(28.6%), 보통이다(17.7%), 그렇지 않다(1.7%), 전혀 그렇지 않다(0.4%) 순서임

〈표 IV - 77〉 강사의 수업역량 우수 여부(5점 척도)

응답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3	0.4
그렇지 않다	108	1.7
보통이다	1,116	17.7
그렇다	3,265	51.7
매우 그렇다	1,807	28.6
계	6,319	100.0
평균		4.06
표준편차		0.748

## (2) 배경 변인 별 결과 분석

- 강사의 수업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방과후학교 강사가 가장 높고(4.35), 교감/교장(4.00), 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3.98), 학부모(3.90) 순서임
-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강사의 수업역량 우수 여부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V - 78〉 응답자에 따른 강사의 수업역량 우수 여부 인식 차이(5점 척도)

구분	응답자	평균	표준편차	통계적 검정(t/F)
응답자	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	3.98	0.752	171.87***
	교감/교장	4.00	0.697	
	방과후학교 강사	4.35	0.610	
	보호자	3.90	0.781	
학교 특성	국공립	3.92	0.768	-0.08
	사립	3.93	0.783	

\*\*\*p<.001

## 나) 수업 역량이 뛰어난 강사 채용을 위한 조건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수업역량이 뛰어난 강사 채용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 대해 방과후학교 담당 부장 교사, 교감/교장,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함

- 분석결과, 방과후 교실 운영을 위한 충분한 시설과 공간(4.70), 수업 질에 비례하는 적정 수준의 강사료(4.65), 강사에 대한 학교와 보호자, 학생의 존중(4.64)학생과 보호자 만족도 평가 결과의 실질적 반영(4.21), 방과후 강사를 위한 교무실 휴게실 등 근무여

건 지원(3.95)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 - 79〉 질 높은 강사 채용 조건(5점 척도)

응답	평균	표준편차
1) 수업 질에 비례하는 적정 수준의 강사료	4.65	0.572
2) 방과후 교실 운영을 위한 충분한 시설과 공간	4.70	0.556
3) 방과후 강사를 위한 교무실 휴게실 등 근무여건 지원	3.95	1.019
4) 강사에 대한 학교와 보호자, 학생의 존중	4.64	0.591
5) 학생과 보호자 만족도 평가 결과의 실질적 반영	4.21	0.835

(2) 배경 변인 별 결과 분석

- 응답자 별로 수업 역량이 뛰어난 강사 채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의 순위가 다름
- 방과후학교 강사(4.79)와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는 1순위로 시설 공간(4.53)을, 교감/교장은 만족도 평가의 실질적 반영(4.57)을 꼽음
- 특히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강사 존중을 2순위로 꼽았는데, 1순위와 거의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1순위 시설공간 4.79, 2순위 강사 존중 4.78)
- 응답자 모두 강사료도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음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 4.43, 교감/교장 4.44, 방과후학교 강사 4.75)
-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수업역량이 뛰어난 강사 채용을 위한 조건에 대한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V - 80〉 배경변인별 질 높은 강사 채용 조건(5점 척도)

응답자	강사료	시설과 공간	휴게실 등 근무여건	강사에 대한 존중	평가의 실질적 반영
방과후학교 담당 부장 교사	4.43	4.53	3.58	4.4	4.4
교감/교장	4.44	4.46	3.6	4.3	4.57
방과후학교 강사	4.75	4.79	4.11	4.78	4.08
국공립	4.44	4.49	3.59	4.34	4.5
사립	4.5	4.54	3.75	4.5	4.5

### 3) 방과후학교 운영 방식과 최저가 입찰

#### 가) 방과후학교 운영방식(계약 방식)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방과후학교 운영방식에 대한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 388명의 응답을 분석함

- 위탁 운영하는 비율이 61.1%임 (민간업체 위탁 53.1%, 비영리 기관위탁 8.0%)
- 직영 비율은 23.2%이고 직영과 위탁을 혼합해서 운영하는 경우 15.7%임

〈표 IV-81〉 방과후학교 운영 방식(계약 방식)

응답	빈도(명)	비율(%)
직영	90	23.2%
비영리 기관 위탁	31	8.0%
민간 영리 업체 위탁	206	53.1%
직영과 위탁 혼합	61	15.7%
계	388	100%

##### (2) 배경 변인 별 결과 분석(설립유형별)

- 국공립은 직영의 비율이 21.6%인데 비해 사립은 88.9%가 직영으로 나타남
- 국공립은 순수 위탁 비율이 62.6% (영리업체 54.4%, 비영리 8.2%)인 반면 사립은 순수 위탁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직영과 위탁 혼합의 경우는 국공립이 15.8%, 사립은 11.1%임

〈표 IV-82〉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계약 방식 차이

구분	국공립 빈도(%)	사립 빈도(%)	Pearson 카이제곱
직영	82 (21.6)	8 (88.9)	22.895***
비영리 기관 위탁	31 (8.2)	0 (0.0)	
민간 영리 업체 위탁	206 (54.4)	0 (0.0)	
직영과 위탁 혼합	60 (15.8)	1 (11.1)	
계	379 (100.0)	9 (100.0)	

\*\*\*p<.001

#### 나) 직영으로 운영하는 이유

방과후학교 운영방식에 대해 '직영'으로 응답한 경우와 '직영과 위탁 혼합'이라고 응답한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151명의 응답을 분석함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 방과후학교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방침이기 때문임(40.4%)
- ‘기타’는 34.4%, ‘보호자의 요구사항’ 15.2%, 위탁업체를 신뢰하지 않아서 7.9%, 학교 교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2.0% 순으로 나타남

〈표 IV - 83〉 방과후학교 직영 운영 이유

응답	빈도(명)	비율(%)
학교방침이기 때문에	61	40.4
기타	52	34.4
보호자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23	15.2
위탁업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12	7.9
학교 교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3	2
계	151	100

### (2) 배경 변인 별 결과 분석(설립유형)

- 학교설립유형에 따라 직영하는 이유는 크게 다름
- 학교 방침 때문에 직영한다는 응답이 국공립은 38%인 반면, 사립은 77.8%임.
- 국공립은 16.2%가 학부모의 요구 때문이라고 응답한 반면 사립은 0%임
  - 이는 사립의 경우 학교의 방침이 방과후학교 운영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것을 시사함
- 업체를 신뢰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사립이 더 많음 (국공립 7.0%, 사립 22.2%)

〈표 IV - 84〉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직영이유 인식 차이

구분	국공립 빈도(%)	사립 빈도(%)	Pearson 카이제곱
학교방침이기 때문에	54 (38.0)	7 (77.8)	10.708*
기타	52 (36.6)	0 (0.0)	
보호자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23 (16.2)	0 (0.0)	
위탁업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10 (7.0)	2 (22.2)	
학교 교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3 (2.1)	0 (0.0)	
계	142 (100.0)	9 (100.0)	

\*p<.05

## 다) 최저가격이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는 것에 대한 의견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방과후학교 계약 방식 중 최저입찰제에 대해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와 교감/교장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함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298명, 교감/교장 559명)<sup>11)</sup>

-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와 교감/교장은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에서 “최저가격이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음
- 최저가격이 주요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한 평점은 5점 만점에 평균 2.75점임<sup>12)</sup>
- ‘찬성하지 않는 편’(38.2%), ‘찬성하는 편’(28.5%), ‘잘 모름’(13.9%), ‘전혀 찬성하지 않음’(13.7%), ‘매우 찬성’(5.8%) 순으로 많이 응답함

〈표 IV - 85〉 최저가격이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는 것에 대한 인식

응답	빈도(명)	비율(%)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117	13.7
찬성하지 않는 편이다	327	38.2
잘 모르겠다	119	13.9
찬성하는 편이다	244	28.5
매우 찬성한다	50	5.8
계	857	100.0
평균		2.75
표준편차		1.176

### (2) 배경 변인 별 결과 분석

- 최저 가격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와 교감/교장 집단 간, 그리고 학교 설립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V - 86〉 응답자에 따른 최저가격이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는 것에 대한 인식 차이(5점 척도)

구분	세부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응답자 집단	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	2.84	1.135	1.703
	교감/교장	2.70	1.196	
설립 유형	국공립	2.75	1.176	0.203
	사립	2.69	1.195	

11)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388명 중에서 직영하는 90명은 설문대상이 아님

12) 매우 찬성=5점, 찬성=4점, 잘모름=3점, 찬성하지 않음 2점, 전혀 찬성하지 않음=1점

#### 4) 방과후학교 수강료

##### 가) 현재 수강료 수준에 대한 인식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 교감/교장,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함 (N=3,687)<sup>13)</sup>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 현재 수강료 수준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18점임<sup>14)</sup>
- 적절한 편(69.8%), 높은 편(17.7%), 낮은 편이다(5.7%), 매우 높은 편(5.0%) 순으로 나타남

〈표 IV - 87〉 수강료 수준 인식

응답	빈도(명)	비율(%)
매우 낮은 편이다.	67	1.8
낮은 편이다.	210	5.7
적절한 편이다.	2,575	69.8
높은 편이다.	651	17.7
매우 높은 편이다.	184	5.0
계	3,687	100.0
평균		3.18
표준편차		0.687

##### (2) 응답자에 따른 인식 차이

- 3개의 집단 중에서 상대적으로 학부모가 수강료 수준이 가장 높다고 인식하고 있고 (3.25), 그 다음은 교감/교장(3.05)임.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들이 가장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 (2.88)

〈표 IV - 88〉 응답자에 따른 수강료 수준 인식 차이(5점 척도)

구분	응답자	평균	표준편차	F
수강료 수준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	2.88	0.648	61.00***
	교감/교장	3.06	0.597	
	학부모	3.25	0.695	

\*\*\*p<.001

13) 부장 388명, 교감/교장 559명 학부모 2740명, 학부모는 총 3295명 중에서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부모만 대상으로 함

14) 매우 높은 편=5점, 높은 편=4점, 적절한 편=3점, 낮은 편 2점, 매우 낮은 편 1점



## 나) 수강료 인상 필요성 의견에 대한 인식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높이기 위한 수강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 교감/교장, 보호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함 (N=4,242)

- 수강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62점임<sup>15)</sup>
- ‘동의’(41.1%), ‘보통’(20.9%), 매우 동의(20.2%), 동의하지 않음(15.4%), 전혀 동의하지 않음(2.3%)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V - 89〉 수강료 인상 필요성 의견에 대한 인식(5점 척도)

응답	빈도(명)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8	2.3
동의하지 않는다	654	15.4
보통이다	888	20.9
동의한다	1,743	41.1
매우 동의한다	859	20.2
계	4,242	100.0
평균		3.62
표준편차		1.043

### (2) 응답자에 따른 인식 차이

- 수강료 인상에 대한 동의 정도는 학부모가 교감/교장 및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보다 높음 (학부모 3.68, 교감/교장 3.40,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 3.34)

〈표 IV - 90〉 응답자에 따른 수강료 인상에 대한 인식 차이(5점 척도)

구분	응답자	평균	표준편차	F
수강료 인상	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	3.34	1.025	33.14***
	교감/교장	3.40	1.015	
	학부모	3.68	1.040	

\*\*\*p<.001

15) 매우 동의=5점, 동의=4점, 보통=3점, 동의하지 않음=2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

## 5) 만족도 평가

### 가)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에 대해 방과후학교 부장교사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함(N=388)

-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은 전체 평균 47.8%로 나타남
- 학년이 높아질수록 만족도에 참여하는 비율은 낮아짐  
(1학년 51.7%, 2학년 51.6%, 3학년 48.9%, 4학년 47.6%, 5학년 44%, 6학년 43% 순으로 나타남)
- 학생이 참여하는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임
- 학교설립유형(국공립, 사립)에 따른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V - 91〉 방과후학교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는 학년별 학생 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학년
평가 안함	5.4%	4.1%	2.8%	3.1%	2.8%	1.0%	3.2%
20% 미만	3.1%	4.6%	7.0%	14.9%	21.1%	2.8%	8.9%
20% 이상 30% 미만	4.6%	8.0%	9.5%	11.6%	7.7%	4.6%	7.7%
30% 이상 40% 미만	7.0%	11.3%	13.1%	10.1%	9.3%	5.4%	9.4%
40% 이상 50% 미만	12.4%	13.1%	13.4%	13.1%	12.6%	11.3%	12.7%
50% 이상 60% 미만	18.8%	19.1%	16.5%	12.6%	12.1%	19.6%	16.5%
60% 이상	48.7%	39.7%	37.6%	34.5%	34.3%	55.2%	41.7%
평균 <sup>16)</sup>	51.5%	48.6%	47.2%	43.2%	41.9%	55.1%	47.9%

〈표 IV - 92〉 설립유형별에 따른 만족도 평가시 학생 참여에 대한 인식 차이(5점 척도)

구분	비율	학교유형	비율
1학년	51.5%	국공립	51.5%
		사립	50.0%
2학년	48.6%	국공립	48.6%
		사립	48.9%
3학년	47.2%	국공립	47.2%
		사립	47.8%

16) 구간별 중간값으로 가중 평균한 값임

구분	비율	학교유형	비율
4학년	43.2%	국공립	43.2%
		사립	45.0%
5학년	41.9%	국공립	41.9%
		사립	43.9%
6학년	55.1%	국공립	55.0%
		사립	56.1%
학년 전체	47.9%	국공립	47.9%
		사립	48.6%

#### 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학부모 비율

-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학부모 비율은 전체 평균 50.6%로 학생 참여율보다 약간 높음 (N=388)
- 학년별 참여 비율은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짐  
(1학년 55.2%, 2학년 54.4%, 3학년 51.3%, 4학년 49.9%, 5학년 46.3%, 6학년 45.6% 순으로 나타남)
- 학생이 참여하는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임
- 학교설립유형(국공립, 사립)에 따른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V-93〉 방과후학교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는 학년별 학부모 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학년
평가 안함	1.0%	0.8%	1.0%	0.8%	1.3%	1.3%	1.0%
20% 미만	2.8%	3.1%	5.4%	7.0%	12.1%	16.5%	7.8%
20% 이상 30% 미만	4.6%	5.4%	7.0%	7.7%	10.3%	7.7%	7.1%
30% 이상 40% 미만	5.4%	5.9%	9.0%	10.6%	12.4%	10.8%	9.0%
40% 이상 50% 미만	11.3%	12.9%	13.9%	15.5%	12.6%	12.6%	13.1%
50% 이상 60% 미만	19.6%	19.8%	20.1%	17.8%	14.2%	14.2%	17.6%
60% 이상	55.2%	52.1%	43.6%	40.7%	37.1%	36.9%	44.2%
평균	55.1%	54.3%	51.1%	49.5%	45.7%	44.8%	50.1%

〈표 IV - 94〉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만족도 평가시 학부모 참여에 대한 인식 차이

구분	비율	학교유형	비율
1학년	55.1%	국공립	55.0%
		사립	56.1%
2학년	54.3%	국공립	54.2%
		사립	56.1%
3학년	51.1%	국공립	50.9%
		사립	56.1%
4학년	49.5%	국공립	49.4%
		사립	56.1%
5학년	45.7%	국공립	45.5%
		사립	55.0%
6학년	44.8%	국공립	44.6%
		사립	55.0%
학년 전체	50.1%	국공립	49.9%
		사립	55.7%

#### 다) 학생, 학부모 만족도 평가 참여율이 낮은 이유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비율 중 하나라도 ‘50% 미만’ 이하에 응답한 방과후학교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함 (N=199)

- 방과후학교 담당 부장교사가 인식한 학생, 학부모 만족도 평가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도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70.9%)
- 그 외 ‘기타’(18.6%), ‘처음부터 제한된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조사해서’(9.5%), ‘학교에서 만족도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서’(1.0%) 순으로 나타남
- 사립의 빈도수가 매우 적기는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도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명 중 1명(33%)인데 비해 국공립은 그 비율이 71.4%에 이름

〈표 IV - 95〉 학생, 학부모 만족도 평가 참여율이 낮은 이유

응답	빈도(명)	비율(%)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도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141	70.9
학교에서 만족도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서	2	1.0
처음부터 제한된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조사해서	19	9.5
기타	37	18.6
계	199	100.0

〈표 IV - 96〉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만족도 평가시 학부모 참여에 대한 인식 차이

구분	국공립 빈도(%)	사립 빈도(%)	Pearson 카이제곱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도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140(71.4)	1(33.3)	32.926***
학교에서 만족도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서	1(0.5)	1(33.3)	
처음부터 제한된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조사해서	19(9.7)	0(0.0)	
기타	36(18.4)	1(33.3)	
계	196(100.0)	3(100.0)	

\*\*\*p < .001

## 라) 만족도 조사결과의 “실제 방과후학교 평가” 반영 여부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388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함

- 만족도 조사결과의 실제 방과후학교 평가 반영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23점으로 잘 반영하는 편으로 인식하고 있음<sup>17)</sup>
- 잘 반영하는 편(56.7%), 매우 잘 반영(33.2%),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는 편(9.8%), 전혀 반영하지 못함(0.3%) 순으로 빈도수가 높음
-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만족도 조사결과의 “실제 방과후학교 평가” 반영 여부에 대한 인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V - 97〉 만족도 조사결과의 “실제 방과후학교 평가” 반영 여부

응답	빈도(명)	비율(%)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1	0.3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한다	38	9.8
잘 반영하는 편이다	220	56.7
매우 잘 반영한다	129	33.2
계	388	100.0
평균		3.23
표준편차		0.624

〈표 IV - 98〉 설립유형별 따른 만족도 조사결과의 “실제 방과후학교 평가” 반영 여부에 대한 인식 차이(5점 척도)

구분	학교유형	평균	표준편차	t
만족도 조사결과의 “실제 방과후학교 평가” 반영 여부	국공립	3.23	0.628	0.035
	사립	3.22	0.441	

17) 매우 잘 반영=4점, 잘 반영=3점, 잘 반영하지 못하는 편=2점,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편=1점

#### 마)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평가 결과를 강사나 프로그램에 직접 반영하는지 여부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평가 결과를 강사나 프로그램에 직접 반영하는지 여부를 ‘직영+혼합’의 경우와 ‘위탁+혼합’의 경우로 나누어서 설문 분석함 (N=449)

- 만족도가 낮은 경우 직접 또는 업체를 통해 ‘해당 강사나 프로그램에 반영’한다는 응답 비율은 직영+혼합의 경우가 위탁+혼합의 경우 보다 높음  
(직영+혼합 84.8%, 위탁+혼합 80.2%)
-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응답은 위탁+직영이 더 높음  
(직영+혼합 14.6%, 위탁+혼합 19.5%)

〈표 IV-99〉 강사 만족도가 낮은 경우 피드백 직접 반영 여부

반영 여부	응답자 수(비율)	
	직영+혼합	위탁+혼합
반영한다	128 (84.8%)	239 (80.2%)
반영하지 않는다	1(0.7%)	1(0.3%)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2 (14.6%)	58 (19.5%)

#### 바)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는 방법

강사에 대한 만족도 결과가 낮은 경우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한 방법에 대해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들에게 설문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함 (중복 응답 N=594)

- ‘강사에게 알려줘서 경각심을 준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 73.3%로 가장 많으며, 직영+혼합 보다 위탁+혼합의 경우가 더 많음 (직영+혼합 70.2%, 위탁+혼합 74.8%)
- ‘차기 프로그램 개설시 강사를 교체한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전체 37.4%이며, 위탁+혼합 보다 직영+위탁의 경우가 더 많음 (직영+혼합 45%, 위탁+혼합 3.6%)
- ‘프로그램 진행 중에 강사를 교체한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전체 12.9%이며, 직영+혼합 보다 위탁+혼합의 경우가 더 많음 (직영+위탁 7.3%, 위탁+혼합 15.8%)

〈표 IV-100〉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는 방법

답변	응답자 수(비율)		
	직영+혼합	위탁+혼합	전체
프로그램 진행 중에 강사에게 알려줘서 경각심을 준 경우가 있다.	106(70.2%)	223(74.8%)	329(73.3%)

답변	응답자 수(비율)		
	직영+혼합	위탁+혼합	전체
프로그램 진행 중에 강사를 교체한 경우가 있다.	11(7.3%)	47(15.8%)	58(12.9%)
프로그램 진행 중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환불한 경우가 있다.	0 (0.0%)	4(1.3%)	4(0.9%)
차기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시 강사를 교체한 경우가 있다.	68(45.0%)	100(33.6%)	168(37.4%)
기타	13(8.6%)	22(7.4%)	35(7.8%)

## 6) 방과후학교 부장교사의 역할과 부담

### 가) 방과후학교 운영 관계자의 역할 중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조직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를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와 교장/교감에게 설문 조사함 (중복 응답)

#### (1) 전체 경향 결과 분석

-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로 인식하고 있음. 응답자의 97.3%가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동의했으며, 5점 만점으로 평가할 때 4.75점으로 나타남<sup>18)</sup>
-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교감/교장임. 응답자의 92.5%가 교감/교장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동의함 (평균 4.43)
-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64.8%, 3.69), 교육지원청(60.4%, 3.52), 교육청(56.5%, 3.44) 순으로 나타남

〈표 IV - 101〉 방과후학교 이해관계자의 중요도

	동의	비동의	잘모름	평균(5점 만점)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	97.3%	1.4%	1.4%	4.75
교장/교감	92.5%	3.4%	4.1%	4.43
학교운영위원회	64.8%	15.6%	19.5%	3.69
교육지원청	60.4%	21.9%	17.7%	3.52
교육청	56.5%	23.5%	20.0%	3.44

\*동의=매우 동의+동의, 비동의=동의 않음+전혀 동의 안 함

18) 매우동의=5점, 동의=4점, 잘 모름=3점, 동의하지 않음=2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

(2) 응답자 구분에 따른 동의 정도의 차이

-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는 교감/교장에 비해서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더 낮게 동의함
- 학교운영위원회(부장교사 3.62, 교감/교장 3.73) 교육지원청(부장교사 3.24, 교감/교장 3.72), 교육청(부장교사 3.11, 교감/교장 3.68)
- 학교설립유형(국공립, 사립)에 따른 동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V - 102〉 응답자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중요도 인식 차이(5점 척도)

구분	응답자	평균	표준편차	t
1)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	4.74	0.580	-0.485
	교감/교장	4.76	0.549	
2) 학교 운영위원회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	3.62	1.120	-1.475
	교감/교장	3.73	1.044	
3) 교장/교감	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	4.26	0.856	-5.651***
	교감/교장	4.55	0.648	
4) 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	3.24	1.340	-5.805***
	교감/교장	3.72	1.101	
5) 교육청	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	3.11	1.372	-6.742***
	교감/교장	3.68	1.136	

\*\*\*p<.001

〈표 IV - 103〉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시 이해 관계자의 중요도 인식 차이(5점 척도)

구분	학교유형	평균	표준편차	t
1)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	국공립	4.76	0.561	0.762
	사립	4.67	0.565	
2) 학교 운영위원회	국공립	3.69	1.081	1.051
	사립	3.46	0.884	
3) 교장/교감	국공립	4.43	0.758	0.065
	사립	4.42	0.584	
4) 교육지원청	국공립	3.53	1.230	1.112
	사립	3.25	1.073	
5) 교육청	국공립	3.45	1.274	0.915
	사립	3.21	1.062	

나) 부장교사들이 느끼는 부담 정도

방과후학교 업무 부담 정도를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에게 설문조사함 (N=388)



-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의 95.6%가 업무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함  
(매우 부담된다 73.7%, 부담된다 21.9%)
- 5점 만점으로 평가할 때 부담 정도 평균은 4.69점임
- 학교 설립유형(국공립, 사립)에 따른 부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V - 104〉 방과후학교 업무 부담에 대한 인식

응답	빈도(명)	비율(%)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	0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1	0.3
보통이다	16	4.1
부담되는 편이다	85	21.9
매우 부담된다	286	73.7
계	388	100.0
평균		4.69
표준편차		0.559

〈표 IV - 105〉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업무부담 인식 차이(5점 척도)

구분	학교유형	평균	표준편차	t
학교 특성	국공립	4.69	0.561	0.130
	사립	4.67	0.500	

#### 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기울이는 관심과 노력의 정도

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와 교감/교장에게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대해 기울이는 관심과 노력의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는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함 (N=947, 부장교사 388명, 교감/교장 559명)

-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대해 기울이는 관심과 노력의 정도에 대한 자기 평가 결과 방과후학교 부장교사는 97.2%, 교감/교장은 96.6%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응답함<sup>19)</sup>
- 전체의 평점은 4점 만점 기준으로 3.54점이며,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83점임

19) 매우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임(부장교사 66.8%, 교감/교장 51%)와 어느 정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임(부장교사 30.4%, 교감/교장 45.6%)의 합

-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가 교감/교장보다 스스로 관심과 노력의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방과후학교 부장교사 3.63, 교감/교장 3.47)
- 학교설립유형(국공립, 사립)에 따른 방과후학교의 운영 관련 자기 관심과 노력의 정도에 대한 자기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V - 106〉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대한 교감/교장과 부장교사의 자기평가

	교감/교장(N=559)	방과후학교 부장교사(N=388)
매우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1.0%	66.8%
어느 정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다.	45.6%	30.4%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는 못하는 편이다.	3.0%	2.3%
거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0.4%	0.5%
전체 평균 평점	3.54	
응답자별 평점 평균	3.47	3.63
표준편차	0.576	0.557
t	4.333***	

\*\*\*p<.001

〈표 IV - 107〉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방과후학교의 운영 관련 자기 관심과 노력의 정도 인식 차이(5점 척도)

구분	학교유형	평균	표준편차	t
학교 특성	국공립	3.54	0.572	-0.748
	사립	3.63	0.647	

## 라) 방과후학교 부장교사들의 업무 수당 수준에 대한 인식

방과후학교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업무 수당 수준에 대해 설문조사함(N=388)

-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의 97.4%가 현재 업무 수당이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매우 낮음 85.8%, 낮은 편 11.6%, 5점 만점에 평균 1.18점)
-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모두 업무수당이 매우 낮은 편으로 인식하지만, 그 중에서 국공립이 사립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더 큼 (국공립 1.17, 사립 1.44)<sup>20)</sup>

20) 매우 높은 편이 5점이, 매우 낮은 편이 1점이므로 점수가 낮을수록 높지 않다(낮다)고 평가하는 것임

〈표 IV - 108〉 방과후학교 부장교사들의 업무 수당에 대한 인식

응답	매우 높은 편	높은 편	적절한 편	낮은 편	매우 낮은 편	계	평균	표준편차
빈도(명)	2	1	7	45	333	388	1.18	0.512
비율(%)	0.5	0.3	1.8	11.6	85.8	100		

〈표 IV - 109〉 학교 설립 유형에 따른 방과후학교 부장교사들의 업무 수당에 대한 인식 비교

구분	응답	매우 높은 편	높은 편	적절한 편	낮은 편	매우 낮은 편	계	평균	표준편차
국공립	빈도(명)	2	0	7	44	326	379	1.17	0.494
	비율(%)	0.5	0.0	1.8	11.6	86.0	100		
사립	빈도	(명)	0	1	0	1	7	9	0.956
	비율(%)	0.0	11.1	0.0	11.1	77.8	100		

#### 마) 교육청과 지자체의 방과후학교 예산 지원에 대한 인식

교육청과 지자체 지원 예산을 포함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해 교감/교장에게 설문조사 (N=559)

- 교감/교장의 예산 지원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26점으로 보통 수준임<sup>21)</sup>
- 응답 빈도 기준, 보통이다(38.1%), 충분한 편이다(36.1%), 부족한 편이다(13.8%), 매우 충분하다(6.8%), 매우 부족하다(5.2%) 순서로 나타남
- 국공립과 사립의 구별에 따른 예산 지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매우 큼.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에 비해 사립의 교장들은 방과후학교 예산 지원이 부족한 편이라고 응답함
- 국공립은 충분하다는 응답이 43.9%지만 사립은 6.7%에 불과함
- 반면에 부족하다는 응답은 국공립은 17.6%인데 비해 사립은 73.3%에 이름

〈표 IV - 110〉 교감/교장의 방과후학교 예산 지원에 대한 인식

응답	매우 충분	충분한 편	보통	부족	매우 부족	계	평점 평균	표준편차
응답 수	38	202	213	77	29	559	3.26	0.956
비율	6.80%	36.10%	38.10%	13.80%	5.20%	100%		

21) 매우 충분=5점, 충분한 편= 4점, 보통=3점, 부족=2점, 매우 부족=1점

〈표 IV - 111〉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교감/교장의 방과후학교 예산 지원에 대한 인식

구분	응답	매우 충분	충분한 편	보통	부족	매우 부족	계	평균	표준 편차
국공립	빈도(명)	38	201	210	72	23	544	3.29	0.931
	비율(%)	7.0	36.9	38.6	13.2	4.2	100		
사립	빈도(명)	0	1	3	5	6	15	1.93	0.961
	비율(%)	0.0	6.7	20.0	33.3	40.0	100		

## 7)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방과후학교 부장교사와 교감/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N=947, 부장교사 388명, 교감/교장 559명)

### 가) 기초분석 결과

- 방과후학교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된 6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에 대해서 모두 5점 만점에 평균 4.5 이상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함
-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4.81), 강사의 수업역량(4.80), 프로그램의 다양성(4.66), 출결 확인, 하교 지도 등 체계적인 학생 관리(4.50), 수강에 부담되지 않는 적정 수준의 수강료(M=4.46) 순으로 나타남
- 국, 영, 수 등 주요 교과 프로그램 개설은 평점 3.34)으로 보통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 - 112〉 방과후학교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5점 척도)

응답	평균	표준편차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4.81	0.470
강사의 수업역량	4.80	0.475
프로그램의 다양성	4.66	0.613
출결 확인, 하교 지도 등 체계적인 학생 관리	4.50	0.749
수강에 부담되지 않는 적정 수준의 수강료	4.46	0.689
국, 영, 수 등 주요 교과 프로그램 개설	3.34	1.182

### 나) 응답자 특성과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인식 차

- 교감/교장과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간에 각 항목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거의 차이가

- 없음. 그러나 모든 항목에 대해서 부장교사보다 교감/교장이 더 높은 평점으로 응답함
- 학교설립유형(국공립, 사립)에 따른 방과후학교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V - 113〉 응답자 특성에 따른 방과후학교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5점 척도)

구분	응답자	평균	표준편차	t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부장 교사	4.76	0.536	-2.786**
	교감/교장	4.85	0.415	
강사의 수업역량	부장 교사	4.75	0.539	-2.646**
	교감/교장	4.84	0.422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장 교사	4.57	0.691	-3.415**
	교감/교장	4.72	0.545	
출결 확인, 하교 지도 등 체계적인 학생 관리	부장 교사	4.32	0.88	-6.163***
	교감/교장	4.64	0.61	
수강에 부담되지 않는 적정 수준의 수강료	부장 교사	4.41	0.743	-1.972*
	교감/교장	4.5	0.647	
국, 영, 수 등 주요 교과 프로그램 개설	부장 교사	3.21	1.169	-2.848**
	교감/교장	3.43	1.183	

\*p<.05, \*\*p<.01, \*\*\*p<.001

〈표 IV - 114〉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방과후학교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5점 척도)

구분	학교유형	평균	표준편차	t
1) 수강에 부담되지 않는 적정 수준의 수강료	국공립	4.47	0.689	1.524
	사립	4.25	0.676	
2) 강사의 수업역량	국공립	4.80	0.474	0.560
	사립	4.75	0.532	
3)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국공립	4.81	0.469	0.204
	사립	4.79	0.509	
4) 프로그램의 다양성	국공립	4.66	0.613	-0.417
	사립	4.71	0.624	
5) 국, 영, 수 등 주요 교과 프로그램 개설	국공립	3.33	1.187	-1.188
	사립	3.63	0.924	
6) 출결 확인, 하교 지도 등 체계적인 학생 관리	국공립	4.50	0.752	0.031
	사립	4.50	0.659	

## 8) 방과후학교의 교육공간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에 사용하는 교육 공간, 담임교사에게 연구실과 휴게실을 제공하는 조

건에서 일반교실 활용에 대한 의견, 시설과 안전에 대해 교육청이 완전하게 책임지는 것을 조건으로 할 때 일반교실 활용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함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388명, 교감/교장 559명, 일반교사 1590명, 방과후학교 강사 2,077명)

### 가) 현재 방과후학교 교육 공간의 충분성 여부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교육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방과후학교 부장, 교감/교장,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해 설문조사함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388명, 교감/교장 559명, 방과후학교 강사 2,077명)

-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은 충분하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42점임. 현재 방과후학교 교육 공간에 대해 ‘보통’보다는 나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충분한 편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방과후학교 강사는 교실 공간의 충분한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했고 (3.63), 교감/교장은 3.04, 방과후학교 부장교사들은 2.91점으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함

〈표 IV - 115〉 응답자별 현재 방과후학교 교육 공간 충분성 인식(5점 척도)

구분	응답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1) 충분 정도	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	2.91	1.340	96.332***	방과후학교 강사> 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 교감/교장
	교감/교장	3.04	1.349		
	방과후학교 강사	3.62	1.081		
	전체 평균	3.42	1.206		

\*\*\*p<.001

### 나) 방과후학교에 일반교실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방과후학교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반교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교감/교장, 일반교사,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설문조사함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388명, 교감/교장 559명, 일반교사 1590명, 방과후학교 강사 2,077명)

- 일반교실을 방과후학교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 집단은(방과후학교 부장교사, 교감/교장, 일반교사)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교사집단 전체에서 동의 비율은 평균 13.8%에 불과하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86.2%에 이름
- 반면에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동의하는 비율이 56.4%임

- 일반교실 활용에 동의하는 비율은 방과후학교 강사 (56.4%), 교감/교장(20.4%), 일반교사(12.8%), 방과후학교 부장교사(8.0%) 순서로 나타남<sup>22)</sup>

〈표 IV - 116〉 방과후학교에 일반교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	비동의	잘 모름	평점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8.0%	87.1%	4.9%	1.66
교감/교장	20.4%	76.6%	3.0%	2.12
일반교사	12.8%	82.3%	4.8%	1.77
방과후학교 강사	56.4%	24.5%	19.1%	3.45
교사 집단 전체	13.8%	81.8%	4.5%	1.83

\*동의=매우 동의+동의하는 편, 동의하지 않음=전혀 동의 하지 않음+동의하지 않음

#### 다) 연구실과 휴게실 지원 조건에서 일반교실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담임교사들에게 연구실과 휴게실을 지원하는 조건에서 일반교실을 방과후학교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교감/교장, 일반교사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함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388명, 교감/교장 559명, 일반교사 1,590명)

- 아무 조건 없이 일반교실을 활용하는 것에 비해서 담임교사에게 연구실과 휴게실을 지원하는 조건에서는 교사집단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아짐 (그냥 일반교실 사용시 13.8%, 연구실과 휴게실 제공 시 21.5%)
- 그러나 연구실과 휴게실을 제공하는 조건에서도 교사집단이 비동의하는 비율은 73.4%에 이름
- 동의하는 비율은 교감/교장(32.8%), 일반교사(19.1%), 방과후학교 부장교사(15.2%) 순서로 나타남

〈표 IV - 117〉 연구실과 휴게실 제공 조건에서 일반교실 활용에 대한 의견

	동의	비동의	잘모름	평점(5점 척도)
방과후부장교사	15.2%	78.1%	6.7%	1.85
교감/교장	32.8%	62.2%	5.0%	2.52
일반교사	19.1%	76.1%	4.8%	1.99
평균	21.5%	73.4%	5.1%	2.08
교사 집단 전체	13.8%	81.8%	4.5%	1.83

22) 매우 동의=5점, 동의하는 편=4점, 잘 모름=3점, 동의하지 않는 편=2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

## 라) 연구실과 휴게실 지원 및 교육청이 시설과 안전책임 지는 조건에서 일반교실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담임교사들에게 별도의 연구실과 휴게실을 지원하고, 교내시설과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 완전히 책임 조건에서 일반 교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 교감/교장, 일반 교사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함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388명, 교감/교장 559명, 일반교사 1590명)

- 연구실과 휴게실 지원에 더해서 학교시설과 학생안전 문제를 전적으로 교육청이 책임 지는 조건에서는 방과후학교에 일반 교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짐 (조건없이 일반교실 사용 시 동의 비율 13.8%, 연구실과 휴게실 제공 시 동의 비율 21.5%, 교육청 책임 조건이 추가될 때 동의 비율 32.6%)
- 하지만 여전히 교사집단이 동의하는 비율은 32.6% 수준이며, 비동의 하는 비율은 60.9%에 이름
- 다만 교감/교장의 경우 동의 비율이 46.5%까지 높아지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교감/교장 등 관리자들과 교사들이 일반 수업교실을 방과후학교에 내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함
- 동의 비율은 교감/교감(46.5%), 일반교사(29.1%), 방과후학교 부장교사(27.0%) 순서로 나타남

〈표 IV - 118〉 연구실과 휴게실 제공 및 교육청의 시설과 안전책임 조건에서 일반교실 활용에 대한 의견

	동의	비동의	잘모름	평점(5점 척도)
방과후부장교사	27.0%	67.0%	5.9%	2.21
교감/교장	46.5%	46.5%	7.0%	2.96
평균	29.1%	64.4%	6.5%	2.31
교사 집단 전체	32.6%	60.9%	6.5%	2.44

## 마)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일반교실 활용에 대한 인식 차이

- 현재 방과후학교가 이용하는 교육공간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보통 미만 수준으로 응답했지만, 그 중에서도 사립이 국공립보다 충분하다는 동의 정도가 더 낮음 (국공립 2.99점, 사립 2.79점)
- 하지만 일반교실을 방과후학교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공립은 부정적이지만, 사립은 훨씬 더 긍정적인



- 특히 담임교사에게 연구실과 휴게실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교실 활용에 대해 사립은 69.7%가 동의함 (국공립은 12.9%)
- 또한 연구실과 휴게실에 대해서 시설과 안전 문제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조건에서 사립은 74.2%가 일반교실 활용에 동의 (국공립은 31.5%)
- 요컨대 국공립의 경우 현재의 방과후학교 교육공간이 충분치 못하다는 인식은 사립보다 더 높지만, 교육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반교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공립이 동의하는 비율이 훨씬 더 낮음

〈표 IV - 119〉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교육 공간 인식 차이

구분	학교유형	동의	비동의	잘모름 <sup>23)</sup>	평균
1) 충분 정도 <sup>24)</sup>	국공립	42.3%	42.5%	15.3%	2.99
	사립	33.3%	50.0%	16.7%	2.79
2) 일반교실 활용	국공립	12.9%	82.8%	4.3%	1.80
	사립	45.5%	45.5%	9.1%	2.98
3) 연구실 및 휴게실 제공 조건으로 일반교실 활용	국공립	20.2%	74.7%	5.1%	2.04
	사립	69.7%	24.2%	6.1%	3.62
4) 교육청 책임 조건으로 일반교실 활용	국공립	31.5%	62.0%	6.6%	2.40
	사립	74.2%	19.7%	6.1%	3.85

## 9) 지역 연계 방과후학교

### 가) 전체 경향 결과 분석

‘마을 방과후학교’ 등과 같은 지역 연계 방과후학교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교감/교장, 일반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함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388명, 교감/교장 559명, 일반교사 1590명, 방과후학교 강사 2,077명)

- 지역 연계 방과후학교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3.40점으로 ‘잘 모르겠다’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며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sup>25)</sup>

23) 일반교실 충분 정도 문항의 경우 본래 설문 응답문항은 ‘잘모름’이 아니라 ‘보통이다’임

24) 일반교실이 충분한지 정도는 교장/교감, 부장교사 대상으로 진행함. 나머지는 교장/교감, 부장교사, 일반교사를 모두 대상으로 하였음.

25) 매우 실효성 있다=5점, 실효성 있는 편=4점, 잘모르겠다=3점, 실효성 없는 편=2점, 전혀 실효성 없음=1점

-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잘 모르겠다’로 나타남 (36.6%)
- 그 다음은 실효성이 있는 편(27.7%), 매우 실효성이 있음 (18.0%), 실효성 없는 편 (11.9%), 전혀 실효성이 없음 (5.9%) 순으로 나타남

〈표 IV - 120〉 지역 연계 방과후학교 운영의 실효성

응답	빈도(명)	비율(%)
전혀 실효성이 없다.	463	5.9
실효성이 없는 편이다	941	11.9
잘 모르겠다.	2,892	36.6
실효성이 있는 편이다.	2,191	27.7
매우 실효성이 있다.	1,422	18.0
계	7,909	100.0
평균		3.40
표준편차		1.090

\*\*\*p<.001

#### 나) 응답자 집단과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

- 응답자 집단별로 보면, 교감/교장이 지역 연계 방과후학교의 실효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음 (3.70점)
- 그 다음은 일반교사(3.47점), 방과후학교 강사(3.41 점), 학부모(3.34 점), 방과후학교 부장교사(3.14점) 순서로 나타남
-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보다 국공립이 지역 연계 방과후학교의 실효성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함 (국공립 3.41점, 사립 3.12점)

〈표 IV - 121〉 응답자에 따른 지역 연계 방과후학교 운영의 실효성 인식 차이(5점 척도)

구분	응답자	평균	표준편차	통계적 검정 (t/F)
응답자 집단별	일반교사	3.47	1.220	20.67***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	3.14	1.306	
	교감/교장	3.70	1.191	
	방과후학교 강사	3.41	1.082	
	보호자	3.34	0.964	
학교 특성	국공립	3.41	1.096	3.68***
	사립	3.12	0.952	

## 라 학교 외부의 공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사업단에 대한 의견

1) 공적인 방과후 사업단을 통해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때 기대되는 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  
학교 외부의 공적인 사업단에 의해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때 6개 항목의 기대되는 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방과후학교담당 부장 교사, 교감/교장, 일반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가) 전체 경향 결과 분석

- 5점 만점 기준으로 볼 때, 6가지 기대 사항에 전체에 대한 모든 응답자의 동의 정도는 평균은 3.8점으로 나타남(동의 비율 평균 67%)
- 항목별 긍정적인 동의 수준은 시설관리와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해결되면 현실성이 있다(3.91점), 학교와 교사의 방과후학교 운영 부담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3.87점),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에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3.86점), 방과후학교 강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체계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3.78점), 방과후학교 강사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3.77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3.76점) 순서로 높게 나타남

〈표 IV - 122〉 공적인 방과후 사업단을 통해 운영할 때 기대되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전체)(5점 척도)

응답	평균	표준편차
1) 학교와 교사의 방과후학교 운영 부담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3.87	1.137
2)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에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86	1.124
3) 시설관리와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해결되면 현실성이 있다.	3.91	1.119
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3.76	1.123
5) 방과후학교 강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체계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78	1.121
6) 방과후학교 강사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77	1.098

### 나) 응답자별 결과 분석

#### (1) 교사 집단의 높은 기대 수준

- 교사집단(방과후 부장교사, 교감/교장, 일반교사) 운영사업단에 의한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 전체적으로 높은 기대를 나타냄.
- 동의하는 평균 비율은 모든 항목에 대해 평균 81.7% (4.37점)임

〈표 IV - 123〉 공적인 방과후사업단을 통해 운영할 때 기대되는 항목에 대한 교사집단의 동의 정도(5점 척도)

응답	동의	비동의	잘모름	평점
1) 운영부담해소	88.0%	5.8%	6.2%	4.49
2) 정규교육 집중	85.0%	6.6%	8.4%	4.46
3) 시설/안전 확충시 현실성	82.9%	8.8%	8.3%	4.38
4) 프로그램 향상	76.4%	8.2%	15.5%	4.29
5) 강사 수준 향상/관리	79.7%	7.6%	12.7%	4.29
6) 강사 처우 개선	74.7%	7.4%	17.8%	4.19
평균	81.7%	7.2%	11.1%	4.37

## (2) 교사 집단별 차이

- 교사 집단내의 차이를 보면 방과후학교 부장교사와 교감/교장 등 방과후학교 운영을 직접 책임지는 집단은 모든 항목에서 동의 비율이 일반교사보다 높음
- 긍정적인 동의 수준은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82.6%, 교감/교장 86.2%, 일반교사 79%로 나타남

〈표 IV - 124〉 공적인 방과후사업단을 통해 운영할 때 기대되는 항목에 대한 교사집단내 동의 정도의 차이

응답집단	동의	비동의	잘모름	평점(5점 척도)
담당부장	82.6%	6.1%	11.3%	4.43
교장/교감	86.2%	4.1%	9.7%	4.44
일반교사	79.0%	8.9%	12.2%	4.19

## (3) 방과후학교 강사의 낮은 기대

-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방과후학교 사업단을 통해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때 기대하는 항목에 대해 교사집단 보다 현저히 낮고, 학부모보다도 낮은 기대를 보임
- 평균 동의 비율은 49.6%, 평점은 3.36점으로 나타남
- 이는 학교나 교육청의 소관을 벗어나서 학교외부의 사업단에 의해서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때 방과후학교 강사의 고용환경이나 처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표 IV - 125〉 공적인 방과후사업단을 통해 운영할 때 기대되는 항목에 대한 방과후학교 강사의 동의 정도(5점 척도)

응답	동의	비동의	잘모름	평점
1) 운영부담	51.9%	22.0%	26.2%	3.38
2) 정규교육 집중	51.3%	19.6%	29.0%	3.41

응답	동의	비동의	잘모름	평점
3) 시설/안전 확충시 현실성	57.1%	18.9%	24.0%	3.50
4) 프로그램 향상	45.2%	24.0%	30.8%	3.27
5) 강사 수준 향상/관리	46.8%	24.4%	28.8%	3.28
6) 강사 처우 개선	45.2%	22.1%	32.7%	3.31
평균	49.6%	21.8%	28.6%	3.36

#### (4) 학부모의 동의 정도

- 학부모들은 교사집단 보다는 낮지만 방과후학교 강사보다는 기대 항목에 동의정도가 모두 높음
- 전체 항목에 대한 평균 동의 비율은 67.1%, 평점은 3.77점으로 나타남

〈표 IV - 126〉 공적인 방과후사업단을 통해 운영할 때 기대되는 항목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 정도(5점 척도)

응답	동의	비동의	잘모름	평점
1) 운영부담해소	65.9%	11.9%	22.3%	3.72
2) 정규교육 집중	65.1%	11.3%	23.6%	3.73
3) 시설/안전 확충시 현실성	73.3%	9.5%	17.2%	3.87
4) 프로그램 향상	66.0%	8.7%	25.3%	3.76
5) 강사 수준 향상/관리	66.2%	8.7%	25.1%	3.76
6) 강사 처우 개선	66.2%	6.7%	27.1%	3.78
평균	67.1%	9.5%	23.4%	3.77

## 2) 공적인 방과후학교 사업단을 통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

방과후학교 운영사업단이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시설과 학생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교감/교장, 일반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가) 전체 경향 결과 분석

- 설문조사 전체 집단의 찬성 비율은 63.3%, 평점은 5점 만점에 3.73점임.<sup>26)</sup>

26) 찬성비율은 '매우 찬성'과 '찬성하는 편'의 합이며, 평점은 매우 찬성=5점, 찬성하는 편=4점, 잘 모름=3점, 찬성하지 않는 편=2점, 전혀 찬성하지 않음=1점

-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15.4%임 (찬성하지 않는 편 9.7%, 전혀 찬성하지 않음 5.7%)
- 잘 모름은 21.3%로 나타남

〈표 IV - 127〉 시설과 안전을 전제로 한 방과후사업단 운영에 대한 의견

응답	빈도(명)	비율(%)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451	5.7
찬성하지 않는 편이다	765	9.7
잘 모르겠다	1,686	21.3
찬성하는 편이다	2,590	32.7
매우 찬성한다.	2,417	30.6
계	7,909	100.0
평균		3.73
표준편차		1.160

#### 나) 응답자 집단별 차이

- 교사 집단(방과후학교 부장교사, 교감/교장, 일반교사)의 찬성 비율은 평균 82.7%, 평점 4.35점으로 높은 찬성 의견을 보임
- 교사 집단 내에서는 방과후학교 부장교사(4.49점), 교감/교장(4.41점), 일반교사(4.16점) 순서로 나타남
-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찬성 42.7%(평점 3.19점)으로 가장 낮은 찬성 비율을 보임
- 학부모는 찬성 61.4% (평점 3.65점)으로 나타남

〈표 IV - 128〉 응답자 집단별 시설과 안전을 전제로 한 방과후사업단 운영에 대한 의견

집단	찬성	찬성하지 않음	잘모름	평점
담당부장	86.9%	5.2%	8.0%	4.49
교장/교감	88.2%	6.4%	5.4%	4.41
일반교사	79.7%	10.6%	9.7%	4.16
교사집단 전체 평균	82.7%	8.8%	8.5%	4.35
강사	42.7%	26.9%	30.5%	3.19
보호자	61.4%	13.2%	25.4%	3.65

## 마 서울시 방과후학교 강사 실태와 요구

### 1) 방과후학교 강사의 구성 현황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총 2,077명이 설문에 참여함

#### 가) 방과후학교 강사의 성별

- 방과후학교 강사의 대부분은 여성 강사로 나타남(1,728명, 83.2%)
- 남성 강사는 16.8%(349명)임

〈표 IV - 129〉 방과후학교 강사 성별 비교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349	16.8
	여성	1,728	83.2

#### 나)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력

- 방과후학교 강사경력은 10년 이상이 43.2%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냄
- 전체적으로 5년 이상 경력 강사가 68.3%임
- 10년 이상(43.2%) > 5년 이상~10년 미만(25.1%) > 2년 미만(17.7%) > 2년 이상~5년 미만(14.1%)

〈표 IV - 130〉 서울시 초등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력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방과후학교 강사경력	2년 미만	367	17.7
	2년 이상 5년 미만	292	14.1
	5년 이상 10년 미만	521	25.1
	10년 이상	897	43.2

#### 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국적 및 정규수업 참여여부

- 방과후학교 강사의 99.4%는 한국인이며, 외국인은 0.5%로 조사됨
- 방과후학교 강사 중에서 정규수업 교사로 참여 중인 비율은 33.1%임

〈표 IV - 131〉 서울시 초등방과후학교 강사의 국적과 정규수업 참여 여부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국적 및 정규수업참여 여부	한국인 - 학교 정규수업 교사로 참여중	687	33.1
	한국인 - 학교 정규수업 교사로 참여 안 함	1,378	66.3
	외국인 - 학교의 정규수업 교사로 참여중	1	0.0
	외국인 - 학교의 정규수업 교사로 참여 안 함	11	0.5

## 라) 방과후학교 강사의 타직업 유무

- 방과후학교 강사 60.6%는 타 직업이 없으며 사실상 강사 자체가 직업임
- 방과후학교 강사 중에서 타 직업이 있는 비율은 39.4%임

〈표 IV - 132〉 서울시 초등 방과후학교 강사의 타 직업 유무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타 직업 유무	있음	818	39.4
	없음	1,259	60.6

## 마) 수업하는 강좌의 종류 (중복응답)

- 강좌의 종류는 과학이 가장 높은 비율임 (20.9%)
- 응답자의 10% 이상이 담당하는 강좌
  - 과학(20.9%) > 스포츠 (17.8%) > 음악 (14.3%) > 미술 (13.2%) > 취미 재능(12.9%)
- 응답자의 10% 미만이 담당하는 강좌
  - 인문사회(9.5%) > 수학(7.8%) > 기타 (5.2%) > 영어 (5.2%) > 외국어(영어 이외, 0.6%)
- 기타 과목의 대부분은 컴퓨터 강좌임

〈표 IV - 133〉 수업하는 강좌 종류

강좌 종류	답변수	비율(중복)	비율(100% 기준)
과학	434	20.9%	19.5%
스포츠	369	17.8%	16.6%
음악	298	14.3%	13.4%
미술	275	13.2%	12.3%
취미 재능	267	12.9%	12.0%
인문 사회	197	9.5%	8.8%
수학	161	7.8%	7.2%



강좌 종류	답변수	비율(중복)	비율(100% 기준)
기타	108	5.2%	4.8%
영어	107	5.2%	4.8%
외국어 (영어 이외)	12	0.6%	0.5%

## 2)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방식 실태와 선호하는 채용방식

### 가)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방식 실태

- 직영으로 채용된 강사의 비율은 32.7%임
- 직영과 위탁업체 채용 모두 경험이 있는 비율은 38.0%임
- 영리 위탁업체는 통한 채용 24.3%임
- 비영리 위탁업체를 통한 채용 5.1%임

〈표 IV - 134〉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된 방식

채용 방식	답변수	비율
학교에서 직접 채용 (직영)	679	32.7%
비영리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	105	5.1%
영리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	504	24.3%
직영과 위탁업체 모두 경험이 있음	789	38.0%

### 나) 선호하는 강사 채용 방식

- 선호하는 강사 채용 방식은 학교를 통한 직접 고용(직영)이 가장 높은 비율(53.8%)을 차지함
- 위탁업체를 선호하는 비율은 20.5% 임 (영리위탁 11.7%, 비영리위탁 8.8%)
- 어느 경우든 상관없음은 25.7%임

〈표 IV - 135〉 선호하는 강사 채용 방식

선호하는 채용방식	빈도(명)	비율(%)
학교를 통한 직접 고용(직영)	1,118	53.8
비영리 위탁업체를 통한 고용	182	8.8
영리 위탁업체를 통한 고용	244	11.7
어느 경우든 상관없음	533	25.7
계	2,077	100.0

## 다) 선호하는 강사 채용 방식 이유

- 내가 원하는 학교와 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800명, 26.1%)
-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741명, 24.2%)
- 재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710명, 23.2%)
- 학교 탐색에 들이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441명, 14.4%)
- 더 많은 학교와 계약할 수 있기 때문(373명, 12.2%)

〈표 IV - 136〉 선호하는 강사 채용 방식 이유(중복응답)

선호 채용 방식의 이유	빈도(명)	비율(%)
재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	710	23.2
내가 원하는 학교와 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	800	26.1
학교 탐색에 들이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	441	14.4
더 많은 학교와 계약할 수 있기 때문	373	12.2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	741	24.2
계	3,065	100.0

## 3) 방과후학교 강사의 수업 관련 현황과 요구

### 가) 방과후학교 강사의 수업 관련 현황

#### (1) 1일 수업하는 강좌 수

- 방과후학교 강사의 1일 평균 수업 강좌 수는 평균 1.92개임
- 2강좌(58.7%) > 1강좌 (27.5%) > 3강좌(7.8%) > 4강좌 이상(6.0%) 순으로 나타남

〈표 IV - 137〉 1일 수업 강좌 수

1일 수업 강좌 수	빈도(명)	비율(%)
1강좌	571	27.5
2강좌	1,220	58.7
3강좌	161	7.8
4강좌 이상	125	6.0
계	2,077	100.0
평균		1.92개

## (2) 수업당 강의시간

- 방과후학교의 수업당 평균 강의시간은 87.4분임
- 60분 이상~90분 미만(50.1%) > 90분 이상~120분 미만(28.0%) > 120분 이상 (11.7%) > 30분 이상~60분 미만(10.2%) 순으로 나타남

〈표 IV - 138〉 수업당 강의시간

수업당 강의시간	빈도(명)	비율(%)
30분 이상~60분 미만	211	10.2
60분 이상~90분 미만	1,040	50.1
90분 이상~120분 미만	582	28.0
120분 이상	244	11.7
계	2,077	100.0
평균		87.4분

## (3) 강좌별 주당 수업 횟수

- 방과후학교 강좌별 주당 평균 수업 횟수는 평균 2.09회임
- 1회(48.7%) > 4회 이상(23.6%) > 2회 (17.3%) > 3회(10.4%) 순으로 나타남

〈표 IV - 139〉 강좌별 주당 수업 횟수

강좌별 주당 수업횟수	빈도(명)	비율(%)
1회	1,012	48.7
2회	359	17.3
3회	216	10.4
4회 이상	490	23.6
계	2,077	100.0
평균		2.09회

## (4) 1주일에 출강하는 날짜

- 방과후학교 강사가 1주일에 출강하는 날짜는 평균 3.34일임
- 5일 이상(25.7%) > 4일(23.3%) > 3일(22.1%) > 2일(16.9%) > 1일(11.9%) 순으로 나타남

〈표 IV - 140〉 1주일에 출강하는 날짜

1주일에 출강하는 날짜	빈도(명)	비율(%)
1일	247	11.9
2일	352	16.9
3일	460	22.1
4일	484	23.3
5일 이상	534	25.7
계	2,077	100.0
평균		3.34일

## 나) 방과후학교 강사의 수업과 관련한 요구

### (1) 1일 희망 수업 시간

-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희망하는 1일 평균 수업시간은 3시간 16분임
- 이는 현재 평균 수업시간 2시간 48분에 비해 28분정도 더 긴 시간 수업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의미함<sup>27)</sup>
- 3시간 이상~4시간 미만(46.8%) > 2시간 이상~3시간 미만(28.9%) > 4시간 이상(18.2%) > 1시간 이상~2시간 미만(5.6%), 1시간 미만(10명, 0.5%) 순으로 나타남

〈표 IV - 141〉 1일 희망 수업시간

1일 희망 수업시간	빈도(명)	비율(%)
1시간 미만	10	0.5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116	5.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601	28.9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972	46.8
4시간 이상	378	18.2
계	2,077	100.0
평균		3.27시간 (3시간 16분)

### (2) 1주일에 희망하는 출강 날짜

-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희망하는 1주일에 출강 날짜는 평균 4.07일임
- 현재 1주일에 출강하는 날짜 3.34일에 비해서 희망하는 출강 날짜가 0.73일 더 많음

27) 현재 1일 평균 수업시간은 1일 평균 강좌수와 1강좌 평균 수업시간으로 계산함

- 5일 이상(42.8%) > 4일(30.3%) > 3일(19.0%) > 2일(6.8%) > 1일(1.2%) 순으로 나타남

〈표 IV - 142〉 1주일에 희망 출강하는 날짜

1주일에 희망하는 출강날짜	빈도(명)	비율(%)
1일	24	1.2
2일	142	6.8
3일	394	19.0
4일	629	30.3
5일 이상	888	42.8
계	2,077	100.0
평균		4.07일

#### 다) 주말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와 의향

##### (1) 주말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

- 현재 주말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에 대해 설문(2,077명)
- 주말 수업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15.1%임(313명)
-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84.9%임(1,764명)

〈표 IV - 143〉 현재 주말 수업 여부

현재 주말 수업 여부	답변수	비율
주말 수업을 하고 있다	313명	15.1%
주말 수업을 하고 있지 않다	1,764명	84.9%
계	2,077명	38.0%

##### (2) 주말 방과후학교 참여 의향

현재 주말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강사들에게 향후 주말 방과후학교에 출강할 의향을 조사함 (응답자 1,764명)

-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37명임(47.4%)
  - 토요일 (602명, 34.1%), 일요일 (12명, 0.7%), 토, 일 모두 (223명, 12.6%)
-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927명임(52.6%)

〈표 IV - 144〉 주말 방과후학교 참여 의향

응답	빈도(명)	비율(%)
의향이 없다	927	52.6
토요일에는 의향이 있다	602	34.1
일요일에는 의향이 있다	12	0.7
토요일, 일요일 모두 의향이 있다	223	12.6
계	1,764	100.0

### (3) 주말 방과후학교 참여 의향 전체

- 현재 주말 수업을 하고 있다(313명)와 이후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837명)을 합하면, 이후 주말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강사들은 1,150명으로 전체(2,077명)의 55.4%임.

### (4) 방과후학교 강사의 수업관련 실태와 희망 비교

- 방과후학교 강사는 현재보다 1일 수업시간은 28분, 1주일 출강 날짜는 0.73일, 1주일 수업시간은 3시간 58분 정도 더 많은 수업을 하기를 희망함
- 또한 주말 방과후학교의 경우 현재 참여하는 비율은 15.1%이지만, 이후 참여할 의향이 있는 강사들은 55.4%임

〈표 IV - 145〉 방과후학교 강사의 수업관련 실태와 희망 비교

구분	현재	희망	차이
1일 수업시간	2시간 48분	3시간 16분	28분
1주일 출강날짜	3.34일	4.07일	0.73일
1주일 수업시간	9시간 20분 (560.5분)	13시간 18분 (797.7분)	3시간 58분
주말 수업	15.1% (하고 있음)	55.4% (의향있음)	40.3%

## 4) 방과후학교 강사의 수입 현황과 요구

### 가) 분기별 강좌당 학생 1인당 수강료 실태와 요구

-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인식하는 분기별 학생 1인당 수강료는 평균 8.9만원임
- 반면에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희망하는 강좌당 분기별 수강료는 평균 10.7만원임
- 즉, 강사들은 현재보다 강좌당 분기별로 9천원 정도 수강료가 올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IV - 146〉 분기별 강좌당 학생 1인당 수강 실태와 요구

현재 분기별 강좌당 수강료 평균	8만 9천원
희망하는 분기별 강좌당 수강료 평균	10만 7천원

#### 나) 1강좌당 월평균 수입 실태와 요구

- 현재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수령하는 1강좌당 월평균 수입은 45만 9천원임
- 한편,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희망하는 1강좌당 월평균 수입은 60만 8천원임
- 즉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1강좌당 약 15만원 정도 더 많은 수입을 원함

〈표 IV - 147〉 1강좌당 월평균 수입 실태와 희망

현재 1강좌당 월평균 수입 평균	45만 9천원
희망하는 분기별 강좌당 수강료 평균	60만 8천원

#### 다) 월평균 수입총액 실태와 요구

- 현재 방과후학교 강사의 월 평균 수입 총액은 평균 168만 1천원임
- 한편,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희망하는 월 평균 수입 총액은 평균 274만 3천원임
- 즉,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현재보다 월평균 약 106만원 정도 더 많은 수입을 원함

〈표 IV - 148〉 월평균 수입총액 실태와 요구

현재 월 평균 수입 총액	168만 1천원
희망하는 월 평균 수입 총액	274만 3천원

---





## 인터뷰와 FGI

---

1. 개요
2. 서울시 초등학생 방과후학교 · 사교육 · 돌봄 실태
3. 서울시 초등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실태
4. 방과후학교 공적운영 사업단(가칭) 관련
5. 소결

## 인터뷰와 FGI

### 1. 개요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함께 서울 초등 방과후학교의 실태 파악과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대안 도출을 위해 주요 관련 집단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교장, 방과후 담당 부장교사, 일반교사, 코디네이터, 강사, 업체대표, 학부모 등 총 17명이다. 참여자 섭외는 교육청과 연구팀이 인터뷰가 가능한 참여자를 지원을 받아 후보를 받았다. 이후 지원청 위치, 설립유형, 경력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 섭외를 확정하였다.

참여자 섭외 후 인터뷰는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참여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실시하였다. 인터뷰 방식은 인터뷰 진행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개인 심층 면담과 간소화된 초점집단면접을 혼합하여 수행하였으며, 인터뷰에는 연구팀 2명이 배석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V-1〉 인터뷰와 FGI 참여자 정보와 진행방식 개요

	직위/집단	구분	지원청	설립유형	FGI/인터뷰	진행일
1	교장	A	동부	사립	인터뷰	5월 19일(금)
2		B	성동광진	공립	인터뷰	5월 25일(목)
3		C	강서양천	공립	인터뷰	5월 26일(금)
4	부장교사	1-A	동작관악	공립	FGI	5월 24일(수)
5		1-B	강동송파	공립		
6		2	성동광진	공립	인터뷰	5월 30일(화)
7	일반교사	1	동부	공립	인터뷰	6월 1일(목)
8		2-A	서부	공립	FGI	6월 2일(금)
9		2-B	서부	공립		
10	코디네이터		서부	공립	인터뷰	5월 24일(수)
11	강사	A	-	-	FGI	5월 26일(금)
12		B	-	-		
13	업체대표		-	-	인터뷰	6월 9일(금)

	직위/집단	구분	지원청	설립유형	FGI/인터뷰	진행일
14	학부모	1-A	강남서초	공립	FGI	5월 25일(목)
15		1-B		공립		
16		1-C		공립		
17		2	서부	공립	인터뷰	5월 26일(금)

인터뷰 진행의 목적이 설문조사에 대한 이해 증진과 대안 도출을 위한 것에 있으므로, 질문지 내용과 형식을 그에 맞춰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참여자별로 부록에 첨부하였다.

인터뷰 결과는 질문지를 바탕으로 다음의 소주제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V-2〉 인터뷰와 FGI 내용 주제 및 소주제 개요

주제	소주제
가. 서울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사교육, 돌봄 실태	1. 방과후학교 참여와 사교육
	2. 방과후학교와 주지교과교육
	3. 방과후학교와 돌봄
나. 서울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실태	1. 방과후학교 업무와 고충/민원
	2.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3.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와 그 참여율
	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입찰방식
	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운영
	6. 강사채용 및 강사료 문제
	7. 방과후학교 관련 교육공간 확보
	8. 마을 방과후학교와 지역연계
다. 방과후학교 공적운영 사업단(가) 관련	
라. 소결	

질문지에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외에도 다양한 답변을 얻었으나, 설문조사와의 연계와 대안 제시를 위한 인터뷰의 목적에 맞게 연구팀에서 구성하였다. 인터뷰 결과 정리 후, 소결을 통해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방안과 지자체-지역 연계와 관련한 대안적 운영방안 도출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2. 서울시 초등학생 방과후학교 · 사교육 · 돌봄 상태

### 가 방과후학교 참여와 사교육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은 설문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저학년인 1~2학년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4학년 이후 고학년부터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패턴이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인터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로 4학년부터가 사교육 참여가 많아지는 시기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저학년 때는 일찍 끝나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일찍 끝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메꿔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시간대를 할 수 있는 태권도라든지 아니면 방과후 학교에 많을 수밖에 없구요. 그다음에 또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편하니까 싸니까 그래서 이제 하게 되고 3, 4학년 들어오면서 시간이 더 늦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이제 학원이나 방과 후나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부장교사 1-A)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심이 높은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안으로 이를 대응하고 있었다. 먼저, 방과후학교에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차원에서도 학년별 수요에 따라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정규 수업에서도 가르쳤던 선생님이 방과후도 가르치니까 아이들 손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다 파악할 정도로 학생이 하는 거 잘하는 거죠. (중략) 그러면 학생에 맞춰서 옆에 앉아서 이렇게 개별 지도하고 이런 식으로 맞춤식 교육이 사립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안전하게 방과 후 끝나고 스쿨버스로 등하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원은 여기서 끝나서 학원 버스로 학원으로 갔다가 학원 공부하고 다시 학원 차 타고 또 집으로 또 이렇게 뱅뱅이를 돌려야 되잖아요. (교장 A)

고학년으로 갈수록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의 프로그램을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편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1~2학년은 약간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을 좀 짜고 3~4학년은 체험 중심, 5~6학년은 이제 진로라든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좀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높아요. (교장 C)

한편, 사교육과 방과후학교와의 상대적인 효과 비교가 방과후학교 참여를 선택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사교육으로부터 얻을 교육효과가 그 비용에 비해 방과후학교보다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방과후학교에서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교육

과 비교했을 때 학년이 올라가도 사교육을 통해서 경험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라면 방과후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시간 대비에 비해서 만약에 효과를 얻으려면 차라리 학원을 보내는 게 낫다 해서 학원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경제 사정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도 안 시키는 거보다 더 나오니까 차라리 이거라도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학부모 B)**

하나는 이제 스포츠 관련된 축구, 농구, 뉴 스포츠 그다음에 방송 댄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손으로 조작 활동하는 것들 중에 미니어처 만들기 그다음에 컴퓨터 좋아하고 그다음에 보드 게임이 인기가 많은데요. (중략) 너무 하고 싶는데 특히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기 적성을 해요. 왜냐면 중학교 때는 보드게임 같은 걸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일반교사 A)**

종합해보면, 초등학생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상황은 사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대학입시나 주지교과 성적의 압박 등으로 사교육 참여가 늘어나는데,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방과후학교에 대한 참여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학생들이 방과후학교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차원, 안전 차원 등을 학생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는 경우에는 고학년의 참여율도 상당히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방과후학교와 사교육이 완전히 대체되는 관계가 아니라, 방과후학교가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사교육과의 상대적인 효과 비교 등이 방과후학교 선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 방과후학교 참여와 관련된 이 관계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나 방과후학교와 주지교과교육

방과후학교의 교과 프로그램(소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은 주지교과교육) 개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응답도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교사, 학부모 참여자별로 응답이 확연히 갈렸다. 먼저,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원과 비교해봤을 때 질에 대한 보장만 있다면 주지교과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으며, 또 충분히 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향을 보여주었다.

저는 우선은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선 강사분들을 학교에서 1차로 검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

교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오는 강사님들은 좀 더 믿음이 있지 않을까... 이제 학원은 저희가 선생님까지는 다 확인할 수가 없고 그냥 입소문이나 이 학원이 좋다 이런 걸로 많이들 가니까, 브랜드나 이런 것들 ...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학교에서는 선생님 한번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 (학부모 2)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은 앞선 방과후학교 참여 파트에서도 나타났듯이 ‘관련 사교육과 대비되었을 때의 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학교 주변의 사교육보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의 강사 질이 더 좋다면 충분히 학생들이 만족하고 참여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우리 반에도 보통 보편은 영어는 없고 수학을 많이 다니는데 한 3~4명 이렇게 꾸준히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중에서도 항상 수학 백점인 남자애가 있어요. ... 학원 강사의 질이 학군이 좋은 데보다는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 방과후 선생님이 학원보다 더 나올 때도 있어요. (일반교사 1)

교과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 흥미, 학업 지속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특히,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나 사교육에 일찍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이후 진행될 교과 수업에 필요한 지식과 자신감 등을 얻을 수 있는 창구로 역할하고 있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과후 학습이 사실은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사례는 5학년이 구구단이나 뺄셈도 안 돼요. 근데 문해력도 안 되니까 문제도 이해를 못해요. ... 한 학기 내내 해서 구구단을 외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선생님도 별로 보람이 없고 이 학생들도 재미가 없으니까 ... (일반교사 1)

근데 이제 3학년 때 (영어를) 시작하려니까 학원에서도 너무 늦었다고 얘기해요.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내가 좀 빨리 시켰어야 됐나... 근데 학교에서 굳이 그러니까 원래 좀 부유한 아이들은 그냥 안 하더라도 외국 여행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개네들은 쉽게 습득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그거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중산층이나 또 그 아래쪽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영어를 3학년 때에 접하니까 이게 갭이 더 커져버렸어요. ... (학부모 2)

이제 아이들은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 아예 또 하기 싫어하는 ... ‘재는 잘하고 나는 이미 못하니까 안 할 거야’라는 애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저는 큰 애 때 그래서 조금 속상했거든요. (학부모 2)

그러나, 방과후학교에 주지교과 중심의 확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한다. 먼저 방과후학교의 경우 학부모가 그 효과에 대해 학원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고, 예체능과 같이 사교육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학원으로 보내기 때문에 수요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사교육에서는 강사들에게 충분한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 우수한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데 공교육에서는 이렇

게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정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들은 냉정하거든요. 지금 한 10개 중에 하나 정도가 주지 교과입니다. 거기에서 걸리는 게 선행학습 금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만약에 주지교과 프로그램이 잘 됐으면 방과후 프로그램이 많겠조 당연히. 그런데 안 들어요. 원가 수요와 공급의 수요 공급에 철저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더 개설해 봤자 안 오고요. 폐강이 되고 그럼 인기 있는 문예체로 몰려요. **(부장교사 1-A)**

저희 도서관에서도 영어 원서를 구입해달라 중국어 반 개설을 해달라. 요청은 있지만 그걸 직접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인거죠. 이렇게 수요 조사해서 개설을 하면 신청자가 또 없어요. 그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소수라는 걸 뒤늦게 알았거든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 발언이 크다 보니까 그걸 전체로 느껴지는 거죠. ...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학교 입장에서서는 또 많이 분들이 관심 있으신가보다 그랬는데 막상 가다보면 7명이 안 되고 이래서 폐강 되는 걸 몇 번 봤어요. **(일반교사 2-A)**

이제 주지 교과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족을 못 하시는 이유가 왜냐하면 좋은 프로그램, 좋은 강사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좋은 강사는 돈이 안 돼요. 학원이나 사교육이나 과외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드릴 수 있는데 방과 후 학교에서는 ... (중략) 수용비라는 아주 정말 미미한 정말 눈곱만한 그걸로 해가지고 ... 그걸로 강사를 유인한다? 내가 우수 강사라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부장교사 1-A)**

방과후학교에서의 주지교과교육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의 학부모도 존재했다. 한 저학년 학부모는 주지교과교육이 학생 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학교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학생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였다.

학교는 아이들이 정말 6년 동안 같이 다녀야 되는 거고 서로 계속 부딪히는 아이들끼리 6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애들끼리의 레벨로 애들이 (서로의 수준을) 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그 교육 차이도 크고 애들이 발달하는 속도나 이런 거 그거를 어느 기준으로 해가지고 ...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갔다가 있는 대로 솔직히 얘기했었을 때 받게 되는 상처를 받는 아이들도 생길 것이고 ... **(학부모 1-C)**

끝으로, 주지교과교육과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외에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유지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관련된 수요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전되고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더욱 교과교육이 아닌 특기적성 위주로 편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볼 때도 모든 여기가 더 그런 관점은 데는 예체능에 더 집중될 것 같고 여기는 그런 것 보다는 국영수에 집중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국영수에 대해서 흥미가 없거나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도 결국에는 그런 예체능에 대한 그거 더 많더라고요. **(일반교사 1)**

이런 방과 후는 아니지만 저희는 방과 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초학력 결손 회복 많이 하는데 이런 방과 아니지만

수익자 부담 아니고 교사한테만 수당을 지급하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건 다 1대1 맞춤 지도예요. 사실 얘기들. 그래서 지금 서울 분위기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 (부장교사 2)

종합해보면, 방과후학교에서 주지교과는 사교육, 학생 간 경쟁, 기초학력 프로그램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과 얽혀 독특한 위상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예체능이나 특기적성 프로그램과는 달리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은 교과목은 학교수업의 성취수준에 영향을 주며, 초등학교 졸업 이후 중등교육과 대학입시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주지교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사교육의 효과성을 비교하면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실제 방과후학교에서 주지교과를 학습하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효과적인 주지교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수준별 학습 또는 평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방과후학교 운영이 예체능 위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다 방과후학교와 돌봄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돌봄의 경우,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방과후학교가 진행되는 오후 시간 이후에 연속적으로 학교 공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돌봄 서비스가 학교에서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점도 분명 있으나, 도입하는 과정에서 학교 내에서의 갈등도 현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참여자들로부터 확인한 돌봄교실에 대한 수요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돌봄교실에서 단순히 간식 및 석식 제공과 같은 돌봄 외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의 의견에서는 방과후학교와 돌봄 프로그램이 돌봄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학부모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육적이면서도 학부모의 경제생활에서 나타나는 돌봄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4반인가 3반인가 꽤 많아요. 저희 학교가 돌봄이 잘 돼 있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저희 쪽 학급 수가 많기



도 하지만 그런 돌봄이 다른 학교에 비해 잘 되어 있고 ... 이렇게 식사나 이런 것도 간식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다 돼 있었고, 맡겼던 엄마들은 만족하는 엄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학부모 2)**

저녁 때까지 일을 할 때는 친정어머니가 오시지만 제가 좀 일찍 끝날 때는 제가 데리고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 돌봄 선생님께서 전화로 일도 많으신데 아이들을 우선으로 상담까지 거의 맨날맨날 통화를 해주시고 약 같은 것도 챙겨주세요 ... 항상 담임 선생님보다 더 힘든 일을 하세요. **(학부모 1-B)**

제가 여기서 있어 보니까 방과후가 돌봄이에요. 돌봄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안전하게 거기서 내가 애들한테 원가를 가르치고 싶은 것까지 충족해주면 일석이조란 말이에요. ... 저학년 같은 경우는 거의 저학 학교가 80~90%가 해요. 고학년은 아까 말했듯이 학원으로 많이 빠져서 참여율이 거의 한 10~2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에서 내가 마음 놓고 애들을 맡길 수 있는데 거기서 애들한테 좋은 프로그램까지 있으면 100%로 참여하죠. 그리고 저는 방과후학교가 돌봄이랑 같이 묶여서 가는 게 더 (낯지 않을까 생각해요)... **(코디네이터)**

한편, 돌봄교실 운영에서의 문제점도 확인되었다. 먼저, 내실 있는 돌봄을 운영하기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돌봄 비용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특히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돌봄교실 참여비를 명목으로 학부모 수익자부담으로 22만원과 학교 재정을 보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공립은 무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한 달에 22만 원 ... 이 금액으로는 그 돌봄사페이하고 애들 간식 주고는 살비도 안 돼요. 학교비로 해서 더... 오히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30만 원 40만 원 받으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 휴일 빼고 이러는 거예요. ... 그러니까 (하루에) 만 원 끝인데 만 원 가지고 간식도 그렇고 ... **(교장 A)**

그리고 고학년이 돌봄에 참여하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저학년의 경우는 돌봄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은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여건상 고학년이 참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년들은 안 받아줘서 이것 때문에 엄마들이 또 불만들도 있더라고요. ... 그리고 또 이제 고학년들도 마찬가지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어디다 맡길 때도 없고 혼자 있기도 애매하고 또 이제 간식 같은 것도 ... 저랑 친한 엄마는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고학년이 됐는데 이제 방과후는 없어서고 그리고 학원을 돌리자니 이제 3학년이 됐다고 혼자서 알아서 밥을 사 먹고 이런 게 엄마 입장에서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집에서 있는 엄마도 있어요. **(학부모 2)**

현재 돌봄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에서 인터뷰를 통한 돌봄 참여의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볼 수 있었다. 특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부모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돌봄의 역할도 대신할 수 있다는 점, 돌봄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의 중요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3. 서울시 초등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실태

#### 가 방과후학교 부장교사의 업무와 고충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고충은 연구참여자의 입장에 따라 첨예하게 갈리고 있었다. 먼저 방과후 부장교사들은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당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었다. 보직수당이 직무에 대한 고려없이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특히 방과후학교 업무는 정규교과 외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되는 점, 업무에 대해 이후 감사를 통해 지적받는 사항이 많아 승진이 어렵다는 점, 업무가 매일매일 진행된다는 점 등이 업무의 고충을 늘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보았다.

인센티브는 없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적인 부분이 많이 있죠. 욕받이죠. 각종 이제 예를 들어서 강사한테도 욕을 먹고 그다음에 나의 잘못이 아닌데 그거를 다 조율해야 되는 책임지게 되는... 인센티브라고 부장 수당을 받는데 7만 원이고, 하루 20일 일한다 치면 3500원이거든요. ... 여기 설문조사서 열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수 강사를 뽑기 위해서 수강료를 올려주려는 그런 뉘앙스의 문항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에 대한 것은 없고 ... 관련 수당이 23년째 동결이거든요. ... 이제 그거에 대한 박탈감을 느꼈어요. (부장교사 1-A)

업무 매우 부담되고 수당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방과 후 부장이라 해서 수당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수당은 그냥 보직 교사면 똑같이 수당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 승진할 때 예전에 개인 위탁 많이 할 때는 방과 후 선생님들은 오히려 감사 지적 사항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불이익까진 아니지만 승진에 좋은 부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계약과 그런 계약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그게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적이 ... 사실 부장으로 치면 학년 부장도 있고 조금은 책임 소재가 덜한 부장도 있고, 24시간 365일 돌아가지 않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365일 돌아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장교사 2)

업무량이 많아지는 이유는 방과후 부장교사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라는 모든 업무들의 총 책임자이자 조율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며,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 피드백을 받고 이를 조율하는 데에서 많은 고충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특히, 업무의 성격이 교육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행정적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부장교사와 함께 일을 하는

코디네이터도 방과후학교 부장교사가 기피 직무인 것을 언급하고 있고, 자신도 업무가 확장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형화된 업무만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단 업무 부담 쪽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하는 역할이 교사인데 교사는 이제 초등교육법에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사가 다 됐거든요. 이거는 교육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의 학원을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학원장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걸쳐 있는 게 회계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영역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교사로서 교육에 관련된 게 아닌 행정 업무를 최일선에서 하고 있고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에 민원 모든 민원에 중심이 돼서 그렇게 일하는 거여서 기피 보직이 맞고요. 그리고 보람을 찾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보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장교사 1-A)**

(업무를) 하려면 엄청 많고 안 하려면 진짜 업체에서 시키는 것만 해요. 정형화된 거는 일단 강사 관리, 학생 관리 그다음에 학교와의 관계, 운영 전반적으로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학교 버거우니까 이번에 이제 학교 일을 같이 하면서 저는 하고 있어요. 수요 조사나 만족도 조사 등... 같이 상의하면서 부장님이 거의 하니까 만약에 업체 소속이면 거의 부장님이 하셨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방과 후 업무를 엄청 쏟아 부어서... 그러면서 되게 필요는 하지만 하기는 싫은 3D 업종의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코디네이터)**

방과후학교 업무에서 학부모가 방과후학교에 제기하는 피드백의 경우는, 방과후학교와 자녀에 대한 관심에 기반한다고 본 의견이 있다. 다만, 일부 피드백의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담당 부장교사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민원도 있어, 담당 부장교사의 업무 고충이 많아지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민원은 사실은 학부모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 조금 거세게 나오는 걸 민원이라고 ...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는 3% 미만입니다. ... 나머지는 다 관심과 좀 더 잘해주십사 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이라고 할 수 없고요. **(업체대표)**

보통 아이들끼리 거기서 자기가 싫어하는 애가 있는데 같은 반이 되었다. 그리고 애가 거기서 싸웠다. ... 가끔은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친다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그림 애들이 다쳤다 하면서. 그리고 저희 학교는 토요일 방과 후가 있거든요. 여기 잔디도 있고 좋으니까. 근데 다른 학교 학부모가 토요일 방과후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우리도 해달라... **(일반교사 1)**

방과후학교 업무의 고충의 경우에는 업무가 지속적으로 강도가 높은 상태로 이어지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강도가 높다는 점은 방과 후부장 교사가 느끼기에 과도하게 그 책임을 묻는 행정구조도 일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는 방과후학교 운영에서의 핵심 역할로 작용하며, 부장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역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에 더해 위탁의 경우, 업체 입장에서는 코디가 학교현장에서 업체의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즉, 코디네이터는 그 이름처럼 학교와 위탁업체, 강사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방과후학교의 일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엑셀이나 이런 그런 프로그램을 다루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저희 학교 코디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전 학교에서 업체 위탁이면 조건을 코디 배치로 거니까. 무조건 업체 위탁은 있고. 업체 위탁에서도 이제 업체 코디가 있으시고 학교 코디 보조 인력이 있고, 개인위탁 같은 경우에는 코디 보조 인력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없이 그냥 맨땅에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장교사 1-A)**

학교는 공적 집단이다 보니까 서류랑 일정 관리와 관련된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세요. 사실은 선생님(강사)들이 나가는 학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한 학교에서 '이제 이때까지 내주세요', '이때까지 취합입니다' 이렇게 부장님이 그런 걸 다 해주실 수는 없는 부분이니가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예요. 학교에서 만약에 이제 컴플레인 들어오는 것도 선생님(코디)이 중간에서 핸들링을 해주셔가지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지침하는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사 1-A)**

업체 사장이 학교에 없는 대신 그 사람은 그 현장의 업체를 대표하는 사장입니다. 그리고 다쳤다 그러면 '아홉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도망간 양'을 잡으려 강사는 뭘 수 없습니다. 애네 수업을 두고, 코디한테 전화를 합니다. 코디가 빨리 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강사들이 이제 평가표 같은 거 학생들 못 해 왔다 해주면은 인센도 대신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업무를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 수업을 한다거나, 그럼 팻말 붙이는 거부터 시작해서 전시회 한다고 그러면 전시회부터 강사들한테 연락 다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는) 전시회 때 그냥 보는거죠. 일괄적인 일을 코디들이 다 합니다. **(업체대표)**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는 데 비해, 현재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의 업무와 지위가 행정적으로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방과후학교 운영상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코디네이터를 많은 학교에서는 봉사자로 모집하여 업무에 투입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 차원에서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지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코디분은 봉사자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봉사료의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높게 찾아도 봉사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거의 학교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되게 중요한 분이거든요. 그런 분을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그 다음에 봉사하기 때문에 나가시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무조건 방과후 부장이거든요. 최종적인 책임이나 그래서 한 해는 방과후 봉사자(코디)님이 네 번 바뀐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정적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책임은 방과 후 부장한테 돌아가는 ... 이걸 책임지고 뭔가 정산을 하고 회계를 해야 할 때 그나마 봉사자님한테 도움을 받는데 이 봉사자님도 사정이 있으시면은 가셔야죠. 그다음에 위탁업체에서 파견도 떠나면 끝이에요. **(부장교사 1-A)**

저는 이제 학교 코디님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봉사자 신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개인 위탁 때부터 계속 오시던 분이요. 업무 처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체 코디는 연예인으로 치면 로드매니저 같이 강좌 돌아다니면서 관리하세요. 그래서 오전에는 학교 코디, 오후에는 업체 코디 이런 식으로 제가 구분을 해서 해요. 근데 제가 소통을 하려면 이제 3명 저 포함 이렇게 코디 두 분이랑 이제 3명 단독방을 파가지고 업무 이렇게 서로 전달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부장교사 2)**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코디네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학교 입장에서는 경험 많은 코디네이터를 선호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가 한 학교에서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코디네이트는 방과후 업체에 대해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관철하는 지위에 서기도 한다. 이 경우 위탁업체는 프로그램과 강사를 공급하고 코디네이터에게 급여도 지급하지만 오히려 코디네이터의 '지휘'를 받는 것 같은 관계가 생기기도 한다.

기존 코디네이터를 대부분 승계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심한 말로 학교에서 저희한테는 공고문을 씁니다. ... 승계라고 딱 하는 순간 그 코디는 저희의 관리자가 되버리죠. ... 저희한테 월급 받는 코디인데 그 코디가 저희 욕을 합니다. 부장한테 그러시면 저희는 또 잘립니다. 그럼 그 코디한테 가서 저희는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물론 대부분 안 그렇지만.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합니다. 코디 의견을 방과후 부장은 필드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 코디를 그냥 쓰는 게 편하니까. 왜냐하면 소통이 되잖아요. **(업체대표)**

코디네이터의 고용과 그 시스템의 운용이 체계적이지 않은 까닭은 현재 무기계약 법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학교나 업체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식으로 코디를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코디를 채용하는 게 저희는 이제 방과후학교 길라잡이라는 지침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지침에는 공고하게 되어 있지 않고 봉사자를 위촉하게 돼 있거든요. 위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경로라는 거는 이제 공고는 할 수 없는 거고 알음알음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 이해가 되는 게 이게 무기 계약하고 또 연결돼 있으니까 ... **(부장교사 1-A)**

저희 학교 경우에는 원래 한 분 코디가 계셨어요. 개인 위탁부터 계셨거든요. 저희가 업체로 전환한 지 2~3년 차거든요. 업체 전환 3년 차고 개인 위탁 때부터 계속 계셨던 분인데 근데 최근에 이슈가 생겼어요. 주 14시간 주휴수당이랑 이런 계약 문제들이 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코디 두 분으로 쪼갠 이유는 그런 고용 문제 때문에 두 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휴수당이랑 그다음에 그런 근거들이 계속 쌓이면 이제 학교장님이 과태료가 3천만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부장교사 2)**

이렇게 비용 문제, 법률 문제, 업무담당 문제에 더해 코디네이터에 대한 처우 문제가 대두

되고 있었다. 단적으로는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인건비가 제일 컸다. 고용안정성 부문에서는 공무원 수준의 처우만 되어도 괜찮겠다는 당사자의 의견이 있었다.

그나마 이제 업체 위탁 같은 경우에는 한 110만 원에서 130 많이 받으면 140까지도 보조인력이 받으시거든요. 큰 규모 학교는. 근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금액은 거의 학교 개인 위탁으로 하게 되면은 한 65만 원에서 많이 드려 봤자 80만 원 정도 기준으로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수용비에서 이제 먼저 내서 해라. 그렇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은 보조 인력도 그냥 두지 말고 하게 됐거든요. **(부장교사 1-A)**

지금 돌봄이 점점 커지면서 약간 좀 (지위가) 올라갔잖아요. 그 레벨을 맞춰달라는 건 저희도 부담스럽지만 ...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정도 그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안정적이라는 게 나도 근무해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근무하면서 되게 중요한 하더라고요... **(코디네이터)**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와 관련된 문제는 설문조사에서 세부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통해 실상과 문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확인 결과, 방과후학교 업무 수행에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매우 중요한 것에 반해, 이들의 고용 및 업무지시 체계 등이 공식적으로 행정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학교 업무 특성상 방과후학교 담당 부장교사가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용을 위해 코디네이터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활용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다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와 만족도 조사 참여율**

방과후학교 만족도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와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서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이유를 확인해보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만족도 조사 진행 상황 전반에 대해 질의하였다. 전반적으로 방과후학교 만족도에서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 이유는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미 방과후학교를 만족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정규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불만족하게 되면 바로 방과후학교를 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방과후학교에 불만족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진짜 이상한 강좌가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바로 컴플레인이 바로 와요. 바로 그러면 사실 유무 확인해서 사실이면 업체한테 바로 바꿔달라고 하든 그렇지 하든지 그러기 때문에. 안 그러면 누가 거기 돈 내고 해요. 그러면 대표

님 말씀대로 그럼 폐강되어요. 내년에는 열 수가 없어요. **(교장 A)**

학교별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의 진행 방식과 참여율은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 근거하되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단위학교마다 다양한 문항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참여율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만족도조사의 경우 e알리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데, 만족도 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관성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그것도 실태조사도 하면 강제로 이제 아이들을 해야 하는 거지. 처음에 그냥 가만히 놔둬봤더니 2주가 지났는데도 20% 참여하거든요. 방과후 학교 만족도 조사가 이렇게 나온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관심 없습시다. 굳이 학부모들이 보내면은 또 보내면 되는 거니까 좋으면 또 보내는 거고 아니면 안 보내면 되기 때문에... 학부모는 강력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보내거나 애를 보내거나 아니면 아예 끊어버리거나 그 거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에 관심이 되게 적으시고... **(부장교사 A-1)**

보니까 강좌별로 만족도 조사 참여도가 14.5%도 있고 38.9%도 있고 뭐 축구 이런 거는 50% 이상인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워낙 온라인 아니면 가정통신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보셔야 될 것들 그다음에 다자녀인 경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과부하가 걸리셨나 봐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것들을 놓치세요. 그러다 보니 좀 저조하하는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반교사 2-A)**

많이 참여 하시는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만족하시는 분들은 불만족스러운 게 그냥 있다고 해서 쓰시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어떤 식으로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죠 **(일반교사 2-B)**

만족도 조사를 반영하는 방식도 설문조사와 유사하게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학교별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활용 및 공개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나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 학부모는 만족도 조사 이후에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더 보장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익명으로 만족도 조사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부모와의 긴밀하고 효능감있는 피드백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족도를 조사하는 건 좋은데 하고 냈을 때 그 피드백과 그 투명성을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 예를 들어서 방과 후 얘기는 아닌데 수학여행 같이 제주도 가는걸 찬성하나 반대하나 뭔가 이런 거를 했어요. 근데 주변 엄마들은 다 반대를 했는데 결론은 70%가 찬성이예요. ... 진짜 투명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 익명이고 서로 밝혀지는 걸 좀 결과에 그냥 따라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 하는 건 의미가 있나 제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학부모 1-C)**



한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학교에서는 만족도 조사를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교육효과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교장과 부장교사의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저희는 부서가 형성이 되고 카톡방을 개설합니다. 학부모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강사가 중심이 돼서 카톡방에 계속 소통을 하고, 자녀에 대한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로지만 이제 결과지 2분기 끝나면 결과지를 꼼꼼하게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에 굉장히 만족도도 높아지고 ... 가장 큰 것이 소통에 대한 중점을 두죠... 만족도가 높이기 위해서 SNS 이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또 페이퍼로도 많이 안내를 하고. **(교장 C)**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비율은 저희 학교는 60에서 70% 사이고요, 계속 돌려요, 계속 해달라고 하고 반응을 해요. 강사 만족도가 80% 아래면 1차는 경고 및 면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중략) 옛날에 100%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수기였어요, 그냥 종이로 가져가서 가져와라, 그런데 그 담당자가 죽어나죠, (중략) 옛날에 진짜 부서별로 쌓아가지고 이게 다섯 개 쓰면서 바를 정 쓰면서 했거든요, 그때 100%였어요, 이거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어떤 선생님 업무는 방과 후 만족도 조사만 하는 거예요. **(부장교사 2)**

방과후학교는 그 프로그램의 운영과 초점이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춰있기 때문에 만족도를 파악하는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학교 관계자들은 이 만족도를 파악하고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방과후학교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그 프로그램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인 만큼, 방과후학교에 대한 의견을 단순히 참여자에게만 한정하면 방과후학교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수합하지 못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만족도 평가가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입찰방식

입찰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방과후학교 업체나 개인 위탁 시 시행되는 2단계 규격가격입찰제와 관련된 이슈를 참여자들에게 물어보았다. 2단계 규격가격입찰제는 먼저 1단계에서 적절한 업체를 먼저 선정 한 후에 2단계에서 가격경쟁을 통해 입찰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생각은 전반적으로 양면성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입찰과정에서의 공정함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 최저가격 제시를 통한 입찰이 진행되는 2단



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육청에서 업무 담당자 할 때부터 반대해 왔던 거거든요. 어떻게 교육을 입찰로 하실 수 있냐 경쟁 논리에 따르면 안 된다. 이제 그게 전반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저희가 막기는 어려웠는데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 아무리 업체에서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담당 부장이 관리하는 것만은 못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담당자를 할 때에는 좀 그냥 개별로 채용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학교 나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방과후학교 부장을 거의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냥 뭐 거의 학원장인 것 같아요. **(교장 B)**

공정이라는 걸로만 생각한다면 공정하죠. … 이제 복수라든지 어떤 3배수라든지 사실 10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오면은 3배수로 많이 선정을 해요… (이 과정에서) 트집을 잡힐 일을 안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위탁해서 그걸 갖다가 최저 입찰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론적으로 말하면 찬성은 하는데 자율권을 확실하게 주면 그냥 교장들도 방과 후 업체 어디가 좋더라 나쁘더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교장 C)**

한편, 입찰과정에서 일부 대기업 업체에 의해서 입찰금이 적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서 업무 과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했다고 한다.

10개가 업체가 들어오면 3개를 하자. 복수도 되는데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최저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최저 입찰이 이제 한 95~96%로 나오면은 강사료에 대한 변동이 크게 없는데 최저가 된다고 하면은 대기업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최저로 88% 87% 85%까지 들어가면 강사비는 확 달라지죠. 그 기존의 강사들이 직영하다가 위탁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거고 **(교장 C)**

최소 입찰 방식을 하면 학교 입장과 업체 입장으로 두 가지로 나누면 업체는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거나, 대기업만 살아남을 거예요. … 자본력 있는 곳만 살아남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최저 입찰로 됐는데 저처럼 1억이 차이 나면 이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근데 대안에 있어서도 딱히 잘 모르겠어요. **(부장교사 2)**

입찰방식 개선방향에 대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인만큼 인건비와 교재비 질 보장 차원에서 단순 최저가가 아니라 교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교육청이 다루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방과후학교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할 것이 1년을 운영을 해보고 학교 차원에서 그 방과 후 업체에 대한 평가랄까 그런 제도가 강하게 있어서 그런 업체가 조금 더 이렇게 노력을 하게끔 한다든지 (불량업체가) 다시는 입찰을 참여 못 하게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데 절대 그런 건 없죠. … 학교에 공사를 해도 그러거든요. 5,500이 넘어가서 입찰을 하는데 때이때 컴퍼니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하청을 줘요. … 학교에서 또 먹튀하는 그런 업체가 굉장히 많죠. …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서라든지 어떤 의견서를 학교가 내야 되는데 없고 오히려 반대가 있어요. 공사 업체가 학교에서 부당한 요구를 한 적이 있나? 오히려 그게 있어요. 위탁을 할 때 그런 어떤 제도에서 마지막에 그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게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우수 방과후 업체를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그래서 가점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식으로요. **(교장 C)**

나오는 물품 같은 경우는 질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저 하한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1억이면 예를 들어서 안 달아도 처리는 되지만, 최저 하한선을 최저 하한선이 예를 들어서 9,800이다. 그 밑으로 써놓으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렇듯이 용역도 이게 최저 하한선을 쓴 학교가 있긴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한번 했었는데 용역은 안 된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제품은 질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저 하한선을 만드는데 용역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용역도 필요 없는 것인가를 봐야하지 않나. ...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은 이게 아마 굉장히 큰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업체대표)**

## 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운영

교육청 제공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초등학교는 상당수가 방과후학교를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학교도 모두 직영만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없었다. 위탁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최대한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직접 경영을 하지는 않고 위탁을 하고 있어요. 위탁에서 가장 중요한 저희 학교가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게 방과 후에는 아이들이 이제 꿈과 끼라고 말을 하고 적성도 표현하고 진로도 표현하는데 ..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좀 많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았고 두 번째는 저희 학교 특색교육활동을 같이 연계해서 오후에 해줄 수 있는 업체. ...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펜싱을 하거든요. 보통 학교에서 펜싱을 하기 쉽지 않죠. 장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 오후에 운영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이면서 좀 퀄리티가 높은 업체를 ...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 **(교장 C)**

이미 업체에 위탁 다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제가 이제 발령이 났는데, 이제 1년 계약이니까 1년 끝난 다음에 방과후학교 부장한테 제가 업무 담당자였을 때처럼 그냥 채용해서 하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장 B)**

특히,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노사문제와 각종 비용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재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대부분 위탁형태(직영+위탁 혼합 형태 포함)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위탁을 하는 게 명분은 교육에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하지만 사실은 이걸 양심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보다는 노

사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15시간씩 이상 하면 퇴직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노사 문제가 아주 복잡해져요. 그다음에 2년 이상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이 돼요. 그러면 무기계약직을 했는데 2년 이상 해서 그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이 없어요. 나중에 그러면 그 과목이 속칭 폐강이 되잖아요. 그럼 이 선생님 어떻게 해요 ...  
**(교장 A)**

장점은 강사 계약 1대 1로 안 해도 되는 거 그다음에 퇴직금 보험료 이런 거 안 건드려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백업 강사 알아서 구해주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예요. 그다음에 사람 한 명 저희가 개인이 다 뽑으려면... 30개 강좌면 면접 한 강좌당 3명 그니까 면접을 본다 치면 90명 면접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단점은 저희가 12월에 연간 계획 쓰고 이제 영역 공고 올리고 1월에 제안서 평가하고 계약을 해요. 큰 계약하는 업체 계약이 좀 단점인데 이거는 커버 가능합니다. 너무 장점이 크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부장교사 2)**

한편, 업체 차원에서도 위탁 운영 시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업체와 학교와의 관계에서 영세한 개인업자들이 현실적인 벽에 막혀 제대로 경쟁에 들어갈 수 없는 점이었다. 그리고 다른 참여자들이 밝힌 노무 문제를 제외하고, 현장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과 그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문제 등이 애로사항이라고 밝혔다.

보험 들어갑니다. 아이들 안전보험 공제보험 들어갑니다. 최소 60만 원, 우리 보고 컴퓨터도 갖고 오랍니다. 심한 데는 책상도 갖고 오랍니다. 책상도 갖고 오랍니다. 텅 빈 데다 우리가 다 놓으라고 다 전화기도 갔다 놓으랍니다. 인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쇄기 놔야 되죠, 그리고 보험 애들 다치면 상해 보험 들어야 합니다. 또 거기다 또 많이 드는 게 이제 가정통신문 인쇄비 ... 그리고 어떤 학교는 여기를 코디비를 보태주는 학교가 또 있습니다. 학교가 보태주지 말래도 차라리 이거 차라리 똑같이 다 안 보태주면 안 보태주고 보태주면 보태줘야지 여기서는 되고 여기서 안 되니까 더 이게 더 화가 납니다. 어디는 무능한 업체 어디는 유능 업체가 돼 버립니다. **(업체대표)**

방과후학교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관련 집단 중 하나는 강사다. 강사에게 직접 위탁운영의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노사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영의 장점은 강사 수입이 좋아지는 점과 커뮤니케이션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단점은 무기계약 전환 문제 때문에 2년마다 계속 면접을 보게 되는 것을 꼽았다.

우선 (직영의) 장점으로는 비용이 학교 수수료밖에 안 나가니까 들어오는 비용에 대해서가 좀 다르고 직접 관리를 하니까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될 수 있는 점도 있고 선생님들 간에, 그리고 애들도, 이 학생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연결을 해도 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과 아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는데 단점은 좀 약간 아무래도 2년에 한 번씩 계속 면접을 봐요. 계속 한 번 돼서 그게 아니라 계속 면접 계속 공고를 올리니까 계속 면접에 대해서 약간 불안한 게 있죠. 그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느냐. **(강사 1-A)**

그리고 강사법이 강사 고용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상은 오히려 문제

가 개선되기보다 복잡해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일정 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 학교를 나가게 되었고, 업체 위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아지면서 강좌들이 분절화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정책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강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학교에서 이 시간 이상은 못해 이렇게 잘라버리면서 더 여러 군데를 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건 사실이에요. 대학 강사들도 입장이 마찬가지로 학교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직영이 아닌 다른 그런 업체를 할 경우에는 원래 이들은 한 학교에 나가서 이제 사실 아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고 인지도도 더 높아지면서 이 선생님 잘해요 하면 이제 서로가 윈윈이 되는 거잖아요.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학생들도 이제 더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런데 이제 업체가 되면은 하루에 하나 이렇게 이제 잘라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직영은 인지도가 높다고 하면은 여러 개를 이제 강좌를 오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사실 직영의 장점인 거죠. (강사 1-A)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보면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은 법과 제도, 예산활용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학교는 방과후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업체나 강사에게 여러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하거나 운용 방식을 전환하는 등의 전략을 활용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들이 방과후학교의 운영 자체를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방과후학교의 질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바 강사채용 및 강사로 문제

인터뷰 진행하는 동안 방과후학교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단연 강사라고 할 정도로, 방과후학교에서 강사의 역할과 그 영향력이 막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과 강사로 문제는 여전히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방과후학교의 비용은 학부모 수익자 부담으로 대부분 충당되는데,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방과후학교 수강료 사교육보다 ‘당연히 저렴해야 한다’는 암묵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수강료 인상이 어렵고, 이에 따라 강사료도 높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강사료 개선 노력도 있었으나 원점으로 돌아간 경우가 있다고 한다.

거의 그 정도 그러니까 방과 후는 일반 학교에서 다만 확실히 적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교육비에 돈을 낸다. 이런 기준으로 처음부터 더 근데 저는 사실 업체가 들어오면서 확 주는 경우가 뭐냐면 학교마다 다르지만 어떤 학교는 15명이 기준이었는데 이 학교는 딱 10명이 기준이면 강사료가 높았어요. 1인당 받는 애들은 1인당 3만 원이었으면 4만 5천원씩 애들을 하는 식으로 해서 어차피 좀 10명 12명 이렇게 해서 인원을 줄일수록

강사료를 높이겠다. 훨씬 좋죠. 근데 또 그 취지가 아니라고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정 인원을 아예 정해놓고 하는 거라 이게 좀 달라요. (강사 B)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인터뷰에서는 현재 참여 학생당으로 강사료가 책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당으로 강사료를 책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방과후학교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강좌당 학생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좌 내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다보면 수업의 질이 하락할 수가 있어, 최적의 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실제로 ×× 지역 경우에는 그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명수 상관없이 얼마 이런 식으로 셋업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사실 강남이나 서초 이런 쪽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서 메인으로 이렇게 나가면 서 금액을 더 많이 받는 시스템이 이제 안착이 되어 있는 거죠. (강사 A)

이게 조심스러운 게 사실은 이게 되게 메인 잡으로 하는 선생님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명수로 했을 때 더 열심히 하는 이유가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하고 좋은 수업을 했을 때 인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 금액이 보장이 된다는 그 전제조건이 있는 건데 일단위로 이렇게 시간별로 금액이 정해진다면 내가 과연 이걸 열심히 했을 때만큼의 돈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게 이제 아이러니인 거죠. 사실은 저도 이제 돌봄 수업이라든지 아침에 강사 나가는 거 해보면 현재저 적습니다. 시간당 페이가 3만 원, 3만 5천 원 그 정도인 거예요 1시간에. 근데 방과 후로 했을 때는 이렇게 명수로 내가 열심히 해서 인기도가 높아지면은 시간당 9에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걸로 바꿨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미지수거든요. 없다고 생각해요. (강사 A)

본 연구팀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강사들은 현재보다 높은 강사료 수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한편 학부모들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전제로 하는 수강료 인상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인식할 때 의미있다고 느낄 정도의 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수강료를 일정 수준 상향시키는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사 방과후학교 관련 교육공간 확보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방과후학교 진행을 위한 공간의 확보 문제는 각 입장마다 첨예한 갈등의 지점이 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일반교실에 업무를 위한 컴퓨터를 두는 만큼, 방과후학교를 위한 일반교실 확보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교사집단의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확인했듯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이다. 과거에는 일부 교사들은 이를 위해 연차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사들만 이를 꺼리는 것이 아니라, 강사들도 안전문제와 교사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 일반교실 사용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보며 열받았던 게 예를 들어 따로 할 장소가 있으면 하겠냐 공간을 내주겠냐 그거를 하겠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 예를 들어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6교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업무 보고 그렇게 할 공간이고 수업 준비할 공간인데 거기를 교사가 이제 다른 공간이 있으니 여기로 모여서 하고 교실은 내놔라니. ... 교사로서 공간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문제된 게 청소나 그런 문제 시설 관리나 이런 문제인데 그게 다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컴퓨터라든지 그 자재가 다 학생들 정보라든지 업무 봐야 될 그런 공간인데. ... (부장교사 1-A)

휴게실 가서 일할 건 아니니까 초등은 내 컴퓨터 여기 하나 이거 다인데, 여기서 할 수도 없고. 이러면 우리는 4시 반까지 대체 뭘 하라는 건가 해서 옛날 학교도 어쩔 수 없이 조퇴를 쓰시거나, 급한 업무 보셔야 되면 교과실을 쓰셔야 하니까 ... 사실 안전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딱 하드웨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반교사 1)

우리 학교는 좀 이거라도 있지 다른 학교는 연구실도 없어요. 학교에서 모여서 이렇게 회의할 장소가 없거든요. 그냥 내 교실 하나인데 강사 다니시듯이 그냥 갖고 어디로 가요 옆 반 선생님한테 가서 차 한 잔. 업무 자체가 안 돼요. 책 조금 보다 그것도 좀 미안하니까 절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뜨내기처럼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좀... (일반교사 2-B)

담임 선생님도 싫어하지만 강사도 싫어해요. 매일 공개 수업 한다고 담임 선생님이 딱 앉아 있어요. ... 연구실이 있어요. 연구실에서 연구 안 해요... 이렇게 방과 후 교실이 써 있는 건 6개인가 돼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교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 차지하고 있죠. ... 그리고 다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서 정규 수업을 위해서 교실을 비워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 그니까 이런 (준비되지 않은) 교실을 10개 주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데 ... 제가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강사 부분보다도 난 그게 제일 어려워요. (코디네이터)

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인기 과목의 경우 수강신청이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 경우에 한해 일반교실을 사용하기를 원하였다. 특히, 안전문제 때문에 외부시설을 이용하는 방식보다 학교 내에서 연속성 있게 방과후학교를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하였다. 이는 이후 서술할 마을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도 지적되는 내용이다.

이 공간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만큼 연구참여자들은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학교시설 및 인프라 투자 방식에서 일부 방향을 바꾸면 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프라가 확실하게 투자되어 공간 문제

가 해소되면 학교 내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업무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체육도 우리가 그나마 많을 수 있는 게 잔디 있고 강당이 두 개나 있어요. 강당이 두 개를 쓸 수 있으니까 ... 이것은 사실 근본적인 문제로 가면 저의 생각은 방과후를 할 거였으면 항상 정책이 먼저 나오지만 대안과 시설이나 이런 걸 해놓고 해야 되는데 없이 열어버리니까 ... **(일반교사 1)**

교육청에서 안전 관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오셔서 우리의 니즈만 파악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다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을 다 주지 않아도 되고 알아서 그 금액 안에서 투명하게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일반교사 1)**

체육관도 제가 맨날 비판하고 있는 건데 저희 체육관도 제가 오기 전에 체육관이 들어서면 밑에 식당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 보통 학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하고 식당이죠.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복합 건물을 좀 해달라고. 조금 더 크게 높게 할 수 있는. ... 학교의 땅이 사실은 제일 부자잖아요. ... 학교의 부지를 활용한 복합 건물로 해서 마을 주민이나 학생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 학교가 꼭 4층이어야 되나요? 학교도 옛날 식이죠 이제. 7-8층 지으면 어때요. ... 거기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 방과후도 저절로 해결이 될 것이다. **(교장 C)**

한 교장은 학교에 있는 틈새공간을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 틈새가 많아요. 그래서 틈새 공간 사업을 제가 좀 해서 틈새에다가 아기가자하게 좀 꾸몄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의 인원수를 줄입니다. 20명 다수가 아니라 10명 이내... 작다 보니까 그래서 조그만 공간을 틈새 공간을 활용을 해서 거기다 실을 만들어주는 ... 8월 달에도 저희가 이제 디지털 건강 체육실이라고 해서 디지털 사격장을 통로에다 만들어서. 멋있게 유리관으로 해서 만드는데. 이렇게 틈새 공간을 활용을 하면 프로그램을 한 두 개는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교장 C)**

그러나 학교의 시설을 추가 신설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아닌 외부시설을 활용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에게 물어보았다. 외부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과후학교는 별도의 인솔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크다.

문제는 이동이죠. 우리는 학부모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이동을 하려면 뭔가 차량도 있어야 되고 인솔자도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가서 한다는 것은 진짜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렵고, 들어와서 이제 강사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 그러니 이제 방과 후 학교가 인문학 중심의 방과 후 학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문학도 굉장히 중요한데, 인문학 바탕으로 한 이과적인 시설 연구소리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뭐든 그런 것을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동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동이 어떤 건 결국은 인력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거죠. **(교장**



C)

공간 자체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공간의 질적인 준비 문제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 감소로 유휴교실이 생겨나면서 방과후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교실이 강사에 제공이 되어도 그 교실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질 높은 방과후학교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 첫 번째는 교실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는 그나마 아까도 이제 복도도 넓고 해서 옛날에 학교가 큰 학교였다가 조금 줄어서 요런 교실은 좀 많이 여유가 되는데 이제 애들도 이제 점점 시스템이 좋아지다 보니까 모니터나 컴퓨터 없이는 애들 수업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방과 후도 이런 준비되지 않은 교실을 딱 줘요. 그러면은 컴퓨터도 없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애들도 따분해서 지도가 싫어하고 선생님도 지도가 어려운 상태 ... 거기서는 그건 너네가 알 일이다 할 일이다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1년마다 입찰해서 들어오는데 그만큼 거를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코디네이터)

종합해보면,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 교육공간 확보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교실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예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구성원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앞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산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방과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유휴공간에 배치하는 것으로 방과후학교 교육공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아 마을 방과후학교와 지역연계

마을 방과후학교는 학교와 지역이 정책적이면서 자발적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교육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서로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일종의 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마을 방과후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마을 방과후학교에서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 있고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는 마을 방과후학교에 대한 그 인지도나 효과성에 대해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인터뷰 내용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인지도와 효과성에서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제가 교감할 때 좀 유명해졌는데 아마 서울시 하고 전국 최초로 무료 방과 후 47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을 했어요. 전교생이 3, 4개씩 하나까 거의 300~400%의 참여율이 나온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 기관 연계 그다음에 그 밑에 ○○단체가 있었거든요. ○○에서 하는 건데 ○○하고 협약을 해서 돈을 좀 받아서 구청에서 도움을 받고 서울시 본청에서 돈을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무료로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마을 유관 기관하고 협약해가지고 마을 유관기관 강사들이 와가지고 지도해 주는 걸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교장 C)**

구청 지자체에서 이렇게 확보하는 마을 강사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도 다 이미 인증받아서 이게 다 마련돼 있어서 학교는 마치 쇼핑하듯이 선택해서 마을 강사로 (학교) 속에 들어오게 해서 협력수업을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사가 준비하고 하기에는 약간 좀 더 좀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수업 내용이라면 예를 들어서 목공을 한 다든지 국악이라든지 뭔가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의 강사들을 초빙해서 같이 협력수업 그런 일종의 지역 연계 마을 결합 그런 거였고요. **(부장교사 1-B)**

방과 후에 여기는 또 다문화 친구들이 많아서 다문화 지원하는 센터에서 다문화 친구들끼리 한국어나 이런 거 하는 센터(에서 마을 방과후학교를 하는 것 같아요.) ... 학교에서는 딱히 마을 방과 후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일반교사 1)**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1학년 처음 들어왔을 때 방과 후 끝나고 한 3~4시간 타임이 조금 애매했을 때고 학원도 애매하고 이랬을 때... 프로그램이 그냥 책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돌봄 위주였던 것 같아요. ... 제가 직장을 다니게 됐고 근데 그 시간대가 1학년은 좀 일찍 끝났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그 시간만 잠깐 하려고 했어요. **(학부모 2)**

한편, 마을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먼저 외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보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일 우려되는 지점이다. 또, 외부 시설의 경우 대부분 시설이 사유시설이다보니 그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 프로그램과의 조율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사실은 가장 안전을 생각하는 게 학부모님들의 마음이고 저희도 이제 방과후 학교 외부로 가는 거를 처음에 이제 저 업무 담당자 했을 때에는 이렇게 가능하도록 열어놔는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인솔할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솔 강사의 수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또 지역에 거기를 해주겠다고 하는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탁구 같은 경우는 이제 탁구장을 뭐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이제 개인 레슨 시간이고 막 이렇게 자기네 그걸로 돌아가다 보니까 학교까지 끼워서 하기는 좀 어렵다. **(교장 B)**

또, 일부 마을 방과후학교의 경우 수익자 부담의 비중이 적고 공공의 재원으로 운영되는데, 주말에는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운영에도 문제가 생긴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고 한다.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러한 외부 시설 및 단체 활용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선생님(강사)도 안 와요 늦어요 저희도 늦으면 난리가 나거든요. 토요일 ○○○을 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에

서 봉고차를 타고 오는데 수업이 애네들은 9시 반부터인데 선생이 안 와요. 아무도 전화할 데가 없어요. 그럼 우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왜 방과후인데 안 하나고 알고 보면 우리도 아니고 그쪽에서는 마을 공동 수업이었습니다. 이런 게 비밀비재했습니다. 관리 감독이 없으면 수업의 질은 떨어지고 그냥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업체대표)

정리해보면, 마을 방과후학교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와 지역연계 시에 관리감독의 부분, 시설활용에 대한 부분,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4. 방과후학교 공적운영 사업단(가칭) 관련

방과후학교 공적 운영 사업단에 대한 질문은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가장 마지막에 공통 질문으로 배정하였다. 이 질문은 공적 운영 사업단이 추진되기 위한 조건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자원, 노력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최후반부에 공적 운영 사업단 관련 설문문항을 넣었는데, 강사를 제외하고 모두 긍정적인 입장이며, 특히 부장교사와 일반교사 사이에서 긍정 답변이 높았다.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 대비했을 때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의견들이 많았다. 가장 큰 의문점은 이 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특히, 단위학교의 부장교사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지역 단위로 확대한다는 것 자체에서 고려할 지점이 많다고 보았다.

너무나 잘 됐으면 하는게 왜냐하면 제가 방과후 업계가 들어왔으면 처음부터 이 형태로 들어왔어야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안착된 게 개인 위탁 업체 위탁이 된거고 ... (부장교사 1-A)

이게 과연 학교에서 이 업무를 할 일인가 이걸 방과 후 교사 한 사람에게 이걸 지울 수 있는 부담인가 저 부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갑자기 누군가가 학교 이 외에 다른 행정적인 가용 인력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 일을 가져가도 학교는 하나도 슬프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건 저는 저 개인적으로 환영하고요. (부장교사 1-B)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그동안 이런 별도의 기구가 없이 운영되어왔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은 다른 교장에게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정규교육은 아니더라도, 공공의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별도의 체계적인 기구의 설치와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교사는 본연의 업무가 있잖아요. 또 학교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주인은 곧 국민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운영하게끔 하는 어떠한 주체는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과 후 돌봄은 당연히 정부에서 별도의 그런 정책 기구가 있어야 되고 운영 기구가 있어야 되고 관리 기구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나중에 이끌어 갈 아이들인데 서구에서는 누구도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 세상이 변했으니까 케어뿐만 아니라 돌봄 모든 것이 국가 책임으로 가야 된다. 방과후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장 C)**

업체대표의 경우, 공적 사업단의 설치가 업체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인터뷰 과정에서 유감을 표기하기도 했다. 인터뷰 과정에서 공적 사업단의 취지와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짧은 토론과 질의를 진행하였다. 그 이후, 업체대표는 공적 사업단 설치에 대해 어느 정도 설득이 되었으나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정책과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동안 방과후학교 업체들이 이루어놓은 여러 노하우와 운영방식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지역적 범위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제가 여기다 지금 정말 외람된 얘기를 써봤어요. “민간이 이루어 놓은 방과후 시장에 밥숟가락 없는다” 제가 이렇게 써놨고요. ... 그리고 제가 거기에 밀접 관리 없이는 이거 실패한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 데이터 맞춰가지고 행정적인 일 처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네 발로 뛰다니면서 한 달에 최소한 두 번 이상 그 학교 관계자를 만나서 미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제 생각은 일단은 시작할 때 동시 다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몇 개 국 또는 한두 개 먼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마 가실 걸로 예상됩니다. **(업체대표)**

범위 확장에 대한 우려는 다른 인터뷰 참여자도 지적하였다. 특히, 공적 사업단이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무, 계약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정비가 필요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과연 이거를 서울시 전체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계약 자체를 이걸 용역 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있는 지방계약법 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나? 법적인 체제가 방과후 학교에 법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 안에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그거를 법을 국회의 원으로 해서 바뀌서 밀어붙일 수 있어도 과연 이거를 지원단(공적 사업단)이 버틸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버틸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게 과연 지원단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감사, 업체 그거 선정부터 시작해서 법을 안 어기고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 부분 ... 그것도 다 할 수 있나? **(부장교사 1-A)**

아니면 업체 위탁 혼용을 할 수 있나 ... 과연 할까? 개인 위탁으로 해도 개인 위탁을 강사를 뽑고 배정하고 그게 이 작업을 버틸 수가 있을까? 저도 이제 지금 서울 교육지원청에서 만들고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자체 위탁 평가하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개인 강사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근데 그거로는 감당이 안 돼요 ... 부장 경력이 엄청 난 데도 그거 노하우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민원 그런 것들을 과연 이거를 버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회계라든지 아니면 강사 계약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게 넘어서 할 산들이 너무 많고 ... (부장교사 1-A)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내 한 지자체에서 방과후학교 사업을 이관하여 진행했었는데, 구청장이 바뀌어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된 이유 말고도,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서 공무원들이 힘들어했다는 점을 증언해주기도 하였다. 이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기구를 세우지 않고, 지자체의 유관 부서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안 구상과는 다르나,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지점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교육자치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분리된 행정 시스템의 사전적인 조율 부분도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확인된다.

2022학년도에 ×× 지자체에서 아쉽게 ...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무료니까 공짜로 돈을 막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다 맡겨라 해서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1년 반 만에 다 번아웃이 와서 작년에 ×× 부장님들이 모이는 회의에 제가 자문하러 갔거든요. (부장교사 1-A)

지역 연계 방과후학교를 했어요. 구청이 업무를 맡아서 했어요. 저희 선생님들 너무 환영했어요. 그래 이게 맞다. 이 업무 자체를 아예 구청 직원이 오셔서 여기 밑에서 시설을 전부 다 사용하시면 물론 계약 기간 끝나고 저희한테 다 넘겨주셨죠. 근데 왜 그게 2년 이상 못 갔냐고 제가 어제 물어봤을 때 ××××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 이렇게 ×××나 이웃 학교에도 홍보해서 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먼 데서 여기까지 그게 차도를 두 번씩 건너서 오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는 그렇게 안 하면 ××××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학교 애들만 놓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행정실에서 정말 다른 학교에서 받았더니 환불할 때 그러면 그 돈이 우리 학교 통해서 가야 돼요. 개들은 우리 학교 계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 한 분이 그 때 달리느라고 학교 보험 업무를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2년 동안 하다가 ...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좋대요. 그리고 직원들이 와서 다 해주고 강좌 모집해 주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어떤 법적인 체계가 먼저 잡혀야 된다는 거죠. 환불은 어떻게 해야 되고 타 학교에 가서 수업할 때는 이렇게 문제가 됐을 경우는 학교에서 책임은 어디까지 되고 그다음에 법규적인 게 확실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좀 확대하는 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까라는 게 선생님들 생각이예요. (일반교사 2-B)

그리고 사업단 구성 시 담당 지역의 범주를 구청 단위가 아니라 더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기구를 세분화하는 목적은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단을 구성해서 어떠한 이제 주체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 좋은데 사실 그 산하의 그 기구가 지역별로 굉장히 세분화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 단위가 된다면 굉장한 세분화에 그 어떤 지역의 특색이랄까 특징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지역별 운영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 학교가 지구가 있어요. … 지구에서도 많이 다르거든요. … 최소한 지구단위까지는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교장 C)**

공적 사업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인원 한두 명 정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 확충이 제대로 늘어나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방과후 담당 부장 교사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공적 사업단 운영 시, 세부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사업단에서 얼마를 해서 하겠다. 그래서 그런데 지역 교육청에 한두 명 정도 더 늘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학교에 부담이 가는 예산 규모. 왜냐하면 예산이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 하는데 인력이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에 대한 물론 그 시스템을 쌓기 위해서 … 이거를 했을 때는 지금 정도로 해서는 못 버티고 결국은 현재량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교사는 더 같아놓고 더 많은 일이 주어지는 그런 걸로 같아 봐 걱정이 됩니다. **(부장교사 1-A)**

방과 후에는 정말 디테일한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 3개월, 1년 운영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해마다 케이스 바 이 케이스가 있어요. 민원도 다 달라요. 민원도 그런 것들을 진짜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신 다음에 이거를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교장 B)**

학부모와 일반교사의 경우, 공적 사업단 운영에서의 행정적인 차원뿐 아니라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적 차원의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학부모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보니 프로그램의 연속성이나 강사의 전문성, 안전한 수업 운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신경쓸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일반교사는 중앙에 별도의 기구가 설치되어 서울시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자원을 배치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생겼다가 없어졌고 이런 데도 많으니까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반을 했는데 몇 개월 되니까 없어져버리고 아니 아예 하지도 시작 하지도 않는 게 나는데 그 기초만 배우고 뭐가 없으니까 결과가 없으니까 그거 괜히 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또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커리큘럼이나 그게 제대로 진행되고 강사가 이런 사회적 범죄자 아닌 것도 검증하는 것을 잘 관리해 주신다면 오히려 학부모들이 믿고 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 2)**

지금 고교학점제처럼 좀 다양한 인력 풀에 대한 데이터를 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좀 더

유연하게 선생님들을 다양한 곳에 배치할 하고 소규모 학교나 좀 더 외진 곳에 있는데도 기회를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가능해진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뭔가 있는 게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교사 1)

사립학교 교장은 사업단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업단이 생기더라도 바로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현재 사립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오히려 사업단이 운영 과정에서 참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개인적으로 그 사업단이 저희 학교 수준 따라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중략) 이렇게라도 해서 업무가 또 하나 줄어든다면 홀가분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사설 업체도 아니고 한다면 다른 학교에서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이 기구가 생긴다고 해도 바로 이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충분히 검증을 해보고 그 사업단에서 우리 학교 시스템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학교의 이 복잡한 이거를 해낼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하려면 몇 년이 더 필요하고 검증이 돼도 우리 학교 수준까지 지금 우리 학교가 6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지금 해오는 이 시스템과 이 운영 방법을 냉큼 저는 그쪽한테 위탁 못 할 것 같아요. (교장 A)

방과후학교 공적 사업단이 방과후학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돌봄이나 기초학력 보장과 같이 인접한 연관분야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시하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 방안을 제시한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시설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단기적으로 힘들다면 이러한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들어온다면 사실은 아까 말한 돌봄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돌봄에서도 기초학력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그런 돌봄이 있잖아요. (중략) 어차피 하드웨어를 당장 바꿀 수 없는 거라면 지금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일반교사 1)

끝으로, 방과후학교 공적 사업단이 설립되는 것에 대한 강사들의 설문조사 의견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강사들은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공적 사업단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 구상하는 취지를 제대로 듣지 못한 상황에서는 일종의 면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 문제나 고용 문제에 있어서 학교에서 완전히 떼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공적 사업단을 통해서 이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적 사업단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추진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관계자들과 소통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사실은 이렇게만 봤을 때는 뭔가 이게 면피하기 위한 것이 혹시 아닌가 이렇게 그런 게 사실 부정적인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시다라는 게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취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너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데 이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강사 A)**

또 다른 의견은 강사의 수입과 처우에 대한 의견이었다. 연구참여자 중 한 강사는 공적 사업단이 본격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기존 강사 중 나름대로 정착한 강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과, 강사를 계약하는 방식이 경직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사실은 공적사업단이 생기면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1번이 사실은 그런 부분일 거예요. 이게 보장이 된다고 해서 4대 보험을 해준다고 해서 예를 들면 근데 내가 원래 버는 만큼의 3분의 1 밖에 수입이 안 된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되는 건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좀 나후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활성화시킬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미 셋업이 되어 있는 이제 메인 강사들이 인기 강자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돈을 더 많이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금액이 정해지면은 난 이게 공무원처럼 되는 거예요. 요만큼만 할 거야 이만큼만 이렇게 해도 그냥 나는 이만큼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다)… **(강사 A)**

또, 현재 수입 부분에서 4대 보험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프리랜서로 강사를 하는 경우 보험료로 수입의 많은 부분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 이제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내는 거는 괜찮은데 지역의료보험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너무 이렇게 터무니 없이 내야 되는 것 때문에 … 사실은 이렇게 공적 사업단이 되었을 때 저는 한 가지 희망은 4대 보험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니까 사실 금액이 좀 줄더라도 4대 보험이 보장이 되고 그러면은 그냥 지금 봤을 때는 되게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세금으로 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방과 후 교사가 되게 하루 이틀 나와서 많이 받아 간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 연금도 없지 거기다가 이런 그런 관련된 지역 의료보험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내야 되지 그런 걸로 치면은 반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냥 월 금액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1년 돌아오고 나면은 내가 봉사활동이었나 약간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강사 B)**

## 5. 소결

본 장에서는 현재 초등 방과후학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인터뷰를 통해 수합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와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써 방과



후학교 공적사업단(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함의를 추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로 포착하지 못한 초등 방과후학교의 현재 상황과 관련 당사자들의 심층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중반 이래로 방과후학교가 정착되고 나서 방과후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은 아님에도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수요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충족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시행이 20년 넘게 진행되면서 사교육, 강사수급 여건, 행정적 여건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현재의 초등 방과후학교는 주지교과 교육보다는 특기적성 계발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역할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들어서 돌봄이나 기초학력 보장과 같은 사회적인 수요도 함께 증가하면서 방과후학교에 추가적인 기대까지 반영되고 있는 흐름까지 파악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 상황을 들여다보면, 담당 부장교사의 행정역량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시설 인프라 상황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 구성원 간 소모적인 갈등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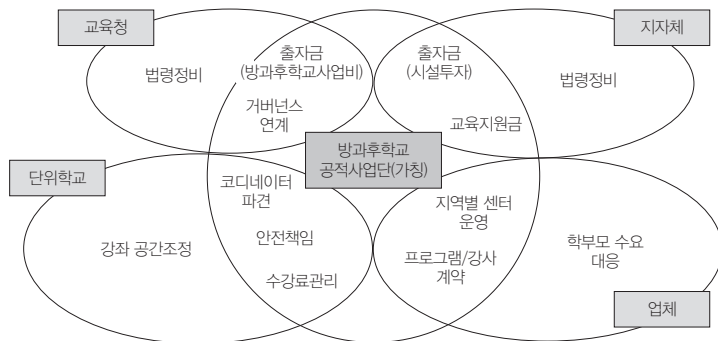
둘째, 이에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크게 행정/법 체계, 재정, 인사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행정체계로는 지역별 특성을 세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가령,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구성되는 체계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의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다수 센터를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운영 시 마주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는 노동법과 지방계약법과 관련된 문제처럼 실질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률적 정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는 방과후 담당교사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수당 지급과 학교 간 방과후학교 인프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공적인 지원과 투자가 전제되어야 함이 다수 연구참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 끝으로 인사 차원에서는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에 대한 고용 체계 개선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코디네이터는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재 노동방식이나 환경에 대해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학교 및 업체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학교 담당 부장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실질적으로 질 좋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분석된다.



셋째,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한 방안으로서 공적 사업단 운영의 가능성과 우려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단의 운영 가능성으로는 학교가 정규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수요가 있는 돌봄과 기초학력 증진이라는 교육적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자하여 운영하는 공공기관 형태의 기관이 체계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가 경쟁으로 인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코디네이터, 강사, 안전문제 등 기존에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지만 쟁점화되지 않았던 문제를 보다 적극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공적사업단 설치가 실제로 진행되었을 때 대한 우려 사항도 분명히 확인하였다. 실질적으로 행정, 법, 인사, 재정 등에 대한 체계가 확립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오히려 본연의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담당교사나 강사, 코디네이터 등에게 행정업무나 처우상 불리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부 방과후학교 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기존의 방과후학교 시장에 대한 급격한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피해는 업체뿐 아니라 방과후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기관을 설립하기 때문에 관련된 당사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관 구성에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본 인터뷰에 참여한 당사자들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파악된다.

끝으로, 본 인터뷰와 FGI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공적사업단이 현재 유관기관과의 관계 설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역할을 도식화하여 아래 그림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방과후학교 공적사업단 정책 모델을 구상하고자 한다.



[그림 V - 1] 방과후학교 공적사업단(가칭) 업무 및 역할 모형화

---

## VI

###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제공방식과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사례

---

1. 지자체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 및 운영방식
2. 지자체에 의한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사례

#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제공방식과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사례

## 1. 지자체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 및 운영방식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방과후사업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 및 운영방식은 지자체 직접 추진 방식, 지방공기업형 방식,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에 의한 방식, 민간위탁 방식 등 4가지 유형이 있으며, 좀 더 세분화하면 7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가. 지자체 직접 추진 방식

나. 지방 공기업 방식

1) 지방직영기업

2) 공사

3) 공단

다. 출자출연기관 방식

1) 주식회사

2) 재단

라. 민간위탁 방식<sup>1)</sup>

1) 민간위탁 방식은 서울시교육청 - 지자체 컨소시엄 방식에 근본적으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음

## 가 직접운영방식(직영)

### 1) 의미

직접운영방식은 일반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 등의 운영 전반을 모두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자체 행정부서 직제에 근거하거나 관련 사업수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기능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노승용 · 오승은, 2013).

### 2) 장단점

지자체 직접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노승용 · 오승은, 2013; 이미애 · 김재근, 2015).

첫째, 직접경영은 행정과 업무 추진이 용이하며 채산성이 없더라도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 통제 하에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경영에 반영하기가 쉽고, 공공성 확보가 용이하다.

셋째, 운영 초기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충당하므로 안정적인 자원 조달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에 의하여 장기 저리의 자금 조달이 쉽다.

넷째, 인력의 안정성도 높고 전문직들의 선호도가 높으며, 정부의 성과관리 체계에 따라 일정 수준의 책임성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자체의 직접 운영 방식의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된다(이미애 · 김재근, 2015).

첫째, 관료 조직에 의한 운영에 따른 각종 행정체계 및 통제 등으로 인해 경직성과 비능률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에 따라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변화하는 교육수요와 해당 시설의 특성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쉽지 않다.

넷째, 경영 악화에 대한 위기의식 내지 책임의식이 결여되기 쉽다.

### 3) 방과후학교 또는 돌봄 관련 지자체 직접 운영 방식의 사례

도봉형 초등방과후학교 지원센터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도봉형 초등방과후학교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검토한다.

## 나 지방공기업

### 1) 지방공기업의 의미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sup>2)</sup>

지방공기업에는 지자체가 100% 출자하고 직접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100% 또는 50% 이상 출자하고 간접경영하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 3종류가 있다.

### 2)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지방공기업 제2조)

〈표Ⅵ-1〉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

적용사업 구분	적용 사업의 종류
오른쪽 항의 사업 중에서 지자체가 직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 또는 지방공사나 공단이 경영하는 사업 (제2조 ①)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 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지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오른쪽 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음(제2조 ②)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b>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b> 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b>체육시설업</b> 4. 「관광진흥법」에 따른 <b>관광사업</b> (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 3) 지방공기업의 종류

#### 가) 지방 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1조, 이하 이 절의 법 조항은 모두 지방공기업법을 말한다.

### (1) 설치와 운영

지방 직영기업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이 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 (2) 출자와 예결산 승인

지방 직영기업은 지자체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통해서 출자한다.(제17조) 또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결산의 경우에도 지방 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제출한 결산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26조, 제35조)

### (3) 조직과 인력

지방 직영기업의 관리자와 직원은 모두 지자체 소속의 공무원이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따라서 지방 직영기업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게 된다.(제7조, 제10조의2)

### (4) 지방 직영기업 현황

전국 지자체 직영기업은 광역지자체 소속 직영기업 23개와 기초지자체 소속 직영기업 229개 등 총 252개가 있다.(2023년 5월 1일 기준) 지방 직영기업은 대부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관련된 기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수도 122개, 하수도 104개, 공영개발 25개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 직영회사가 있다.<sup>3)</sup>

〈표Ⅶ-2〉 전국 지방직영기업 현황(2023년 5월 1일 기준)

지역	구분	수	기관명
서울	광역	2	서울특별시상수도, 서울특별시하수도
부산	광역	2	부산광역시상수도, 부산광역시하수도
대구	광역	2	대구광역시상수도, 대구광역시하수도
인천	광역	3	인천광역시상수도, 인천광역시하수도,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광주	광역	2	광주광역시상수도, 광주광역시하수도
대전	광역	2	대전광역시상수도, 대전광역시하수도
울산	광역	2	울산광역시상수도, 울산광역시하수도
세종	광역	3	세종특별자치시상수도, 세종특별자치시하수도, 세종특별자치시공영개발

3) 출처 : 클린아이, 지방공기업설립현황 (2023.05.01. 기준)

지역	구분	수	기관명
경기	광역	2	경기도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경기도고덕국제화계획지구
	기초	68	수원시상수도, 수원시 하수도, 성남시공영개발, 등.
강원	광역	—	
	기초	23	춘천시 상수도, 춘천시 상수도, 춘천시 공영개발 등
충북	광역	—	
	기초	17	청주시상수도, 청주시 하수도, 충주시 공영개발 등
충남	광역	—	
	기초	30	천안시 상수도, 천안시 하수도, 천안시 공영개발 등
전북	광역	—	
	기초	17	전주시상수도, 전주시하수도, 익산시공영개발 등
전남	광역	—	
	기초	19	목포시상수도, 목포시하수도, 목포시공영개발, 등
경북	광역	—	
	기초	28	포항시상수도, 포항시하수도, 등
경남	광역	—	
	기초	27	창원시상수도, 창원시하수도, 창원시주택건설
제주	광역	3	제주특별자치도상수도,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 제주특별자치도공영버스
합계		252	

## 나)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1) 출자와 설립

지방공사와 공단은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타당성 사전 검토와 조례를 통해 설립한다.(제49조)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50조, 제53조) 단, 지방공사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②)

### (2) 설립과 종사자의 신분

지방공사와 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며 공사의 사장(공단의 이사장)과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또한, 직원은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장(공단의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58조, 제63조)

### (3) 예결산

공사의 사장(공단의 이사장)이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은 이사회(의결로 확



정하고, 공사의 사장(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결산의 경우 공사(공단)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65조, 제66조)

#### (4) 공사와 공단의 차이<sup>4)</sup>

##### (가) 출자 방식의 차이

공사와 공단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사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자 허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사의 경우 민관합작이 가능하다. (제53조 ②)

##### (나) 단독 사업 경영과 특정 사업 수탁

공사는 일종의 기업체로서 수익을 위한 단독 사업을 경영하지만, 공단은 일종의 공공업무대행기관으로서 위탁 또는 대행사업을 한다.

##### (다) 손익금 처리 가능 여부

공사의 경우 결산결과에 따라 손익금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공단은 손익금 처리 규정이 없어서 수익성 위주의 사업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제67조)

(라) 공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하철공사(서울교통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이 있고, 공단은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 (5) 지방공사와 공단 현황

전국적으로 공사는 광역과 기초 소속을 모두 포함해서 70개가 있고, 88개의 공단이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 광역단체에 4개 공사와 2개 공단<sup>5)</sup>이 있으며, 기초단체에 24개 공단이 있다.

4)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지방 공사와 공단 [https://news.seoul.go.kr/gov/public\\_corporation](https://news.seoul.go.kr/gov/public_corporation) 참고

5)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물재생시설

〈표Ⅵ-3〉 전국 지방공사 현황 (2023년 5월 1일 기준)

지역	구분	수	기관명
서울	광역	4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부산	광역	3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대구	광역	2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인천	광역	3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광주	광역	3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	광역	3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관광공사
울산	광역	1	울산도시공사
세종	광역	1	세종도시교통공사
경기	광역	4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기초	24	수원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강원	광역	1	강원도개발공사
	기초	2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충북	광역	1	충북개발공사
	기초	1	단양관광공사
충남	광역	1	충청남도개발공사
	기초	1	당진항만관광공사
전북	광역	1	전북개발공사
	기초	1	장수한우지방공사
전남	광역	1	전남개발공사
경북	광역	2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기초	2	영양고속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경남	광역	1	경상남도개발공사
	기초	4	통영관광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등
제주	광역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합계		70	

〈표Ⅵ-4〉 전국 지방공단 현황 (2023년 5월 1일 기준)

지역	구분	수	기관명
서울	광역	2	서울시설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초	24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등
부산	광역	2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기초	2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대구	광역	1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기초	1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인천	광역	2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기초	8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등
광주	광역	1	광주환경공단
	기초	3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 등

지역	구분	수	기관명
대전	광역시	1	대전시시설관리공단
울산	광역시	1	울산시시설공단
	기초	4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등
세종	광역시	1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경기	기초	7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등
강원	기초	6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등
충북	기초	2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충남	기초	4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등
전북	기초	1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남	기초	1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경북	기초	7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등
경남	기초	7	창원시시설관리공단 등
합계		88	

## 다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 출자·출연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출자·출연하여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 포함)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할 수 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 제4조, 제24조)<sup>6)</sup>

### 2) 교육청에 의한 출자 출연

교육청은 교육부 장관을 주무장관으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통해 출자 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2조의2)

### 3)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사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사업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4조)

6) 지방출자출연법의 본래 법률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이하 이 절에서 인용하는 법 조항은 모두 지방출자출연법의 조항이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지역경제 발전,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4)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례의 규정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조③)

#### 5) 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

#### 6) 임직원의 임명과 해임요구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정관에 의해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주무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제12조)

#### 7) 예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9조)

#### 8) 현황

- 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자기관은 총 99개, 출연기관은 757개가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5개의 출자기관과 63개의 출연기관이 있다. (2023년 3월 말 기준)

〈표Ⅵ-5〉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 (2023.3.31일 기준)

광역 시도	출자기관	출연기관	계
서울	5	63	68
부산	2	30	32
대구	1	21	22
인천	5	22	27
광주	1	20	21
대전	0	19	19
울산	0	14	14
세종	3	5	8
경기	15	135	150
강원	12	75	87
충북	7	33	40
충남	5	63	68
전북	8	52	60
전남	12	71	83
경북	6	67	73
경남	16	54	70
제주	1	13	14
합계	99	757	856

※ 출처 : 행정안전부 공기업관리과(2023.3.)

나) 서울시 출자기관은 5개 모두 자치구 소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 성동구 미래 일자리 주식회사), 출연기관 63개 중에서 20개는 서울특별시 본청 소관이고, 나머지 43개는 자치구 관할이다.

다) 자치구 관할 출연기관 주로 문화, 복지, 장학 등이 핵심 사업영역이다.  
(예. 노원교육복지재단)

〈표Ⅵ-6〉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현황 (2023년 3월 기준)

연번	구분	시군구	기관명
1	출자기관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주)
2	출자기관	노원구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3	출자기관	금천구	금천일자리 주식회사
4	출자기관	동작구	대한민국동작 주식회사
5	출자기관	서초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6	출연기관	본청	서울의료원
7	출연기관	본청	서울연구원
8	출연기관	본청	서울산업진흥원

연번	구분	시군구	기관명
9	출연기관	본청	서울신용보증재단
10	출연기관	본청	세종문화회관
11	출연기관	본청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2	출연기관	본청	서울시복지재단
13	출연기관	본청	서울문화재단
14	출연기관	본청	서울시립교향악단
15	출연기관	본청	서울디자인재단
16	출연기관	본청	서울장학재단
17	출연기관	본청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18	출연기관	본청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19	출연기관	본청	서울디지털재단
20	출연기관	본청	120다산콜재단
21	출연기관	본청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22	출연기관	본청	서울기술연구원
23	출연기관	본청	서울관광재단
24	출연기관	본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25	출연기관	본청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26	출연기관	종로구	종로문화재단
27	출연기관	중구	중구문화재단
28	출연기관	중구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29	출연기관	용산구	용산복지재단
30	출연기관	성동구	성동문화재단
31	출연기관	성동구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32	출연기관	광진구	광진문화재단
33	출연기관	광진구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34	출연기관	동대문구	동대문문화재단
35	출연기관	종랑구	재단법인 종랑문화재단
36	출연기관	성북구	성북문화재단
37	출연기관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38	출연기관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39	출연기관	도봉구	도봉문화재단
40	출연기관	노원구	노원교육복지재단
41	출연기관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42	출연기관	노원구	재단법인 노원문화재단
43	출연기관	은평구	은평구민장학재단
44	출연기관	은평구	은평문화재단
45	출연기관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46	출연기관	마포구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47	출연기관	마포구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48	출연기관	양천구	양천사랑복지재단

연번	구분	시군구	기관명
49	출연기관	양천구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
50	출연기관	강서구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51	출연기관	구로구	구로문화재단
52	출연기관	구로구	구로희망복지재단
53	출연기관	구로구	구로구장학회
54	출연기관	금천구	금천미래장학회
55	출연기관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56	출연기관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재단
57	출연기관	영등포구	영등포구장학재단
58	출연기관	동작구	동작복지재단
59	출연기관	동작구	동작문화재단
60	출연기관	관악구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
61	출연기관	서초구	서초다산장학재단
62	출연기관	서초구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63	출연기관	서초구	서초문화재단
64	출연기관	강남구	강남문화재단
65	출연기관	강남구	강남복지재단
66	출연기관	송파구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
67	출연기관	송파구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
68	출연기관	강동구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

※ 자료 : 행정안전부 공기업관리과(2023.3.)

## 2. 지자체에 의한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사례

### 가 지자체 직영 사례 : 도봉형 초등 방과후학교 지원센터<sup>7)</sup>

#### 1) 설치와 조직 구성

- 도봉구청 내 교육지원과에 방과후 돌봄팀 구성하여 방과후학교를 직접 운영하며, 모두잇 시범학교 3개교에는 초등방과후지원센터(모두 잇)을 설치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함.
- 방과후 돌봄팀은 공무원 3명과 기간제 근로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7) 도봉구청 교육지원과에 직접 요청해서 제공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 2) 방과후학교 사업방식 :

- 시범학교와 도봉구청 간의 수의 계약을 통한 공공위탁방식으로 수익자 부담에 의한 비교과 방과후학교사업을 운영함.<sup>8)</sup>
- 방과후학교 계약을 맺은 16개 교 중에서 13개 교는 반일제 기간제 근로자 13명이 파견되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나머지 3개 학교는 모두 잇이 설치된 학교이므로, 모두 잇 근무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3) 방과후학교 사업 예산 편성 (2023년)

도봉형 방과후학교 예산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Ⅵ-7〉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 (2023.3.31일 기준)

통계목	산출기초	2023년 예산액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간제근로자 보수 : 225,254천원 - 2,331,813원(전일제)*12월*7명	225,254
공공운영비	•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료 : 1,330천원*0.8%*80명*12개월 = 10,215천원 • 영조물배상공제등록 보험가입 : 5,188천원	15,403
기타보상비	• 도봉형 방과후학교 강사료 : 1,915,200천원	1,915,200
총 계		2,155,857

## 4)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 (2023년 2분기 기준)

- 도봉구 관내 23개 초등학교 가운데 16개 초등학교에 대해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함
- 방과후학교 참여자 수는 6,032명이며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263개임.
- 학교당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는 평균 16.4개이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평균 64%로 추정됨.

## 5) 초등방과후 지원센터(모두 잇)의 설치와 운영

- 도봉구는 공공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초등방과후학교 사업과 연결된 초등방과후지원센터(모두 잇)도 운영함
- 초등방과후지원 센터는 신청한 시범학교 내에 설치된 센터를 통해서 방과후학교 운영 및 틈새돌봄을 지원함. (모두 잇이 설치된 3개교는 모두 잇의 근무자가 방과후학교 운영)
- 학교는 센터 공간을 제공하고 도봉구가 센터당 평균 3명의 인력을 파견해서 직접 운영하

8) 공공위탁 계약의 법률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임



는 방식임

〈표Ⅶ-8〉 도봉형 초등방과후 지원센터(모두 잇)의 사업 내역

운영 구분	내 용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 도봉형 방과후학교 직영 운영지원
방과후 센터운영	• (이용시간) 09:00 ~ 17:00 • (내 용) 학교 방과후에 센터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이용금액) 센터 이용료 무료
틈새돌봄	• (이용시간) 아침 : 07:30 ~ 09:00, 방학중(09:00~17:00) • (내 용) 학교 방과후에 센터 자유롭게 이용 가능 ※ 분기별 수요조사에 따라 운영시간 등 유동적 운영
지역사회연계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밖 자원(인적, 공간)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 6) 의의와 한계

### 가) 의의

- ① 학교는 정규교육과정과 학생생활지도에 전념하고 도봉구와 지역사회는 방과후학교를 책임지는 새로운 유형의 공교육 지원 방식 창출했음
- ②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의 참여를 통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 및 공급함
- ③ 업체 위탁에 따른 부작용 극복하고 공공성 공익성 투명성 보장함

### 나) 한계

#### (1) 방과후학교 운영의 전문성과 확장성의 한계

- 학교별로 담당자가 파견되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만 대부분 반일제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존의 코디의 역할을 대체하는 수준임
- 도봉구 직영 방과후학교의 학교별 평균 참여율은 64%로 추정되며, 추정된 참여율만 보면 2022년 서울시 초등 방과후학교 참여율보다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학교당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가 16.4개에 불과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대단히 취약한 상태로 평가됨
-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면 도봉구청내 교육지원과 소속 공무원 3인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구성으로 방과후학교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결국 도봉구가 공공위탁방식으로 방과후학교를 직접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위탁업체에 비해서 질적으로 더 우수한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임

(2) 도봉구청이 직접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한계

- 구청이 직접 수강료 징수할 수 없음(지자체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 구청이 직접 자유수강권을 직접 처리할 수 없음
- 구청 직영이기 때문에 학교 안전공제회 적용대상 아님
- 결과적으로 구청이 직영하지만 학교쪽에서도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 방식임

## 나 지방공기업형 운영 사례 : 중구형 초등돌봄센터<sup>9)</sup>

### 1) 중구형 초등돌봄 현황

- 중구청 모델은 중구청이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초등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임
- 중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중구형 초등돌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하나는 학교내에서 진행되는 학교돌봄터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밖에 중구청 설치하고 운영하는 초등돌봄센터임

### 2) 학교돌봄터 사업

-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하는 돌봄 사업임
- 예산 분담 방식은 학교내 돌봄 시설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25%, 교육청 25%, 지자체 50% 분담
- 중구 관내 모든 공립초(9교)에서 28개 돌봄교실을 운영 중이며, 정원은 700명임(2023년 기준)
- 1실당 2교사제로 운영되며, 돌봄보안관 1명이 배치되고, 급식·간식·석식 무상 지원임
- 교육청이 부담한 시설비를 제외하고, 보건복지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28개 돌봄교실에 대한 2023년 연간 전체 운영예산(인건비 + 운영비)은 약 19억 7천만원임.

9) 지방직영기업이나 지방공사의 형식으로 초등돌봄이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사례는 없으며, 중구형 초등돌봄센터는 중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운영 사례임

### 3) 중구형 학교 밖 초등돌봄교실

- 중구청이 전액 출자한 법인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학교 밖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운영
- 돌봄 자체는 지방공기업법상 ‘공단’의 사업 범위로 볼 것인지 논란 있을 수 있지만, 중구청은 ‘돌봄센터’라는 공간을 시설로 보고,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시설관리공단은 자체 인력으로 돌봄전담사를 채용하고 돌봄교실 공간을 운영 관리함
- 중구 관내 8개의 학교 밖 초등돌봄센터 운영

### 4) 중구형 초등돌봄센터의 이용시간과 제공 서비스<sup>10)</sup>

#### 가) 이용시간

- 학교 안 : 학기중 아침 7:30~9:00/ 방과 후~20:00
- 학교 밖 : 방과 후~20:00
- 방학 중 : 08:00~20:00

#### 나) 제공서비스

- 저녁 8시까지 운영 - 맞벌이 가정 지원
- CCTV 설치로 안전제공 및 문자 알림 서비스로 돌봄교실 입출 안내
- 돌봄교사 2명 배치
- 급식, 간식 포함 센터 이용료 무료 제공
- 양질의 문예체 프로그램 제공
- 학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학원 차량 인솔 서비스

### 5) 중구형 초등돌봄센터 전체 이용 현황

- 학교 안 초등돌봄센터 9개, 학교 밖 초등돌봄센터 8개, 합 17개 초등돌봄센터
- 돌봄교실 수 총 교실 42개, 908명 정원

〈표 VI-9〉 중구형 초등돌봄센터 운영 현황

	센터 수	돌봄교실 수	정원
학교돌봄터	9개교	28개	700명
학교 밖 초등돌봄센터	8개 초등돌봄센터	14개	208명
합계	17개	42개	908명

10) 중구형 초등돌봄센터 2023학년도 이용아동 모집 안내문

- 학교돌봄터의 경우 중구청 관내 9개 공립초등학교 전체가 이용
- 공립초등학생 전체 기준 20.6%에 대해서 돌봄 수혜 가능한 수준이며, 저학년 기준으로 하면 39.5%가 이용 가능함

## 6) 중구형 초등돌봄센터의 의의와 한계

### 가) 의의

#### (1) 지자체를 통한 초등돌봄지원의 효과 입증

- 돌봄시간의 획기적 확대 실현
  - 오전 돌봄, 오후 8시까지 돌봄, 방학중 돌봄
- 돌봄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
  - 중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 소속 호봉 승급과 고용 안정성 등을 보장

#### (2) 적극적인 돌봄 정책을 통해 초등돌봄교실보다 양적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돌봄 제공

- CCTV 설치, 문자 알림 서비스, 돌봄교사 2명 배치, 급식, 간식 무료 제공, 양질의 문예 체 프로그램 제공, 학원 이용을 위한 학원 차량 인솔 서비스

#### (3) 높은 만족도 - 2022년 초 조사 학부모 만족도 99.4%<sup>11)</sup>

### 나) 한계

#### (1) 높은 비용 부담

- 학교돌봄터 사업의 경우 복지부와 교육청이 각각 운영비의 25%를 지원하지만 중구청이 추가적으로 50%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함.
- 특히 학교 밖 초등돌봄센터의 경우 시비와 국비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한 비용은 중구청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임<sup>12)</sup>

#### (2) 학교 안 돌봄 공간 운영의 한계

- 학교 안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돌봄전용 교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공간 사용하는 방식임.

11) 경향신문(2022. 9. 15.)

12)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4년간 중구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배정된 예산은 총 236억원. 이 중에 중구가 18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시비와 국비로 충당했음.(한겨레, 2022. 9. 16.)

- 따라서 중구청 내 초등학교 교실 수 377개로 학교당 평균 약 42개의 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교실로 활용되는 것은 총 28개로 학교당 평균 3.1개 수준임(전체 교실 대비 7.4%)

## 다 노원교육복지재단 - 노원 구립 아이휴센터

### 1) 노원 교육복지 재단

- 노원교육복지재단은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실천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원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임
- 노원구는 구청이 출연한 재단법인인 노원 교육복지 재단을 통해 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노원구가 설치한 돌봄시설(구립 아이휴센터)을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임<sup>13)</sup>

### 2) 아이휴센터

- 방과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지원
- 이용대상 : 만 6~12세(초등학교 1~6학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 이용시간<sup>14)</sup>
  - 학기 중 월~금 12:00~20:00
  - 방학 중 월~금 9:00~20:00
- 인력구성
  - 일반형 : 총 3~4명(센터장 1, 돌봄선생님 2)
  - 융합형 : 총 6명(센터장 1, 팀장 1, 돌봄선생님 2.5, 조리사 0.5)

1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14) 등교전 돌봄 운영시간은 월~금 7:00~9:00 또는 7:30~9:30이며, 각 센터별 사전 수요조사 실시 후 운영 여부 결정함

---

- 운영 현황

- 노원구 관내 27개 아이휴센터 중에서 26개를 노원 교육복지재단 아이휴센터에서 운영<sup>15)</sup>
- 이용 총 정원은 694명임

---

15) 1개소(월계문화센터)는 다른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운영



---



## VII

### 결론 및 제언:

#### 서울시교육청-지자체 공동 ‘방과후학교 재단’ 설립을 통한 질 높은 방과후학교 실현

---

1. ‘학교 외부’의 ‘공적’인 방과후학교 사업단의 필요성
2. 교육청-지자체 컨소시엄을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주체 설립
3. 서울시교육청-지자체 공동 설립 ‘방과후학교 재단’
4. 방과후학교 재단과 관련된 몇 가지 과제

# 결론 및 제언 : 서울시교육청 - 지자체 공동 ‘방과후학교 재단’ 설립을 통한 질 높은 방과후학교 실현

## 1. ‘학교 외부’의 ‘공적’인 방과후학교 사업단의 필요성

방과후학교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취지는 관계자들의 인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의의가 확인되었으며, 질 높은 방과후학교를 기획하는 이유는 그러한 정책목표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내기 위해서다.

본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면 질 높은 방과후학교 실현을 위한 과제는 5가지로 요약된다.

1. 다양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2. 수준 높은 방과후학교 강사의 영입과 관리
3. 출결확인, 하교지도 등 체계적인 학생 관리
4.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 확장된 방과후학교 운영
5. 주말 및 방학 중 방과후학교 운영 기획

그러나 현재와 같이 학교가 직영하거나 업체를 통해서 위탁하는 방과후학교 운영방식으로 는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과제들을 해결해서 질 높은 방과후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외부’의 ‘공적’인 방과후학교 사업단이 요구된다.

### 가 ‘학교 외부’의 방과후학교 사업단의 필요성

#### 1)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부담 해소

기존의 방과후학교는 학교 직영을 하든, 업체에 위탁하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구조이며, 실무적인 책임의 주체는 방과후학교 부장교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방과후학교 부장교사들은 낮은 수준의 업무 수당을 받으면서 과중한 업무부담

을 짊어지고 있다. 결국 지금과 같은 방과후학교는 부장교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탁하는 학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방과후학교 부장교사의 입장에서 ‘책임’을 지면서도 현실적으로 부담을 일정한 수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업체 위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교사집단이 ‘외부의 공적인 사업단에 의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기대와 동의를 표한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된다. 방과후학교 부장교사를 포함해서 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을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맡아주기를 바라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한편, 부장교사들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지만, 이렇게 방과후학교 부장교사들이 방과후학교 책임을 부담스러워하는 조건은 방과후학교를 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방과후학교의 실질적 책임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심각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방과후학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 높은 방과후학교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학교’와 ‘방과후학교 부장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제 방과후학교는 ‘학교로부터 벗어나서 학교와 독립된 공적인 기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과후학교 부장교사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가지고 방과후학교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지만, 사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나 강사 관리의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못한다. 방과후학교 부장교사들도 일차적으로는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과후학교 부장교사들에게 프로그램 평가나 연구개발, 강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방과후학교의 운영관리 및 강사 관리에만 집중하고 이를 전담하는 전문적 조직이 필요하다.

### 3) 방과후학교 운영시간 연장

방과후학교가 돌봄서비스 측면의 정책 목표를 수행하려면 방과후학교 운영시간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학부모들의 응답한 오후 돌봄 평균 시간은 오후 5시 54분이며, 돌봄의 필요 수요를 90% 이상 수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 돌봄체제가 필요하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방과후학교가 돌봄과 연계되고, 실질적인 돌봄서비스의 기능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녁 7시까지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책임지는 조건에서는 방과후학교를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방과후학교를 연장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도 방과후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주체를 '학교 외부'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 나 '공적 기관'으로서 방과후학교 사업단의 필요성

### 1) 방과후학교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방과후학교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의 의의, 투입되는 공적인 예산, 학교라는 공적 시설의 활용 그리고 대부분의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그 수혜 대상임을 고려할 때 방과후학교가 공적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운영은 '민간의 영리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과후학교는 전문적이면서도 공공성이 실현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방과후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자체가 '공적'인 기관이어야 한다.

### 2) 방과후학교 강사의 처우개선 및 질적 수준 향상

연구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핵심적 문제는 결국 수준 높은 방과후학교 강사의 영입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적 기관에 의한 방과후학교 운영은 강사의 수입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된다. 강사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없앨 뿐 아니라, 방과후학교 강좌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고, 나아가 개별적으로 방과후학교 계약을 위해 노력할 필요 없이 공적 기관에 등록하고, 자신의 프로그램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것만으로 재계약이 용이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교육청-지자체 컨소시엄을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주체 설립

### 가 교육청 독자적인 사업단 구성의 문제

단위학교 ‘외부’에 ‘공적인 방과후학교 사업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방과후학교 사업단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방과후학교 사업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1) 학교 정규과정과 분리된 방과후학교 운영의 어려움

단위학교는 교육청 관할 하에 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 사업단도 교육청이 설치한 기관이라면, 단위학교는 사실상 방과후학교 사업단과 형식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분리되기 어렵다. 따라서 애초에 학교 외부에, 학교 운영과는 독립된 방과후학교 운영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

#### 2) 방과후학교 관련 집단의 고용 부담

방과후학교 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 평균 1.5명의 운영인력(현재의 방과후 코디 역할)을 고용해야 하며, 경영지원(수강료 수납, 강사료 정산, 자유수강권 정산, 운영비 지출등), 프로그램 평가 및 개발, 강사 선발과 배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야 하는 직원들도 채용해야 한다. 서울 전체로 확대한다고 가정하면 단위학교 관리자만 900명 이상이 고용되어야 하고, 추가적 관리 업무 담당자를 포함하면 상당한 수의 인원이 필요한데, 이들을 모두 교육청이 직접 고용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질 높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 인력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근로여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청이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사실상 교육공무직 수준의 근로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전문 인력의 수급은 불가능하다.

#### 3)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 부담

방과후학교 사업단에 의한 운영이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사료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해결하더라도, 그 외 실무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모두 공적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서울시교육청이 독자적으로 방과후학교 사업단을 운영한다면 그에 대한 예산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 **나** 지자체 단독 방과후학교 운영의 문제

지자체가 단독으로 방과후학교 사업단을 구성하고 단위학교와 공공위탁 방식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에도 몇 가지 난점이 있다.

첫째로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은 전적으로 지자체 단체장의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사업에는 일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sup>1)</sup>

둘째, 지자체가 직영하는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나 강사관리, 운영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지자체가 직접 학교의 방과후학교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업체위탁 이상의 질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셋째, 방과후학교 관련 인력에 대한 인건비(강사로 별도)와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지자체가 모두 감당하는 것은 예산상의 부담이 되며, 이러한 부담이 누적되면 방과후학교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 **다** 교육청 - 지자체 컨소시엄을 통한 방과후학교 사업단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방과후학교 사업단을 운영할 때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공적인 방과후학교 사업단을 추진하는 방안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방과후학교 사업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방과후학교 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도봉형 방과후학교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은 전국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 1) 학교 정규과정과 방과후학교 운영의 완전한 분리와 독립적 운영

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의 부담을 완전히 덜고, 정규교육과정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방과후학교 사업단도 교사들의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의 방식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 2) 관련 인력에 대한 공적 채용을 보장하면서 직접 고용의 부담 완화

교육청과 지자체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과후학교 사업단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인 성격의 기관이지만, 교육청과 지자체의 직할 조직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독립적 법인으로 설치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단이 방과후학교 관련 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일정하게 공적인 채용구조와 근로 조건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교육청과 지자체는 직접 고용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 3) 방과후학교 운영 부담 완화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방과후학교 사업단을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 양 기관이 운영 예산을 분담함으로써 교육청과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된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질적으로 수준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는 사업이 될 때 그 사업의 지속성도 보장될 수 있다.

## 4)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초등돌봄 공동사업의 토대를 마련

대부분의 지자체가 ‘초등돌봄 사업’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해서 다양한 돌봄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지자체와 별개로 초등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분산적으로 추진되는 돌봄 사업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며, 실제로 학부모가 체감하는 돌봄 효과는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만일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추진하는 돌봄사업을 통합하여, 학교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동운영한다면 돌봄 사업의 효율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한편, 방과후학교 사업은 돌봄과 무관하지 않다. 오히려 돌봄사업은 방과후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질 높은 돌봄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과후학교와 돌봄이 연계되는 경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연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교육청-지자체 공동 ‘방

과후학교 사업단'은 '방과후학교'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등돌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 3. 서울시교육청 - 지자체 공동 설립 '방과후학교 재단'

#### 가 서울시 교육청 - 지자체 컨소시엄의 법적 지위 : 재단법인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방과후학교 사업단을 설립하고 이 기구를 통해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또한 교육청이 이 사업방식에 시설과 자원,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 1) 지자체 직영 또는 지방공기업 방식의 문제점

지자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지자체가 직접 사업하는 방식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직영회사 또는 공사나 공단을 통해 사업하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지자체 직영이나 공기업형 방식은 모두 교육청과 컨소시엄을 통해 방과후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 가) 지자체 직영방식의 문제

도봉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자체 직영으로 초등 방과후학교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가 직영하는 사업에 대해 교육청이 일정한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투자'하거나 '공동 운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자체 직영방식의 구조로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컨소시엄 방식의 방과후학교 사업단을 구성하기는 어렵다.

##### 나) 지방공기업형 방식의 문제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 방식의 접근도 교육청과 지자체의 컨소시엄 구성 방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우선 방과후학교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방공기업 형태로 방과후학교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 또한, 교육청은 지방공기업 설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방식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사업단을 만들기는 어렵다.

## 2) 현실적 대안 : 교육청-지자체 공동 출연에 의한 '방과후학교 재단'

현행법령에 기초할 때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방과후학교 사업단을 구성하는 최선의 방식은 공동 출연을 통해 재단법인 형태로 '방과후학교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다.

재단법인을 통한 방과후학교 사업 주체를 구성하는 것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서울시교육청 출연 및 공동 출연 가능

'재단법인'은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모두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 나) 교육청과 지자체의 보조금 교부 가능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단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재단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 다) 공공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방과후학교재단'은 사실상 일종의 공적 기관으로서 방과후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쉽다. 또한, '방과후학교재단'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평가 및 개발,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처우 개선, 학교 내 상시근무하는 센터장을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 확보,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학부모와의 소통 등의 문제에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 라) 교육청과 지자체의 부담 완화와 사업 지속성 확보

교육청 단독 사업 또는 지자체 단독으로 사업하는 경우, 각 기관의 재정 부담이 크며, 이로 인해 방과후학교 사업(돌봄사업도 마찬가지임)을 확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성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동설립을 통한 재단의 운영은 양 기관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분담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완화된 부담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 마) 서울시교육청과 지자체 공동의 돌봄 사업의 토대 마련

### 〈보론 : 교육청-지자체 공동 돌봄사업의 필요성〉

지자체가 돌봄 사업에 적극적인 이유는 돌봄 지원이 주민 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추진하는 돌봄사업이 지자체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최근에는 학교돌봄터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지자체가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추가적으로 지자체 독자적인 틈새 돌봄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직접 연계되지 않고 분산적으로 집행되는 지자체 주도의 초등 돌봄사업은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돌봄효과는 크지 않은 편이며, 돌봄의 질적 수준도(예를 들면 교육적 돌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높지 않은 편이다.<sup>2)</sup>

예를 들면, 서울시 A 구청의 경우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자체 자체 운영 돌봄 센터를 통해 초등돌봄을 지원하면서 운영비로만 연간 30억원 이상을 투입하지만, 돌봄 수혜를 받는 학생들은 관내 초등학교생의 4.2% 수준인 550여명에 불과하다.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돌봄을 운영하지도 못하면서 학생 1인당 월 평균 46만원 이상의 돌봄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sup>3)</sup>

한편 교육청은 지자체의 돌봄사업과 별개로 교육부의 정책사업인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한다. A구청의 경우 관내 15개 학교에서 50개의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는데, 교실당 전일제 돌봄전담사가 1명씩 배치된다고 가정하면, 시설비나 운영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인건비로만 연간 15억원 이상이 소요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통해 돌봄 혜택을 받는 학생 수는 15개 학교 학생의 9.6%에 불과하다.

2)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위생/건강 관리, 급식 및 간식 등 기본 돌봄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기반의 배움 활동 정도가 진행되고, 지역아동센터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나 정서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다.

정서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3) A 구청 돌봄 관련 내부 자료

이와 같은 사례는 중앙부처에서부터 복지부와 교육부로 돌봄정책이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그 결과 실제 돌봄이 실행되는 기초단체 수준에서 돌봄사업이 극도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4)</sup>

만일 A구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돌봄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를 세우고, 학교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재원만으로도 A구청 관내 초등학생의 50% 수준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에게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복지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향후 기초지자체와 서울시교육청이 힘을 합쳐서 돌봄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돌봄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라 할 것이다.

한편 초등학생의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의 핵심은 돌봄 시간을 활용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인데,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 돌봄에서는 돌봄전담사(돌봄교사)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기껏해야 별도의 추가적인 일부 비용을 들여서 외부 강사를 부분적으로 초빙하여 교육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양적으로도 제한적일 뿐 아니라 질적 수준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실 초등학생의 돌봄 시간에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적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방과후학교와 연계하는 것이다. 예컨대 돌봄교실은 일종의 ‘돌봄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하고 돌봄전담사의 관리와 책임하에 학생들은 매시간 원하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돌봄교실이 운영하는 것이다.<sup>5)</sup>

하지만 현재와 같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돌봄센터에서 방과후학교의 원활한 연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돌봄은 일종의 복지서비스로 인식되어서 지자체의 사업영

4) 여가부에서도 청소년 아카데미라고 하는 일종의 돌봄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로 논하지는 않는다.

5) 중구형 초등돌봄센터가 학원 이용을 위한 학원 차량 인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획을 한 것은 돌봄교실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학원을 이용하면서도 돌봄센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돌봄센터(교실)이 학교내에 위치한다면 차량 인솔 서비스가 없이도 가능하다.

역이라고 인식하지만, 방과후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청과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자체가 수준 높은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돌봄 정책의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으며, 또한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와 적극적인 연계가 가능한 돌봄시스템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돌봄과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실행하는 방안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교육청과 지자체 공동의 방과후학교 재단 설립과 운영은 이후 초등돌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 나 방과후학교재단의 조직과 경영

### 1) 방과후학교 재단의 기본 특성

구체별로 설립되는 교육청-지자체 방과후학교재단의 기본 조직 구성과 운영방식은 현재 방과후학교 영리 업체의 조직 및 운영 방식과 유사할 것이다. 다만, 방과후학교재단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고 양 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방과후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전담하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조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 2) 방과후학교재단 구성

재단의 조직 구성은 재단 설립시에 정관에 의해 자세하게 규정될 것이지만, 대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직 구성이 가능하다.

- 이사회 - 지자체와 교육청 공동 구성
- 이사장 - 지역내 방과후학교 사업의 책임자
- 사무국장 - 방과후학교 운영 실무 책임자
- 감사
- 집행부서 - 경영지원팀/강사 관리팀/프로그램 연구 개발팀/학교관리팀
- 단위학교 센터장 (부센터장) - 현재 코디 역할 (전일제 근무)



[그림 VII-1] 방과후학교재단 조직 구성의 예

### 3) 방과후학교 재단의 경영목표와 평가 지표

#### 가) 경영 목표

교육청과 지자체의 기본출연금과 매년 지원되는 보조금, 그리고 수익자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재단은 가장 효율적으로 지역 내 방과후학교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이때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경제적 수익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방과후학교 재단의 경영목표는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재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질 높은 방과후학교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 나) 경영 평가 지표

질 높은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 (1) 높은 참여율, 더 많은 참여과목, 높은 만족도 실현

질 높은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첫 번째 지표는 더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운영되는 방과후학교라면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특기 적성을 함양하는 데에도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2) 교육격차의 완화

질 높은 방과후학교는 ‘교육격차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방과후학교를 평가하는 두 번째 지표는 저소득층의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을 포함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측정 평가하는 것이다.

### (3) 사교육 부담 완화

질 높은 방과후학교는 초등학생의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사교육비의 추이,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참여시간을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 (4) 돌봄 부담 완화

질 높은 방과후학교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방과후학교를 평가하는 또 다른 지표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참여과목이 많아지는 것 자체도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 중의 하나가 된다. 또한, 방과후학교가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의 변화,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의 확대 등도 평가지표가 되어야 한다.

## 4. 방과후학교 재단과 관련된 몇 가지 과제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방과후학교재단’을 통해 질 높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방과후학교 관련 이해 집단과의 소통과 동의 형성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청-지자체 공동설립 재단에 의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 가 방과후학교 관련 이해 집단과의 소통과 동의 형성

방과후학교 재단을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설득과 동의 형성을 위한 소통 과정이 필요한 집단은 방과후학교 강사와 교사들이다.

#### 1) 학교 외부의 사업단에 대한 방과후학교 강사의 우려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학교 외부의 공적인 방과후학교 사업단’에 의한 방과후학

교 운영에 대해서 관련 집단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특히 방과후학교 담당 부장교사, 교감/교장, 일반교사 등 학교 교사집단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기대와 동의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학교 외부’의 방과후학교 사업단 운영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일부는 강한 우려와 거부감까지 표출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방과후학교 사업단’에 대해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외부의 사업단’은 결국 ‘영리성을 추구하는 민간위탁’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따라 강사들의 고용 안정성도 악화되고 수입도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인식은 부분적으로는 ‘학교 외부’의 ‘공적’인 방과후학교 사업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공적인 방과후학교 사업단을 통한 운영이 오히려 강사들의 수입 증대와 일자리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영리성 추구의 민간위탁’에 대한 오해가 해결되고, 공적인 재단에 의한 방과후학교 운영이 강사들에게 더 나은 고용조건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소통되면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우려와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교육청-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방과후학교재단은 ‘영리를 위한 민간업체’가 아니다. 또한, 재단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다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 또한, 교육청-지자체 공동 방과후학교 재단을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사들의 수입 증대와 일자리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 가) 수수료 최소화

방과후학교 재단은 영리 업체와 달리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강료와 교재 판매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교육청과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해결한다. 따라서 고용된 강사에게 업체와 같은 수수료를 공제할 이유가 없으며, 수강료의 거의 전부를 강사료로 책정하게 된다. 따라서 강사들의 수입은 현재의 조건에서도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 나) 방과후학교 수강료 인상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업역량이 뛰어난 강사



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뛰어난 강사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강사로 수입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일정 수준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질 높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교감/교장, 학부모 평균 61.3%가 동의하며, 특히 학부모의 경우 동의 비율은 63%로 가장 높다.

따라서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단계적으로 일정 수준 수강료를 인상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며 이것이 방과후학교 강사의 수입 증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다) 방과후학교 강좌 수 확대**

학교별 전국 평균 방과후학교 강좌 수는 공립학교의 경우 약 30개, 사립학교의 경우 약 70개로 거의 40개 정도 차이가 난다. 방과후학교 재단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은 현재와 같은 공립과 사립의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공립학교당 평균 10개 강좌를 추가로 개설할 경우 서울에서만 약 6,000개의 방과후학교 강좌가 신규로 개설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20개를 추가로 개설하면 1,2000개의 강좌가 신규로 확대된다. 이와 같은 강좌 수의 확대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일자리가 더 많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 **2) 일반교실 활용에 대한 공립 초등학교사들의 거부감 문제**

현재 방과후학교의 교육공간에 대한 관련 집단의 인식은 '보통보다는 나은 수준이지만 충분하지는 못하다는 것'이다. (5점 척도 기준 전체 평균 3.42점) 특히 방과후학교 부장교사의 경우 현재 교육공간의 충분성에 대한 응답 평점이 2.91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통 수준도 되는 않는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런데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수와 강좌수도 더 많아지고, 학생별로 참여과목 수도 증가한다면 필연적으로 교육공간은 더 부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과정에서 학교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지고, 이에 따라 일반교실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교실을 방과후학교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 집단(교감/교장, 방과후학교 부장, 일반교사)의 87.1%가 동의하지 않는 것에서 보듯이 교사들의 거부감이 상당하며, 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교실은 단순히 수업공간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연구 공간이며, 휴게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방과후에 교실을 방과후학교의 교육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담임교사가 갈 곳이 없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담임교사들에게 별도의 연구실과 휴게실을 제공한다는 조건에서도 교사집단의 73.4%가 일반교실 활용에 반대했다.

방과후에 일반교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활동을 하게 되면 학교의 시설과 학생의 안전에 관한 책임으로부터 교사들이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연구실과 휴게실을 제공하고, 시설과 안전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완전히 책임진다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에도 교사집단의 60.9%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 있듯이 일반교실 활용에 대한 입장에서 공립교사들과 사립교사의 의견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일반교실 활용에 대해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사집단 전체'가 아니라 '공립교사 집단'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일반교실 활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공립은 82.8%, 사립은 45.5%다. 사립교사들도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반대하지만 그 비율은 공립보다 37.3%나 낮다.

또한, 연구실과 휴게실을 지원한다는 조건이 제시되었을 때 사립교사들의 반대 비율은 24.2%로 줄어들었다. (공립교사들은 이 조건에서도 여전히 74.7%가 반대했다.) 그리고 시설과 안전에 대해 교육청이 책임진다는 조건에서 사립에서의 반대의 비율은 19.7%에 불과하다. (공립은 62%가 반대했다.)

사립학교 교사들의 경우 담임교사의 연구실과 휴게공간이 확보되고, 시설과 안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면 대다수가 일반교실 활용에 찬성하는 것이다. (연구와 휴게공간 및 시설과 안전 교육청 책임 조건에서 사립교사의 동의 비율은 74.2%다) 그렇다면 공립학교

교사들이 이러한 조건에서도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에서는 초등학교의 교실은 다음 날의 수업을 미리 준비해두는 공간이기도 한데, 방과후에 강사들과 학생들이 교실을 이용하게 되면 다음 날 수업 준비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교사들이 교실 사용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사립학교 교사들도 다음 날 수업 준비 차질을 고려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반 교실 활용과 관련된 공립교사들의 태도는 ‘교사들의 실제적인 편익’이나 ‘교육적 필요’의 이유보다는 ‘정서적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자신이 수업하고 관리하는 교실에 다른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싫기 때문인 것이다. 사실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에게 이러한 정서가 있다는 이해할 만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정서가 공립과 사립교사들에게 전혀 다른 수준으로 표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공립교사들이 사립교사들에 비해서 ‘교실 공간에 대한 교사의 점유권 의식’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상대적으로 공립학교 교사들은 교실을 ‘공적인 공간’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의식이 훨씬 강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교실의 활용 문제는 당장 시급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아니다. 또한, 지역과 학교에 따라 일반교실 활용의 필요성의 정도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교실 활용을 둘러싼 교사들의 거부감이 당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향후 방과후학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이에 대한 접근은 최대한 교사의 편익을 보호하면서 교사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나 법률적인 보완 과제

교육청-지자체 공동 출연에 의한 방과후학교재단을 설립하고,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미 유사한 선례들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이러한 사업모델이 보편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법률에 대한 일정한 보완은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한 중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사업영역에 대한 보완

### 가) 지방출자출연법 따른 기관의 사업영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 출연 기관의 사업 영역은 다음의 2가지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①)

따라서 위의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방과후학교'나 '돌봄 사업'은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한 사업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 나) 현행법 체계에서 돌봄사업을 진행하는 선례

지방출자출연법에는 '돌봄'사업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자체가 출연한 재단 법인을 통해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선례가 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이나 오산교육재단이 대표적인 사례다. 두 재단은 모두 지자체 출연 재단법인이며,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서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오산교육재단의 경우 정관에 재단설립의 목적을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사업,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단의 사업내용으로 “문화예술, 체육, 창의체험, 진로 교육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활동 지원”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규정하여, 실제로 돌봄 위탁 사업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 '방과후학교 위탁사업'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sup>6)</sup>

따라서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에 '방과후학교'나 '돌봄' 사업이 사업영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선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방과후학교 운영 재단을 통해 방과후학교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6) 오산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조, 제4조 참조

### 다) 방과후학교 사업(및 돌봄사업) 추가의 필요성

하지만 방과후학교나 돌봄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에 심리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제생활 안정, 더 나아가 오늘날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유력한 공적 차원의 사회정책 서비스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지역적 차원의 주민 복리 증진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교육청이 출연하는 기관이 방과후학교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 보완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특히 향후 이와 같은 서비스가 일반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적 근거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위해서 지방출자출연법 4조①에 “방과후학교 및 돌봄사업”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2)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출자한 기관의 지정 및 고시의 주체 문제 보완

###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과 교육비특별회계 출자 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과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기관을 구분하고 있으며, 지자체 설립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기관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제5조 및 제2조의2)

### 나) 고시 주체의 문제 명확화

따라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할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지정 및 고시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실무적으로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약에 의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동출자의 형태로 방과후학교 기관을 설립할 경우 이에 따른 예외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3)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 문제

### 가) 학교 안전법과 학교장의 책임

학교 안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제2조, 제5조, 제8조의2)

따라서 서울시교육청과 지자체 공동으로 설립한 ‘학교 외부의’ 재단법인에 의해 방과후학교

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시설 책임과 학생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학교장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나) 현행법의 조건에서 학교장의 책임 이양 사례

현행 학교안전법의 조건에서도 학교 외부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학교장의 시설과 안전에 관한 책임을 이양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학교돌봄터 사업의 경우 지자체-교육청-학교 간의 업무협약에 기초해서 학교는 돌봄에 필요한 유희교실 및 학교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자자체는 학교돌봄터 운영과 이용 아동의 안전 보장, 돌봄시설 관리 등을 책임진다.<sup>7)</sup>

따라서 교육청-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재단이 학교내 시설을 이용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자체-교육청-재단-방과후학교의 협약에 근거해서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다) 학교안전법 예외 조항 신설 필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감의 승인하에 학교에서 방과후학교와 돌봄 사업 등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위탁협약을 통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의 의무와 책임을 이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7) 하봉운 외(2021). 경기도형 지자체-학교협력을 통한 초등돌봄체계 구축방안. 경기도교육청. p. 93.

## [참고문헌]

### [논문 및 보고서]

- 강신천, 양애경, 정영모, 신은섭, 허성기(2017).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기반한 방과후학교 운영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강영택, 김정숙(2012).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에 대한 사례연구: 홍성군 홍동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43, 27-49.
- 교육부(2004). 방과후 운영 기본계획. 보도자료, 2004. 12.
- 교육부(2022). 202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 보도자료, 2022. 3. 11.
- 교육부(2023). 2025년부터 전국에서 ‘늘봄학교’ 운영…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 2023. 1. 9.
- 교육인적자원부(2006).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자녀 대상 무료 수강 실시, 보도자료, 2010. 10. 10.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 김기홍(2006). 지역네트워크와 방과후학교 활성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석우, 한홍련(2008). 중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평가 연구. 교육평가연구, 21(1), 27-53.
- 김선영, 백지원(2020).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교육문화연구 26(4), 59-78.
- 김성식(2022). 코로나19 이후 사교육과 방과후학교 참여 양상의 변화 분석: 방과후학교의 사교육 경감 효과를 중심으로. 방과후학교연구, 9(1), 75-102.
- 김성희(2023). 학교의 관점에서 본 늘봄학교 시행의 과제. 교육정책포럼, 356, 15-19.
- 김수동(2007). 방과후학교의 장애요인 및 극복과정&#12539;전략과 정책연구과제 탐색. 열린교육연구, 15(3), 127-150.
- 김수동, 윤준영, 정영모(2017). 방과후학교의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안.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2), 855-864.
- 김인경(2021).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초등교육 개선방향: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김현철(2007). 방과후학교 및 EBS 수능방송의 정책 효과 분석. 교육인적자원부.
- 김홍원(2006). 2006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2007). 2007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2008). 2008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2012). 방과후학교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노승용, 오승은(2013).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운용실태 및 효율화 방안-A 광역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7(3), 249-27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22). 110대 국정과제.
- 도봉구청(2023). 도봉형 초등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현황 자료. 도봉구청 교육지원과 내부자료.
- 문지영, 김현철, 박혜연(2018). 사교육비 및 사교육참여율에 대한 방과후학교의 효과. 교육행정학연구, 36(1), 329-354.
- 박승재, 정영식, 하봉운, 이재원, 박성민, 이혜나, 정은주, 정보미(2017). 방과후학교 참여율 제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주형, 오범호, 김민규(2019). 온종일 초등학교 제체 정립 및 운영 방안 연구. 재단법인 우리교육연구  
구소 정책 연구보고서.
- 배상훈(2006). 방과후학교의 정책적 의의, 성과 및 향후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배상훈(2014). 방과후학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방과후학교연구, 1(1), 1-17.
- 배인숙(2023). 경남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사례로 살펴본 초등전일제 교육 시행 과제. 교육정책포  
럼, 356, 20-23.
- 서울시교육청(2022). 2022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 서울시교육청(2022).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내부자료.
- 서울시교육청(2023). 방과후학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팀 내부자료.
- 신기왕(2018). 방과후학교 운영 모형 연구. 방과후학교연구, 5(1), 1-16.
- 우길주, 김숙정, 양애경, 박미혜, 천세은(2008).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모델 및 자료집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이미애, 김재근(2015). 지방자치단체 문화서비스 운영방식의 성과 평가: 문화예술회관의 상대적 효  
율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정보, 49(4), 271-296.
- 이성희(2023). 정직한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 늘봄학교는 우리 학교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가? 교육정책포럼, 356, 4-9.
- 이희현, 김효정, 윤현희, 이슬아(2022). 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 쟁점 및 운영 모델 탐색(IP 2022-  
06).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현, 모화숙, 김성기, 하봉운(2021).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현, 황준성, 김민희, 하봉운, 김성기(2019).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및 내실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현, 황준성, 김은경, 김정현, 배현순(2020).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방과  
후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임선일, 전호성, 이선영(2017).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모델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 임현정, 신혜숙, 김홍원, 차성현, 김정현(2013).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Ⅱ) - 방과후학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제 7차 저출산고령화포럼 자료집.
- 전희경(2019). 점점 외면받는 방과후학교. 전희경의원실 국정감사자료(2019. 10. 2).
- 정영모(2022). 방과후학교의 제도화와 학생 참여율. 방과후학교연구, 9(2), 85-106.
- 정재훈(2023). [기획특집 3] 늘봄학교의 필요성과 과제. 젠더리뷰, 68, 23-30.
- 정현웅(2020).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 분석(대전광역시 초중고 중심으로). 방과후학교연구, 7(1), 35-56.
- 주정훈, 강민정, 김세희, 김보영, 최정운(2017). 학교와 자치구가 협력하는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방  
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중구청(2023). 중구형 초등돌봄센터 2023학년도 이용아동 모집 안내문. 중구청 중구교육지원센터.
- 하봉운, 김성기, 정덕희(2021). 경기도형 지자체-학교 협력을 통한 초등돌봄체계 구축방안. 경기도교육청.
- 한성민(2021).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행정안전부(2023).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현황. 행정안전부 공기업관리과 내부자료.



---

## A 초등학교,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 [신문기사]

경향신문(2022. 9. 15.) 만족도 99% '중구형 초등돌봄' 왜 직영 중단하나  
노컷뉴스(2023. 4. 23.), 늘봄학교 시범사업 한달... 결국 교사들만 '죽을맛'  
한겨레(2022. 9. 16.), “초등돌봄 때문에 이사 왔는데...” 구청장 바뀌자 ‘직영 중단’ 논란.  
한겨레(2023. 5. 17.) ‘늘봄학교’ 100곳 늘린다는데... “인력·공간 없이 속도전” 우려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2023.6.13. 공포, 2023.7.14. 시행)  
「오산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2005.3.15. 공포, 2005.3.15. 시행)  
「지방공기업법」(2017.7.26. 공포, 2017.7.26. 시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

### [홈페이지 등]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https://www.data.go.kr>)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s://kess.kedi.re.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seoul.go.kr>)  
클린아이 홈페이지(<https://www.cleaneye.go.kr>)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







# 서울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초등 교장 · 교감용)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우리교육연구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위탁으로  
서울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과 발전을 위한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의 경험과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 관내의 모든 초등학교 교장 · 교감선생  
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익명으로 처리  
되고 교육청의 정책개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설문조  
사 예상 소요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부디 귀한 시간을 내셔서 서울 초등 방과후학교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 우리교육연구소, 02-578-2377, educrit@gmail.com

---

## 인적사항

1 근무학교 소재지를 선택해주시오. (가나다 순)

(자치구 리스트)

2 근무학교의 설립유형을 선택해주시오.

① 국 · 공립

② 사립

3 직위를 표시해 주십시오.

① 교장

② 교감

4 성별을 표시해주시오.

① 여성

② 남성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취지

5 다음과 같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취지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목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잘 모르겠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학생의 다양한 재능과 특기 적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격차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학교에 의한 돌봄 시간 확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6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업체를 선정할 때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최저가격”이 선  
정의 최종 기준이 됩니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 “최저가격이 중요  
한 결정기준이 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 ② 찬성하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반대하는 편이다.
- ⑤ 매우 반대한다.

7 근무하시는 학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 근무하시는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의 수업역량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수업역량이 뛰어난 방과후학교 강사를 선발하기 위해서 다음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수업 질에 비례하는 적정 수준의 강사료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충분한 시설과 공간	①	②	③	④	⑤
강사를 위한 강사실, 휴게실 등 근무여건 지원	①	②	③	④	⑤
강사에 대한 학교와 보호자, 학생의 존중	①	②	③	④	⑤
학생과 보호자 만족도 평가 결과의 실질적 반영	①	②	③	④	⑤

10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부담되지 않는 적정 수준의 수강료	①	②	③	④	⑤
강사의 수업역량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램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국,영,수 등 주요교과 프로그램 개설	①	②	③	④	⑤
출결 확인, 하교 지도 등 체계적인 학생 관리	①	②	③	④	⑤

11 근무하시는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우수하다.
- ② 우수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우수하지 못한 편이다.
- ⑤ 매우 우수하지 못하다.

12 교장, 교감선생님들께서 관리하시는 학교 운영 사안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 중에서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대해 기울이는 관  
심과 노력의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 ① 매우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다.
- ③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는 못하는 편이다.
- ④ 거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예산에  
대한 인식**

13 근무하시는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수강료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은 편이다.
- ② 높은 편이다.
- ③ 적절한 편이다.
- ④ 낮은 편이다.
- ⑤ 매우 낮은 편이다.

1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높이기 위해서는 수강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동의하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5 교육청 지원 예산, 지자체 지원 예산을 포함하여 현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 지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 ② 충분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부족한 편이다.
- ⑤ 매우 부족하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을 위한 기관 의 역할

- 16 다음 각 개인 및 조직들이 현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잘 모르겠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	①	②	③	④	⑤
학교운영위원회	①	②	③	④	⑤
교장/교감	①	②	③	④	⑤
교육지원청	①	②	③	④	⑤
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 방과후학교 시설활용과 마을연계

- 17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교육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18 “방과후학교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실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동의하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9 일반교실 사용과 관련한 전제조건 제시를 읽고 답해 주십시오.  
“담임교사들에게 별도의 연구실과 휴게실을 지원한다면 방과후 학교에서 일반교실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동의하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0 일반교실 사용과 관련 추가 전제조건 제시를 읽고 답해 주십시오.  
“담임교사들에게 별도의 연구실과 휴게실을 지원하고, 교내 시설과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 완전히 책임진다면 방과후학교에서 일반 교실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동의하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1 ‘마을 방과후학교’ 등과 같은 지역 연계 방과후학교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실효성이 있다.
- ② 실효성이 있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실효성이 없는 편이다.
- ⑤ 전혀 실효성이 없다.

## 학교 외부의 공적인 사업단을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22~24) 다음 설명을 자세히 읽고 답해 주십시오.

- 교육청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단(가칭)'이라는 공기업 또는 공적인 사업단을 만들고, 사업단에서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모델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 학교 외부의 공적인 사업단이 프로그램 수요조사, 프로그램 개설, 수강료 수납, 강사 고용,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평가 등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방식입니다.
- 이 방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가 운영되는 동안 학교 시설과 학생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업단이 집니다.
- 이와 같이 방과후학교 사업단이 방과후학교 운영을 전담하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교사도 따로 배정하지 않습니다.

22 위의 제안과 같이 '방과후학교 운영사업단'에 의해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때 기대되는 다음의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잘 모르겠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학교와 교사의 방과후학교 운영 부담을 해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에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시설관리와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해결되면 현실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학교 강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체계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학교 강사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위의 제안과 같이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단'이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시설과 학생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 ② 찬성하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반대하는 편이다.
- ⑤ 매우 반대한다.

24 위의 제안과 관련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간략히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정책  
연구에 대한 자유  
의견**

25 본 연구와 관련된 자유의견이 있으시면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서울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초등 방과후학교 업무담당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우리교육연구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위탁으로  
서울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과 발전을 위한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방과후학  
교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경험과 의견이 꼭 필  
요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 관내의 모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부  
장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익명으로 처  
리되고 교육청의 정책개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설문  
조사 예상 소요 시간은 약 15분입니다.

부디 귀한 시간을 내셔서 서울 초등 방과후학교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 우리교육연구소, 02-578-2377, educrit@gmail.com

---

## 인적사항

1 근무학교 소재지를 선택해주시요. (가나다 순)

(자치구 리스트)

2 근무학교의 설립유형을 선택해주시요.

① 국 · 공립

② 사립

3 성별을 표시해주시요.

① 여성

② 남성

4 총 교사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⑥ 25년 이상

5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로 일한 경력은 얼마나 되시나요?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취지

6 다음과 같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취지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목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잘 모르겠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학생의 다양한 재능과 특기 적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격차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학교에 의한 돌봄 시간 확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방과후학교 운영 방식

### 7 근무하시는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방식은 무엇입니까?

- ① 직영
- ② 비영리 기관 위탁
- ③ 민간 영리 업체 위탁
- ④ 직영과 위탁 혼합

#### 7-1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영 답변자에게만 보이게 설정)

- ① 위탁업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 ② 학교방침이기 때문에
- ③ 보호자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 ④ 학교 교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 ⑤ 기타

#### 7-2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고려하십니까?

(직영 답변자에게만 보이게 설정)

	매우 고려한다	고려한다	보통이다	고려하지 않는다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보호자 수요조사	①	②	③	④	⑤
학생 수요조사	①	②	③	④	⑤
강사 수급	①	②	③	④	⑤
학교 운영위 제안	①	②	③	④	⑤
교장/교감의 제안	①	②	③	④	⑤
교사의 제안	①	②	③	④	⑤



**7-3** 방과후학교 강사를 선발할 때, “공식적인 심사기준과 별개로” 다음의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체크해주시요.

(직영 답변자에게만 보이게 설정)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면담시 평가된 인성 또는 이미지	①	②	③	④	⑤
강사 연령대	①	②	③	④	⑤
강사 성별	①	②	③	④	⑤
강사 출신학교	①	②	③	④	⑤
주변 학교 및 교사 추천	①	②	③	④	⑤
지원한 프로그램 관련 경력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학교에서 지도한 경력	①	②	③	④	⑤
강사로 포함한 강좌 수강료	①	②	③	④	⑤
강사 수급 여건	①	②	③	④	⑤

**7-4**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최저가격이 선정의 최종 기준”이 됩니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 “최저가격이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 답변자에게- ②, ③ 응답자에게만 보이게 설정)

- ① 매우 찬성한다.
- ② 찬성하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반대하는 편이다.
- ⑤ 매우 반대한다.

- 8 방과후학교 강좌에 대한 수요조사는 학교에서 개설 가능한 강좌를 제시하고 수요조사를 하는 강좌선택 수요조사와 강좌 제시없이 보호자가 원하는 강좌가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강좌요구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어떤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강좌선택 수요조사와 강좌요구 수요조사를 모두 한다.
- ② 강좌선택 수요조사만 한다.
- ③ 강좌요구 수요조사만 한다.
- ④ 수요조사를 하지 않는다.
- ⑤ 기타

##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

- 9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방과후학교 업무의 부담 정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부담된다.
- ② 부담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10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은 편이다.
- ② 비교적 높은 편이다.
- ③ 적절한 편이다.
- ④ 비교적 낮은 편이다.
- ⑤ 매우 낮은 편이다.

## 방과후학교 운영 평가

11 근무하시는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2 근무하시는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의 수업역량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3 수업역량이 뛰어난 방과후학교 강사를 선발하기 위해서 다음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수업의 질에 비례하는 적정 수준의 강사료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충분한 시설과 공간	①	②	③	④	⑤
강사 출신학교 강사를 위한 강사실, 휴게실 등 근무여건 지원	①	②	③	④	⑤
강사에 대한 학교와 보호자, 학생의 존중	①	②	③	④	⑤
학생과 보호자 만족도 평가 결과의 실질적 반영	①	②	③	④	⑤

- 14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부담되지 않는 적정 수준의 수강료	①	②	③	④	⑤
강사의 수업역량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램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국,영,수 등 주요 교과 프로그램 개설	①	②	③	④	⑤
출결 확인, 하교 지도 등 체계적인 학생 관리	①	②	③	④	⑤

- 15 근무하시는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우수하다.
- ② 우수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우수하지 못한 편이다.
- ⑤ 매우 우수하지 못하다.

- 16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로서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대해 기울이는 관심과 노력의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으십니까?

- ① 매우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다.
- ③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는 못하는 편이다.
- ④ 거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예산에 대한 인식

17 근무하시는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수강료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은 편이다.
- ② 높은 편이다.
- ③ 적절한 편이다.
- ④ 낮은 편이다.
- ⑤ 매우 낮은 편이다.

18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높이기 위해서는 수강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동의하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방과후 프로그램 평가 반영

19 근무하시는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만족도를 평가할 때 학생의 참여비율은 학년별로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평가 안함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미만	60% 이상
1학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학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학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학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학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학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방과후 프로그램  
평가 반영**

**20** 근무하시는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만족도를 평가할 때 보호자의 참여비율은 학년별로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평가 안함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미만	60% 이상
1학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학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학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학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학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학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1** 위 질문에 참여비율 '50% 미만' 이하에 응답한 선생님들만 답해 주세요. 학생과 보호자의 만족도 평가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학생과 보호자가 만족도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 ② 학교에서 만족도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서
- ③ 처음부터 제한된 학생과 보호자에게만 조사해서
- ④ 기타

21 학생과 보호자 대상으로 한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실제 방과후학교에 대한 평가”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반영한다.
- ② 잘 반영하는 편이다.
- ③ 잘 반영하지 못하는 편이다.
- ④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22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평가 결과를 해당 강사나 프로그램에 직접 반영하십니까? (직영 답변자에게만 보이게 설정)

- ① 반영한다
- ② 반영하지 않는다
- ③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2-1 강사에 대한 만족도 결과가 낮은 경우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항목에 중복 선택도 가능합니다.)

- ① 프로그램 진행 중에 강사에게 알려줘서 경각심을 준 경우가 있다.
- ② 프로그램 진행 중에 강사를 교체한 경우가 있다.
- ③ 프로그램 진행 중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환불한 경우가 있다.
- ④ 차기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시 강사를 교체한 경우가 있다.
- ⑤ 기타

23 방과후학교 강사 만족도 평가 결과를 업체를 통해 해당 강사나 프로그램에 직접 반영하십니까? (위탁 답변자에게만 보이게 설정)

- ① 반영한다
- ② 반영하지 않는다
- ③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3-1 강사에 대한 만족도 결과가 낮은 경우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항목에 중복 선택도 가능합니다.)  
(반영한다와 반영한 경우도 있다 응답자에게만 표시)

- ① 프로그램 진행 중에 강사에게 알려줘서 경각심을 준 경우가 있다.
- ② 프로그램 진행 중에 강사를 교체한 경우가 있다.
- ③ 프로그램 진행 중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환불한 경우가 있다.
- ④ 차기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시 강사를 교체한 경우가 있다.
- ⑤ 기타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취지

24 다음 각 개인 및 조직들이 현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잘 모르겠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	①	②	③	④	⑤
학교운영위원회	①	②	③	④	⑤
교장/교감	①	②	③	④	⑤
교육지원청	①	②	③	④	⑤
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 방과후학교 시설 활용과 마을연계

25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교육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6 “방과후학교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실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동의하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7 일반교실 사용과 관련한 전제조건 제시를 읽고 답해주세요. “담임교사들에게 별도의 연구실과 휴게실을 지원한다면 방과후학교에서 일반교실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동의하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8 일반교실 사용과 관련 추가 전제조건 제시를 읽고 답해주세요.  
“담임교사들에게 별도의 연구실과 휴게실을 지원하고, 교내시설  
과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 완전히 책임진다면 방과후  
학교에서 일반 교실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동의하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9 ‘마을 방과후학교’ 등과 같은 지역 연계 방과후학교 운영의 실효  
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① 매우 실효성이 있다.
- ② 실효성이 있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실효성이 없는 편이다.
- ⑤ 전혀 실효성이 없다.

## 학교 외부의 공적인 사업단을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30~32) 다음 설명을 자세히 읽고 답해 주십시오.

- 교육청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단(가칭)'이라는 공기업 또는 공적인 사업단을 만들고, 사업단에서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모델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 학교 외부의 공적인 사업단이 프로그램 수요조사, 프로그램 개설, 수강료 수납, 강사고용,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평가 등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방식입니다.
- 이 방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가 운영되는 동안 학교 시설과 학생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업단이 집니다.
- 이와 같이 방과후학교 사업단이 방과후학교 운영을 전담하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교사도 따로 배정하지 않습니다.

30 위의 제안과 같이 '방과후학교 운영사업단'에 의해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때 기대되는 다음의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잘 모르겠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학교와 교사의 방과후학교 운영 부담을 해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에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시설관리와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해결되면 현실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학교 강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체계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학교 강사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 위의 제안과 같이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단'이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시설과 학생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 ② 찬성하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반대하는 편이다.
- ⑤ 매우 반대한다.

32 위의 제안과 관련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간략히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정책  
연구에 대한 제언  
과 의견**

33 방과후학교 정책연구에 대한 제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서울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초등 방과후학교 일반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우리교육연구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위탁으로  
서울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의 개선과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이  
고 의미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경험과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 관내 모든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고견  
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익명으로 처리  
되고 교육청의 정책개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설문조  
사 예상 소요시간은 15분 정도입니다.

부디 귀한 시간을 내셔서 서울 초등 방과후학교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 우리교육연구소, 02-578-2377, educrit@gmail.com

---

## 인적사항

1 근무학교 소재지를 선택해주시요. (가나다 순)

(자치구 리스트)

2 근무학교의 설립유형을 선택해주시요.

① 국 · 공립

② 사립

3 성별을 표시해주시요.

① 여성

② 남성

4 총 교사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⑥ 25년 이상

5 현재 담임교사를 맡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취지

6 다음과 같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취지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아래 각 항목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잘 모르겠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학생의 다양한 재능과 특기 적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격차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학교의 돌봄 시간 확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7 근무하시는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우수하다.
- ② 우수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우수하지 못한 편이다.
- ⑤ 전혀 우수하지 못하다.

8 방과후학교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실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동의하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 일반교실 사용과 관련한 전제조건 제시를 읽고 답해주세요. “담임교사들에게 별도의 연구실과 휴게실을 지원한다면 방과후학교에서 일반교실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동의하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 일반교실 사용과 관련 추가 전제조건 제시를 읽고 답해주세요.  
“담임교사들에게 별도의 연구실과 휴게실을 지원하고, 교내시설  
과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 완전히 책임진다면 방과후  
학교에서 일반 교실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동의하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1 ‘마을 방과후학교’ 등과 같은 지역 연계 방과후학교 운영의 실효  
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① 매우 실효성이 있다.
- ② 실효성이 있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실효성이 없는 편이다.
- ⑤ 전혀 실효성이 없다.

## 학교 외부의 공적인 사업단을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12~14) 다음 설명을 자세히 읽고 답해 주십시오.

- 교육청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단(가칭)'(공기업 또는 공적인 사업단)을 만들고, 사업단에서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모델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 학교 외부의 공적인 사업단이 프로그램 수요조사, 프로그램 개설, 수강료 수납, 강사 고용,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평가 등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방식입니다.
- 이 방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가 운영되는 동안 학교 시설과 학생 안전에 모든 책임을 사업단이 지도록 합니다.
- 이와 같이 방과후학교 사업단이 방과후학교를 전담하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도 따로 배정하지 않습니다.

12 위의 제안과 같이 '방과후학교 운영사업단'에 의해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때 기대되는 다음의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잘 모르겠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학교와 교사의 방과후학교 운영 부담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에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시설관리와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해결되면 현실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학교 강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체계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학교 강사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13 위의 제안과 같이 ‘방과후학교 운영사업단’이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시설과 학생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 ② 찬성하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반대하는 편이다.
- ⑤ 매우 반대한다.

- 14 위의 제안과 관련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간략히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15 방과후학교 정책연구에 대한 제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서울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보호자용)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우리교육연구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위탁으로  
서울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의 개선과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이  
고 의미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님들  
의 경험과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 관내 모든 초등학교 보호자님들의 고  
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익명으로 처리  
되고 교육청의 정책개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설문조  
사 예상 소요시간은 25 ~ 30분 정도입니다.

부디 귀한 시간을 내셔서 서울 초등 방과후학교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 우리교육연구소, 02-578-2377, educrit@gmail.com

## 인적사항

- 1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소재지 (가나다 순)  
(자치구 리스트)

- 2 자녀의 학년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학년 학생만 체크해 주세요. 이하의 질문도 가장 높은 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 3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설립 유형은 무엇인가요?

- ① 국공립                      ② 사립

- 4 자녀의 가족 구성원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분은 어느 분입니까?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아버지, 어머니 모두 참여    ④ 부모가 아닌 다른 구성원  
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족구성원 없음

- 5 귀택의 월 평균 총 소득금액(세금공제 전)은 어느 정도입니까?

\* 총소득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 전소득(공적연금, 보조금 등)을 포함함 금액입니다.

- ① 200만 원 미만                      ②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③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④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⑤ 500만 원 이상 ~ 600만 원 미만    ⑥ 600만 원 이상 ~ 700만 원 미만  
⑦ 700만 원 이상 ~ 800만 원 미만    ⑧ 8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⑨ 9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⑩ 1000만 원 이상 ~ 1100만 원 미만  
⑪ 1100만 원 이상 ~ 1200만 원 미만    ⑫ 1200만 원 이상 ~ 1300만 원 미만  
⑬ 13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⑭ 1400만 원 이상

## 사교육 관련 질문

### 6 응답에 참여하시는 보호자님은 자녀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 ① 양쪽 모두 있는 부모      ② 한쪽 아버지      ③ 한쪽 어머니
- ④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⑤ 친척      ⑥ 기타

### 7 현재 자녀는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사교육이란 학원, 과외, 방문학습지 등과 태권도, 미술, 수영, 악기 등 예체능을 모두 포함합니다.

※ 일반교과는 국어(논술포함),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사교육을 말합니다.

- ① 일반교과 사교육만 받는다.
- ② 예체능 사교육만 받는다.
- ③ 일반교과와 예체능 사교육을 모두 받는다.
- ④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

〈일반교과 사교육, ①, ③ 응답자에게만 표시〉

※ 일반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사교육 참여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 7-1 일반 교과 관련 사교육에 참여하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여러 항목에 복수 응답 가능)

- ① 국어 (독서, 논술포함)
- ② 영어
- ③ 수학
- ④ 사회
- ⑤ 과학

7-2 일반 교과 관련 사교육에 지불하는 한 달 총 사교육 비용은 얼마입니까?

- ① 20만 원 미만                      ② 20만 원 이상 ~ 40만 원 미만
- ③ 40만 원 이상 ~ 60만 원 미만    ④ 60만 원 이상 ~ 80만 원 미만
- ⑤ 8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⑥ 100만 원 이상 ~ 120만 원 미만
- ⑦ 120만 원 이상 ~ 140만 원 미만   ⑧ 140만 원 이상 ~ 160만 원 미만
- ⑨ 160만 원 이상 ~ 180만 원 미만   ⑩ 180만 원 이상

7-3 일주일 중 자녀가 교과 관련 사교육에 며칠 참여합니까?

- ① 1일                      ② 2일                      ③ 3일
- ④ 4일                      ⑤ 5일                      ⑥ 6일 이상

7-4 자녀가 참여하는 교과 관련 사교육 종료시간은 몇 시입니까?  
(일주일 중 가장 늦은 시간 기준)

- ① 오후 6시 이전                      ② 오후 6 ~ 7시
- ③ 오후 7 ~ 8시                      ④ 오후 8 ~ 9시
- ⑤ 오후 9 ~ 10시                      ⑥ 오후 10시 이후

7-5 자녀에게 교과 사교육에 참여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항목에 복수 응답 가능)

- ① 선행학습을 위해서
- ② 학교 수업 보충을 위해서
- ③ 대부분 친구가 학원에 가는데 우리 자녀만 안 다니면 불안해서
- ④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학원에 가야 하니까
- ⑤ 학원에 가 있는 동안에는 자녀 돌봄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 ⑥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 ⑦ 대학진학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예체능 사교육 ②, ③ 응답자에게만 표시〉

※ 예체능 (특기, 적성, 취미활동 포함) 사교육 참여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7-1 예체능 사교육에 자녀가 참여하는 전체 과목 수는 몇 개입니까?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이상

7-2 예체능 사교육에 지불하는 한 달 총 사교육 비용은 얼마입니까?

- ① 20만 원 미만                      ② 20만 원 이상 ~ 40만 원 미만  
③ 40만 원 이상 ~ 60만 원 미만                      ④ 60만 원 이상 ~ 80만 원 미만  
⑤ 8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⑥ 100만 원 이상 ~ 120만 원 미만  
⑦ 120만 원 이상 ~ 140만 원 미만                      ⑧ 140만 원 이상 ~ 160만 원 미만  
⑨ 160만 원 이상 ~ 180만 원 미만                      ⑩ 180만 원 이상

7-3 일주일 중 자녀가 예체능 사교육에 며칠 참여합니까?

- ① 1일                      ② 2일                      ③ 3일  
④ 4일                      ⑤ 5일                      ⑥ 6일 이상

7-4 자녀가 참여하는 예체능 사교육 종료시간은 몇 시입니까?  
(일주일 중 가장 늦은 시간 기준)

- ① 오후 6시 이전                      ② 오후 6 ~ 7시  
③ 오후 7 ~ 8시                      ④ 오후 8 ~ 9시  
⑤ 오후 9 ~ 10시                      ⑥ 오후 10시 이후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취지

8 다음과 같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취지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아래 각 항목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잘 모르겠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자녀의 다양한 재능과 특기 적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격차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학교의 돌봄 시간 확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관련

9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0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방과후학교 강좌의 질적 수준은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방과후학교 강사의 수업역량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2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우수한 수준이다.
- ② 우수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우수하지 못한 편이다.
- ⑤ 매우 우수하지 못한 편이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현황

13 2023년 4월 현재 자녀의 방과후학교 강좌 참여 상황은 어떻습니까?

- ①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 ② 1개 과목에 참여하고 있다.
- ③ 2개 과목에 참여하고 있다.
- ④ 3개 과목에 참여하고 있다
- ⑤ 4개 이상 과목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는 경우 ②, ③, ④, ⑤ 응답자〉

13-1 자녀가 어떤 종류의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 항목에 복수 응답 가능)

- ① 영어
- ② 외국어 (영어 이외)
- ③ 수학 (창의 수학, 실력향상 수학, 주산, 암산 등)
- ④ 과학 (드론, 항공, 생명과학, 로봇, 실험, 건축, 코딩, 프라모델, 3D스팀펜 등)
- ⑤ 인문 사회 (역사탐구, 한자, 독서, 논술, 문화체험, 속독 등)
- ⑥ 취미 재능 (미술, 플라워, 요리, 연극, 무용, 아나운서, 스피치, 댄스 등)
- ⑦ 음악 (각종 악기, 음악 줄넘기, 합창, 뮤지컬, 보컬, 사물놀이 등)
- ⑧ 미술 (회화, 공예, 서예, 만화 등)
- ⑨ 스포츠 (구기 종목, 수영, 태권도, 바둑, 체스 보드게임, 요가 등)
- ⑩ 기타 ( )

13-2 분기별(약 3개월 기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지출하는 총비용은 얼마입니까?

- ① 무상으로 참여하고 있음
- ② 6만 원 미만
- ③ 6 ~ 8만 원 미만
- ④ 8 ~ 10만 원 미만
- ⑤ 10 ~ 12만 원 미만
- ⑥ 12 ~ 14만 원 미만
- ⑦ 14 ~ 16만 원 미만
- ⑧ 16 ~ 18만 원 미만
- ⑨ 18 ~ 20만 원 미만
- ⑩ 20만 원 이상

13-3 자녀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수는 일주일 중에 며칠입니까?

- ① 1일
- ② 2일
- ③ 3일
- ④ 4일
- ⑤ 5일 이상

13-4 자녀가 참여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가장 늦게 끝나는 프로그램의 종료 시간은 언제입니까? (일주일 중 가장 늦은 시간 기준으로 답변해주시오)

- ① 오후 4시 이전      ② 오후 5시 이전      ③ 오후 6시 이전
- ④ 오후 7시 이전      ⑤ 오후 8시 이후

13-5 방과후학교 종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면 희망하시는 방과후학교 종료 시간은 몇 시입니까?

- ① 오후 3시 이전      ② 오후 4시      ③ 오후 5시
- ④ 오후 6시      ⑤ 오후 7시      ⑥ 오후 8시
- ⑦ 오후 9시

13-6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수강료 수준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높은 편이다.
- ② 높은 편이다.
- ③ 적절한 편이다.
- ④ 낮은 편이다.
- ⑤ 매우 낮은 편이다.

13-7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 관련 강  
좌를 더 많이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동의하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 경우 - 12번 ① 응답자〉

13-1 자녀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 항목에 복수 응답 가능)

- ①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 ② 방과후학교 시간에 학원에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 ③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가 없어서
- ④ 방과후학교 강사와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서
- ⑤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⑥ 기타 다른 사정이 있어서

14 “수강료를 더 인상하더라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동의하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전제로 한다면 분기별 (약 3개월) 기준으로 1개 강좌당 어느 정도 비용까지 부담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① 3만 5천원 미만                      ② 3만 5천원 ~ 5만 원 미만
- ③ 5만 원 ~ 7만 원 미만              ④ 7만 원 ~ 9만 원 미만
- ⑤ 9만 원 ~ 11만 원 미만            ⑥ 11만 원 이상도 가능

16 자녀가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가 주말(토요일과 일요일)에 개설 된다면 수강하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7 ‘마을 방과후학교’ 등과 같은 지역 연계 방과후학교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실효성이 있다.
- ② 실효성이 있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실효성이 없는 편이다.
- ⑤ 전혀 실효성이 없다.

**학교 외부의  
공적인 사업단을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18~21 다음 설명을 자세히 읽고 답해 주십시오.

- 교육청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단(가칭)'(공기업 또는 공적인 사업단)을 만들고, 사업단에서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모델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 학교 외부의 공적인 사업단이 프로그램 수요조사, 프로그램 개설, 수강료 수납, 강사 고용,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평가 등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방식입니다.
- 이 방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가 운영되는 동안 학교 시설과 학생 안전에 모든 책임을 사업단이 지도록 합니다.
- 이와 같이 방과후학교 사업단이 방과후학교를 전담하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도 따로 배정하지 않습니다.

18 위의 제안과 같이 '방과후학교 운영사업단'에 의해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때 기대되는 다음의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잘 모르겠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학교와 교사의 방과후학교 운영 부담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에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시설관리와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해결되면 현실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학교 강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체계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학교 강사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19 위의 제안과 같이 ‘방과후학교 운영사업단’이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시설과 학생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 ② 찬성하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반대하는 편이다.
- ⑤ 매우 반대한다.

- 20 위의 제안과 관련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간략히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21 방과후학교 정책연구에 대한 제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돌봄교실  
관련 질문**

- 22 자녀의 돌봄 문제에 대해 느끼는 부담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크다
  - ② 큰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크지 않은 편이다.
  - ⑤ 거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 23 평일 중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 항목에 복수 응답 가능)
- ① 아침 등교 시간까지
  - ② 하교 이후 오후 5시까지
  - ③ 오후 6시까지
  - ④ 오후 7시까지
  - ⑤ 오후 8시까지
  - ⑥ 오후 8시 이후에도 필요함
- 24 자녀의 하교 이후 귀가하는 시간까지 어떤 방법으로 돌보고 계신가요? (여러 항목에 복수 응답 가능)
- ① 부모가 직접 돌봄
  - ② 조부모님이나 친인척이 돌봄
  - ③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서 돌봄
  - ④ 공공 돌봄기관을 이용함 (지역 아동센터 등)
  - ⑤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통해서 돌봄도 관리함
  - ⑥ 별도로 돌봄 지원을 못하고 있음
- 25 현재 학생이 학교에서 시행하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25-1 현재 이용 중인 초등돌봄교실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여러 항목에 복수 응답 가능)

- ① 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
- ②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③ 식사 또는 간식 제공
- ④ 보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 여건
- ⑤ 재미있는 프로그램 개발
- ⑥ 돌봄 상황에 대해 학부모와 즉각적인 소통 구조
- ⑦ 돌봄만을 위한 전용 시설 확대
- ⑧ 돌봄전담사의 질적 수준 관리

25-2 귀하의 자녀는 현재 몇시까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합니까?

- ① 아침 등교 시간까지
- ② 하교 이후 오후 2시까지
- ③ 오후 3시까지
- ④ 오후 4시까지
- ⑤ 오후 5시까지
- ⑥ 오후 6시까지
- ⑦ 오후 7시까지
- ⑧ 오후 8시까지
- ⑨ 오후 8시 이후

25-3 귀하의 자녀가 오후 5시 이전 귀가하는 경우,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 ② 오후 5시 이후 자체적으로 돌봄이 가능해서
- ③ 오후 5시 이후 별도의 돌봄 지원을 받기 때문에(조부모, 친인척, 베이비 시터 등)
- ④ 다른 돌봄기관을 이용해서
- ⑤ 오후 5시 이후에 함께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 ⑥ 기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25-1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항목에 복수 응답 가능)

- ① 초등돌봄교실 지원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 ② 가정에서 직접 돌보기 때문에
- ③ 학교운영 초등돌봄교실보다 사교육 기관에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 ④ 학교운영 초등돌봄교실의 프로그램 수준이 낮기 때문에
- ⑤ 학교에서 배정한 돌봄전담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 ⑥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주로 돌봄교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 ⑦ 식사·간식이 제공되지 않아서

- 26 보다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초등돌봄교실 운영방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 제안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주세요.

- 제안 내용 -

〈모든 학생을 위한 저녁 8시까지 돌봄 시스템 마련〉

- 학교 수업시간 종료 후 돌봄 참여 아동이 있는 모든 교실에 돌봄전담사 배치
- 매일 오후 8시까지 돌봄전담사가 담당 자녀의 돌봄 책임
- 돌봄전담사 책임하에 귀가 지도
- 매일 오후에 간식 제공

〈교육적 기능이 있고, 재미있는 돌봄〉

- 학생들은 돌봄교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원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강좌에 참여하고 돌봄전담사가 이를 관리함
- 돌봄교실에서는 함께 숙제하고, 놀고 쉬는 시간 운영
- 방학 중에도 방과후학교와 연계된 돌봄교실 운영
- 귀가 시간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
- 돌봄 상황에 대해 학부모와 지속적인 소통

위와 같이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고, 돌봄교실 대상이 모든 학생에게 개방된다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 27 매일 저녁 8시까지 돌봄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공적인 예산뿐만 아니라 보호자님도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경우〉

27-1 만일 위와 같은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면 1개월에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방과후학교 강좌 비용 제외)

- ① 8만 원 미만
- ② 8만 원 ~ 10만 원 미만
- ③ 10만 원 ~ 12만 원 미만
- ④ 12만 원 ~ 14만 원 미만
- ⑤ 14 ~ 16만 원 미만
- ⑥ 16만 원 ~ 18만 원 미만
- ⑦ 18만 원 이상도 가능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서울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강사용)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우리교육연구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위탁으로  
서울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과 발전을 위한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강사님들의 경험과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 관내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님들  
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익명으로 처  
리되고 교육청의 정책개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설문  
조사 예상 소요 시간은 20분 정도입니다.

부디 귀한 시간을 내셔서 서울 초등 방과후학교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 우리교육연구소, 02-578-2377, educrit@gmail.com

---

## 인적사항

- 1 현재 출강하는 학교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중복해서 표시하셔도 됩니다.)

(자치구 리스트)

- 2 성별을 표시해 주세요.

① 여성

② 남성

- 3 한국인 여부와 학교의 정규수업 참여 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

① 한국인 - 학교의 정규수업 교사로 참여하고 있음

② 한국인 - 학교의 정규수업 교사로 참여하고 있지 않음

③ 외국인 - 학교의 정규수업 교사로 참여하고 있음

④ 외국인 - 학교의 정규수업 교사로 참여하고 있지 않음

- 4 방과후학교 강사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2년 미만

② 2년 이상 5년 미만

③ 5년 이상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 5 현재 방과후학교 강사 이외에 다른 직업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취지

6 다음과 같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취지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아래 각 항목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잘 모르겠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학생의 다양한 재능과 특기 적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격차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학교에 의한 돌봄 시간 확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방식

7 방과후학교는 학교직영방식과 업체위탁방식으로 구분되고, 위탁 업체는 영리 위탁업체와 비영리 위탁업체로 구분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되셨습니까?

- ① 학교에서 직접 채용 (직영)
- ② 비영리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
- ③ 영리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
- ④ 직영과 위탁업체 모두 경험이 있음

8 선호하시는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방식은 무엇입니까?

- ① 학교를 통한 직접 고용 (직영)
- ② 비영리 위탁업체를 통한 고용
- ③ 영리 위탁업체를 통한 고용
- ④ 어느 경우든 상관없음

9 선택하신 채용 방식을 선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재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
- ② 내가 원하는 학교와 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
- ③ 학교 탐색에 들이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
- ④ 더 많은 학교와 계약할 수 있기 때문
- ⑤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
- ⑥ 기타

## 방과후학교 강좌

10 수업하시는 강좌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영어
- ② 외국어(영어 이외)
- ③ 수학(창의 수학, 실력향상 수학, 주산, 암산 등)
- ④ 과학(드론, 항공, 생명과학, 로봇, 실험, 건축, 코딩, 프라모델, 3D스팀펜 등)
- ⑤ 인문 사회(역사탐구, 한자, 독서, 논술, 문화체험, 속독 등)
- ⑥ 취미 재능(마술, 플라워, 요리, 연극, 무용, 아나운서, 스피치, 댄스 등)
- ⑦ 음악(각종 악기, 음악 줄넘기, 합창, 뮤지컬, 보컬, 사물놀이 등)
- ⑧ 미술(회화, 공예, 서예, 만화 등)
- ⑨ 스포츠(구기 종목, 수영, 태권도, 바둑, 체스 보드게임, 요가 등)
- ⑩ 기타 ( )

11 지도하시는 방과후학교 강좌의 “주당 수업 횟수”는 몇 회입니까?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12 지도하시는 방과후학교 강좌의 수업시간은 “매 수업당 몇 분”입니까? (예시. 목요일 오후 2시 ~ 4시 수업인 경우 120분으로 계산)

- ① 30분 이상 ~ 60분 미만      ② 60분 이상 ~ 90분 미만
- ③ 90분 이상 ~ 120분 미만    ④ 120분 이상

## 방과후학교 학생 수와 출강 시간

13 평일 기준 몇 시 정도가 방과후학교 종료 시간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① 오후 4시                      ② 오후 5시                      ③ 오후 6시  
④ 오후 7시                      ⑤ 오후 8시                      ⑥ 오후 9시

14 방과후학교 강좌당 적정한 학생 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강료나 강사료를 고려하지 않고 강좌의 교육적 효과만 고려했을 때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강좌의 적정한 학생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9명 미만                      ② 9명 이상 ~ 13명 미만  
③ 13명 이상 ~ 17명 미만      ④ 17명 이상 ~ 21명 미만  
⑤ 인원 상관 없음

15 현재 방과후학교 강사로 출강하는 날을 기준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강좌 수업을 하십니까?

- ① 1강좌                          ② 2강좌  
③ 3강좌                          ④ 4강좌 이상

16 방과후학교 강사로 원하는 만큼 출강할 수 있다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출강하시길 희망하십니까?

-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17 방과후학교 강사로 출강하는 날짜는 일주일에 며칠입니까?

- ① 1일                              ② 2일                              ③ 3일  
④ 4일                              ⑤ 5일 이상

18 방과후학교 강사로 원하는 만큼 출강할 수 있다면, 일주일에 며칠 정도 출강하시길 희망하십니까?

- ① 1일                      ② 2일                      ③ 3일  
④ 4일                      ⑤ 5일 이상

19 현재 주말에 방과후학교 강좌 수업을 하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9-1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방과후학교가 운영된다면 선생님께서는 강사로 출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의향이 없다.  
② 토요일에는 의향이 있다.  
③ 일요일에는 의향이 있다.  
④ 토요일, 일요일 모두 의향이 있다.

## 방과후학교 수강료

20 현재 지도하시는 방과후학교 강좌의 “분기별 학생 1인당 수강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 일반적으로 초등 방과후학교는 1년에 4분기로 진행됩니다. 1분기는 11주 ~ 12주 정도 주기입니다.
- 수강료는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보호자가 납입하는 강좌당 총액입니다.

- ① 4만원 미만                      ② 4만원 ~ 6만원 미만  
③ 6만원 ~ 8만원 미만                      ④ 8만원 ~ 10만원 미만  
⑤ 10만원 ~ 12만원 미만                      ⑥ 12만원 ~ 14만원 미만  
⑦ 14만원 ~ 16만원 미만                      ⑧ 16만원 ~ 18만원 미만  
⑨ 18만원 이상

21 생각하시는 “방과후학교 강좌의 분기별 학생 1인당 적정한 수강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① 4만원 미만         | ② 4만원 ~ 6만원 미만   |
| ③ 6만원 ~ 8만원 미만   | ④ 8만원 ~ 10만원 미만  |
| ⑤ 10만원 ~ 12만원 미만 | ⑥ 12만원 ~ 14만원 미만 |
| ⑦ 14만원 ~ 16만원 미만 | ⑧ 16만원 ~ 18만원 미만 |
| ⑨ 18만원 이상        |                  |

## 방과후학교 수입

22 방과후학교 강사로 근무하시면서 “실제로 수령했던 1강좌당 월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① 30만원 미만           | ②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
| ③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 ④ 5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
| ⑤ 6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 ⑥ 70만원 이상           |

23 “희망하시는 방과후학교 1강좌당 월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① 30만원 미만           | ②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
| ③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 ④ 5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
| ⑤ 6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 ⑥ 70만원 이상           |

24 방과후학교 강사로 근무하시면서 “실제로 수령했던 월평균 수입 총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장 최근 출강 기준)

- |                       |                       |
|-----------------------|-----------------------|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 ③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④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
| ⑤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⑥ 3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
| ⑦ 35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⑧ 400만원 이상            |

25 “희망하시는 월 평균 수입 총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 ③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④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
| ⑤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⑥ 3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
| ⑦ 35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⑧ 400만원 이상            |

**방과후학교 운영  
평가**

26 현재 출강하시는 학교(들)의 방과후학교 전반적인 운영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우수하다.
- ② 우수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우수하지 못한 편이다.
- ⑤ 전혀 우수하지 못하다.

27 본인의 수업역량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우수하다.
- ② 우수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우수하지 못한 편이다.
- ⑤ 전혀 우수하지 못하다.



28 강사역량이 발휘되기 위한 조건 중 다음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잘 모르겠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수업 질에 비례하는 적정 수준의 강사료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충분한 시설과 공간	①	②	③	④	⑤
강사를 위한 강사실, 휴게실 등 근무여건 지원	①	②	③	④	⑤
강사에 대한 학교와 보호자, 학생의 존중	①	②	③	④	⑤
학생과 보호자 만족도 평가 결과의 실질적 반영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 강사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학교  
시설활용과  
마을연계

29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교육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0 “방과후학교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실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동의하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1 ‘마을 방과후학교’ 등과 같은 지역 연계 방과후학교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실효성이 있다.
- ② 실효성이 있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실효성이 없는 편이다.
- ⑤ 전혀 실효성이 없다.

## 학교 외부의 공적인 사업단을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32~34 다음 설명을 자세히 읽고 답해 주십시오.

- 교육청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단(가칭) (공기업 또는 공적인 사업단)을 만들고, 사업단에서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모델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 학교 외부의 공적인 사업단이 프로그램 수요조사, 프로그램 개설, 수강료 수납, 강사 고용,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평가 등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방식입니다.
- 이 방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가 운영되는 동안 학교 시설과 학생 안전에 모든 책임을 사업단이 지도록 합니다.
- 이와 같이 방과후학교 사업단이 방과후학교를 전담하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도 따로 배정하지 않습니다.

- 32 위의 제안과 같이 ‘방과후학교 운영사업단’에 의해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때 기대되는 다음의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잘 모르겠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학교와 교사의 방과후학교 운영 부담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학교가 정규 교육 과정에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시설관리와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해결되면 현실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학교 강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체계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학교 강사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33 위의 제안과 같이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단’이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시설과 학생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 ② 찬성하는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반대하는 편이다.
- ⑤ 매우 반대한다.

- 
- 34 위의 제안과 관련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간략히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과후학교 정책  
연구에 대한  
제언과 의견**

- 35 방과후학교 정책연구에 대한 제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